제 1 장

동쪽도읍 서쪽으로 압록바다 접했으니
늙은 룡 위엄있게 큰 재주를 키웠으리
(리익의 악부시 《서압록의 노래》중에서)

(1)

고국천왕이 고구려 14대임금으로 등극한지도 어언 열두해라는 세월이 흐른 경오년(190년) 봄이였다.

이해에도 따스한 봄볕이 때맞추어 찾아드니 압록강을 낀 마을들에도 복숭아꽃, 살구꽃들이 만발하여 봄경치의 이채를 돋구고있었다.

그러기는 압록강의 남쪽에 자리잡은 서압록고을의 좌물촌(오늘의 평안북도 삭주군의 이전 좌리)도 마찬가지였다.

이 나라 조종의 산 백두산에 그 뿌리를 두고 서해로 흘러내리는 압록강에서 갈래를 친 아가위천 내가의 왼켠에 터를 잡았다고 하여 좌물촌이라 부르는 이 마을에 나이 예순을 넘긴 을파소가 살고있었다.

마을 한가녁에 있는 을파소네 집은 비록 초가집이기는 해도 꽤 큼직하고 집둘레에는 과일나무들이 숲을 이루고있었다.

한지붕아래서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다보니 대대로 물려오는 낡은 집에다 여러채의 새 집을 잇대여 짓고 그 둘레로 울타리삼아 복숭아, 오얏, 살구, 배 같은 과일나무들을 가득 심어 그대로 과원속의 집인듯싶었다.

뿐더러 집짐승우리도 큼직하게 지었는데 그안에 수십마리의 닭과

말 두필, 황소 한마리 그리고 십여마리의 양도 있다.

어데 가나 풀판이 펼쳐진 고구려에서는 예로부터 말과 소를 비롯한 짐승들과 함께 맛좋은 고기와 질좋은 털가죽을 주는 양들도 기르고있었으니 을파소 역시 양을 외면할리 없었다.

이 집의 구석구석마다에 잠시도 일손을 놓을줄 모르는 을파소의 깐진 손길이 가닿지 않은데란 없는것이다.

이 봄날 여느때 같으면 양과 소를 끌고 밭일을 나갔을 을파소가 오늘은 아침부터 가문의 모임을 벌려놓고있었다.

짬이 있을 때마다 두벌자식들의 손을 잡고 산책도 하고 옛이야기도 들려주던 집뜨락에 을씨가문의 사람들이 터져나갈듯 모여앉았는데 그들의 뒤에는 보기만 해도 소름을 끼치게 하는 형구까지 놓여있었다.

형구의 곁에는 억대우같은 두 사나이가 푸르딩딩해서 서있었다.

이들로 말하면 이 집에 매여사는 종들로서 을파소의 분부라면 불속에라도 뛰여들것이였다.

부자라고는 할수 없는 을파소가 종을 가질수 있은것은 그의 가문이 평민이 아니기때문이다.

을씨가문으로 말하면 한때 조정에서 재상을 한바 있는 조상까지 있는 오랜 귀족가문이라 이 집안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벼슬길에도 나설수 있고 탐욕을 부리면 큰 부자라도 될수가 있었다.

이런 귀족가문의 을파소가 농사나 짓는것은 가세가 기울어서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재주가 없어서는 더욱 아니다.

당초에 벼슬길에 뜻을 두지 않았던탓에 농사군이 된것이고 제힘으로 농사를 지어먹으려 하는탓에 부자가 될수 없은것이였다.

한눈에 집안사람들을 다 굽어볼수 있는 높은 자리에 을파소가 그들을 마주 향해 앉아있었다. 기름한 얼굴에 주름많은 넓은 이마, 짙은 눈섭, 둥그스름한 두눈, 보기 좋은 마늘코와 크지 않은 입, 꺼진 두볼…

어느모로 보아도 마음이 후하고 너그럽게 여겨지는 늙은이였다. 그

런데 지금 을파소는 몹시 격분해하고있는것이다.

그는 다시한번 자기를 쳐다보는 집안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8촌까지의 을씨가문 식솔로서 을파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없었다.

이윽고 을파소는 후렁후렁한 비단옷속에 묻혀있는 막내동생 을소구를 노려보았다.

그러던 을파소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을소구를 겨누었다.

어찌나 격했던지 미처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는 침을 모아 삼키고나서야 벽력같은 소리를 질렀다.

《너 일어서라.》

맨앞에서 널직한 자리를 차지하고 흠흠해있던 을소구가 시퍼런 불이 이글거리는 눈길로 자기를 노려보는 을파소앞에 덴겁하여 목을 움츠렸다.

그럼 이 자리가 다름아닌 나를 겨눈 마당이란 말인가. 그런데 무엇때문에?…

두눈을 부릅뜬 을파소가 자라목을 하고있는 을소구에게 재차 소리쳤다.

《어서 일어서지 못할가?》

뒤통수를 얻어맞은듯 정신이 아찔하여 가까스로 자리에서 일어선 을소구는 울상이 되여 을파소에게 말했다.

《맏형님, 대… 대체 무엇때문에 그… 그러시오이까?》

을파소는 영문을 몰라하는 막내동생을 무섭게 쏘아보며 소리쳤다.

《그걸 모른단 말이냐? 내 그만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렀지, 가난뱅이도 사람이니 너무 못살게 굴지 말라구. 그런데 너 어떻게 했어, 엉?》

새까맣게 질렸던 을소구가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혹시 부모나 다름없는 맏형에게 불효하게 군걸 따지려드는가 해서 마음이 한줌만했던 을소구였다.

을소구에게 있어서 을파소는 맏형이기 전에 친부모와도 같은 존

재였다.

을파소의 부모는 늙마에 본 을소구를 맏아들에게 맡기고 돌아갔다.

하여 을파소는 젖먹이막내동생을 애지중지 키웠다.

제 자식보다도 막내동생을 더 업어주었고 농사일을 하여도 그만은 손에 흙을 묻히지 않게 하였다.

막내동생이 장가들 때에는 그동안 저축해두었던 돈과 재물을 몽땅 기울여 이웃마을에다 기와집도 지어주고 땅도 몇마지기 장만해 주었다.

그렇게 정들이고 품들여 키운 막내동생이 어데서 배웠는지 갖은 협잡과 롱간질로 부자가 되였다.

부자가 된 을소구는 자기를 키워온 맏형의 은혜를 말로나 뇌이였지 언제 한번 보답한적 없었다.

지어는 가문의 사당에 제를 드릴 때에조차 제물을 변변히 바쳐본 일이 없었다.

제것이라면 설사 자기를 길러준 맏형에게조차 꿍져두고 도리를 지키지 않는 고약한 을소구인것이다.

맏형이 노한것이 불효죄때문이 아닌것을 안 을소구는 속으로 코웃음쳤다.

부자치고 가난뱅이들의 피땀으로 배를 불리지 않는 사람이 어데 있단 말인가.

그래서 수시로 찾아와 가난한 농군들의 피땀으로 제 몸을 어지럽히지 말라고 타이르는 을파소의 훈시를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보낸 을소구였다.

별일 다 보겠다는듯 흠흠해서 서있는 을소구의 태도에 격분한 을파소는 두주먹을 틀어쥐였다.

저놈의 속통은 어떻게 생겨먹었기에 이 형의 말을 귀등으로만 듣는것일가?…

돌이켜보면 부모가 착하더라도 그 자식들의 본성은 다 착한것 같지 않았다.

을씨가문이 힘을 합쳐 마련해준 밭에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친척들에게 꾸어주고는 반드시 리자까지 받아내는 놈이니 남에게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을파소는 틀어쥔 주먹을 떨며 부르짖었다.

《너 이놈, 어쩌면 그리도 인정이 꼬물만치도 없단 말이냐. 날로 악착스럽게 남의 재물을 빼앗다 못해 남의 목숨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ㅡ 어쩌면 네놈은 악한 심보만 타고난거냐?》

격한 나머지 을파소는 굵은일로 북두갈구리같이 된 손으로 자기의 가슴을 쾅쾅 두들겼다.

볕에 타서 새까매진 주름많은 얼굴로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사실 을파소는 사람은 원래 악한 심보를 타고난다는 일부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었다.

그렇다고 악한 심보 절반에 착한 마음 절반을 타고난다는 말도 믿지 않았다.

오로지 사람은 어머니배속에서 착한 마음만을 지니고 나온다는 말을 진리로 믿어왔다.

그러나 막내동생을 놓고는 사람이 원래 악한 심보를 타고나온다는 그 말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막내동생이 악독한 심보만을 빼물고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악행만을 일삼겠는가.

을씨집사람들은 무섭게 분노한 을파소를 두려운 눈길로 쳐다보며 숨을 죽이였다.

지금껏 을파소는 당장 무슨 일을 칠듯 이처럼 무섭게 분노한적이 없었다.

집안사람들뿐아니라 동네사람들도 을파소라고 하면 부드럽고 온후한 늙은이로 알고있었다.

어려서부터 많은 글을 배워 모르는것이 없는 식자이고 덕행 또한 높기로 고을에 소문난 을파소였던것이다.

너무도 분해서 치를 떨던 을파소가 입술을 비죽 내밀고 선 을소

구에게 또다시 손가락을 겨누었다.

《아직도 요즘 네가 저지른 죄행을 토설하지 못할테냐, 엉?》

을파소의 큰소리에 을소구는 속이 몹시 뒤틀렸으나 자기를 길러준 맏형이라 차마 대들지는 못하고 씩씩거렸다.

한번 크게 숨을 들이키여 격분을 좀 가라앉힌 을파소는 절절하게 말했다.

《내 너에게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주었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악한것을 누르며 착한것을 두드러지게 하라는 말을 열에 한번만이라도 새겨들었더라면 네 어찌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르렀겠느냐?》

사실이 그러했다.

을파소는 날마다 들려오는 소문이 좋지 않은 을소구때문에 집에 대사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다니며 악한짓을 멀리하고 착하게 살라고 일러도 주고 꾸짖기도 하면서 속개나 태웠다.

하지만 을소구는 하나도 달라진것이 없었다.

가책을 도무지 느낄줄 모르는 을소구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다시금 분이 치밀어오른 을파소는 두눈을 치떴다.

《너 이번에도 여러 집들에서 집짐승들과 땅까지 빼앗았다며?》

을소구는 뻣뻣해서 대꾸했다.

《빼앗은게 아니라 돈을 주고 샀소이다.》

《샀다구? 에끼, 이 덜된 녀석. 내 그만큼 일렀지, 밥술이나 먹으면 됐지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지 않게 하라구. 그런데도 네놈은 탐욕을 부려 가난한 농군들에게 빚을 지우고 빚값으로 땅을 빼앗고… 그래 그짓이 나라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냐?》

을소구는 도리여 얼굴이 시퍼래가지고 을파소를 마깝지 않은 눈길로 마주 바라보았다.

그 꼴에 을파소는 버럭 소리를 쳤다.

《이놈아, 너 같은 놈때문에 민심이 나빠지고있단 말이다, 민심이…》

을파소는 어느 한시도 모든 일을 나라와 결부시켜 생각해보지 않은적 없었다.

을소구가 볼부은 소리를 질렀다.

《난 땅을 사들일 때마다 반드시 관가의 허락을 받고 했소이다. 그런데도 형님은 내가 국법을 어기고 민심을 어지럽힌다고 하니 너무하오이다.》

조금도 가책을 느낄줄 모르는 을소구의 태도에 을파소는 주먹을 내흔들었다.

《뭐가 어째?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도 농군들이 땀흘려 지은 낟알을 박박 긁어가다 못해 남의 땅까지 빼앗고도 뭐 할 소리가 있어? 그건 그렇고, 너 검은산너머의 온정(온천)을 네 차지로 만들었다는데 그것도 사실이렷다?》

을소구는 뾰족한 턱을 어루만지며 대꾸했다.

《그렇소이다. 그것도 관가의 허락을 받았소이다.》

그 말을 듣느니 처음인 집안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며 술렁거렸다.

온정을 샀다는건 무슨 말인가. 땅속에서 저절로 뜨거운 물이 솟구쳐오르는 온정에서는 예로부터 주인이 따로없이 누구나 목욕을 하며 병을 고쳐왔는데 그것을 사들이다니 웬 말인가?

을파소는 소태를 씹은듯 쓰거워진 입을 다시며 말했다.

《네놈이 온정을 독차지하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려 한다는데 그게 사실이렷다?》

을소구의 대답은 뻔뻔스럽기 짝이 없었다.

《세상에 주인없는것이 어데 있겠소이까. 관가에 큰돈을 내고 산 온정이니 그게 이젠 내것임은 정해진 리치가 아니겠소이까.》

그 대답질에 사람들은 아연해서 서로 쳐다볼뿐이였다.

한참만에 을파소의 손아래동생인 을수지가 막내동생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이놈아, 그럴것없이 온 고을의 우물이랑 개울까지도 다 사들여라. 그럼 더 큰 돈낟가리우에 올라앉을게 아니냐.》

아낙네들도 소리쳤다.

《길도 하늘까지도 다 사가지라요, 다!》

을소구는 아낙네들을 쏘아보며 씩씩거렸다.

을파소는 을소구에게 당장 매를 안기고싶었다.

불같이 황황 타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을파소는 말했다.

《하나 더 묻겠다. 네가 죽자살자하는 젊은 남녀를 한날한시에 죽게 하였다는데 그것도 사실이겠다?》

을소구의 목대에서 왕지렁이 같은것이 꿈틀거렸다.

《거렁뱅이들이 내돌리는 소리는 하나같이 입삐뚤어진 요설이라 곧이들어선 안되오이다.》

을파소는 을소구에게 소리쳤다.

《똑똑히 까밝혀라.》

《까밝히라면 못할줄 아오이까?》

을소구는 목을 좌우로 비틀며 씩씩거렸다.

《올해 들어와 몸이 불편해진 안사람이 손발이 빨랑빨랑한 젊은 부엌데기를 쓰겠다기에 젊은 계집을 한명 데려왔소이다. 그런데 내 심부름군녀석이 그 계집의 몸을 다쳐놓을줄이야 어찌 알았겠소이까. 몸을 망친 계집은 수치를 참을수 없어 물에 빠져죽었소이다. 그 계집이 죽으니 그와 죽자살자 정분이 났던 총각녀석이 달려와 내 심부름군녀석을 죽도록 두들겨팼소이다. 그리고는 계집이 빠져죽은 바로 그 물에 그녀석도 빠져죽었소이다.》

너무도 격분해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을파소가 부르짖었다.

《이랬든저랬든 그애들이 죽은건 다 네놈때문이 아니냐. 네놈이 도리를 아는 사람이였다면 네 심부름군놈이 그런 짐승같은짓을 저질렀겠느냐?》

을소구는 악이 나서 맞대들었다.

《보아하니 날 잡아죽이자고 그러는것 같은데 그래 날 잡아죽인다고 해서 형님이 리득볼게 뭐가 있소이까. 참말 답답하오이다.》

그러더니 을파소에게 삿대질을 하며 목청을 돋구었다.

《세상리치에 통달했다는 형님이 왜 이 모양이오이까? 지금 이 시각에도 조정의 권세를 쥔 어비류나 좌가려 같은 대신들은 남의 땅과 재물을 크게 빼앗고 사람들도 마구 죽이고있다 하오이다.

그렇지만 나라님은 그들을 충신이라 여겨 소중히 쓰고있지 않소이까. 그들은 기와를 얹은 요란한 큰집에서 살고있는데 도읍엔 그런 부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오이다. 그런 큰 부자들은 내놓고도 도처에 숱한 작인들을 부리면서 많은 말과 소, 양 그리고 수십명의 노비를 둔 부자들은 얼마든지 있소이다. 그들은 떡과 고기붙이조차 맛이 없다 하고있소이다.

그러나 우리 가문은 어떠하오이까. 임금님의 총애를 받은 이름난 재상까지 나온 당당한 귀족가문인 우리 집안이 말이오이다?

을씨가문에서 맏형님에게 재산으로 물려준것은 기껏 열댓마지기의 땅과 두어필의 소와 말, 십여마리의 양에 형님이 전장으로 나가서 상으로 받아온 두명의 종이 전부가 아니오이까. 그래서 자식들에게 나누어줄 재산이 부족하여 하는수없이 그 많은 식솔이 한추녀아래에 오구구 모여살수밖에 없었소이다.

맏형님처럼 벼슬을 등지고 제 육신이나 놀려서 살다가는 아무리 귀족가문일지라도 시골부자들한테까지 짓밟히지 않나 두고보시오이다.》

을파소는 기가 막혀 숨조차 바로 쉴수 없었다.

사실 막내동생이 지은 죄를 권세를 부리는 관리들에게 비기면 새발의 피라고 할수 있었다.

지금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고있는것은 조정이 썩고 병든탓이였다.

물고기는 대가리부터 썩는다고 고을들에서 관리들의 악행이 날로 심해지고있는것은 전적으로 탐학무도한 조정대신들때문이라고 할수 있었다.

요즘 들려오는 소문은 보다 좋지 않았다. 조정을 쥐락펴락하는 어비류와 좌가려네 패거리의 악행을 본받아 도처에서 권세를 쥔 관리들과 그 심복부하들이 남의것을 닥치는대로 빼앗고 이에 불응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형틀에 앉힌다는것이다.

그것이 이제 와서는 이 나라 관리들과 부자들의 풍조로 되여버린 듯싶었다.

도읍에만도 남의것을 빼앗아 놀고먹고 사는 부자가 무려 만명을 넘고 그때문에 부자들에게 매인 작인들이 가져다 바치는 쌀과 재물을 실은 짐수레들이 날마다 거리를 누비고있으니 국력이 어찌 강화될수 있단 말인가.

옛적에는 동명성왕을 도운 개국공신일지라도 국법을 어기고 남의 재물과 남의 사람을 빼앗으면 파직시켰다는데 오늘은 왜 이 모양일가. 이래가지고서는 나라를 유지할수 없다는것을 임금도 모를수 없겠는데…

을소구를 쏘아보며 을파소는 생각했다.

저놈에게 어떤 벌을 주어야 그 몹쓸 버릇이 뚝 떨어질가.

잠시 동안이 흐르니 격했던 감정이 한결 누그러드는상싶었다.

(2)

이윽고 을파소는 나직이 말했다.

《막내야, 너도 우리 가문의 가훈이 무엇인지 잘 알게다.》

가훈이란 한집안에서 자식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대대로 전해오는 훈계를 이르는 말이다.

《우리 가문에는 대대로 전해오는 가훈이 있다. 〈나라를 위하려면 탐욕부터 없애야 한다.〉, 바로 이것이다. 이 가훈은 우리 가문의 한 조상께서 자손들에게 남기신 가훈이다. 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을파소는 지금이야말로 집안의 가훈으로 온 식솔을 다시한번 각성시킬수 있는 시기적절한 때라고 생각하였다.

을파소에게는 고구려 7대임금인 류리명왕때 조정대신을 한 을소라

는 조상이 있었다.

남달리 학식도 견문도 넓고 덕행도 높으며 청렴결백하기로 소문난 을소는 그때문에 류리명왕의 부름을 받고 조정에 나가 고구려의 국력을 다지는데 기여를 하였다.

국력을 떨치는 바른 정사에 심신을 다 바친 그가 늙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 가지고 온것이란 타고 다니던 말 한필에 입고있는 옷이 전부였다.

집에 돌아온 을소는 돌아갈 때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자손들에게 《나라를 위하려면 탐욕부터 없애야 한다.》라는 부탁을 남기였다.

이 말이 곧 을씨가문의 가훈으로 되였던것이다.

그때부터 을씨가문의 사람들은 어데 가 살든 집에 조상이 남긴 그 부탁을 글로 써붙이고 재물과 권세를 탐내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 애써왔다.

을소구는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목청을 돋구었다.

《난 가문의 그 가훈에도 의견이 있소이다. 난 오늘날 그게 정녕 옳은것인지 판단을 바로해야 한다고 생각하오이다. 내 말을 막지 말고 들어주소이다.

다 아다싶이 우리 가문이 이 고장에 온지도 벌써 몇대째 등뼈가 휘도록 농사를 짓고있지만 부유해지기는커녕 밥술마저 넉넉히 뜨지 못하오이다. 농사에 밝은 맏형님네는 그래도 좀 나은편이오이다. 4촌, 6촌들속에는 봄에 벌써 농량이 떨어지는 집이 허다하오이다. 그보다 참을수 없는건 우리 가문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난한탓에 부자들과 관속들에게 업수임을 당하고있는것이오이다.》

그 말에 을파소의 마음도 좋지 않았다.

을씨가문에서 을소구를 내놓고 밥술이나 뜨는 집은 을파소네뿐이였다.

살림이 어렵다보니 가난하면 그러하듯 관가나 부자들의 수모를 면할수 없고 잡다한 빚독촉에 욕을 보는 집들이 허다했다.

권세와 재물이 없으면 그게 곧 죄인이라 수모를 받는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을소구가 침방울을 튕기며 열변을 토했다.

《재상까지 나온 우리 가문이 왜 이 꼴로 되였소이까. 그게 뉘탓이오이까? 난 우리 집사람들이 부실하다거나 게으르기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다면 이다지도 밸이 나지 않겠소이다. 우리보다 잘났다거나 아는것도 없고 이웃에게조차 좋은 일을 해본적 없는것들이 재물덕으로 한자리씩 차지하고 가난뱅이들을 짓밟고있단 말이오이다. 그러니 우리 집안도 무슨 수를 써서 부자도 되고 권세도 잡아야 하지 않겠소이까.》

그 말에 을파소는 한숨을 내뿜었다.

어이하여 세상은 저놈의 말대로 이 꼴이 되였을가.

개국공신의 후손일지라도 재물과 권세가 없으면 부자들에게 괄세를 당해야 하는게 요즘의 세상이다.

권세가 없으면서도 을파소가 밥술이나 뜰수 있은것은 남달리 뛰여나고 사람들속에 신망도 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을파소만 쓰러지면 그의 자식들도 부자들에게 짓밟힐것은 정해진 리치였다.

을소구는 한숨을 내뿜는 을파소에게 눈을 흘기며 부르짖었다.

《맏형님이 벼슬길에 나서지 않은것은 큰 잘못이였소이다. 부모님이 맏형님만은 졸본의 이름난 경당에까지 보내여 문무를 닦게 하였는데 그런데도 맏형님은 굳이 농사군이 되고말았소이다. 그래 이것이 바른 처사라 할수 있소이까?》

을파소는 할 말이 없었다.

을파소가 귀족가문임에도 불구하고 벼슬길에 나서지 않은것은 벼슬길에 뜻을 두지 않았기때문이였다.

경당을 나온 애젊은 시절 을파소는 태조대왕을 밀어내고 임금이 되여 가혹한 정사를 일삼던 차대왕에 대한 환멸로 벼슬길에 등을 돌려대였다.

그 다음 차대왕을 몰아낸 명림답부가 신대왕을 받들어세운 그때에

는 나라의 정사가 바로잡혔는데 나 같은게 무슨 도움을 주랴 하는 생각으로 벼슬에 마음을 두지 않았었다.

그러나 명림답부가 돌아가고 정사가 또다시 어지러워지자 이번에는 생각이 달라졌다.

당초에 경당에 다니며 문무를 애써 배웠던것이 무엇때문이였던가.

그것은 문무를 닦아가지고 국력을 떨치는데 기여하고싶어서가 아니였던가.

그런데 나라의 정사가 저렇다고 등을 돌려대고 이렇다고 외면했으니 그게 무슨 남아대장부라 하겠는가.

그래서 뒤늦게나마 벼슬에 마음을 두고보니 이게 무슨 꼴인가.

이미 심신이 쇠진해버린 늙은 몸이였다.

한번 지나간 젊음은 다시 되찾을수 없기에 황혼기에 이른 을파소는 후회가 막심하였다.

진작 벼슬길에 나섰더라면 지금쯤은 조정에서 한몫할수도 있었겠는데…

후회와 더불어 요즘 시국형편에 눈과 귀를 밝히며 나라일에 근심하고있는 을파소였다.

《나라를 위하려면 탐욕부터 없애야 한다는 말은 벼슬길에 나선 사람에게는 맞겠는지 모르겠지만… 벼슬길에 나선 경우 국록이면 그럭저럭 밥술을 뜰것이 아니겠소이까. 까놓고 말해서 사람은 누구나 잘먹고 잘입고 잘살려 하오이다. 그래 사람이 잘살려 하는게 잘못이오이까?》

을소구의 말에 을파소는 눈길을 떨구었다.

사실로 말해서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고 사람이 잘살려 하는건 죄가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잘사는가 하는것이 문제이다. 제 뼈심을 들여 일한 덕으로 잘산다면 누가 그런 사람을 탓하겠는가.

제힘을 바쳐 일하지 않으면서도 권세를 휘두르고 권모술수로써 남의 재물을 빼앗아 호의호식하는자들은 세상의 원망을 사게 된다.

바로 그런자들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나는것이고 인심도 어지러워지는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자들을 가리켜 진짜도적이라고 하는것이다.

탐욕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재물을 탐내는 욕심만이 아니라 남의것을 빼앗아 저만 잘살려고 하는 천하의 못된 심보이다.

그 더러운 탐욕이 도적을 낳는것이기에 천하가 소란스러워지는것이며 그때문에 내란도 일어나는것이다.

그래서 탐욕을 버리라고 조상께서 그런 가훈을 내놓은것이리라.

을파소의 마음을 알리 없는 을소구는 계속 목청을 돋구었다.

《어이하여 맏형님은 부자가 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다는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소이까. 맏형님은 그래 어리석은 가훈이란걸 붙안고 온 집안을 부자들의 종으로 내맡기자는것이 아니오이까?

더 늦기 전에 맏형님은 옳은 결심을 내려야 하오이다. 어리석은 가훈을 뜯어고치지 않다가는 우리 가문이 망할수 있소이다.》

을파소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태여났다가 빈손으로 죽기마련이다.

결국 사람은 재물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하여 태여나는것이 아니라 태를 묻은 땅을 살기 좋은 땅으로 가꾸기 위해 태여나는것이 아니랴.

을파소의 속마음을 알리 없는 을소구가 기세를 올리며 뇌까려댔다.

《난 지금 당장 우리 가문의 가훈을 〈남에게 짓밟히지 않으려거든 권세와 재물을 따르라.〉라는 말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오이다.

가난한자는 부자에게 먹히우는것이 세상리치이니 꼭 이렇게 해야 하오이다.》

을파소는 너무도 억이 막혀 을소구를 지켜보기만 하였다.

저놈의 눈은 어떻게 생겨먹었기에 세상을 먹고먹히우는것으로만 보는것일가.

을소구의 입에서는 게거품이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사실 내가 기를 쓰고 부자가 된것은 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였소이다. 재물만 있으면 하치않은 놈도 큰어른이 될수 있는 세상에서 난 크게 일어나 조정대신의 벼슬을 사자는것이오이다. 내가 조정대신이 되면 어렵게 사는 우리 집안사람들이 그날로 잘살게 될것이오이다.》

그 순간 을파소는 새로운것이 깨달아졌다.

너를 살려두기에는 너무 늦었어. 본래부터 마음보가 삐뚤어진 네놈에게는 안타깝게 일러주는것이 소용없다는걸 내 너무도 몰랐구나. 진작 가시나무로 매를 치고 또 치였더라도 네놈은 사람질을 할수 없었어.

가난한 사람들이 더는 네놈때문에 해를 입지 않게 하려면 가문의 수치일지라도 죽여야 한다. 용단을 내린 을파소가 소리쳤다.

《닥쳐라. 그래도 난 네가 지은 죄를 반성하도록 매나 몇대 치려고 했다만 이제 보니 널 살려두어서는 안되겠다.》

얼굴이 새파래진 을소구가 악의에 차서 씨벌였다.

《그러니 날 죽이겠다 그거요? 어림도 없소이다. 나에게는 가법을 물리칠 힘이 있소이다, 힘이!》

격노한 을파소는 형구곁에 서있는 종들을 가리켰다.

《너희들 듣거라. 악독한 저놈을 묶어다 목을 쳐라.》

종들이 달려와 악담을 퍼붓는 을소구를 결박하여 형틀로 끌고 갔다.

을파소의 맏아들이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아버님, 고정하시오이다. 아버님은 돌아가신 어머님의 유언을 잊으면 안되오이다.》

을파소는 혀를 꽉 깨물었다.

어찌 눈에 흙이 들어간다고 어진 안해의 당부를 잊을수 있단 말인가.

10여년전 오랜 병으로 쓰러진 안해는 운명직전에 을파소의 손을 잡고 막내동생을 잘 돌봐주라는 부탁을 남기였다.

어진 안해에게 있어서 자기의 젖을 먹여키운 을소구는 친아들과도

같은 존재였던것이다.

안해의 유언을 지켜줄수만 있다면…

을파소는 형틀에 묶여있는 을소구를 노려보며 잠시 생각했다.

오늘뿐아니라 단군성왕시기의 법으로 비추어보아도 저놈은 죽어 마땅하다.

그때의 법에 어떻게 되여있더라. 살인자는 즉시 목을 치며 사람을 상하게 한자는 많은 곡식으로 배상시키며 남의 재물을 훔친자는 그 사람의 종으로 만들거나 막대한 돈을 물어야 한다고 되여있지 않는가.

오늘의 법에도 사람을 죽이고 겁탈한자는 참형에 처하라고 하였으니…

이미 내린 령을 절대로 되돌릴수 없노라 속으로 부르짖은 을파소는 소리쳤다.

《탐욕스러운자는 재물로 하여 죽고 권세를 뽐내는자는 권세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하였다. 탐욕스러운 신하가 또 탐욕을 말리려드는 임금에게 반드시 반기를 든다는것은 아낙네들도 아는것이다.

너 같은 놈이 조정대신이 된다면 역적이 되여 우로는 임금을 욕되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해칠것이다.

내 방금 깨달은것이 있다. 그것은 너같이 탐학무도한 놈은 반드시 가문의 법도와 조상을 짓밟고 반역질을 한다는것이다. 그러니 집안의 화근, 나라의 화근을 어찌 살려둘수 있단 말이냐. 목을 쳐라.》

을파소가 아무리 노했기로서니 설마 친자식과도 같은 동생의 목을 치기야 하랴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자리를 차고 일어섰을 때에는 이미 그의 분부가 실행된 뒤였다.

형틀에는 목이 떨어진 시체만이 묶여있었다.

무섭게 두눈을 치뜬 을파소는 웅성대는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다들 듣거라. 조상들이 정해놓은 가문의 법에는 나라에 불충하고 집안에 화를 끌어들이는자는 죽이라고 하였다.

오늘 나는 가문의 법대로 장차 나라와 집안에 원쑤가 될 놈의 목

을 쳤다. 앞으로도 그가 누구든 저놈처럼 나라에 불충하고 가문에 불효한자가 또 나오면 서슴없이 목을 치겠으니 그리 알라.》

(3)

그날 밤 을파소는 뼈속까지 파고드는 피로움에 도무지 잠들수 없었다.

눈앞에서는 친자식처럼 기른 막내동생의 목을 치던 광경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그를 죽인 후회와 그런 놈은 열두번 죽여야 한다는 욕설이 혼탕되여 끝없는 피로움을 일으켰다.

생각이 복잡해질수록 의문스러워지는것은 식솔은 말할것도 없고 종한테도 매를 들어보지 않은 자신이 어떻게 되여 사람을, 그것도 제 동생을 죽일수 있었겠는가 하는 그것이였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끔찍한 일을 해낼수 있단 말인가.

을파소는 곧 머리를 저었다.

가문을 옳은 길로 이끌어나가려면 그런 놈을 죽여야 한다. 일벌백계라고 악독한 놈을 죽여 다시는 그런 놈이 나오지 않게 하는것이 옳은 처사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다 제스스로의 위안뿐이고 지난날 강보에 싸여있던 막내동생을 기르던 눈물겨운 모습이 자꾸만 새록새록 떠올라 가슴이 무너져내리는것 같았다.

을파소가 잠 못 드는 이밤 또 한사람이 나라에 대한 근심으로 잠에 들지 못하고있었으니 그는 고구려의 임금 고남무였다.

고남무는 동명성왕의 9대손으로서 후날의 왕호는 고국천왕이다.

무수한 별들도 구름을 깔고누워 조는 이밤 임금이 머무르고있는 곳은 나라의 모든 관청들이 집중되여있는 국내성에서 서북으로 십리채 못미친 산중의 위나암성에 있는 행궁이였다.

고구려의 도읍은 위나암성에서 국내성에 이르는 그 두개의 성을 둘러싸고 십만여호의 민가가 즐비한 큰 도회였다.

임금이 국내성의 왕궁에서 이곳으로 거처를 옮겨온것은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바로 국내성을 떠나오지 않으면 안되는 그때문에 임금이 이밤 잠못 드는것이였다.

침상머리에 걸터앉은 그는 안석마냥 몸을 기대고있는 퇴침에로 손을 가져갔다.

향나무널로 멋있게 만든 퇴침의 서랍에는 며칠전 셋째동생 연우가 보낸 밀서가 들어있었다.

임금은 네 형제인데 임금이 맏이고 발기가 둘째, 연우가 셋째, 계수가 넷째이다.

그들중 제일 마음이 통하는 동생은 연우였다.

연우가 보낸 밀서를 집어든 임금의 숱진 눈섭이 꿈틀거렸다.

요즘 연나부의 움직임이 대단히 심상치 않으니 임금이 호위에 보다 유리한 위나암성으로 옮겨야 한다는 밀서였다.

연우의 밀서도 그렇고 이전부터 그런 생각도 있었기에 어제 위나암성으로 거처를 옮겨온것이였다.

임금은 선왕때부터 세력이 비대해진 연나부를 은근히 꺼려왔다.

임금과 맞설만큼 세력이 커진 그들이 조정을 틀어쥐고 저희들의 리속을 챙기려고 못하는짓이 없었다.

나라의 모든 재부를 제 집으로 끌어들이지 못해 몸살을 앓는 그들이 보다 더 세력을 기른다면 사직까지도 기울게 할수 있었다.

밀서를 퇴침속에 넣은 임금은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위험을 느끼며 큰 주먹을 무릎에 올려놓았다.

정말 이 주먹으로 그네들을 쳐눕혀야 한단 말인가. 주먹으로 내리치지 않고서도 평정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임금은 못되게 노는 연나부를 견제해오고있었다.

태자시절에는 어느때건 그들이 반기를 들수 있다는것을 내다보고

절대로 속을 주지 않았으며 임금이 되여서는 내놓고 그들을 따돌렸다.

대표적인 실례가 왕후를 연나부가 아닌 다른 부에서 택한것이였다.

대를 이어가면서 임금과 혼인을 함으로써 큰 세력을 떨치고싶어하는 연나부의 상층귀족들인 대가들은 그가 여러명의 비들가운데서 왕후를 봉하려고 하자 저마다 연나부의 비를 맞아들이라고 귀찮게 굴어댔다.

그때 임금은 그들의 청을 단호히 거절하고 연나부 다음으로 세력이 큰 제나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 우소의 딸을 왕후로 봉하였다.

그러나 그 조치도 연나부의 전횡을 막아내는데는 별로 도움이 못되였다.

연나부는 여전히 부왕만이 아닌 임금의 외켠이 저희들속에 있다는 바로 그것을 턱대고 마구 전횡을 부리였다.

임금의 처켠인 제나부에다 관나부, 환나부 지어 왕족지역인 파루부까지 힘을 합쳐도 조정을 장악한 연나부의 세력을 누를수 없었다.

《언제부터 그네들이 날뛰였더라…》 하고 뇌이며 임금은 명림답부를 그려보았다.

연나부가 조정을 장악할수 있은것은 그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었다.

연나부출신인 명림답부의 성과적인 반정이 없었더라면 연나부는 조정에서 세력을 이루지 못했을것이였다.

고구려 11대임금이였던 태조대왕은 수십년전에 돌아간 사람으로서 지금 임금의 큰아버지였다.

무려 118살을 살면서 9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나라를 다스려온 남다른 공으로 태조대왕이라 불리운 그는 6살에 룡상에 올라 한생 단군조선의 옛땅을 하나로 이어가는 국사에 전심하였다.

먼저 이웃나라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료하건너의 서쪽에 성들을 쌓게 하고 선왕시기에 속국으로 만들었던 동옥저를 통합하였으며 남쪽에서는 조나국, 동쪽에서는 주나국을 귀속시키였다.

뿐더러 세상에서 으뜸가는 정예군으로 서쪽변방을 소란하게 굴던

후한군을 답새겨 빼앗겼던 료동의 적지 않은 강토를 되찾았다.

이런 업적을 쌓았건만 한가지 돌이킬수 없는 실책을 범하였으니 그것은 둘째동생 수성의 나쁜 속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에게 왕위를 물려준 그것이였다.

임금이 된 수성(차대왕)은 자기의 집권에 장애가 될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죽이였다.

그의 칼에 태조대왕의 두 아들도 많은 충신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였다.

현 임금과 그의 아버지 백고는 한밤중에 깊은 산으로 몸을 숨김으로써 죽음을 면할수 있었다.

조정을 피로 물들인 수성은 부화방탕한 놀음을 일삼았다.

이러한 수성을 누구보다도 미워한 사람은 연나부출신의 명림답부였다.

백성들의 신망이 높았던 명림답부가 마침내 백발수염을 날리며 수성을 뒤엎는 반정을 일으킨것이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98살이였다.

결단코 포악무도한 수성을 몰아낸 명림답부는 깊은 산골로 은신한 백고를 모셔다 룡상에 오르게 하였으니 그가 바로 태조대왕의 동생인 지금 임금의 아버지인 신대왕이였다.

연나부의 대가들은 명림답부를 도운 공으로 대신이 될수 있었다.

매사에 공명정대하고 사려깊은 명림답부가 정정할 때에는 반정에 기여한 공신일지라도 감히 탐욕을 부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가 로환에 시달려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자 바로 이때라는듯 연나부의 대가들이 저저마다 남의 땅과 재물을 빼앗는 일에 열을 올렸다.

그들의 페행을 신대왕도 알고있었지만 반정의 공신들이라 어쩌지 못하였다.

그때 태자였던 임금도 그들이 외가집사람들인것만큼 나라에 반기를 들지 않는 한 모르쇠를 하는 부왕의 립장을 리해하였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 오늘에 와서 날로 나라의 정사가 어지러워지고있으니 생각이 달라졌다.

이제 와서 명백한것은 명림답부와 같이 나라를 버티던 큰 인물이 쓰러지니 탐욕밖에 모르는 송사리 같은것들에 의해서 국운이 기울어진다는것이였다.

긴 한숨을 내그은 임금은 개탄해마지 않았다.

《신하복이 없는 나로구나. 어이하여 하늘은 나에게 팔다리와 같이 굳게 믿고 쓸 고굉지신을 내여주지 않는것인지…》

사실이 그러했다.

부왕이 돌아간 그해는 나라에 있어서 대단히 불우한 해라고 할 수 있었다.

바로 그해에 112살로 명림답부가 부왕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명림답부의 죽음이 너무도 애석하여 그때문에 병이 난 신대왕은 그의 장례를 치르자 곧 세상을 버린것이였다.

세상에는 명림답부와 같은 충의지사도 드물것이였다.

명림답부에게 있어서 신대왕은 아들벌이고 또 자기가 받들어세운 임금이였건만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한본새, 충신의 자세였다.

언제 한번 자기의 공을 입밖에 내비친적 없고 국상의 권세로써 치부를 한적도 없었다. 오로지 자나깨나 임금을 도와 바른 정사에 힘썼고 이 땅을 노리는 외적과 강경하게 맞섰다.

허나 그것만을 가지고 그를 칭찬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했다.

사람의 진가는 어려운 때 평가된다고 하였다.

신대왕이 임금으로 등극한지 여덟해가 되는 임자년에 대대로 이 땅을 넘보며 끊임없이 전란을 일으키던 후한이 또다시 대군으로 쳐들어왔다.

적의 대군이 국경을 넘어섰다는 급보를 받은 명림답부는 그것들을 멸살시킬 청야수성전의 계책을 내놓고 백살이 넘는 몸임에도 출전하였다.

그때 그는 출전을 만류하는 부하들에게 내 늙었다고 하여 말은

중임을 나라님이 걸머지게 한다면 그게 무슨 신하된 도리인가고 그들을 타이르고 선두에서 군사를 이끌었다.

로환에 시달리는 국상이 백살이 넘는 몸으로 출전했다는 소식은 삽시에 온 나라를 격동시키였고 군사들을 승전에로 떠밀었다.

만일 그때 명림답부가 로환으로 출전하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중임을 임금이 맡아야 했을것이였다.

바로 이것이 그의 가장 큰 공적이라고 할것이였다.

임금은 또 한번 긴 한숨을 들이켰다.

신선의 세상에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환생약이라는게 있다는데 나에게 그런 약이 차례진다면 서슴지 않고 명림답부부터 살려낼테다. 정녕 그를 살려낼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마음이 처량해진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거닐었다.

《과연 나에게는 명림답부와 같은 충신이 없단 말인가.》

임금이 오늘까지도 백관을 통솔해야 하는 국상의 자리를 비워두고있는것은 명림답부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때문이였다.

명림답부와 견줄만 한 인재가 아니면 그가 누구이든 결코 국상의 자리를 내여주지 않을것이였다.

《그게 정녕 옳은 처사라 하겠는지…》

고구려에서 국상의 관직을 처음 내온것은 신대왕때였다.

아직은 임금이 아니였던 그 시절 백고는 수성과 달리 성품이 온화하고 형제들을 우애하였으며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였다.

그때문에 태조대왕을 이어 임금이 된 수성은 백고를 죽이려 하였고 하는수없이 그는 야밤에 아들들을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피신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수성을 몰아낸 명림답부가 직접 사람을 백고에게 보내여 산에서 내려가자고 하였을 때 거절하지 않은것은 의롭고 정직한 그의 인품에 마음이 끌렸기때문이였다.

왕위에 오른 신대왕은 첫 정사로서 새로운 관직을 내왔다.

신대왕이전에는 백관의 우에 좌보와 우보라는 두개의 관직이 있어가지고 이 관직을 차지한 두사람이 조정을 이끌었다.

특출한 인재가 아닌 경우에는 그 두사람이 서로 의논하여 조정을 이끌어나가는것이 좋았지만 누구도 견줄수 없이 뛰여난 명림답부에게는 좌보이니 우보이니 하는것이 필요치 않았다.

그래서 신대왕은 그 두개의 관직을 합쳐가지고 국상이라는 새로운 관직을 내오고 초대국상으로 명림답부를 내세운것이였다.

국상의 자리를 비워두고있는것은 임금으로서 여간한 골치거리가 아니였다.

명림답부가 돌아가기 바쁘게 연나부의 대가들은 국상을 하루라도 비워두어서는 안된다면서 자기들에게 그 자리를 넘겨달라고 성화를 먹이였다.

하는수없이 임금은 국상의 다음가는 중외대부를 차지하고있는 연나부의 어비류에게 군국대사를 거의나 주관할수 있는 보다 큰 권한을 주고말았다.

남달리 체격이 웅장한 임금은 커다란 두눈을 지릅뜨고 주먹을 굽어보며 부르짖었다.

《연나부야말로 애물단지로구나.》

문득 방문밖에서 인기척소리가 나더니 이어 《대왕마마께옵서 아직도 쉬지 않으시면 어쩌나이까.》 하는 녀인의 담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4)

목소리의 임자가 다름아닌 우왕후인줄 알아차린 임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들어오오.》

아니나다를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녀인은 우왕후였다.

저으기 반가와 임금은 우왕후의 손을 잡아 침상으로 이끌었다.

《자, 앉소. 그런데 이 밤중에 웬 일인고?》

초불에 드러난 우왕후의 자태는 더 고와보였다.

푸른색바탕에 여러가지 화려한 무늬를 수놓은 값비싼 비단으로 지은 주름치마며 긴 덧옷을 입고 고리모양의 올린머리를 보석으로 치장한 그때문에 아름다운것이 아니였다.

우왕후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수수한 옷을 입어도 아름다왔다.

갸름한 얼굴은 백옥처럼 희고 초생달같은 눈섭이며 쌍까풀진 반달모양의 눈, 오똑한 코며 작은 입…

어느모로 보나 정이 쏙쏙 드는 미녀였다.

하긴 아직 서른살전이니 방년시절의 어여쁜 매력이 그대로 어려있는 우왕후였다.

그를 침상에 눌러앉힌 임금은 한스러움을 느끼였다.

내 나이 벌써 마흔고개란 말인가. 이 녀인을 맞아들인지도 어느덧 십여년세월이 흘렀지만 어이하여 나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는것일가.

그동안 자식을 보기 위해 애쓰지 않은것은 아니였었다.

산삼은 말할것도 없고 하여간 신기를 돋구는데 좋다고 하는 약은 다 써보고 뜸도 뜨고 침도 맞아보았다.

하지만 종시 녀인을 가까이할수 없었다.

기골이 장대하고 황소도 둘러메치는 보기 드문 힘장수인 임금이

그런 병에 든것은 지난날 수성을 피해 깊은 산속에서 심한 고생을 겪은탓이였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소스라쳐 깨여나는 임금이다.

그때는 어느 시각에 악독한 수성의 부하들이 달려들지 몰라 추위나 굶주림 같은것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잠시라도 죽음이라는 공포가 떠날줄 모르던 나날 살을 에이는 혹독한 추위속에 지새운 밤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러니 사내의 신기를 해치는 그 몹쓸 풍한사(바람과 추위의 독기)를 피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때 입은 풍한사가 어찌나 독한지 그 독기를 뽑는데 좋다는 치료는 다 해보았지만 허사였다.

우왕후는 심드렁해진 고국천왕의 손을 끄당겨 제곁에 앉히였다.

《대왕마마.》

우왕후는 입을 꾹 다문 임금을 쳐다보았다.

눈여겨볼수록 임금은 변함없는 호걸남아의 기상이였다.

왕들만이 입는 우리우리한 오채(다섯가지 색갈)로 단장된 옷에 위엄있게 만든 백라관을 쓴 임금의 차림새때문만이 아니였다.

장대한 기골도 그러했지만 둥실한 얼굴의 숱진 눈섭에도, 억실억실한 두눈에도, 두툼한 입술에도 사내대장부다운 강기와 위엄이 어려있었다.

우왕후는 정답게 입을 열었다.

《부부일심동체라고 대왕마마의 근심이자 첩의 근심인줄 아나이다.》

《고맙네.》

《저 요즘 동족의 나라들로 살길을 찾아가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오이다.》

임금도 그를 모르지 않았다.

우로는 조정대신으로부터 아래로는 고을의 관속에 이르기까지 백성을 못살게 굴고있으니 그 등쌀에 못이겨 많은 사람들이 동족의 나라들로 솔가도주를 하고있었다.

그래도 그것은 좀 참을수 있었다.

어떤 마을들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제 목숨을 끊고있다고 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짓밟히기만 하던 백성들이 들고일어난다면 어찌되겠는가.

얼굴색이 어두워진 고국천왕을 보며 우왕후는 곧 후회하고말았다.

《첩이 괜한 말을 했나 보오이다.》

임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짐이 마음을 놓지 못하는건 그까짓 연나부보다도 백성들이 들고일어날가봐서이오.

백성이란 무지막지한 무리인지라 배만 곯으면 들고일어나기가 십상이지. 백성들이 들고일어나면 바로 이때라고 역적들이 반란을 일으키는것은 정해진 리치가 아닌가.

바로 그때문에 박달임금이 세운 나라가 여럿으로 동강난것이고 그렇게 되여 생겨났던 구려도 결국은 오래가지 못한것이요. 다른 나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지.》

많은 공부를 하여 천하력사에도 밝은 우왕후는 그 말에 가슴이 떨리였다.

이웃에서도 험악해진 민심을 리용하여 일으킨 야심가들의 반란때문에 나라가 망한 실례는 허다했다. 가깝게는 중원을 통일했던 진나라도 그때문에 망하지 않았는가.

우왕후는 가슴을 조이며 말했다.

《대왕마마, 바로 그러하기에 어서 결단을 내리셔야 하나이다. 때를 놓쳐 랑패를 본 전례가 오죽이나 많사이까?》

《결단이라…》

임금은 놀라는 눈길로 우왕후를 바라보았다.

어쩜 치마두른 사람이 그런 생각을…

정녕 왕후의 의견대로 나의 외켠이 있는 연나부를 결단코 짓뭉개버려야 하는것인가.

어이하여 연나부가 나를 받들 대신 반기를 들려 하는것인가.

임금이 연나부의 귀족들과 사이가 크게 버그러지게 된것은 한마디로 오로지 저희 족속의 권세와 치부를 위해 국법까지도 해치려드는 그들을 제압하려 하기때문이였다.

주변나라들의 력사에도 밝은 임금은 나라에 조세로 들어와야 할 백성들의 곡식을 마구 앗아 저희 집 고간들에 가득 채우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미구에 반드시 임금이란 사람은 진나라 2세임금(호해)처럼 허수아비로 될것임을 잘 알고있었다.

진나라 2세임금이 어이하여 망했던가. 환관 조고가 자기를 룡상의 주인으로 내세웠다는데로부터 그자의 악행을 제때에 저지시키지 못함으로써 정사를 살피는 눈과 귀가 막히고 나중에는 신하가 임금앞에서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던가.

결국 허수아비가 된 진나라 2세임금은 조고의 칼에 맞아 죽음을 당하고 그의 나라도 망하고만것이다.

진나라 2세임금처럼 살수 없기에 임금은 벌써 여러차례나 연나부의 귀족들이 빼앗아가진 남의 토지를 본래의 주인들에게 되돌려주라는 령을 내리였었다.

허나 조정의 실권을 거머쥔 그들이 저희들의 리익을 제한하는 그 령에 고분고분할리 없었다.

그 령을 받아들인다면 자기들이 빼앗아가졌던 토지며 주전소, 금소(금 생산하는 곳), 은소(은 생산하는 곳) 같은것들도 모두 게워놓아야 할것이였다.

그래서 연나부것들은 기어이 나라의 재산을 되찾으려 하는 임금을 살속에 박힌 가시처럼 여기던 나머지 그를 폐위시킬 음모까지 꾸민것이였다.

《대왕님, 때를 놓쳐서는 안되오이다.》

또다시 재촉하는 우왕후를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임금은 미소를 지었다.

내 지금껏 이 사람의 덕을 적지 않게 보았지…

제나부의 녀인을 맞아들여 연나부를 견제하려던 뜻은 이루지 못했어도 영특한 우왕후의 도움만은 본 임금이였다.

사실 조정에 국상의 자리를 비워두게 한것은 우왕후의 제의를 따른것이기도 하였다. 뿐더러 철기군이 임금의 직접적인 지휘만을 받게 하고 임금의 여러 동생에게 경군(중앙군)을 나누어주어 연나부의 있을수 있는 반란에 대처하도록 귀띔해준것도 우왕후였다.

우왕후도 후궁의 주인이 되기 전부터 연나부의 전횡때문에 걱정하고있었다.

그런 녀인이였기에 왕후로서 그런 계책을 내놓을수 있은것이였다.

이번에 위나암성으로 자리를 옮겨온데도 우왕후의 노력이 적지 않았다.

처음 임금은 설사 연나부가 반란을 일으켜도 국내성을 뜨지 않을 생각이였다.

천하무적의 철기군까지 거느리고있는데 무엇때문에 연나부를 꺼려 자리를 옮기겠는가.

그러나 연나부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군사가 도성을 에워싼다면 그것들을 쳐부시기에 보다 유리한 산성으로 가야 한다는 우왕후의 간청에 생각을 달리하였다.

물론 위나암성이 평지성인 국내성과 달리 험한 산을 끼고있어 그 어떤 대적이 달려들어도 얼마든지 물리칠수 있었다.

하지만 임금은 그 점보다도 자신의 거동을 로출시킴으로써 연나부로 하여금 속죄할수 있는 기회를 주려 한것이였다.

임금이 저희들의 기도를 알아차리고 미리 방비하고있다는것이 알려지면 그들이 두려워서라도 반란을 포기할수도 있었다.

임금은 될수록이면 피를 흘리지 않고 연나부를 평정할 생각이였다.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때부터 대대로 임금과 혼인을 해온 연나부인것만큼 설사 그들이 란동을 일으킨다 해도 먼저 칼을 들이댈 생각이 아니였다.

이제 임금이 거처를 옮기면서까지 연나부를 견제하려는 강경한 의

지를 알리였으니 그들에게 깨끗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은 죄를 반성할것이였다. 임금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있는것을 알아차린 우왕후가 다시 입을 열었다.

《대주류왕때 구도와 분구, 일구와 같은 조정대신들도 어비류와 좌가려처럼은 못되게 굴지 않았소이다. 그런데도 대주류왕께서는 민심을 어지럽힌 그들을 죽이려 하였다가 선왕의 옛 신하임을 고려하여 서민으로 내치시였나이다.》

임금은 웃으며 우왕후의 손을 어루만지였다.

《짐에게 생각이 있으니 너무 념려마오. 설사 연나부가 반란을 일으킨다고 해도 강대한 고구려에게는 그것들이 한갖 쏠라닥거리는 쥐무리에 불과한거요.》

이 말은 우왕후에게만이 아닌 임금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그 말속에는 연나부것들이 지은 죄를 반성하지 않고 움쩍하려 한다면 그 즉시 경군을 들이밀어 짓뭉개고말려는 완강한 의지가 어려있었다.

(5)

을파소에게는 이해의 봄이 얼마나 바쁘고 힘겨운지 몰랐다.

그것은 농사일때문이 아니고 가문에 흙칠을 한 막내동생때문이였다.

예로부터 봄철에는 고양이손발이라도 빌려써야 하고 부지깽이도 뛴다 하였지만 이 복새통에 막내동생이 헤집어놓은 일을 바로잡자니 눈코뜰새 없었다.

을소구가 작인들에게서 빼앗은 땅이며 재물을 본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이 생각과는 달리 헐치 않았다.

관속들을 끼고 꾸며놓은 토지문서와 여러 매매문서들을 바로잡고 또 형으로서 동생을 죽여야 했던 그 까닭과 정당함을 론증하자니

다리에서 자개바람이 일도록 관가를 오르내리고 손해를 당한 집들을 찾아다니며 잘못을 빌어야 했다.

막내동생때문에 잘못된 사람에 대한 보상은 더 힘들었다.

나라법에 사람을 죽인 경우 재물로 갚으려면 노비 여럿을 살수 있는 돈을 바쳐야 했다.

막내동생이 긁어들인 재물이 고스란히 남아있는것도 아니여서 모자라는것은 을파소가 안아맡아야 했다.

별수없이 기둥처럼 여기는 소도 말도 팔고 그래도 모자라서 땅도 팔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렇게 하고나면 마음만은 무거운 돌지게를 벗어던진듯 가벼울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였다.

일찌기 모질더라도 아픈 매를 늘 들이댔더라면 가문에 치욕을 준 그런 죽음이 없었을것이라는 후회로 가슴이 아파났다.

사람은 늙어죽을 때까지 배운다더니만 인생을 다 산 오늘에 이르러 느낀것은 말로 가르칠 사람과 매로 다스릴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진작 그걸 알았더라면…

을파소에게는 아직도 관가에 군걸음을 해야 할 일감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자기 집에서 종으로 부리는 두 젊은이를 량인으로 속량시키는 일이였다.

악독한짓을 일삼던 동생을 처형하고보니 자신부터가 남에게 털끝만큼일지라도 해를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로총각으로 늙고있는 종들을 속량시키기로 결심한 을파소는 신새벽에 베바지에 베저고리, 베덧옷을 입고 머리에도 역시 베수건을 걸치였다.

귀족가문인 을파소로서는 당당히 귀족차림을 해야겠건만 농사로 늙은 몸이라 백성차림을 하고 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동쪽길을 다그쳐 수십리쯤 가니 해가 떠올랐다. 서압록고을이 한눈에 굽어보이는 고개마루에 올라선 을파소는 숨을 크게 내쉬였다.

《좀 쉬여갈가.》

마침 길가에 너럭바위가 있어 거기에 걸터앉으니 찔레꽃이 눈에 뜨이였다.

너럭바위밑으로 무성한 찔레나무의 가지마다 하얀 꽃이 활짝 피여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요즘은 망종의 절기이라 찔레꽃이 한창이다.

찔레꽃을 바라보던 을파소는 부지중 한숨을 내쉬였다.

찔레꽃이 활짝 필 때 비가 오면 개턱에도 밥알이 붙게 된다고 하나 요즘 세상에서는 그게 다 옛말이였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찔레꽃이 활짝 피는 때에 비가 맞춤히 내리였지만 개는커녕 농군들의 턱에조차 밥알이 붙어돌아가지 않았다.

저 하늘이 아무리 단비를 가져다주어도 세상이 농군을 짓밟고있는데야…

바위를 차고 일어선 을파소는 압록강쪽으로 눈길을 돌리였다.

여기 서압록고을은 근 이백년전에는 황룡국의 강토였다.

박달임금이 세운 나라가 무너진 후 이 일대의 사람들은 황룡국을 세웠다.

졸본에서 첫걸음을 뗀 고구려가 박달겨레의 광활한 강토에 널려있는 모든 소국들을 하나로 통일할 원대한 뜻을 안고 급속히 세력을 떨치자 그 위엄과 힘에 눌리운 황룡국은 서쪽의 안평국과 더불어 고구려에 귀속되는 길을 택하였다.

그때가 류리명왕때였으니 을파소의 조상인 을소가 조정대신으로 있던 시기였다.

을씨가문에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을소의 고향은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비류수를 낀 어느 마을이라고 하였다.

류리명왕은 자신을 받들어온 을소에게 서압록고을의 좌물촌을 식읍으로 주었다.

그래서 을소는 말년에 이 고장으로 이사를 온것이였다.

고개길을 내리던 을파소는 관청이 있는 사직골을 바라보았다.

옛적에 이 고을은 황룡국의 도성이였다.

지금도 그 시기의 사직단이며 옛성이며 하늘임금에게 제를 지내던 제단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고개길을 내려선 을파소는 어떤 사람이 몰고 가는 바싹 여윈 소를 볼수 있었다.

걸을 기력마저 진해버렸는지 비칠거리는 황소는 그야말로 여드레 팔십리걸음이다.

《허, 저 사람이 소를 업고 가야 하겠군.》

잠간사이에 소를 따라잡은 을파소는 혀를 찼다.

대가리만 크고 갈비가 아롱아롱한 이런 소는 보다 처음이였다.

얼마나 골병이 들었으면 소가 이 꼴인지…

을파소는 서른살쯤 나보이는 소임자를 바라보며 말을 건넸다.

《소가 꽤나 늙었나보군.》

《예, 서른살을 넘었소이다.》

《아이구, 꽤나 늙었군. 헌데 무슨 병이 들었기에 이다지도 여위였나?》

《초면에 실례이지만 로인님 보기엔 어떻소이까?》

젊은이의 물음에 을파소는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준수하게 생긴 젊은이는 정직해보였다.

이런 사람은 초면의 사람에게 함부로 되묻지 않는다.

을파소는 젊은이를 돕고싶은 마음에 늙은 소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한동안 소를 지켜보느라니 가쁘게 씩씩거리는 황소의 숨소리에 흥미가 끌리였다.

지금은 더위철도 아니고 힘든 일에 연장을 끄는 일도 아닌데 소가 저렇게 씩씩거리니 가슴부위에 병이 들었다는게 아닌가.

가만, 열주머니에 우황이 든 소는 숨쉬기가 괴로워 저렇게 씩씩거린다.

눈을 자세히 살펴보니 두눈알이 누런것이 우황이 든것이 분명했다.

옳다.

우황든 소를 몇번 본바 있는 을파소는 젊은이의 어깨를 치며 껄껄 웃었다.

《자네에게 운이 튼것 같네.》

젊은이는 을파소를 놀라는 눈길로 쳐다보았다.

《운이 트다니요?》

《그럼, 운이 텄지. 이 소가 분명 열주머니에 우황이 있을거네.》

그 말에 젊은이는 탄복해하는것이였다.

《과연… 로인님은 참 보는 눈이 밝소이다. 그런데 어데 사시오이까?》

진정으로 통성하고싶어하는 젊은이의 태도에 을파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좌물촌에 사는 을파소라는 농부일세.》

젊은이는 또다시 탄복해하는것이였다.

《아! 소문을 들었소이다. 몹쓸짓을 일삼던 동생을 엄벌에 처했다는 소문에 난 정말 놀랐소이다.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소이까.》

을파소가 보건대 젊은이는 대도 바르고 의리도 중히 여기는 사람같았다.

을파소는 화제를 돌리였다.

《자네도 이 소가 우황이 든것을 아는가본데 어데로 가나?》

젊은이의 얼굴에 분노가 서리였다.

《나쁜 놈을 골탕먹이러 가오이다.》

《그건 무슨 소리인가?》

젊은이는 고개길아래의 마을을 가리켰다.

《나는 저 마을에 살고 이 소는 옆집의 소올시다. 며칠전 빚독촉을 나온 부자놈이 옆집에 와서 욕설을 퍼붓더니만 이 소를 가져다 바치라고 호통쳤소이다. 옆집에는 늙은 내외만 사는데 이 소를 바치면 묵은빚으로 수수쌀 열섬을 다 감해주겠다나요. 나쁜 놈 같으니,

가난한 사람들은 눈이 다 멀었는가보지. 흥! 가난은 해도 아는것이 있는데 그놈의 꿍꿍이속에 어찌 넘어가겠소이까. 난 이미 이 소가 우황이 들었다는것을 알고있었소이다. 그래서 이렇게 푸주간으로 소를 끌고 가는것이오이다. 내 손으로 금보다 비싼 우황을 꺼내서 부자놈에게 수수쌀 열섬을 갚아주고 늙마에 옆집어른들이 배곯지 않도록 해드리자고 말이오이다.》

을파소는 기뻐서 웃었다.

이 젊은이야말로 눈이 바로 배긴 의롭고 똑똑한 사람이로구나. 남의 불행을 자기의 불행으로 여기고 남을 돕기를 제일처럼 여기는 이런 젊은이가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할수 있는 법이다.

읍거리에 들어선 을파소가 젊은이와 헤여지는것을 아쉬워하는데 그가 싱글벙글 웃으며 말하는것이였다.

《로인님, 아무리 바빠도 우황이 얼마나 큰지 보고 가시오이다.》

거기에도 흥미가 끌리고 대바른 젊은이와 좀더 사귀고싶어 을파소는 쾌히 응해나섰다.

《좋아, 어디 가봅세.》

푸주간은 큰 거리입구에 있었다.

젊은이가 푸주간주인을 불러내여 병든 소를 가리키니 그는 대바람이마살부터 찡그리는것이였다.

《원 참, 정신이 나갔다고 이런 소를 잡아 팔겠나. 안돼, 밑진단 말일세.》

젊은이는 소를 잡아도 된다는 촌장이 써준 허가장을 내보이며 비위를 부리며 달라붙었다.

《아, 그래서 의논을 하자는게 아니오이까. 의논이 맞으면야 무슨 일인들 못하겠소이까. 이 소가 마른건 사실이오만 워낙 덩치가 큰 놈이라 가죽이 상등짜리올시다. 열주머니는 내가 가지고 소고기는 반값으로 드리겠으니 그래도 밑진다 하겠소이까?》

반값이라는 말에 푸주간주인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 좋네.》

푸주간주인은 곧 하인들을 불러 소를 잡도록 하였다.

소를 잡는데 귀신 한가지인 하인들은 제꺽 소를 죽여 배를 갈랐다.

젊은이는 제손으로 열주머니를 떼여들었다.

어른주먹보다도 큰 열주머니를 손에 든 젊은이는 을파소를 조용한 곳으로 이끌더니 환성을 올렸다.

《밤톨보다 훨씬 큰 닭알만 한것이 이안에 있소이다.》

을파소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 만져보니 과연 열주머니안에 닭알만 한것이 들어있었다.

우황이 틀림없었다.

《이거야말로 천금일세. 내 한생에 닭알만 한 우황이 있다는 말은 듣지도 못하였네.》

웃음투성이인 젊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옆집이 벼락부자가 됐소이다.》

을파소는 고개를 저었다.

《기뻐하긴 이르이. 이런 큰 우황을 잘못 다루다가는 오히려 화를 보기 십상일세. 내 생각엔 힘센 사람 몇을 데리고 도성에 올라가 팔아야 제값을 다 받을것 같네.》

젊은이는 흥분해서 물었다.

《대체 이만한 우황이면 값을 얼마나 받을수 있소이까?》

견문이 넓은 을파소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일화전으로 치면 적어도 만개는 넘어 받을걸세.》

젊은이의 두눈이 둥그래졌다.

세상에 나서 일화전을 한번에 몇백개도 쥐여보지 못한 그로서는 까무라치게 놀랄만도 하였다.

고구려에서는 건국 초시기부터 고조선에서 물려받은 일화전이라는 구리엽전이 류통되고있었다. 한되의 쌀을 살수 있다는 일화전은 돈한복판에 네모진 구멍이 나있고 한면에는 《一化》라는 두 글자를 새긴 1.8～2센치메터의 직경을 가진 자그마한 돈이였다.

우황 한개로 단번에 만여되박의 쌀을 살수 있다는 생각에 젊은이

는 너무 좋아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이윽고 푸주간주인에게서 소고기값을 받아든 젊은이는 을파소에게 깊숙이 허리를 굽히였다.

《로인님의 말씀대로 도성을 다녀온 후 꼭 좌물촌을 찾아가겠소이다.》

을파소는 웃으며 대꾸했다.

《이젠 우리가 구면인데 자네 이름을 몰라서야 되나.》

《아차, 제 미처… 제 이름은 바호(바위라는 뜻)라 하오이다.》

을파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도 좋구만. 자넨 덕을 쌓기 좋아하니 앞으로 큰일을 할거네.》

즐거운 마음으로 바호와 헤여진 을파소가 하늘을 쳐다보니 해는 벌써 머리우에서 내리비치고있었다. 정오가 되였으니 관가에서 일을 볼리 없었다.

《허ㅡ 한나절을 놓치고말았구나.》

그러나 마음만은 즐거웠다.

의로운 젊은이를 사귀였으니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6)

을파소가 음식점에서 밥 한그릇을 사먹고 오후에 관가를 찾아가니 마침 호구를 맡아보는 관속이 있었다.

을파소가 찾아온 사연을 안 그는 아주 좋아하였다.

호구를 하나라도 늘이면 조세는 말할것도 없고 관가에서 긁어들이는 재물도 늘어나니 그럴수밖에 없는것이였다.

을파소는 종으로 부려오던 정우와 인우를 호적에 올리고 (물론 속량문서를 먼저 만들었다.) 그들의 몫으로 서너마지기의 땅도 관가의 장부에 쪼아박았다.

사실 그 땅은 장차 그들을 장가들이면 나누어줄 생각으로 몇해전

부터 개간해온 새땅이였다.

뜻대로 일을 마친 을파소는 관가에 온김에 량인으로 만든 정우와 인우를 군적에 올려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량인은 누구나 군적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것이 나라의 법이였다.

그런데 아쉽게도 군적을 맡은 구실아치가 보이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자니 수십리길을 또 군걸음해야겠고 그래서 객지에서 하루밤 묵더라도 일을 보고 갈가 하는 생각으로 관가의 대문밖에서 서성거리는데 문지기가 말을 걸었다.

《로인장은 무슨 일이 있기에 서성대는것이오이까?》

그제서야 을파소는 창을 든 문지기를 알아보았다.

그동안 관가를 자주 드나들다보니 고을의 우두머리인 처려근지(고구려의 군급고을의 장관)로부터 심부름군에 이르기까지 을파소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문지기는 악독한 동생을 처형하고 그의 죄를 바로잡느라 뛰여다니는 을파소를 존경하고있었다.

《글쎄 군적에 올려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 이러는것일세.》

문지기는 존경하는 사람을 도울 일이 생긴것이 기뻐 친절하게 대꾸했다.

《그 어른이 요즘 바쁘오이다.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군적에 빠진 사람들을 장부에 올려야 하니 다리에서 꿀물이 빠지게는 되였지요. 소인이 꼭 기별을 해서 그 어른이 래일 아침 관가에 들려가도록 하겠으니 주막에서 쉬고 래일 아침 오시오이다.》

뜻밖에 문지기까지 도와나서는 바람에 을파소는 하루밤 객지에서 묵기로 결심하였다.

고을의 주막에서 하루밤 묵은 을파소는 이튿날 아침 관가를 찾아갔다.

체격이 크고 준수하게 생긴 을파소가 긴 덧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나서니 자못 위풍이 있었다.

관청마당에 군사를 맡아보는 구실아치임즉한 사람이 서있었다.

그가 먼저 허리굽혀 인사를 하는것을 보아 문지기의 기별을 받고 기다리는 모양이였다.

《로인장께서 먼길에 고생이 많았겠소이다.》

관속의 곰살궂은 인사에 을파소는 감동되였다.

모든 구실아치들이 이 사람처럼 례절에 밝으면 얼마나 좋을가.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만나자고 했소이까?》

관가로 들어가자는 말도 없이 직판 찾아온 용건을 말하라고 하는것을 보아 그가 문지기의 말대로 몹시 바쁜것 같았다.

을파소는 직판 말하였다.

《내 집에서 부리던 두명의 종을 군적에 올려주오.》

구실아치는 어이없어하더니 씩 웃었다.

《종은 군적에 올릴수 없소이다.》

을파소는 어줍게 웃으며 말했다.

《내 그만 순서가 헛갈리는 말을 했소그려. 사실 그애들은 어제 속량을 하고 호적에 올렸네.》

구실아치는 고집스레 고개를 저었다.

《제 알기에 그들은 로인장이 전장에 나갔다가 상으로 받은 종이 아니오이까.》

사실이 그러했다.

20여년전 그해는 을파소의 한생에서 가장 잊을수 없는 한해였다.

바로 그해 고구려군이 국경에 침입한 후한군을 요정내라는 조정의 령을 받고 만리장성일대까지 진격하여 수많은 적을 족치였던것이였다.

그때 군사로 출전했던 을파소가 속한 선두진은 만리장성을 넘어가 패주하는 적군의 퇴로를 끊고 많은 적을 소멸하였다.

어느날 패주하는 적군이 부역군들을 죽인다는 급보가 날아들었다.

부역군들로 말하면 적군에게 포로되여 끌려다니던 후부여국사람들이였다.

고구려군의 드센 공격으로 녹아나는 적들이 패전의 앙갚음으로 고

구려와 동족인 그들을 죽이려 하는것이였다.

적진의 지척에 진을 쳤던 을파소의 부대는 지체없이 출전하여 무고한 부역군들을 죽이는짓에 미쳐돌아가는 적을 들이쳤다.

검술에 능한 을파소는 선두에서 말을 달리여 닥치는대로 적군을 베이였다.

그날 고구려군은 적지 않은 부역군들을 구원했다.

천하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고구려에서도 군공을 세운 군사들에게 포로를 상으로 주고있었다.

후한군에게 끌려다니던 부역군들도 그만 생구(포로)로 잘못 취급되여 결국 을파소는 그중 나이가 제일 적은 애젊은이들을 상으로 받게 되였던것이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못된짓을 일삼던 동생을 뜻밖에 처형하고보니 자신에게도 가책되는바가 없지 않았다.

나는 상으로 받은 동족사람들을 마치도 죄인인것처럼 여기며 부려먹지 않았던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는것이 마땅하리라.

《그건 그렇네. 하지만 주인인 내가 그애들을 속량시키자고 하였기에 관가에서도 량인으로 호적에 올린게 아닌가.》

구실아치는 한결 누그러진 어조로 대꾸했다.

《나도 요즘 나라가 돼가고있는 형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오이다. 우리 고을에만도 수천의 호구를 헤아리는데 군적에 올라있는 사람은 많지 못하오이다. 이런 때 후한군이 쳐들어오면 어찌되겠소이까.》

을파소도 후한과 대치한 서쪽의 형편을 모르는바 아니였다.

후한이 차지한 료동에서 공손도라는자가 태수노릇을 하면서 변방정세가 더욱 악화되고있었다.

아전출신이라는 공손도는 한때 후한조정을 쥐락펴락했던 동탁의 눈에 들어 료동태수로 된자인데 처음에는 고구려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굽신거렸다.

그러나 중원에서 터진 황건농민폭동으로 후한조정이 맥을 추지 못

하는 기회에 산동일대의 넓은 땅까지 타고앉아 제왕노릇을 하더니 고구려를 엿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손도야말로 어느때건 후한조정을 등에 업고 전란을 일으킬수 있는 위험한 적수였다.

《그러지 않아도 우에서는 해마다 군적에 루락된자가 없게 하라는 독촉이 불같소이다.》

늘 가슴 한켠에 나라근심이 가득한 을파소에게는 자못 귀맛이 도는 소리였다.

해마다 우에서 군적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자가 생겨날세라 고을들에 독촉하는것은 잘하는 조치가 아닐수 없다.

무예를 숭상하는것이 고구려사람들의 풍습이라고는 하지만 관가들에서 건달을 부리면 나이든 젊은이들이 미처 군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수도 있고 또 제살궁리밖에 모르는 부자들이 고의로 군적에서 빠져나갈수도 있는것이다.

을파소는 구실아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그애들을 군적에 올려주게.》

구실아치는 딱해하는 기색이였다.

《나도 로인장네가 어떤 가문이고 또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있소이다. 어이하여 나라에서는 로인장과 같은 어른을 조정대신으로 등용하지 않는지…》

을파소는 구실아치의 손을 부여잡았다.

《말만 들어도 기쁘이. 이 고을에 나라를 생각하는 자네 같은 사람이 있으니 다행일세. 내가 조정대신이라면 자네 같은 사람을 크게 쓰겠네.》

이 말은 롱말이 아닌 진심이였다.

벼슬아치들을 떼고붙이는 권한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여 고을뿐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관직들을 맡겨줄 을파소였다.

인재란 별사람이랴.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몸바쳐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인재인것이다.

《그럼 난 그애들을 군적에 올린것으로 알겠네.》

이전부터 을파소를 공경해온 구실아치는 악한 동생을 결단코 처형한 일로 하여 살림이 궁색해진 을파소를 돕고싶었다.

그러나 본인이 강경하게 나오니 물러서지 않을수 없었다.

《그럼 그렇게 하겠소이다.》

마지못해 응하는 구실아치를 보면서 을파소는 관가에 나쁜 사람도 많지만 의로운 사람도 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7)

마음이 통하는 구실아치의 이름이 덕문이라는것을 알아낸 을파소는 만족한 기분으로 그와 헤여져 저자로 향했다.

인차 맏손자며느리가 해산할것이다. 할미없는 집에 할애비라도 미역을 사다주어야 웃사람된 구실을 할수 있을것이였다.

저자에 이른 을파소는 양고기며 소고기를 무져놓은 곳을 지나 미역을 파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여러명의 장사군들이 마른미역을 여러 무지씩 차지하고있는데 하나같이 좋아보였다.

아는 길도 물어가랬다는 생각에 을파소는 미역무지뒤에 서있는 로파에게 물었다.

《산모에게 좋은 미역을 먹여야겠는데 어느것이 더 좋소?》

로파는 제앞의 미역무지중에서 하나를 가리켰다.

《이것이 참미역인데 산모에게 그저그만이지요.》

을파소는 허리춤을 매만졌다.

허리춤에는 일화전을 꿴 엽전꿰미가 매여있었다.

을파소가 엽전꿰미를 끌러내리려 하는데 불쑥 피이한 사람이 눈에 뜨이였다.

눈초점을 모으니 삽시에 의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기여가고있었다.

원, 세상에 젖먹이처럼 기여다니는 어른도 있단 말인가.

을파소의 놀란 눈길이 무릎아래의 두다리를 맥없이 건들거리며 두무릎과 두손바닥으로 땅을 짚고 기여가는 사람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언제인가 본 앉은뱅이도 이렇게는 기여다니지 않았었다.

그때 앉은뱅이는 앉은 상태에서 량옆의 두손바닥으로 땅을 딛고 두팔을 곧추 펼 때 떠오르는 몸을 앞으로 내밀어 앉았다가 다시 두손바닥으로 땅을 딛고 팔을 펴면서 조금씩 길을 축냈었다.

을파소의 눈길이 무릎걸음을 하는 사나이의 무릎을 더듬었다.

그 사나이는 두무릎에까지도 짚신을 꿰고있었다.

무릎걸음을 하자니 무릎부위가 빨리 해여지는것을 면하려고 거기에 짚신을 얽어맸을것이다.

하다면 저 사람도 타고난 앉은뱅이인가?!…

무릎걸음을 치던 사나이는 싸전에서 멈춰서더니 땅바닥에 떨어진 쌀알을 줏는것이였다.

아마도 먹을것을 얻으러 나온 모양이였다.

하긴 두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주린 배를 달래자고 하니 그럴수밖에 없을것이였다.

《어서 참미역을 사시우다.》

미역을 사라고 재촉하는 로파에게 을파소는 쌀알을 줏고있는 사나이를 가리켰다.

《저 사람은 누구요?》

그에게로 눈길을 돌린 로파의 안색이 대바람 어두워졌다.

《에그, 불쌍도 하지. 이 근처에 사는데 자식들을 먹여살리느라 저러질 않수. 저 사람은 안사람을 잃고 매맞아 병신된 몸으로 세 어린 자식을 먹여살리느라 고생이 막심하다우.》

《그럼, 저 사람이 매맞아 병신이 되였단 말이요?》

로파는 푸념조로 대꾸했다.

《본래 저 사람은 돌장군같이 온몸이 든든하던 농군이우다. 이

태전 봄 먹을것이 똑 떨어진 저 집에서 단번에 두 아이가 굶어죽었수다.

생때같은 두 자식을 굶겨죽인 저 사람이 그만 정신이 나갔지요. 어쩌자고 성골에 사는 세도딩딩한 부자집에 가서 개먹이에 손을 댔겠수. 먹을것이 썩어나는 그 집에서는 개에게도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이는데 바로 개가 먹다 남긴걸 굶고있는 아이들에게 가져다주려고 손을 댔지요.

그랬다고 부자는 심부름군들을 내몰아 저 사람을 때려죽이라고 했다우. 주인이 악독하면 개도 사납다고 부자집 심부름군들은 여간 몹쓸 종자들이 아니라우. 바로 그놈들이 다시는 도적질을 못하게 한다며 저 사람의 두다리를 꺾어놓았수다.》

자기의 다리가 꺾이우는 느낌에 을파소는 치를 떨었다.

사람이 아무리 악독하기로서니 밥 한술에 생사람의 다리를 꺾어놓을수 있단 말인가.

나라앞에 죄를 진 역적에게 걷지 못하게 하는 형벌을 가할 때에도 기껏 발뒤축의 힘줄을 칼로 베고마는데…

완력사나운 악한들이 모다붙어 굶주린 사람의 두다리를 꺾는 끔찍한 광경을 그려보느라니 피가 거꾸로 솟는것 같았다.

피가 끓고 살이 뛰는 격분으로 두눈을 부릅뜬 을파소는 목메여 부르짖었다.

《저 사람을 병신으로 만든 그놈들은 어떤 벌을 받았소?》

로파는 말도 말라는듯 손을 내저었다.

《원, 당치도 않은 소리. 누가 가난뱅이를 편들어 부자를 혼쌀내겠다우? 부자집에서 피투성이가 된 저 사람을 내다버렸는데… 에그, 저 사람이 모질게도 명이 길어 밤새 제 집에까지 기여왔다질 않수. 그것을 본 안사람은 앓던 몸인데 기절해서 죽고… 며칠후에는 또 두 자식이 굶어죽고…》

울화가 치민 을파소는 주먹을 불끈 쥐였다.

세상이 어지러워졌다한들 이거야 너무하지 않은가.

《에그, 우리 고을엔 사람잡아먹는 그런 악귀를 혼쌀낼 사내 같은 사내가 한명도 없으니…》

로파의 한탄소리에 을파소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 천하에 어두운 구석이 없는 나라가 없다지만 례의지국 고구려에서 이런 악행이 허용된다는것은 참을수 없다. 이런 악행들이 허용된다면 나라가 위태로와진다.

악독한 놈을 답새겨 민심을 바로잡는것이 나라를 돕는 일이 아니겠는가.

악독한 그놈을 혼쌀낼 궁냥이 을파소의 머리속에서 무르익고있었다.

그길로 을파소는 덕문을 찾아갔다.

을파소가 찾아온 까닭을 안 덕문이 기꺼이 그를 도와나섰다.

워낙 법대로 하면 군사일을 맡은 덕문으로서는 을파소를 도울수 없었다. 하지만 덕문은 형벌을 맡은 동료구실아치에게서 심문허락증서를 받아쥐고 그의 권한으로 나선것이였다.

의로운 일에 어찌 내일네일을 가리랴.

그들 두사람은 곧 악독한 부자놈이 사는 성골을 찾아 떠났다.

생사람의 두다리를 꺾어놓게 한 부자놈은 요란한 큰집에서 살고있었다.

마침 그놈이 피둥피둥 살찐 몸을 끌고 뒤뜨락에서 소풍을 하고있었다.

관가에서 군사를 맡아보는 구실아치가 찾아왔다고 하니 그놈은 개기름이 흐르는 상판에 아첨기를 가득 짓고 맞아주었다.

덕문은 관가에서 유일하게 청렴하고 대바르며 불의를 미워하는 관속으로 알려졌다.

그런 사람이 찾아왔으니 사사일로는 아닐것이라 다른 관속들을 끼고 못된짓을 일삼던 그놈이 뒤가 켕길만도 하였다.

그래서 아첨하느라 굽신거리는것이였다.

을파소는 첫눈에 눈까풀이 두툼하고 두볼따귀가 축 처진 이놈이

탐욕이 사납고 여간 심술꾸러기가 아님을 가려보았다.

바로 이런 놈들때문에 인심도 어지러워지고 나라가 골병에 드는 것이다.

덕문이 부자놈에게 을파소를 가리켜보이며 엄하게 말했다.

《이분은 조정대신의 후손으로서 이번에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굴던 동생을 가법으로 목을 친 어른이시오.》

그 한마디에 부자놈은 쩔쩔맸다.

조정대신이라면 귀족중에서도 첫손가락에 꼽히우는 어른이고 그런 큰 귀족의 후손이라면 당당한 명문대가라고 볼수 있다.

그런 큰어른이 이 집에 왕림하였으니 한갖 시골부자로서는 황송스러워 코가 땅에 닿을만도 하였다.

을파소는 이미 준비해가지고 온 문서장을 꺼내들었다.

문서장에는 부자놈을 열두번이라도 혼내울수 있도록 글이 씌여있었다.

을파소는 글줄을 내리읽었다.

《뭇사람들이 이르기를 사람이 먹다 남긴 밥을 짐승에게 줄수 있으며 짐승의 끼식으로 끓인것을 굶주린 사람이 먹은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였다.》

글을 읽은 을파소는 부자놈에게 물었다.

《이 글이 옳은고?》

아직은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고 보다는 지체높은 사람과 또한 상대하기 어려운 구실아치의 앞이라 부자놈은 덮어놓고 옳은 말이라 여쭈었다.

덕문이 부자놈에게 먹즙을 내밀며 을러멨다.

《옳다고 하였으니 문서장에 지장을 찍으라, 어서!》

먹즙을 엄지손가락에 묻힌 부자놈은 을파소가 내민 문서장에 손도장을 눌렀다.

을파소는 두번째 문서장을 펼치고 거기에 씌여진 글을 읽었다.

《생사람을 때려 병신으로 만든것은 죽인것보다 그 죄가 엄하다고

할수 있다. 소와 말을 죽인자는 그 주인의 노비로 삼는다는것이 국법이니만치 생사람을 병신으로 만든자도 마땅히 그 법으로 다스려야 할것이다. 소인은 사람을 때려 병신으로 만들었으니 그 사람의 종으로 되겠사오이다.》

그만에야 부자놈의 살진 낯짝이 시꺼멓게 질리였다.

그럼 이것이 내 죄를 인정하는 문서란 말인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 사람들이 무엇을 노리고있는지 비로소 알아차린 부자놈은 부들부들 몸을 떨었다.

덕문이 을파소가 내미는 문서장을 받아들고 부자놈에게 을러멨다.

《여기에다 지장을 찍게. 어서!》

부들부들 몸을 떠는 부자놈을 노려보던 을파소가 발을 탕 굴렀다.

《이놈, 개도 배불러서 남긴걸 굶주린 사람이 먹으려 했다 하여 그를 때려 병신으로 만들고도 무사할줄 알았느냐. 네놈이 그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었기에 그의 어린 자식들이 굶어죽었다. 그래 이게 살인이 아니란 말이냐. 살인을 치고도 네놈이 멀쩡하게 살아 숨을 쉬라고 내버려둘줄 알았느냐? 국법에 살인자는 목을 치고 그 식솔은 노비로 삼게 되여있다.》

을파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땅에 넙적 엎드린 부자놈은 애걸하였다.

《한번만 용서해주사이다.》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부자놈의 꼴에 을파소는 이를 갈았다.

나라에 필요한 재주라고는 꼬물만큼도 없는 무지렁이같은 놈이 작인들에게는 이리처럼 사납고 권세를 쥔 사람앞에서는 고양이앞의 쥐보다 더하구나.

을파소는 격해서 소리쳤다.

《너 같은 놈때문에 민심이 어지러워지고있다. 민심이 어지러워지면 나라가 해를 본다. 이제는 네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겠지?》

완전히 넋이 빠진 부자놈은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애걸했다.

《용서해주면 두번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소이다.》

을파소는 그자를 쏘아보며 소리쳤다.

《죄를 씻는건 말로 하는게 아니다.》

이런 때 이런자의 머리는 핑핑 돈다.

《알겠소이다. 병신된 사람이 달라는대로 돈을 주겠으니 제발 용서해주사이다.》

을파소는 즉시 그자의 다짐을 글로 쓰고 도장을 누르게 하였다.

을파소는 부자놈의 다짐이 적힌 문서를 덕문에게 주었다.

덕문이 관가의 힘으로 문서장에 씌여진대로 회계를 바로하도록 내밀것이였다.

구실아치와 손을 잡고 악독한 놈을 혼쌀내고보니 을파소의 마음이 개운해졌다. 좋은 기분으로 장거리를 찾은 을파소는 참미역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였다.

(8)

이해의 여름은 비가 적게 내려 큰물피해가 없었다.

예로부터 가물끝은 있어도 장마끝은 없다 하였는데 이해는 봄씨붙임때에도 알맞게 비가 내리고 여름철에도 비가 맞춤한 천기의 덕으로 농사가 잘되였다.

하건만 떫은 풀뿌리로 연명하는 농군들이 늘어만 간다. 이 어인 까닭인가.

고구려의 도읍에서 압록강으로 흘러내리는 강이 감돌아흐르는 연나부에 분수에 맞지 않게 대궐마냥 수백간의 넓은 부지를 차지한 큰집에서 사는 부자가 있다.

그자는 바로 을파소가 그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좌가려이다.

나라의 정사를 크게 어지럽히고있는 연나부의 우두머리 좌가려가 버젓이 우리우리한 고대광실에서 살고있으니 그의 권세가 어느 정도

인지 가히 짐작할수가 있는것이다.

하긴 대대로 임금의 외켠으로 되고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그쯤이 대수이랴.

널직한 대청마루우에 앉아있는 좌가려는 지금 되게 뒤틀린 심사를 삭이느라 활활 부채질을 하고있었다.

좌가려가 일흔살 난 늙은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곧이들을 사람이 없을것이다.

덩치 크고 살푸둥이가 좋은지라 주름 한오래기 없이 핑핑한 떡판같은 얼굴에서는 젊은이 못지 않은 혈색이 돌고있었다.

그때문에 적어도 20년쯤은 젊어보이는 좌가려가 지금은 얼굴을 찡그리고 씩씩거린다. 어찌나도 얼굴을 찡그리고있는지 임금 다음가는 높은 벼슬아치임을 보여주는 노란색바탕에 붉은 무늬를 수놓은 비단옷을 입고 푸른색청라관을 썼건만 형장에서 죄인에게 매를 치는 형리같았다.

웬간해서는 성을 내지 않는 좌가려가 얼굴을 이그러뜨리고 씩씩대는것은 희동이라는 아들녀석때문이였다.

본처외에 첩이 많은것으로 하여 좌가려에게는 자식도 많았다.

그 많은 자식들가운데서 진정 제살붙이로 끔찍이 아끼는 자식은 희동이뿐이다.

희동이만은 장중보옥인듯 지극히 아끼는것은 그녀석이 제일로 잘생기고 총명한데도 있지만 보다는 그의 어미한테 푹 빠져있기때문이였다.

희동의 에미는 도성에서 몇손가락에 꼽히우는 미인이다.

마흔고개를 앞두었다지만 방년시절의 고운 티가 사그라지기는커녕 도리여 세련된 애교로 사내들의 혼을 빼는 그 재기에 좌가려는 그와 함께 있는것을 제일 큰 도락으로 여기는것이다.

이렇게 애첩에게 쏙 빠져있기에 그의 몸에서 떨어져나온 희동이만을 끔찍이 사랑하는것이였다.

그런데 희동이 16살이면 철들 때도 되였건만 금이야 옥이야 응석

받이로 기른탓에 아비의 훈시를 롱으로 여기는 정도이다.

그래서 언제부터 한번은 따끔히 일러주려 하였는데 마침 그럴 기회가 온것이다.

오늘 아침도 늘 그러했듯 연나부를 한바퀴 돌아보고 오니 그녀석이 또 사람을 죽이였다는 소식이 기다리고있었다.

희동이녀석이 아침부터 수레를 마구 내몰아 길을 가던 나그네 몇사람을 들이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한 한사람은 다행히도 어느 부자집 종이라는것이다.

희동이 제일 즐기는 놀이가 전차놀이이다. 두필의 군마에 메운 싸움수레를 전차라고 하는데 이런 전차는 주로 들판에서 적을 칠 때 쓰인다.

질풍같이 내달리는 싸움수레로 적의 보병을 들이받아치는 위력은 대단하다.

희동은 수레에 올라서면 미친놈처럼 날뛴다. 수레를 정신없이 내몰아 길손들에게 흙탕물을 끼얹고 흙먼지를 들씌우는데서 쾌락을 느끼는것이다.

지어는 고의로 사람을 깔아뭉개고 기뻐서 춤을 추기까지 한다.

재미난 골에 범난다고 그 몹쓸 전차놀이에 환장한 희동이때문에 품들여 준비해온 거사에 불티를 날릴수도 있었다.

지금이 어느때인가.

아비라는 사람은 룡상의 주인을 연나부의 뜻에 고분고분할 사람으로 다시 내세우자고 가슴을 조이며 군사를 모으고있는데 아들녀석은 그따위 미친 지랄을 부리고있으니 그때문에 임금의 눈길이 쏠리면 그땐 야단이다.

그러지 않아도 연나부의 속을 알아차렸는지 임금이 위나암성으로 돌아앉았는데 이런 때의 이런 짓거리는 커다란 재앙거리로 될수 있다.

그래서 좌가려는 회초리를 가져다놓고 이웃집으로 놀러 갔다는 희동이를 불러오게 한것이였다.

《지금쯤은 이녀석이 오고도 남았는데…》 하고 중얼거리는데 아

닐세라 희동이를 데리러 갔던 하인이 뜨락에 들어서고있었다.

응당 함께 들어서야 할 희동이가 보이지 않자 좌가려의 눈섭이 곤두섰다.

《평자어른.》

여느때 같으면 평자라는 하인의 부름소리에 우쭐해졌을 좌가려였지만 오늘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평자란 도성의 지역을 갈라놓은 5부의 각 부를 하나씩 맡아 통솔하는 행정장관으로서 조정대신들의 통솔을 받는 관직이다.

그러나 조정을 장악한 연나부를 통솔하는 평자는 곧 조정을 쥐락펴락하는 권신중의 권신이라고 할수 있었다.

사실 국상이 비여있는 조정에서 연나부의 평자는 국상에 비길만한 권세가였다.

좌가려는 임금의 어머니인 태후와 한집안이고 신대왕의 처가켠 사람인것으로 하여 신대왕이 등극한 첫날부터 연나부의 평자로 되였고 명림답부가 돌아가자 조정의 정사를 쥐락펴락하고있었다.

좌가려는 하인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어째 혼자냐, 엉?》

좌가려의 큰소리에 하인은 아첨기를 지은 얼굴을 주억거리며 대답했다.

《공자님은 잠간 뒤간에… 아, 들어오고있지 않소이까.》

하인이 가리키는 대문으로 훤칠한 키에 옥같이 환한 얼굴의 희동이 히물거리며 들어오고있었다. 높은 벼슬아치들의 관모인 뒤부분이 두가닥으로 갈라져 올라간 책까지 제멋대로 쓴 희동이였다.

하긴 아비의 권세이자 그 자식의 권세로 되고있으니 이런 애숭이가 관모를 쓴들 탓할것도 없었다.

웃는 얼굴인걸 보아 아비가 찾는 까닭을 모르는것 같았다.

좌가려는 손짓으로 하인을 물러가게 하고 회초리를 집어들었다.

무슨 벼락이 떨어지겠는지 전혀 알수 없는 희동은 아비앞에 나설 때마다 늘 그러했듯 잘 생긴 얼굴에 웃음을 가득 싣고 퇴돌아

래에 나섰다.

그리고는 책을 벗어들고 성의없이 되는대로 절을 했다.

《소자 대령했사옵니다.》

나타나기만 하면 사정없이 종아리를 치리라 윽별렀던 좌가려였지만 희동의 웃는 얼굴을 보자 손이 떨렸다.

(이녀석만 보면 마음이 약해진다니…)

좌가려는 피줄까지 들여다보이는 애첩의 해말간 얼굴을 그대로 옭겨놓은듯싶은 희동에게 매질을 할수 없었다.

회초리를 내던진 좌가려는 엄하게 말했다.

《너 오늘도 사람을 치여죽였다며?》

희동이 히죽 웃으며 대꾸했다.

《아버님, 그런 시시한 소일거리를 따지는것은 정사까지 돌보셔야 하는 아버님의 직분에 맞지 않는줄 아오이다.》

좌가려는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희동의 처사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이녀석아, 너 언제면 철이 들겠느냐, 엉?》

아비의 속을 알리 없는 희동은 볼이 부어 대꾸했다.

《그까짓 종놈이나 죽은걸 가지고 왜 그리 야단하오이까. 죽은 수만큼 생겨나는게 종놈들이고 그래서 우물이 마르면 말랐지 줄어들지 않는게 백성이라 하는게 아니오이까.》

좌가려는 주먹으로 마루바닥을 내리쳤다.

《이녀석, 길흉화복은 다 사람이 불러오는것이라고 하였다. 네가 아비의 권세를 업고 날마다 사람을 해친다면 어찌되겠느냐? 나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겠지. 그럼 이 아비가 인심을 크게 잃게 된다.》

화김에 인심이란 말을 내뱉은 좌가려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인심을 얻는자는 흥하고 인심을 잃는자 망한다는 말은 누구나 다 아는것인데 그걸 잘 알면서도 온 나라의 인심을 크게 잃은 좌가려였다.

권세도 부귀도 남들보다 크게 누리자니 인심을 잃을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잃은 인심때문에 내가 망하는걸 방비하자고 나라의 주인을 바꾸자고 하는것이 아닌가. 마음대로 다룰수 있는 꼭두각시같은 임금만 내세우면 연나부를 원망하여 들고일어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처형할수 있으니 어찌 망할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좌가려는 이 속마음을 차마 입에 올릴수 없었다.

그래서 안타깝게 소리쳤다.

《집안에 망조가 들면 손자까지도 가장의 말을 듣지 않는다더니… 그래도 이 아비의 분부를 흘려듣겠다면 나를 아비라 부르지 말아.》

머리가 그리 둔하지 않은 희동은 이런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제꺽 알아차렸다.

장차 아비의 모든 재산을 송두리채 물려받자면 좋든싫든 아비의 턱밑에 바싹 붙어서 가려운 등도 긁어주고 아픈 배도 쓸어주어야 할것이였다.

이 집에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고간마다 값진 재물이 가득가득하다.

쌀이나 천, 고기 같은것을 두는 고간은 셈에도 두지 않는다.

널직한 돈고간에는 뒤주만 한 돈궤짝들이 줄을 지어 놓여있는데 그안에는 일화전 같은 엽전뿐아니라 은덩이며 금붙이가 가득하다.

아비의 웃방에는 진주보석이 가득한 큰 궤짝도 있다.

고구려는 예로부터 진주가 많이 난다. 백두산북쪽의 홀한하(목단강)에 진주조개가 서식한다.

그곳의 진주조개에서 딴 진주는 백옥처럼 하얀 구슬인데 부르는게 값이다.

원래 진주구슬은 국고에 넣게 되였으나 온 조정이 연나부의것인 오늘날 그것도 좌가려의 고간으로 들어올수밖에 없는것이다.

이외에도 수만마지기의 전답에서 수많은 작인들이 좌가려를 위해

서 피땀을 흘리고있었다.

《아버님, 확실히 소자에게 철이 없는것 같소이다. 이제부터는 아버님의 분부라면 소금섬을 물로 끌라 해도 기꺼이 따르겠소이다.》

그만에야 격했던 감정이 스르르 녹아버린 좌가려는 흡족해하였다.

(암, 그러면 그럴테지.)

좌가려는 내친김에 한마디 오금을 박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너 오늘부터 한달가량 밖에 나다니지 말아야겠다. 알겠느냐?》

한달이면 넉근히 거사를 뜻대로 치르리라 믿고있는 좌가려이기에 그런 다짐을 둔것이였다.

희동은 아비의 비위를 더는 건드리고싶지 않아 덮어놓고 다짐했다.

《명심하겠소이다.》

문득 향기로운 룡뇌향내가 풍겨오더니 은방울을 굴리는듯싶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보시와요, 자식훈시는 그만하고 약이나 잡수시와요.》

백번 들어도 싫지 않는 그 목소리에 좌가려가 눈길을 드니 화려한 비단치마에 덧저고리를 차려입고 애교가 찰찰 흐르는 애첩이 깜찍하게 만든 차잔을 받쳐들고있었다.

좌가려는 희동이 지켜보는 앞이라 차마 애첩을 껴안지는 못하고 점잔을 뺐다.

《허ㅡ 벌써 약먹을 때가 되였나?》

《아이, 자식훈시에 시간가는줄도 모르는가봐. 일구(해시계)를 좀 보시오이다.》

좌가려는 애첩이 가리키는 해시계를 바라보았다.

이 집뜨락의 한복판에는 대궐옆에 있는 천문을 맡아보는 관청에서나 볼수 있는 해시계를 참람하게도 본따 만들어놓고있었다.

언제나 자기를 임금과 같은 반렬에 세우고있는 욕심이 신하로서는 가질수 없는 해시계에까지 뻗친것이였다.

해시계는 크기라든가 모양새가 매돌과 비슷하지만 둥근 원반의 둘레를 따라가며 꼭같은 간격으로 24개의 눈금이 나있고 가운데의 중

심에 두자길이의 막대기가 꽂혀있다.

남쪽을 향해서 땅면에 약간 경사지게 설치한 해시계에 해가 비치면 막대기의 그림자가 원반에 드리운다.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눈금의 수이자 시간이다.

지금 해시계의 막대기그림자가 정오를 가리키고있었다.

《아이참, 그걸 처음 보는 사람처럼 한눈을 팔지 말고 어서 약을 받으시와요.》

애첩의 교태에 좌가려는 실눈이 되여 차잔을 받아들었다.

차잔의 바닥에는 분같이 고운 누런 가루가 눈곱자기만큼 깔려있었다.

시누런 이 약은 보통부자들은 먹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보약의 으뜸가는 금분이다.

고구려사람들은 옛적부터 금을 불에 달구었다가 분처럼 곱게 바수어 적은 량씩 먹으면 온갖 질병을 막고 장수할수 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니 좌가려가 어찌 금분을 놓치겠는가.

애첩이 희동이에게 일부러 눈을 흘기며 입을 열었다.

《네 아버지가 널 미워하는걸 보니 이젠 우리 모자가 싫증난 모양이구나.》

갖은 요설로 사내를 녹이는데 이골이 난 애첩의 수완에 녹고만 좌가려는 정욕이 이글거리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껄껄 웃었다.

이윽고 좌가려는 친근한 눈길로 희동이를 굽어보며 말했다.

《얘야, 내 죽으면 반드시 네 에미하고만 묻히겠다. 그러니 내가 너희 모자를 얼마나 중히 여기는지 알겠지? 그리 알고 가봐라.》

(9)

희동을 제 방으로 보낸 좌가려가 애첩을 애무하며 금분을 먹고있는데 하인이 다시 나타나 아뢰였다.

《중외대부어른이 오셨소이다.》

애첩과 정을 나누던 좌가려는 아쉬웠으나 고개를 끄덕이였다.

약삭바른 애첩이 《제 얼른 주안상을 차려보내겠나이다.》라고 말하며 부엌으로 종종걸음을 치였다.

좀 있어 키가 작달막하고 여윈 늙은이가 헛기침을 하며 들어섰다. 역시 좌가려처럼 차려입고 머리에 청라관을 쓴 늙은이였다.

이 늙은이가 패자의 감투를 쓰고 국상 다음가는 중외대부의 관직을 차지한 어비류이다.

《이거 점심에 찾아와서 미안하네.》

나이도 좌가려와 비슷하고 권력도 어슷비슷한 어비류는 그와 단둘이 있을 때면 이처럼 허물없는 말투이다.

어비류가 차지한 중외대부는 지방과 중앙의 높고낮은 관리들을 모두 살피고 법을 어긴 관리를 다스릴뿐아니라 병권과 인사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관청들을 통솔하는 국상의 일부 권한까지 대행하고 있으니 조정의 엄지손가락이라고 할수 있었다.

그러나 연나부를 통솔하는 좌가려한테만은 어깨를 낮춤으로써 온 조정이 이 두사람을 동급의 최고우두머리로 여긴다.

좌가려는 밀실로 어비류를 이끌며 말했다.

《우리 일이 무르익어가고있는 때일수록 아무때건 만나는것이 당연하오.》

밀실에서 두사람은 술상에 마주앉았다.

산삼을 우린 약주를 한모금 들이킨 어비류는 볼품없는 염소수염을 배배꼬며 말했다.

《공은 괜히 어린 자식을 못살게 구는것 같소그려. 듣자하니 방금 희동이를 꾸짖었다는데 이런 때일수록 남의 눈치를 살필게 아니라 배짱을 길러주어야 하네.》

《조심해서야 나쁠게 없지.》

어비류는 소리없는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큰일을 실행하는자는 작은 일을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있지 않나. 요즘 같은 때에 그런 소소한 일거리에 왼심을 쓰면 안되네.》

《천만에.》

생복회를 한입 삼키고난 어비류는 위나암성쪽에 대고 삿대질을 하였다.

《요즘 되여가는 형편이 좋지 않네. 바람은 불다불다 그친다지만 대궐바람은 그렇지 않은것 같네. 아무래도 날을 앞당겨 맞바람을 쳐야 할가보이.》

집어들었던 술잔을 도로 내려놓은 좌가려는 두눈을 치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어비류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방금 주전소에 갔댔네. 가보니 오늘 아침 임금의 동생 연우가 주전소를 찾아와 우리 사람들에게 올해 들어와 부어낸 돈이 얼마이고 그 돈을 누가 얼마만큼씩 나누어가졌는가를 따지였다네.》

좌가려는 입술을 비죽 내밀었다.

그까짓 돈이 뭐라고 연우가 직접 나와 시시콜콜 따지겠는가.

주전소를 연나부의 사람들로 꾸린 좌가려와 어비류는 찍어내는 돈을 국고에 넣는것보다 저희들끼리 나누어가지는 량이 더 많았다.

그것을 임금도 모르는바 아닌데 하필 이번 거사가 박두해왔을 때 연우가 주전소에 나온 진의도는 무엇일가?…

사실 주전소는 연나부의 관리들이 모여들어 밀담을 벌리는 소굴중의 하나였다.

그 점에 주의를 돌린 좌가려는 저가락으로 상을 치며 부르짖었다.

《연우 그놈이 우리의 동정을 살피러 왔댔군. 그놈을 그저…》

《바로 그걸세.》

《연우… 그놈이 뭘 좀 내탐해가지고 갔을가?》

《흥! 우리 애들이 숙맥단지는 아닐세. 연우가 진짜 돈때문에 나온것이 아님을 알아채고 시치미를 뚝 떼고있었으니 그가 무얼 내탐할수 있었겠나.》

두사람은 말없이 서로 쳐다보기만 하였다.

어비류의 머리는 조롱박처럼 작아보여도 그속에서 꾀가 곧잘 흘러나왔다.

반대로 머리통이 술동이처럼 큰 좌가려는 꾀는 많지 못해도 능글맞고 벽도 문이라고 냅다 미는 기질이 있었다.

좌가려가 먼저 입을 열었다.

《중외대부야 병법에 밝은데 왜 날을 앞당겨 맞바람을 불자고 하는건가?》

어비류는 반들거리는 뱁새눈을 깜빡이며 입을 뗐다.

《우리가 군사를 모아들이는것을 임금이 알고있는것 같네.》

좌가려와 어비류는 거사에 쓸 군사를 은밀히 연나부에서 모집하고있었다.

연나부에 사는 귀족들의 다수가 이들의 부하들인것만큼 그들이 부리는 작인들만 긁어모아도 수만명은 어렵지 않을것 같았다.

그 수만명에게 병쟁기를 들려주면 불의에 거사를 일으킬만 하였다.

그런데 몇백명도 아니고 수만명을 모으고있으니 임금이 눈과 귀를 막고있다한들 종당에는 모를리 없었다.

좌가려는 긴 한숨을 내쉬였다.

《그게 로출된것 같으면 일은 랑패일세.》

깜짝 놀란 어비류가 두눈을 부릅떴다.

《거 무슨 약한 소리인가. 큰 싸움을 하려는자는 두려움을 몰라야 한다는데 그쯤에 겁을 먹다니, 우리 냅다 밀어보세.》

좌가려는 한사코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사정이 다르네. 적이 나를 알고 적이 선손을 쓰기로 했다면 적에게 패할수밖에 없다고 하였네. 그러니 이런 때는 차라리 아무 일도 없는듯 시치미를 떼고있으면 임금이 우릴 건드리지 않을 거요.》

어비류는 약이 올라 따지듯 물었다.

《정말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나?》

《아무렴, 군사를 모아들이는 일을 즉시 그만둔다면 무사할수 있을거네. 사실을 말해서 군사를 모아들이는 일의 내막을 아는 사람은 우리 둘뿐이 아닌가. 그러니 그 일을 그만둔다면 임금도 모르는 척 할수밖에 없네. 그리고 조정은 우리의 세상이라 우리가 가만있는 한 임금도 가만있을수밖에 없네.》

오늘은 반대로 머리가 둔한 좌가려가 계책을 내니 어비류도 그 말이 그럴듯해서 성이 가라앉았다.

병법에 싸움의 승패여부는 누가 더 불의에 선손을 쓰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였으니 좌가려의 말을 따라서 랑패를 볼것이 없어보였다.

어비류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언제 맞바람을 분다?》

《그거야 임금이 더위에 시달릴 때이지.》

그 말이 임금이 마음의 탕개를 늦출 때임을 제꺽 알아차린 어비류는 《좋아!》 하고 소리쳤다.

두 역적은 또다시 술잔을 집어들었다.

제 2 장

가난하나 큰뜻 지닌 그런 사람 몇몇인가
시골선비 눈물 흘림 부질없는 일이리라
(리익의 악부시 《서압록의 노래》 중에서)

(1)

조가을이 한창인 요즘은 농사군들에게 있어서 몹시 바쁜 시기이다.

아침해가 떠오르기 바쁘게 양들을 산기슭으로 내몬 다음 달구지에 소를 메워가지고 집을 나선 을파소는 성급하게 채찍을 휘둘렀다.

《이랴, 쩌!—》

그의 마음은 아침일찍 낫을 들고 조밭에 나가있는 자식들에게 가 있었다.

그들이 지금쯤은 여러 뙈기의 밭에서 조를 베여눕혔을것이였다.

그러니 어서빨리 가서 조를 묶어 꺼들여야 한다.

《이랴!—》

을파소의 급한 사정을 안다는듯 황소도 왈랑절랑 소방울을 울리며 성큼성큼 큰걸음을 놓는다.

그 모양에 을파소는 웃음을 지었다.

옆집에서 하루 빌려쓰기로 한 소이건만 꼭 제 집의 소처럼 정이 끌린다.

《어디 좀 타볼가?》

달구지에 걸터앉으니 흔들대는 멋이 마치 가마를 탄듯싶다.

《괜찮아!》

허리가 휘여지도록 무겁고 실한 이삭이 실린 조밭을 그려보니 마음이 흐뭇하였다.

올해도 좌물촌에서는 어느 밭이나 농사가 잘되였다.

그게 다 온 마을이 뼈심들여 땅을 가꾼 덕이고 천기가 좋은 덕이라고 볼수 있었다.

농사가 잘되였으니 조세를 바치고도 남는 몫이 많아져 살림이 좀 펴일것이다.

좌물촌은 고을적으로 농군들이 살아가기에 제일 괜찮은 마을이다.

그것은 다른 마을들보다 땅이 비옥한때문만이 아니고 을파소의 덕이였다.

좌물촌에만은 땅부자가 없었다.

원래 좌물촌은 을씨가문의 조상인 을소가 나라에서 받은 식읍이다.

식읍이란 나라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조세를 받아가지도록 하는 고을이나 마을로서 조세를 받아먹던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나라에 바쳐야 한다.

을씨네는 을소가 죽은 후 그가 받았던 땅을 부치는 농사군이 되였고 집안이 힘을 합쳐 부자들이 마을의 땅을 사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문에 돈냥이나 있는 부자들도 귀족가문의 을파소가 버티고있는 좌물촌의 땅만은 넘보지 못하고있었다.

지금 달구지에 앉아가는 을파소가 보다 기뻐한것은 농사도 농사이지만 종으로 부려오던 인우와 정우에게 살길을 열어주었다는 그때문이였다.

올봄에 그들에게 집도 지어주고 땅도 주고 색시도 얻어주었더니 약속이나 한듯 그 두사람의 안사람들이 꼭같이 태기가 있으니 이런게 정녕 기쁨이 아니겠는가.

왈랑절랑…

황소가 억센 다리를 힘있게 내디딜 때마다 유정하게 울리는 소방울소리에 을파소는 타령이라도 부르고싶어졌다.

사내로 태여나 나라는 어쩔수 없어도 태를 묻은 마을 하나야 어찌 살기 좋게 일떠세우지 못하겠는가.

비록 살림은 넉넉치 못해도 서로가 화목하게 마을에 웃음이 넘치면 그게 곧 살기 좋은 고장이 아니겠는가.

황소는 어데로 가야 하는지 다 알고있다는듯 마을복판으로 나있는 큰길로 자신있게 접어들었다.

그 모양에 을파소는 또 웃음을 지었다.

세상에 짐승이 많다 해도 소처럼 무던하고 일 잘하는 짐승은 없을것 같았다.

사람의 말을 곧잘 알아듣고 논밭갈이며 길마로 짐을 지여나르는 일이며 하여간 사람들은 하기 힘든 농사일을 척척 해제끼니 소야말로 농가의 기둥이라고 할것이다.

을파소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가라, 왼쪽으로 치우쳐 가라 하는 분부를 하지 않았어도 황소는 씨엉씨엉 큰길의 복판으로만 가고있었다.

피뜩 눈길을 든 을파소는 마주 오는 사람이 몹시 낯설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후리후리한 키에 영준하게 생긴 사나이인데 얼굴이 희고 비단으로 지은 노란색바지에 붉은 저고리를 단정히 차려입고 머리에 네모진 두건을 쓴걸 보아 귀족이며 학문을 닦은 사람임이 대뜸 알렸다.

호기심이 나서 어데서 오는 길손인가 물으려 하던 을파소는 그만두고말았다.

비지땀을 흘리며 조가을을 하고있을 자식들이 생각난때문이였다.

낯선 사람을 스쳐보내고 마을을 벗어나는데 누구인가 달려와 고삐를 끄당겨 소를 멈춰세우는것이였다. 한마을의 젊은이였다.

《웬 일이냐?》

을파소의 물음에 젊은이는 숨을 헐썩이며 대꾸했다.

《좌상어른, 저… 저…》

을파소는 헐금씨금대는 젊은이의 가쁜숨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했다.

좌물촌에서는 누구나 을파소를 가리켜 좌상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을파소의 나이가 똑 제일 많아서라기보다 다들 그를 어른으로 존경하기때문이다.

온 마을이 크고작은 모든 일을 을파소에게 의탁하고있으니 그를 좌상이라고 부를만도 하였다.

숨이 좀 가라앉았는지 젊은이는 침을 모아삼키고나서 말했다.

《큰일났소이다.》

을파소는 달구지에서 내려서며 물었다.

《뭐가 큰일났다는거냐?》

《유보 그 자식이 방금 색시를 쫓아냈소이다.》

을파소에게는 좀처럼 믿기 힘든 소리였다.

지금껏 좌물촌에서는 인륜에 어그러지는 일이 별로 없었다.

비록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지는 못해도 인정만은 부자로서 어느 집에서 불상사가 생기거나 기쁜 일이 생기면 온 마을이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서로 돕고있었다.

간혹 마음보가 사나운자가 있어 남을 헐뜯거나 해되는짓을 하면 견뎌배기지 못한다.

그것은 농사로부터 관혼상제에 이르기까지 마을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을파소의 역할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었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 마을의 어느 집이나 화목할것이라고 믿어온 을파소는 마음이 허전하였다.

유보는 을파소가 보다 더 관심을 돌리고있는 젊은이였다.

유보가 을씨가문의 사람이 아니건만 보다 관심을 돌리고있는것은 그가 눈먼 어머니를 모시기때문이였다.

을파소는 젊은이에게 일렀다.

《내 좀 알아보겠으니 자네는 이 달구지를 저 재등너머에서 조가을을 하는 내 아들에게 끌어다주게.》

그리고는 오던 길을 되돌아 반달음질을 놓았다.

인차 유보네 집앞에 이른 을파소는 벌려진 삽짝문으로 뜨락에서 머

리를 거푸수수 풀어헤치고 우는 눈먼 로파를 볼수 있었다.

삽짝문으로 들어서는 을파소에게 로파가 울음에 잠긴 목소리로 말하는것이였다.

《좌상어른이 오시는구만요.》

방안에 앉아 영각소리를 듣고서도 그게 누구네 소인지 알아맞추는 로파이니 제 집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리 없었다.

로파는 울면서 말했다.

《제 아들녀석이 미쳤쉐다. 그렇게도 얌전한 새아기를 쫓아버렸으니 우리 집이 천벌을 받지 않나 두고보소이다.》

토방에 걸터앉은 을파소는 어이가 없었다.

어지고 부지런한 유보가 그런짓을 하다니…

아비는 수자리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눈먼 어머니를 봉양하느라 고생이 많은 유보는 인정이 물러 남을 잘 도왔다.

그런 유보가 몇해전 성쌓는 부역에서 큰돌에 치여 한다리를 절게 되였다.

그때문에 혼처가 쉽게 나지 않아 을파소가 애쓰지 않을수 없었다.

을파소의 노력으로 이웃고을에서 처녀를 데려다 온 마을이 달라붙어 남부럽지 않게 잔치상을 차리였다.

그것이 고마와 신랑도 울고 신부도 울었다.

을파소는 축축해진 눈굽을 닦으며 로파에게 물었다.

《유보가 어데 갔소?》

로파는 턱으로 방을 가리켰다.

《착한 색시를 쫓아내고는 죽은 소귀신처럼 저안에서 구들장을 깔고 누워있소이다.》

을파소가 방문을 여니 정말 유보가 홑이불을 쓰고 누워있었다.

성이 난 을파소가 나직이 말했다.

《이녀석, 색시를 쫓아내고 무엇이 편해서 구들을 지고있는거냐?》

유보가 황급히 일어나 굽석 절을 했다.

을파소는 조용히 꾸짖었다.

《네가 그래도 사람의 가죽을 썼다고 인사를 하는데 난 그따위 인사는 받지도 않겠다. 이녀석, 말뚝처럼 서있지 말고 얼른 나오지 못할가?》

주눅이 든 유보가 토방에 나와섰다.

열려진 문으로 방안을 들여다보는 을파소의 가슴은 쓰리였다.

방안의 물건이라고는 기껏 낡아빠진 채롱 두개와 베이불뿐이였다.

이 집에서 부치는 땅도 골짜기의 막바지 돌서덜밭인데 그나마 두마지기뿐이다.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이 집을 걱정하여 가끔 마을사람들이 먹을것과 입을것을 모아주는데 그것으로 살림이 추설리 없었다.

하여간 지금은 그런것을 론할 때가 아니였다.

유보를 토방에 눌러앉힌 을파소는 엄하게 일렀다.

《너도 아는지 모르겠다만 비둘기란 새는 말이다, 한번 쌍을 지으면 평생 갈라지지 않고 산단다. 어떤 화를 당하여 쌍을 지었던 비둘기가 죽으면 살아있는 비둘기는 죽은 비둘기의 몸을 비비면서 몹시 슬퍼한단다. 미물도 그러할진대 하물며 사람이 백년을 해로하자 다짐한 색시를 쫓아낼수 있느냐?》

그 말에 유보가 어깨를 오르내리며 눈물을 흘리였다.

이윽고 유보가 입을 열었다.

《좌상어른, 사실 전 그 사람을 내쫓은게 아니라 제 집으로 돌려보냈소이다. 식솔은 한명 늘어났건만 조세를 바치고나면 겨울을 나기 힘드오이다. 살아가기가 막막하니… 괜히 그 사람까지 우리같이 못사는 집에 데려다놓고 배를 곯리는 고생을 시킬게 있소이까.》

유보의 한탄소리에 을파소는 기분이 더욱 언짢아졌다.

이녀석이 호부자집자식처럼 살림타발을 하다니… 그래 시골의 가난한 농사군들치고 배를 곯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덜된 녀석.

안타까운 심정에 숨을 몰아쉬던 을파소는 유보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은 재물이 부족해서 못사는게 아니다.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젊었을 때 외적이 쳐들어왔댔다. 그때 우리 고을에서도 많은 사

람들이 외적을 쳐부시러 전장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그들속에는 홀어미를 모시던 가난한 집 젊은이도 있었다. 젊은이는 비록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의 약혼녀는 그 집에 가서 한생 시어미를 돌보았단다.》

을파소는 눈물을 흘리는 유보의 손을 잡고 말을 이었다.

《치마두른 녀인도 이러할진대 사내대장부가 이쯤한 가난에 주저앉아 색시를 보내다니 그게 어디 될 일이냐. 부부가 힘과 마음을 합치면 앞으로 잘살수 있다.》

이 말을 하면서 을파소는 가을걷이가 끝나면 마을의 젊은이들을 휘동하여 유보네에게 새땅을 일구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유보가 머리를 조아리며 부르짖었다.

《좌상어른, 이놈 생각이 짧았소이다.》

을파소는 일부러 엄하게 일렀다.

《잘못을 깨달았거든 말을 빌려타고 가서 색시를 데려오지 못할가.》

《알겠소이다.》

을파소는 허둥지둥 삽짝문밖으로 사라지는 유보를 흡족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2)

유보네 집을 나선 을파소가 큰길로 접어드는데 불쑥 앞을 막는 사람이 있었다.

그를 비켜가려던 을파소의 두눈이 커지였다.

아까 달구지를 타고 갈 때 보았던 낯선 사람이였기때문이였다.

흰 얼굴, 넙적한 이마, 눈정기와 함께 친근한 정이 어려있는 크고 둥근 두눈, 날이 선 마늘코… 준수하게 생긴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다.

《혹시 이 마을의 좌상어른이 아니오이까?》

의문이 가득해진 을파소는 갈길이 급함을 잊고말았다.

《한데 그대는 뉘시오?》

낯선 사람이 반가와하며 《전 도읍의 동부사람 안류라 하오이다.》 하더니 깊숙이 허리를 굽히는것이였다.

초면의 사람이 절을 하니 그에 바빠맞은 을파소는 안류의 팔을 부여잡았다.

《제발 이러지 마오. 난 한갖 농사군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안류는 오랜 농사군의 체취가 풍기는 을파소를 존경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좌상어른은 젊었을 때 졸본에서 구려경당을 다니지 않았소이까?》

을파소는 자기의 경력을 안류가 알고있는것이 놀라왔다.

《그런데 그건 어째서?…》

《그때 학산사부님에게서 글을 배우지 않았소이까?》

을파소는 40여년전의 아득한 그 시절을 돌이켜보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학산사부님은 나의 잊을수 없는 스승이였소.》

안류는 또다시 허리를 굽히였다.

《전 학산사부님의 마지막제자였소이다. 후배의 절을 받아주시오이다.》

을파소는 십년지기를 만난것처럼 반가왔다.

《허ㅡ 어쩐지 초면인데도 마음이 끌린다 했소.》

안류는 농사일로 늙은 을파소를 바라보며 말했다.

《전 사부님의 십년 후배로서 학산사부님의 림종을 지켜드렸소이다. 림종시 사부님은 자신이 키운 제자들중에서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만 한 동량지재로는 을파소와 연학루라 하였소이다.》

을파소는 심심한 애도의 마음으로 북쪽의 하늘을 쳐다보았다.

학산은 정사로부터 병학에 이르는 동서고금의 모든 학문에 도통함으로써 누구도 따를수 없는 큰 봉우리를 이룬 재사였다.

학산의 말이 지금도 을파소의 귀전을 울리는듯싶었다.

《사람은 제 겨레를 위해 존재하며 그를 떠난 생을 론할수 없다.》

또한 구려경당을 하직할 때 멀리에까지 따라나와 바래워주며 하던 스승의 마지막당부도 귀에 쟁쟁하였다.

《난 자네가 반드시 강대한 고구려를 받드는 큰 인재가 되리라 믿네.》

그때를 돌이켜보는 을파소의 두눈에 눈물이 고이였다.

《아, 사실말이지 난 학산사부님을 나의 스승이라고 떳떳이 부를수 없는 사람이요.》

안류도 눈물이 글썽해서 말했다.

《그러기는 저도 마찬가지이오이다.》

이 말은 안류의 진심이기도 하였다.

고구려는 웬만한 마을에도 경당이 있었다. 벌써 고구려건국초기부터 도처에 경당이 있은것이였다.

그것들중에서 제일로 유명한 경당이 졸본의 구려경당이였다.

구려경당은 겨레의 강토를 통일할 큰뜻을 품은 동명성왕이 구려에서 고구려를 일떠세우려 활약하고있을 때 세워진 련무장에 그 뿌리를 박고있었다.

고구려에서는 마을들에 있는 경당을 그 마을의 이름을 붙여 어느 마을의 경당이라고 부르는것이 상례로 되고있었다.

구려경당은 고구려건국전에 부여에서 온 사람들이 구려국에 내온 련무장에 시원을 두고있는것으로부터 누군가가 그렇게 부른것이 이름으로 굳어진것이였다.

그때 이곳을 동명성왕도 중시하여 자주 찾아왔다고 한다.

오늘도 구려경당을 다니는 젊은이들은 동명성왕의 자취가 어려있는 유명한 경당에서 문무를 배운다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었다.

력사도 오래고 규모도 큰 구려경당은 그로 하여 사부들의 실력이 높았다.

학산과 같은 고구려 제일의 인재들이 바로 이 경당에서 문무를 겸

비한 제자들을 키웠다.

《학산사부님은 눈을 감기에 앞서 구려경당을 다닌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남기였소이다.》

안류의 말에 을파소는 탄식해마지 않았다.

《난 한 일없이 늙고말았으니 사부님을 욕되게 하였소. 그런데 그댄 여기에 무슨 일을 보러 오셨소?》

안류는 벙글 웃었다.

《선배님, 그건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소이다.》

그가 을파소를 찾아온 사연을 선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려운것이였다.

구려경당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안류는 수십년세월 스승의 기대에 보답하려 애써왔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아주지 않았다.

연나부의 대가들이 조정에서 살판치는 한 설사 벼슬길에 오른다고 해도 큰일을 할수 없다는것을 절감한 안류는 몇해전부터 그것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남몰래 다른 부의 대가들을 찾아다니며 좌가려네를 몰아낼만 한 힘과 담력을 지닌 사람들을 찾고있었다.

하지만 연나부의 세력이 너무도 강하고 다른 부의 대가들 역시 바람따라 돛을 다는 소인들이라 그런 사람을 찾을수 없었던것이다.

뒤늦게야 도읍의 대가들과는 큰일을 할수 없다는것을 깨닫고보니 스승이 크게 믿었던 두사람이 생각났다.

그래서 먼저 구려경당에서 글을 가르치는 학루를 찾아갔다.

전국각지에 많은 제자를 두고있는 학루와 손을 잡으면 인차 뜻을 같이할 벗들을 모을것 같았다.

허나 뜻이 다른 학루는 벼슬길에 나서자는 안류의 청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 본명은 학루가 아닐세. 난 당초에 학산사부님의 뒤를 이어 한생 여기서 문무재덕을 갖춘 제자들을 키우리라 뜻을 세웠기에 학루라 개명한거네. 말하자면 스승께서 정사와 법의 시행은 물론 병학에 이르는 거대한 학문의 봉우리를 이루었다면 난 그 봉우리에로 제

자들을 이끌어간다고 할가… 그러니 그런 부탁을 말게.》

큰 기대를 안고 학루를 찾아갔다가 실망을 안고 돌아선 안류는 마지막으로 을파소를 만나보기로 마음먹은것이였다.

처음 안류는 을파소를 저 하나 먹고살기 위해 농사나 짓는 소인으로 여기였다.

그러나 을파소에 대해서 알아보니 생각과는 달리 기대가 가는것이였다.

불의한짓을 일삼는 동생을 가차없이 처형한거며 고향마을을 화목하도록 이끌어가는거며… 그런 사람이 조정에 나와 그렇게 정사를 본다면 국운이 기우는 나라를 바로잡을수 있을것이였다.

그래서 을파소를 찾아온 안류였다.

먼길을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해야겠다는 생각에 을파소는 안류의 손을 잡아끌었다.

《어쨌든 우리 집으로 가세.》

안류는 고개를 저었다.

《가을걷이때에는 코흘리개아이들도 곡식짐을 지고 다닌다는데 내 어찌 바쁜 농사일을 지체시키겠소이까. 그럴것없이 밭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것이 어떻소이까?》

을파소는 쾌히 말했다.

《좋네. 그럼 조가을을 하러 가세.》

두사람은 인차 재등너머의 골안에 이르렀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조밭에 무겁게 실린 조이삭이 바람에 설레이는것을 본 안류는 탄복해마지 않았다.

다른 마을과 달리 농사가 잘된 이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서도 좌물촌을 이끌고있는 을파소가 어떤 사람임을 엿볼수 있었다.

마을이 화목하면 흥겨운 노래소리 울리고 그 소리에 나라가 흥하는것이 아니겠는가.

을파소의 자식들과 인사를 나눈 안류는 낫을 집어들었다.

서툴기는 해도 탐스러운 조이삭을 베여나가는 안류는 먹지 않아도

배부른 심정이였다.

이런 맛에 농사를 지을것이였다.

흥이 난 안류는 제법 목청을 돋구어 노래가락을 뽑았다.

훨훨 나는 꾀꼬리
쌍을 지어 노니는데
외로워라 이내 몸은
뉘 함께 돌아가랴

구성지게 한곡조 뽑고난 안류는 허리쉼을 하는 을파소에게 물었다.

《선배님, 이 노래를 을씨가문이 그토록 좋아한다는게 맞소이까?》

을파소는 저으기 놀라왔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남의 집 취미까지 아는것일가?…

을씨가문이 항간에서도 불리우고있는 꾀꼬리노래를 남달리 좋아하는것은 을소때문이였다.

이 노래는 을소가 모시였던 류리명왕이 지은 노래이다.

을씨가문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을소와 함께 어느날 나무밑에서 쉬던 류리명왕이 하늘을 나는 한쌍의 꾀꼴새를 보고 지었다고 한다.

늘그막에 좌물촌으로 이사를 온 을소는 임금이 그리울 때면 이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였으니 그때문에 꾀꼬리노래는 을씨가문이 즐기는 노래로 전해진것이였다.

을파소는 웃으며 대꾸했다.

《자네 그런 내막까지 아는걸 보니 렴탐군 한가지일세.》

이때라고 안류는 화제를 돌리였다.

《선배님은 요즘 세상을 어떻게 보시오이까?》

을파소는 쓴웃음을 지었다.

요즘 세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좌가려와 어비류의 손에서 골병이 든 조정을 념두에 둔것이다.

《아무리 세력이 크다 해도 인심도 잃고 나라님의 버림을 받는 무리는 반드시 망하기마련일세.》

《그럼 연나부의 세상이 언제까지 갈것 같소이까?》

을파소는 웃으며 숨을 한껏 들이켰다.

《썰물이 지면 미구에 밀물이 들기마련이고 십년 가는 권세없다는 것은 초부도 아는것이라 그런건 문제가 아닐세. 문제는 그것들이 더럽혀놓은 조정을 쇄신하는것인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네. 오죽했으면 나라를 세우기보다 세운 나라를 다스리는것이 더 힘들다는 말이 생기였겠나. 어지러워진 세상을 바로잡자면 먼저 나라를 위하려는 마음으로 저자신부터가 청렴해야 하고 제 집안부터가 사리사욕이 없어야 하며 남들의 거울이 될수 있는 정직한 사람들을 찾아내여 그들로 조정신하들을 갈아치우고 오로지 국법대로 정사를 펼쳐야 할것이네. 자, 그런 큰 국사를 어찌 낫가락이나 들고 론하겠나. 후에 허리띠를 풀어놓고 의논하기로 하세.》

손바닥에 침을 뱉아 낫자루를 꽉 거머쥔 을파소는 조를 베여나갔다.

까끈하게 조를 베여눕히는 을파소를 따라잡느라 안류는 땀을 흘리였다.

한번도 허리를 펴지 않고 한이랑의 조를 다 베여눕히고서야 을파소는 일어섰다.

《도읍사람치고 그만하면 낫질솜씨가 괜찮으이.》

한이랑을 채 베여눕히지 못한 안류는 얼굴의 땀을 팔굽으로 문대는 그 꼴에도 뻐기며 말했다.

《내 이래뵈두 내 손으로 곡식을 심어먹는 사람이오이다. 우리 집 뒤에 해묵은 대추나무들이 널려있는 밭이 있는데 난 거기에다 보리를 심어먹는것을 재미로 여기고있소이다. 해마다 보리풍년이라 이웃들은 나를 가리켜 농사물계에 환하다고 칭찬이 자자하오이다.》

을파소는 크게 웃음을 터치였다.

유쾌하게 웃고난 을파소는 말했다.

《그대 같은 건달농사군이 농사물계에 환하다? 거참, 듣기 좋소. 대추나무밭에서 보리풍년이 드는건 그대의 덕이 아니라 대추나무의 덕분이라는걸 모르는가부지. 그것도 모르면서 농사물계에 환하다고 하다가는 망신을 사서 하네.》

안류는 곧이들리지 않는다는듯 고개를 저었다.

《허ㅡ 이 사람이 잘 믿지 않는군. 그러니 긴말을 해야겠군. 대개 보리이삭이 패는 시기에는 메마른 바람이 불기마련일세. 바로 그때 한창 잎이 무성해지는 대추나무가 다른 나무들과 달리 많은 물기를 잎에 머금고있기때문에 그 몹쓸 메마른 바람을 막아주는거네. 그래서 보리가 시들지 않고 잘 여물수 있는걸세.

때문에 예로부터 보리밭에 대추나무가 있으면 일거량득이라고 하는거네.

자네 집뒤라야 소궁둥짝만 한 밭이나 있겠는데 농사군흉내나 내는터에 그런걸 알리가 없지.》

안류는 보리농사의 비결을 즉시에 일깨워주는 동시에 남의 형편을 제눈으로 본듯 헤아리는 을파소의 선견지명에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이번에는 을파소가 물었다.

《댁에선 수수농사도 짓소?》

안류는 멋적게 웃었다.

《허 참, 보리는 잘되는데 수수는 그렇지 않소이다.》

《혹시 수수밭에 참깨를 섞어심는건 아닌가?》

《그걸 어떻게 아오이까?》

을파소는 새 이랑의 조를 베여눕히며 대꾸했다.

《농사를 짓는데서도 요령이 있어야 하네. 수수와 참깨는 서로 잘 자라지 못하게 훼방을 놀아대는 수화상극지간이라 그것들을 섞어심으면 수수농사가 잘 안되네.》

연방 감탄을 터치던 안류는 정색해졌다.

(왜 이렇게 화제가 곁갈래칠가? 내가 무엇때문에 이 먼길을 찾아

왔던가.)

안류는 드디여 본색을 드러냈다.

《선배님은 연나부의 세상이 언제까지 간다고 생각하오이까?》

거듭되는 질문에 을파소는 허리를 펴고 웃었다.

《이보게 안공, 조석거리도 없는 주제에 천하를 걱정한다는 말이 있지. 옛말이라고 다 옳은건 아닐세. 조석거리가 없기때문에 조석거리를 얻기 위해서라도 천하를 걱정해야 한단 말일세. 그래서 난 남들이 농사군따위가 세상형편을 운운하는건 주제넘는 일이라고 비웃더라도 요즘 되여가는 조정의 꼴을 보기만 할수 없네. 그렇다고 이런데서까지야…

그건 그렇고 후배가 선배네 집에 놀러 왔은즉 내 한턱 쓰지. 오늘 점심은 밭에서 대충 하고 저녁에 우리 가문의 별식을 대접하지.》

안류는 조급해졌다.

을파소도 학루처럼 벼슬길에 등을 돌려댄것은 아닌지?…

(3)

그날 저녁 을파소의 집에서 음식상을 마주한 안류는 호기심이 이만저만 아니였다.

밥상에 차려놓은 음식들이 옛적의 이름높은 명재상이 즐겨 먹던것이라니 그럴만도 하였다.

을파소는 조찰떡이며 붕어졸임, 더덕장절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안류에게 허물없이 말했다.

《허ㅡ 큰상받은 새신랑같이 언제까지 눈요기만 하겠나?》

그제서야 안류는 조찰떡부터 집어들었다.

둥글게 빚은 조찰떡은 팥고물을 묻힌것인데 맛을 보니 집에서 해먹던 조찰떡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옛 재상이 즐겨 먹던 음식이라기에 그 맛이 별맛일거라고 생각했

던 안류는 웃고말았다.

명재상의 입도 보통사람과 다를바없군.

이번에는 무심히 붕어졸임을 입에 넣던 안류는 놀라왔다.

짭짤하면서도 달고 고소하면서도 씹는 맛이 좋은 이런 붕어졸임은 먹다 처음이였다.

개울에 흔한 붕어이기에 이 집의 붕어졸임도 맛이 그럴것이라고 생각한 안류였다.

방에 겨릅등이나마 두개씩 켜있어 붕어졸임을 자세히 보는데는 지장이 없었다.

어떻게 손을 댔기에 이다지도 별맛일가.

유심히 살펴보니 이 집의 붕어졸임은 확실히 다른 점이 있었다.

대개 붕어졸임을 만들려면 밸따위는 물론 비늘까지도 깨끗이 긁어버리는것이 일상사이건만 이 집의 붕어졸임에는 비늘이 붙어있었다.

그렇다고 비늘을 그대로 둔건 아니고 비늘이 된장에 섞여 졸인 붕어의 겉에 발려있었다.

안류는 을파소에게 물었다.

《비늘이 있는 이런 붕어졸임은 먹다 처음이오이다. 씹는 맛도 참 좋소이다. 흔하디흔한 붕어를 맛있게 졸인걸 보니 놀랍소이다.》

을파소는 눈섭을 쫑긋하며 웃었다.

《그래서 재상가문의 음식이 아니겠나. 허ㅡ 이건 롱말일세. 우리 집에서는 예로부터 붕어졸임을 이렇게 해먹었네. 사람들은 흔히 비늘을 긁어버리고 붕어를 졸여먹는데 그건 붕어비늘이 몸보신에 좋은 보약인줄 모르기때문일세.

의원들의 말에 의하면 물고기비늘은 피를 맑게 해주고 여러가지 병도 막아준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어서 나쁠건 없을거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붕어비늘을 버리지 않는다네. 붕어비늘을 그대로 두고 졸이면 맛이 떨어지네. 그래서 긁어낸 비늘을 따로 모아가지고 참기름에 튀기고 그 다음 장에 볶아서 장졸임한 붕어의 겉에 발라준다네. 이게 우리 집 비방일세.》

안류는 감탄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었다.

《이 음식비방이 좋기는 하지만 품이 너무 많이 드는게 탈이오이다. 그렇게 품이 들어가지고서야 어느 하가에 그런걸 만들어 먹겠소이까.》

을파소는 고개를 저었다.

《그대 생각이 짧은것 같네. 값지고 희귀한 음식감일지라도 품을 적게 들이면 훌륭한 음식이 될수 없고 흔하고 값눅은 음식감이지만 품을 바치면 훌륭한 음식으로 될수가 있네. 누구나 만사를 직심스레 품을 들여 대하는 좋은 습관을 가질 때 그만큼 나라의 부강도 문명도 더 좋아질게 아닌가.》

안류는 그만 코를 떼운듯싶었다.

지금껏 어데를 가나 남의 흠을 거들어 훈시는 했어도 훈시를 당한 일은 없었던 안류였다.

확실히 을파소는 보통사람같지 않았다.

이윽고 을파소가 《아직 그게 안되였느냐?》 하고 소리치기 바쁘게 질화로를 안아든 맏아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버님, 늦어서 죄송하오이다.》

상결에 질화로를 내려놓고 놋소래까지 들여다놓은 맏아들이 나가자 을파소는 숯불이 좋은 질화로와 고기점을 꿴 꼬챙이들이 가득한 놋소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오늘 이 선배가 후배인 그대에게 맛보이자고 하는 우리 집의 진짜 별식일세. 고구려사람치고 소고기나 양고기로 만든 불고기를 싫어할 사람이 어데 있으랴만 우리 가문의 사람들은 예로부터 양불고기를 아주 좋아했다네. 그래서 난 아무리 힘들어도 해마다 열댓마리의 양을 기르는것일세.》

을파소는 숙련된 솜씨로 적쇠우에 고기꼬챙이들을 올려놓고 구워냈다.

역시 불고기를 좋아하는 안류는 을파소가 내미는 꼬치불고기를 사양없이 받아 입에 넣었다.

《맛이 어떤가?》

고기점을 급히 씹으며 안류는 고개를 끄덕이는것으로 좋다는 대답을 대신했다.

을파소는 청주를 가득 부은 술잔을 안류에게 내밀었다.

《불고기에 술이 없으면 안되지.》

술을 좋아는 해도 많이 마시지 않던 안류이지만 오늘만은 실컷 취하도록 마시고싶었다.

《좋소이다. 선배님을 만난 이런 기쁜 날에 어찌 술을 사양하오리까.》

노릿노릿 고기를 구워내며 을파소가 말했다.

《나보고 천하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붙이를 꼽으라고 한다면 난 서슴없이 우리 고구려의 불고기를 단연 첫손가락에 꼽겠네. 자넨?》

그사이 몇개의 꼬치불고기를 축낸 안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나도 물론이오이다.》

《자넨 우리의 불고기가 중원의 불고기와 어떤 차이가 있기에 더 별맛이라고 생각하나?》

그에 대해 별로 아는것이 깊지 못한 안류는 고개를 젓고말았다.

술을 마시고난 을파소가 말했다.

《옛책을 보니 중원사람들은 고기를 굽거나 삶은 다음 소금이나 조미료를 찍어먹는다고 하였네. 그러나 우리의 불고기는 미리 날고기에 마늘과 파를 두고 만든 양념장에 푹 재워두었다가 이렇게 꼬챙이에 꿰서 숯불에 구워먹거던. 그래서 맛이 별스러운것이고 그래서 중원사람들이 우리의 불고기를 가리켜 맥적이라고 부르네.》

흥미진진한 태도로 귀를 기울이는 안류를 바라보던 을파소의 목소리가 좀 높아졌다.

《그런데 고약한것은 감히 그들이 우리 겨레를 가리켜 맥족이라고 하는거네. 언제인가 그 사람들이 쓴 어느 한 옛책을 보았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박달겨레를 가리키는 글로서 제멋대로 우리를 깔보는

글자붙이를 선택하여 맥이라고 불렀네.》

그 말에 안류는 을파소가 고금의 력사에도 환할뿐더러 제 겨레에 대한 애착과 자존심이 이만저만 아님을 다시한번 확신할수 있었다.

두사람은 서로 술을 권하며 불고기를 맛있게 들었다.

이윽고 주기가 오른 안류는 이제는 옛일로 되여버린 구려경당의 애젊은 시절을 감회깊이 생각했다.

청운의 뜻을 품고 마음껏 배우던 좋은 시절이였다.

《선배님도 구려경당시절이 생각나오이까?》

을파소도 아득한 그때를 돌이켜보느라니 눈굽이 축축해졌다.

한생에서 제일로 즐거웠고 제일로 생기발랄하던 그때를 어찌 잊을수 있단 말인가.

더우기 가고싶다고 해서 아무나 갈수 있는 경당이 아닌 구려경당의 시절을…

구려경당은 나라에서 제일로 중시하는 특수한 경당이였다.

마을들에 있는 경당에는 가고싶으면 누구나 갈수 있지만 구려경당만은 그렇지 않았다.

구려경당에서는 출신은 별로 따지지 않아도 인재가 아닌 사람은 애당초 받지 않았다.

나라가 중시하는 구려경당이 출신을 별로 따지지 않은것은 이 경당이 나온 옛적부터 그러했기때문이였다.

동명성왕이 초야에 있으면서 구려경당을 처음 내왔을 때 여기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귀족이 아닌 평민들 지어 노예출신도 적지 않았다.

그럴수밖에 없는것은 고구려를 세우려 활약하던 동명성왕을 떠받든 사람들의 다수가 비천했기때문이였다.

그런 까닭에 구려경당의 사부들 역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평민출신이였다.

구려경당의 시절을 감회롭게 돌이켜보던 안류가 물었다.

《선배님은 오늘도 우리 나라가 강하다고 생각하오이까?》

을파소는 정색해졌다.

《그대는 요즘의 어지러워진 조정의 정사를 보고 락심천만해하는것 같은데… 그게 옳네.

천하없이 강대한 나라일지라도 정사가 어지러워지면 무너졌다는것이 력사의 대답이 아닌가. 정사가 어지러워지면 간신들과 역신들이 득세하여 저마다 머리를 쳐들기에 그런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는것일세.

국력을 론할 때 반드시 제 겨레와 제 강토를 지켜내려 하는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부터 론해야 할걸세.》

그 말에 안류는 귀맛이 끌리였다.

지금껏 안류자신은 을파소와 달리 국력을 그렇게 생각지 않았다. 국력이란 강토의 크기와 군사의 머리수라고 생각한것이였다.

《그러나 아직 우리 고구려가 무너질 정도로 병들었다고는 생각지 않네. 임금님도 건재하시고 백성들도 건재해있거던.

들려오는 소문에 임금께서도 정사를 어지럽히고있는 연나부를 미워하고있다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그자들을 쳐부실 날이 올걸세. 그리고 군심도 아직은 나쁘다고 볼수 없네. 우리를 넘보는 외적이 기여들면 결단코 쳐부시려 하고있으니 말일세. 그런 군사를 수십만명이나 가지고있기에 고구려가 강대한것일세.

박달겨레의 강토를 하나로 이으려 분발하는 그런 군사가 없었다면 우리의 강토가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거네.》

그 당시 고구려는 백두산을 안고 동서 3 000리, 남북 2 000리로 령토를 넓히였었다.

을파소는 다시금 입을 열었다.

《물론 우리 겨레의 강토에 비기면 고구려의 땅이 넓지 못한건 사실일세. 그건 그렇고… 우리 고구려사람들은 박달임금의 후손답게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가려는 마음이 강하단 말일세. 우리에게는 겨레의 넋이 어려있는 조종의 산이 있네.

겨레의 넋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늘나라의 천제였던 환인의 자손이라는 자부심과 박달임금이 물려준 강토에 보다 강대한 나라를 일

떠세우려는 만만한 배짱이 아니겠나.

바로 그 넋을 지켜주고 분발시켜주는 조종의 산이 바로 개마산(백두산)임은 고구려사람모두가 알고있네. 그런즉 조종의 산이 없었다면 고구려는 강대한 나라로 될수 없었을걸세.》

론박할 여지가 없는 그 말에 안류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난 잠자리에 누울 때면 가끔 강대하던 선조의 나라 박달임금의 강토를 그려보군 하네. 그러면 가슴이 뿌듯해지면서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싶은 충동이 솟구친다네.》

그 말에 안류도 가슴이 뿌듯해졌다.

박달임금시기 최대로 번성했던 강토가 바로 자손만대로 물려주고 물려받아야 하는 우리의 강토라고 할수 있었다.

흑수를 끼고있는 머나먼 북방으로부터 저 남해 끝까지의 광활한 령토가 박달겨레의 강토일것이였다.

천제의 자손이 세운 고구려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잊고 산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겨레의 정신이 간직되여있다고 볼수 없다.

안류는 두눈을 뜨며 물었다.

《그렇다면 요즘의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한다는것이오이까?》

을파소는 결단이 어린 어조로 대꾸했다.

《좌가려와 같은 악독한 탐관들때문에 어지러워진 세상을 보고 그저 고구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일세. 짐승같은 탐관들은 옛적에도 있었고 다른 나라들에도 있다네. 그런 무리는 여름철의 독버섯처럼 때가 되면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또 생겨났다가 없어지고마네.

옛말에도 있지. 불의를 선도하고 법도를 해치는 불법무도한자가 있다면 멸족시켜 살아남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좌가려와 같이 국법을 어기고 정사를 망치는자는 죽음을 당할수밖에 없다는것을…

문제는 그런자들이 일시 판을 칠지라도 나라의 다수를 이루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되는거네. 그들이 외적에게 짓밟혀 살지 않으려는 마음이 변치 않으면 고구려는 언제나 강대할거네.》

안류는 묻고싶은것이 많았지만 밤이 퍼그나 깊어진것을 고려하여

나직이 말했다.

《이젠 쉬는게 어떻소이까?》

《그러합세.》

두사람은 곧 자리를 펴고 누웠다.

(4)

이튿날 아침 잠자리에서 깨여 일어난 안류는 머리가 아파서 오만상을 찌프렸다.

안류가 술을 좋아하면서도 많이 마시지 못하는것은 술을 마신 뒤에 오는 머리아픔때문이였다.

체질탓인지 안류는 술을 마신 후 머리아픈 고생을 겪군 하였다.

그러기는 을파소도 마찬가지였다.

오래간만에 술을 과하게 마신 후과로 머리가 아파난 을파소에게 문득 안해가 떠올랐다.

안해가 살아있었다면 이럴 때 술독을 푸는 해정약을 써주었을것이였다.

이부자리를 개여들던 을파소는 얼굴을 찌프린 안류를 보며 물었다.

《혹시 자네도 머리가 아픈게 아닌가?》

《예, 난 원래 술마신 뒤가 깨끗치 않소이다.》

을파소는 허거프게 웃었다.

《자네도 나처럼 술약골이로구만. 이걸 어쩐다?…》

을파소가 딱해하는 바로 그때 량손에 그릇을 든 을파소의 큰아들이 들어서며 문안인사를 하였다.

《밤새 편안하셨소이까?》 하더니 그는 안류에게 공손히 그릇을 내밀었다.

《이건 언제인가 이웃마을에 사는 명의어른이 대준 비방으로 만든 술독을 푸는 약이오이다.》

안류가 호기심이 나서 물었다.

《그게 뭔데?》

《미나리즙이오이다.》

을파소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 사람이 대준 비방으로 지었다면 실로 명약이지.》

두사람은 반사발가량의 미나리즙을 단숨에 마시였다.

이윽고 두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침묵을 지키였다.

사실 을파소는 술독풀이에 미나리즙이 좋다는것을 의서에서나 읽었을뿐 써본적은 없었다.

과연 미나리즙이 어느 정도 머리아픔을 덜어주겠는지…

이윽고 안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좀 나아진것 같은데… 거 정말 미나리즙 같은게 약이 될줄이야.》

을파소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나도 좀 나은것 같네.》

머리가 한결 거뜬해진 두사람은 밥상에 마주앉았다.

아침상을 물리자 이번에는 주전자를 안고 들어온 을파소의 맏며느리가 보시기에 김이 문문 나는 물을 부어주었다.

보시기를 받아든 안류에게는 불쑥 한가지 의문이 고개를 쳐들었다.

시골사람인 을파소가 나처럼 차도 마시는가?…

《선배님의 집에 와서 차를 대접받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소이다.》

을파소는 웃으며 롱조로 말했다.

《하긴 차야 차지.》

을파소는 어서 마시라는 손짓을 하고 자기도 입에 보시기를 가져갔다.

흥미가 나서 한모금 마신 안류는 미간을 찌프렸다.

《이거야 숭늉이 아니오이까?》

을파소가 대꾸했다.

《자네는 농사나 짓는 시골늙은이가 아직은 우리 나라에 나지 않

는 값비싼 차를 마신다고 속으로 나를 비웃었을거네. 중원에서 비싸게 사오는 차를 우리 같은 시골농사군이 감히 마실수가 없지.》

안류에게 또 한가지 의문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혹시 이 집의 옛 재상어른께서 차를 즐겨 마신것은 아닌지요?》

을파소는 벙글 웃었다.

《우리 고구려사람들이야 식사를 한 다음 숭늉을 마시는게 관례가 아닌가. 허나 우리 집에서는 숭늉도 마시지만 조상어른처럼 쇠뜨기를 숭늉에 넣고 달여 마시기를 좋아한다네.》

을파소는 상우에 내려놓은 보시기를 가리켰다.

《의술도 아신 조상어른은 중풍을 막을수도 있고 소갈(당뇨병)을 고치는데도 좋다고 하시면서 쇠뜨기달인 물을 즐겨 마셨다고 하네.》

호기심이 더해난 안류는 숨가쁘게 질문을 들이댔다.

《쇠뜨기달인 물을 즐겨 마셨다니 이 집 어른들이 장수하셨겠소이다?》

《장수라… 하여간 증조부님도 조부님도 부친께서도 일흔살을 넘겨사시였네.

보통사람들은 쉰살을 살면 쓰러지는게 례상사인데 일흔살을 넘겨사셨으면 장수했다고 해야 할걸세.

나도 쇠뜨기달인 물을 마신 덕에 별다른 약을 쓴게 없지만 예순살을 넘었어도 아직 살아있지 않나.

그건 그렇고… 그대가 이런 시골에까지 일부러 나를 찾아온것을 보면 분명 무엇인가 알고싶어서 온것 같은데 숨기지 말고 털어놓게.》

안류는 속이 뜨끔하였다.

사실 을파소를 찾아온것은 그의 됨됨을 타진해보고 마음에 들면 연나부를 뒤엎으려고 세력을 늘이는 우소의 편에 끌어당기기 위해서였다.

제나부의 우두머리로서 임금의 가시아버지인 우소는 연나부의 반대파를 이끄는 거두였다. 우소와 아주 가까운 사이인 안류는 그의 모사라고 할만큼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었다.

그 짧은 순간에 아직은 진속을 털어놓기 이르다는 결론을 내린 안류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전 선배님한테서 알고싶은것이 아주 많소이다. 그걸 다 알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오이다.》

을파소는 안류의 심정이 리해되였다.

아직은 초면에 불과한 사람에게 남들이 알지 말아야 하는 그런것을 어찌 입밖에 낼수 있겠는가.

을파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고싶은게 많다는데 아무거나 묻게나.》

안류는 정색해서 물었다.

《만일 나라에서 선배님에게 연나부의 악행으로 땅바닥에 떨어진 정사를 바로잡으라고 한다면 한두해안으로 그렇게 할수 있겠소이까?》

을파소는 자못 긴장해졌다.

이 사람이 나를 떠보려고 이러는것은 아닌지. …

을파소는 곧 속으로 웃고말았다.

나야 벼슬길에 올랐다고 해도 이제는 늙은 몸이라 벼슬을 바쳐야 할 때이다. 그러나 안류 이 사람은 아직 벼슬을 해도 되니 그를 위해 돕는 말이야 못해주겠는가.

《그건 어렵지 않다고 보네. 연나부가 정사를 망쳐먹은 수법을 거꾸로 뒤집으면 되니까. 즉 국법을 어기고 탐관오리들이 빼앗아가진 땅과 재물과 사람을 본래의 주인에게 넘겨주고 마구 불구어 받던 조세를 국법대로 낮추어 받고 오로지 국법을 지켜 이 조치를 두해사이에 해치운다면 망쳐버린 정사가 바로잡힐수 있을거네.

한마디 더 보태여 말할것은 아무리 좋은 궁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제때에 실천에 옮기는 손탁이 없다면 그게 다 공연한 입방아질에 불과하다는것일세.》

안류는 또 다른 질문을 꺼냈다.

《우리 고구려가 조상의 땅을 하나로 이을수 있다고 생각하오이까?》

《조상의 땅이라…》 하고 뇌이는 을파소의 생각은 깊어졌다.

광활한 강토우에 크게 일떠섰던 단군성왕의 나라가 무너진 후 그 땅에는 많은 소국들이 생겨났다.

그것은 실로 겨레에게 있어서 고통거리였다.

일신의 권세와 부귀영화나 바라는 여러 소국의 군주들때문에 동족분쟁이 일어나고 그것은 온 겨레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가져다주고있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한 성인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천제의 자손이라 일컫는 동명성왕이였다.

조상의 땅을 하나로 이어놓으려는 뜻을 품은 동명성왕은 고구려를 일떠세운 그날부터 그를 성취하는 일을 밀고나갔다.

하여 그 시절에 비류국, 행인국, 북옥저와 같은 동족의 나라들이 고구려에 귀속되여 겨레의 전도를 밝게 해주었다.

동명성왕이 돌아간 후에도 국토통일의 성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량맥국, 황룡국, 안평국, 개마국, 구다국, 조나국, 주나국, 동옥저, 갈사국 등 수많은 소국들이 귀속되였다.

그러나 이 성업은 외적때문에 힘겨워지고있었다.

조선(만조선)을 멸망시킨 그들이 아직도 료동과 그 서쪽의 조상의 땅을 차지하고 박달겨레의 통일을 한사코 방해하고있는것이였다.

을파소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난 우리 고구려가 언제인가는 조상의 땅을 모두 하나로 이어놓으리라는것을 믿네. 지금껏 그러했듯 앞으로도 동족을 이끌어나갈 나라는 우리 고구려밖에 없네. 그러나 그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네.》

시간이 갈수록 안류에게는 을파소가 세상에 다시없을 스승처럼 느껴졌다.

(5)

도성에 불리워갔던 후한의 료동태수 공손도는 자기의 본거지인 양평에 도착하자 곧 밀실로 두 아들을 불러들이였다.

큰 체격에 몸이 좋고 나이가 지숙한 공손도는 겉이 무던하고 후하게 생기였으나 속은 정반대로 악독하고 탐욕스러울뿐아니라 보통 교활하지 않았다.

심복졸개라도 함부로 출입할수 없는 극히 경계가 심한 밀실에서 공손강, 공손공이라 부르는 두 아들과 마주앉은 공손도는 자못 엄하고 기세가 등등하였다.

맏아들 공손강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조정에서 무엇때문에 불렀소이까?》

조정이라는 소리에 공손도의 피발진 두눈에서 린광 같은것이 뿜어나왔다.

《조정이라…》 하고 속으로 곱씹은 공손도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야욕으로 주먹을 꽉 틀어쥐였다.

공손도가 료동태수로 되기까지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료동에서 태여난 공손도는 현도군에서 관리들의 시중을 들어주는 관속으로 관가살이의 첫걸음을 뗐다. 그러던중 같은 공손씨가문인 현도태수 공손역에게 아들이 없는 인연으로 그 집에 양자로 들어갔다.

그야말로 호박이 넝쿨채로 떨어진 횡재라 할수 있었다.

양아비의 후원으로 공부를 하고 도성으로 올라가 벼슬살이를 시작한 그는 공손역과 그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기주에서 자사라는 고을원을 하였다.

그러나 타고난 탐욕꾸러기에 질투쟁이인 그 본심때문에 남의 재물을 닥치는대로 빼앗고 동료들을 헐뜯던 나머지 조정대신들의 미움으

로 파직당하고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양아비까지 병들어 죽으니 앞날이 캄캄하였다.

이제는 망했구나 했는데 천만뜻밖에도 행운이 찾아들었다.

같은 료동태생으로 서영이라는 사람이 동탁의 수하에 있었으니 그가 바로 망조에 든 공손도를 천거해준것이였다.

한해전(189년) 후한에서 임금 류굉(령제)이 죽자 그의 두 아들을 끼고 조정신하들사이에 권력싸움이 터졌다.

황건폭동의 후과로 황하하류와 장강하류일대가 전쟁터로 변하고 그것을 진압하느라 후한의 조정이 죽가마끓듯 할 때 권력싸움까지 터졌으니 이 나라 도성은 말그대로 수라장이였다.

그때 대군을 거느린 동탁이 도성으로 쳐들어가 조정을 장악하고 임금의 감투를 쓴지 몇달밖에 안되는 소제를 폐위시키고 그의 배다른 동생 진류왕을 룡상에 앉히였다.

이로써 나라의 권력은 송두리채 동탁의 손에 들어가고말았다.

동탁을 업어야 크게 출세할수 있음을 간파한 공손도는 그를 찾아가 충복이 될것을 맹약하였다.

그 대가로 료동태수로 부임된 공손도는 지난날의 아전이라고 자기를 업신여기는 토호들을 가차없이 역적으로 몰아 죽여버렸다.

자기를 깔보던자들을 역적으로 몰아 모조리 죽여버리고 료동을 거머쥔 공손도의 야심은 어벌뚝지가 크게도 번져졌다.

별치않은자들이 조정대신으로 되는데 나라고 한뉘 한 고을의 태수노릇이나 하겠는가.

야심이 굴뚝같아진 공손도는 군사를 내몰아 이웃의 현도군과 락랑군을 제 차지로 만들었다.

공손도의 욕심은 이에 그치지 않았으니 그는 또다시 대군을 내몰아 황하하구의 동래현을 수중에 넣고 심복부하가 그 고을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어 자기를 왕이라 자칭하면서 황제가 될 야심을 굳히였다.

황제가 될 속심으로 많은 군사를 징발하고있는데 뜻밖에도 공손도

에게 도성으로 올라오라는 후한임금의 어지가 떨어졌다.

그래서 도성을 다녀온 공손도였다.

공손도는 대국의 임금이라며 허세를 부리던 황제를 그려보며 입을 뗐다.

《글쎄… 코흘리개황제가 나에게 고구려를 치라는구나.》

그 말에 두 아들이 너무 놀라 입을 하 벌리였다.

공손도가 코웃음을 쳤다.

《흥! 내가 조정것들의 속심을 몰라서?》

공손도는 음흉한 눈길로 두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고구려와 싸운다면 이길수 있다고 보느냐?》

두 아들은 서로 쳐다볼뿐 입을 열지 않았다.

글개나 배운 그들은 세상형편에 어두운편은 아니였다.

한나라와 고구려와의 큰 싸움은 한나라의 임금 류철(무제)에 의하여 300여년전에 시작되였다.

한나라 7대임금 류철은 대군을 들이밀어 조선(만조선)을 멸망시킨 다음 료동땅을 빼앗아가지였다.

이어 조선과 이웃한 고구려로 쳐들어갔으나 호된 반격으로 무리죽음을 당하는 대참패를 당하였다.

이때부터 한나라는 어떻게 하나 고구려를 먹으려고 집요하게 달려들었다.

고구려에 대한 침입은 후한에 이르러 더 악착해졌다.

기원 8년 한나라임금의 외척 왕망이 임금을 몰아내고 신나라를 세웠으나 10여년후 다시 한왕조가 복귀되였다.

그때문에 신나라 이전의 한나라를 전한, 그 이후의 한나라를 후한이라고 불렀다.

후한은 지금껏 여러번이나 대군으로 고구려에 쳐들어갔다.

허나 그때마다 후한의 대군은 몰살당하고 한때 고구려의 기마군단이 만리장성을 넘어와 종심을 답새겼다.

그런 복수전때문에 후한은 헤아릴수 없는 인적 및 물적손실들을

당하군 하였었다.

이윽고 두 아들은 대답대신 고개를 떨구었다.

그것으로 고구려와 싸운댔자 승산이 없다는것을 알린것이였다.

한순간 얼굴이 이그러졌던 공손도는 히죽 웃었다.

《사내자식들이 왜 그 꼴이야? 이기면 이긴다 하고 지면 진다고 말할게지. 나도 너희들과 같은 생각이다. 지금껏 고구려와 싸웠지만 얻은게 뭐냐? 고구려로 쳐들어갈 때마다 죽음만 당한게 아니라 료동의 땅까지 빼앗기군 했으니 거의 절반이나 빼앗겼거던. 이러다가는 우리가 몸붙일 곳도 없이 료동을 몽땅 빼앗기고말게다.》

공손강이 고개를 쳐들었다.

《그럼 아버님은 조정앞에서 고구려와 싸우지 않겠다고 했소이까?》

얼굴이 흐려진 공손도는 고개를 저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내 어찌 너희들에게 료동의 주인자리를 물려주겠느냐.》

그 말에 두 아들은 닭알침을 삼키였다.

사실 그들은 아비가 황제가 되기를 일구월심 바라고있었다.

공손도가 황제가 되려는 야욕을 품게 된데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이태전 공손도가 웅거한 양평의 어느 한 곳에서는 대단히 큰 무덤이 발견되였다.

두께가 한길이나 되는 거대한 뚜껑돌을 세개의 고임돌이 받치고있는 옛무덤이였다. 기실 그것은 오랜 옛날 박달임금의 속국이던 이 일대의 나라를 다스렸던 큰 벼슬아치의 무덤이였다.

희한한 무덤에 마음이 쏠린 공손도는 이름난 풍수쟁이를 불러다 점을 치게 하였다.

그런데 풍수쟁이의 말이 무덤이 공손도의 임지에서 발견되였은즉 료동의 주인이 임금이 될 조짐이라는것이였다.

이것은 그러지 않아도 황제가 될 꿈을 꾸고있던 공손도에게 활활 풍구질을 해주는 격이였다.

그래서 공손도는 대군을 들이밀어 동래현을 차지하고는 《료동후》

라 자칭한것이였다.

이번에는 공손강이 고개를 쳐들고 물었다.

《그럼 고구려에 쳐들어가겠다는것이오이까?》

두눈에 독기를 품은 공손도는 고개를 저었다.

아비의 속내를 도무지 알수 없는 두 아들은 서로 쳐다보며 고개를 기웃거렸다.

공손도는 빈정대는 투로 말했다.

《흥! 조정것들이 하나를 하면 난 둘셋을 한다. 그것들이 나를 내몰아 고구려를 치게 하자는것인데 만일 내가 패하면 날 가만두지 않을게다.

지금껏 얼마나 많은 장수들이 고구려와의 패전으로 목을 잘리웠느냐.

고구려가 대단히 강한 나라라는걸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한해전 공손도는 고구려군의 힘을 타진할 심산으로 료동의 북쪽에서 략탈을 일삼는 부산적이라고 하는 종족을 함께 치자고 고구려조정에 사신을 보냈었다.

부산적은 선비족의 한갈래로서 후한뿐아니라 고구려의 서북쪽에서도 말썽거리였다.

마침이라고 고구려에서는 대가 우거와 주부 연인에게 수만명의 기마군을 주어 부산적을 치도록 하였다.

고구려군과 공손도의 군사가 부산적의 경내에 들어서기 바쁘게 기다렸다는듯 적의 대군이 그들을 에워싸고 달려들었다.

고구려군으로서는 생소한 곳에서 그 지대에 익숙한 적과 그것도 불의에 싸우는것은 대단히 불리하였다.

신통한 병법을 쓸 틈도 주지 않으려는듯 사면을 에워싸고 급하게 달려드는 적군앞에 공손도의 군사들은 겁에 질려 싸울념을 못하였다.

이런 때 맥을 놓는다면 참패를 당한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고구려군이 장수이하모두가 목숨을 내대고 적을 맞받아쳤다. 이로써 가렬

처절한 싸움이 벌어졌다.

목숨을 내대고 싸우는자를 당할수 없다고 고구려군의 드센 반격에 기승을 부리던 부산적은 반수를 잃고 머나먼 북쪽의 초원으로 도망치고말았다.

그때를 생각하면 고구려와 정녕 맞서고싶지 않았지만 천하를 꿈꾸는지라 바라지 않는 싸움일지라도 마다하지 않을수 없었다.

《조정것들이 고구려의 형편에는 환하더라. 지금 고구려조정이 실권을 쥐고있는 연나부대가들때문에 정사가 어지러워진 이때 들이치면 반드시 승산이 있다는게다.

흥! 모르는 소리. 사실로 말하면 고구려의 정사보다 우리의 정사가 더 어지럽단 말이다.

황건란때문에 어지러워진 우리 나라에서 기운 정사를 바로잡으려면 아직 멀었다. 그렇다고 고구려와 싸우지 않으면 우린 언제 가도 나의 나라를 세울수 없느니라.》

공손도는 칼을 뽑아 무릎우에 올려놓았다.

《우리가 흥하는 길은 오로지 고구려를 타고앉는 길이다. 고구려를 이기면 그와 동족의 나라들인 후부여도 남쪽나라들도 다 타고앉을수 있다.

고구려와 싸워이기는 날 나는 황제가 될것이다. 황제가 된 그날 대군을 거느리고 도성으로 쳐들어가면 온 중원땅이 내 발밑에 꿇어엎드리게 될거란 말이다.》

벌써 황제가 된듯 희떱게 뇌까리는 공손도의 수작질에 두 아들녀석도 기뻐 미칠 지경이였다.

다음순간 공손도는 무릎우에 올려놓았던 칼을 마루바닥에 쾅! 내리박았다.

《내가 너희들을 부른건 이제부터 모든 힘을 다해 고구려와 싸울 준비를 해야 하기때문이다. 난 황제에게 고구려를 쳐야겠으니 적어도 20만대군을 달라고 하였다. 조정에서 20만은 못해도 10만쯤은 줄것이다. 조정에서 주는 10만대군에 나의 10만대군으로 함께 쳐들어가

면 고구려를 이길수 있다.》

두 아들이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아버님, 분부만 내리시오이다.》

공손도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맏이는 군사들속에 기강을 세우는 일을 맡아하고 둘째는 새로 군사를 징발하고 병쟁기와 군량을 마련하는 일을 해야겠다. 20만의 대군이 마련되면 지체없이 고구려로 쳐들어갈것이다.》

(6)

안류가 을파소의 집에서 머무르고있는지도 어느덧 한달이라는 나날이 흘렀다.

이날도 신새벽에 깨여난 을파소는 부시럭소리가 날세라 조심히 일어나 앉았다.

겨릅등을 켜고싶었지만 고단하게 자고있는 안류가 념려되여 그만두고말았다.

을파소는 어둠속에서 코를 골며 자는 안류를 굽어보았다.

선비라는 사람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한달이나 제일 고된 가을걷이에 꼬바기 시달렸으니 오죽이나 피곤하겠는가.

지내보니 안류는 연나부때문에 날로 나라의 정사가 어지러워지는것을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누구보다도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사람같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 같은 늙은이를 만나자고 이 먼곳에까지 찾아와 세상을 대하는 나의 마음을 알려 애쓰겠는가.

한편 안류도 잠에서 깨여났지만 을파소가 조금이나마 쉬길 바래서 자는체 하고있었다.

예견했던것보다 이 집에서 너무 많은 기일을 지체하고있는것이 안타까왔다.

지금쯤 우소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있겠는데…

그러나 기일이 지체되였다 하더래도 얻은 소득은 적지 않았다.

안류가 뜻을 같이할 인재를 얻기 위해 사방으로 뛰여다니는것은 연나부를 몰아내고 조정을 쇄신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엄청난 큰일을 해내자면 우소와 같은 큰 인물을 내세워야 했고 또 그가 힘을 다 내도록 부추기여야 하였다.

이제 연나부를 몰아내면 우소가 국상이 될수도 있다. 설사 임금의 가시아버지인 국구라고 해서 국상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그는 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안류를 힘껏 떠밀어줄것이였다.

우소의 힘을 빌어 이 안류가 조정대신이 된다면 바로잡을게 오죽이나 많겠는가.

그 많은 일을 몇사람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래서 진실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을 한명이라도 찾아내려 이 먼고장에까지 온것인데 부릴 사람이 아닌 스승으로 섬길만 한 을파소를 사귀게 되였으니 이것이 제일 큰 소득이였다.

안류는 자기를 비둘기라고 한다면 을파소는 봉황에 비길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달음에 우소에게 달려가 시골에 봉황이 있다고 알리는것도 좋지만 한시라도 을파소의 곁에 있으면서 더 많은 의견을 나누고 더 많이 깨우치는것이 리득이였다.

이제 을파소를 우소에게 소개하고 그가 을파소를 임금께 천거하여 중히 써준다면 보통사람들은 엄두도 낼수 없는 대단한 큰일을 해낼수 있을것이였다.

학식도 넓고 판단도 결단도 비할바없이 뛰여나고 청렴강직한 이런 사람이 고구려에 있다는것은 복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안류는 오늘 나는 우소의 부하로서 을파소를 도성으로 데려가려 왔다는것을 알리리라 마음먹었다.

아침상을 물린 을파소가 먼저 말을 건넸다.

《오늘은 나와 함께 산열매를 따러 가세.》

안류는 쾌히 따라나섰다.

커다란 다래끼를 하나씩 든 그들은 둥실한 야산으로 향했다.

야산은 온통 찔광이나무천지였다. 한길짜리도 있고 두세길 되는 큰 나무도 있는데 한결같이 빨갛게 익은 열매가 가지가 휘도록 달려있었다.

앞에서 찔광이나무사이로 길을 내여가던 을파소가 산중턱에서 멈춰섰다.

그의 앞에 굉장히 큰 찔광이나무가 서있었다.

밑둥의 둘레가 한아름이 넘고 몇길 잘되는 나무는 마치도 이 숲의 제왕같았다.

그 나무는 제왕구실을 하려는듯 열매가 더 크고 새빨갰다.

을파소는 손에 닿는 찔광이나무가지를 휘여잡으며 말했다.

《오늘 따자고 하는 산열매가 바로 이 아가위일세. 아가위를 찔광이라고도 한다네.》

산열매라기에 달달한 다래나 머루라고 생각했던 안류는 어이가 없었다.

《하필 돌덩이같이 굳고 시큼떱덜한 이런걸 따자고 하오이까?》

을파소는 밤알만큼 큰 찔광이를 따며 말했다.

《자네 부친께서 속탈로 고생한다고 하질 않았나?》

을파소는 찔광이를 안류가 멘 다래끼에 던져넣으며 말했다.

《이게 바로 자네 부친의 속탈에 좋은 약일세. 먹은것이 잘 내려가지 않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좋은 약일세.》

을파소는 손을 들어 사방을 가리켰다.

《보다싶이 우리 고장은 산마다 온통 아가위나무일세.》

안류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제 보니 이 고장에서처럼 발길닿는 곳마다 찔광이나무가 무리지은 고장은 없는것 같았다.

《예로부터 우리 고장은 산짐승인 산양이 많은지라 산양골이라지만 보다 유명한것은 바로 저 아가위천이란 말일세.》

을파소는 개울을 가리켰다.

《저 아가위천의 푸른 물은 압록강으로 흘러든다네. 자네 안 다녀본 고장이 없겠지만 아가위천이란 말은 들어보지 못했을거네. 이것만 보아도 우리 고장에 아가위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알수 있을거네. 자, 이젠 따보지 않겠나?》

안류는 난생처음 찔광이열매를 따는 재미에 아이처럼 기뻐하였다.

굵은 찔광이열매를 움켜잡고 따는 멋이란 흐뭇하기도 하고 이상야릇도 하여 그동안 쌓인 피로가 쑥 가셔지는듯싶었다.

인차 두개의 다래끼에 찔광이가 가득찼다.

을파소는 흐뭇한 웃음을 지으며 안류의 팔을 건드렸다.

《우리 좀 쉬다가 가세.》

그늘좋은 풀섶에 앉은 을파소의 몸이 굳어졌다.

맞은켠 야산에 하얗게 붙은 사람들을 보았기때문이다.

《저 사람들이 묘를 쓰는게 아닌가?》

맞은켠 야산에서 사람들이 묘를 만들고있는것을 알아본 안류가 고개를 끄덕였다.

《허ㅡ 굉장히 큰 무덤을 만들고있소이다.》

불과 몇백보밖에 안되는 맞은켠 산에다 땅을 파고 시체를 묻었는지 커다란 봉분을 쌓느라 사람들이 역사질을 하고있었다. 어림짐작으로도 백여명이 돼보였다.

을파소는 부지중 부르짖었다.

《아, 그렇지. 며칠전 우리 고장에 남아살던 이전 처려근지가 죽었는데 바로 저 산에다 묘를 쓴다고 하였었네.》

을파소는 건너편을 쏘아보며 말했다.

《죽은 처려근지로 말하면 지독하게 심보가 고약하고 악착한자였네.》

을파소의 곁에 앉은 안류는 궁금증이 나서 물었다.

《그자가 어떻게 굴었기에 그처럼 미워하시오이까?》

《세상에 벼슬하는 사람치고 제 욕심을 차리지 않는자 없다지만 죽은 처려근지만큼 제살궁리에 지독한자는 쉽지 않을거네.》

을파소의 숨결이 높아졌다.

《아, 글쎄 우리 고을에 처려근지로 부임되여온지 한해만에 수백 마지기의 땅을 차지했으니 이 하나를 놓고보더라도 놈이 얼마나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가지였는지 알만 하지 않는가.

처려근지 몇해만에는 고을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부자가 되였지. 나이가 많아 벼슬을 내놓고도 늙어죽을 때까지 악착하게 작인들을 못살게 굴었다네. 더러운 놈.》

을파소는 앞산을 가리켰다.

《자네 저 요란한 무덤을 보면서 생각되는게 없나?》

불의의 질문에 안류는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다.

《난 저 무덤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드누만. 나라에 쌓은 공이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제살궁리만 하다가 죽은자가 아무리 요란한 무덤에 묻히였다한들 누가 쳐다보기나 할텐가. 세월이 흐른 뒤 그때의 사람들은 그런자들의 무덤에 침을 뱉을걸세.》 하더니 을파소는 화제를 바꾸었다.

《난 자네가 연나부것들을 몰아낼 생각으로 뜻을 같이할 사람들을 구하러 다닌다고 짐작하네. 내 짐작이 틀렸나?》

안류는 진속을 터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선배님의 보는 눈은 참… 옳소이다. 사실 난 연나부것들을 몰아내고 조정을 쇄신할 마음으로 뜻을 같이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소이다.》

을파소는 벙글 웃었다.

《난 자네뒤에 권세가 이만저만 아닌 큰 인물이 있다고 짐작하네. 그래, 자네들의 힘으로 연나부를 이길수 있겠나?》

안류는 주먹을 꽉 움켜쥐였다.

《이길수 있소이다.》

을파소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물론 연나부는 어느때건 들고일어날걸세. 임금이 앞으로도 나라를 해치는 연나부것들을 그냥 제 욕심이나 부리라고 내버려두지는

않을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정을 쥐락펴락하려드는 그자들이 절대로 가만있자 안할걸세.

나라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저밖에 모르는 탐욕의 무리가 갈길이란 그 길뿐이니까. 그러나 내 알기에는 우리 고구려의 력대 임금들의 수중에는 세상에서 제일 용맹하고 강한 철기군이 있네.

그리고 지금의 임금님이 어려서 숱한 고생을 겪어보아 아래형편에도 밝고 이미전에 연나부것들을 꺼려 왕후까지도 제나부에서 맞아들였다는데 앞으로 두고보라구. 연나부가 들고일어나는 날이자 그것들의 목숨이 임금님의 손에 끝장나는 날이라는것을…》

안류도 그것을 모르는바는 아니였다.

그것을 알면서도 선손을 써서 연나부를 제거하려 하는것은 우소를 내세우려 하기때문이였다. 우소가 나라의 화근을 짓뭉개버린 공을 세운다면 얼마든지 국상으로 될것이였다.

우소는 연나부를 제거하면 문무백관을 뗴고붙이는 권한을 안류에게 주도록 임금께 상주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렇게만 되면 임금을 받들어 조정을 쇄신하고 국력을 일떠세우려는 뜻을 실현할수 있을것이였다.

조정의 쇄신도, 국력을 일신시키는것도 다 충의지사들의 한결같은 뜻이니 그런 사람들을 천거하면 될것이였다.

을파소는 안류의 손을 그러잡았다.

《이 사람, 이제 반드시 나라에서 자네 같은 사람을 중히 써줄 날이 올걸세. 그러니 임금님이 어련히 알아하실 연나부를 몰아내는 일에 괜히 끼여들지 말고 한명이라도 젊은 인재를 찾아두게.

자네가 성쌓고 남은 돌같은 나를 찾아온것은 헛일일세. 한 십년만 젊었어도 이 기회에 나도 소리치며 벼슬길에 나서보는건데… 그러나 이젠 늦었어. 그러니 다시는 나 같은 늙은이를 찾아다니지 말게.

난 자네가 임금님을 도와 우리 고구려를 보다 강대한 나라로 일떠세우는데 한몫하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네.》

안류는 할 말이 없었다.

이 사람은 확실히 나보다 멀리 내다보는구나, 이런 사람이 나라에 크게 소용되는데…

을파소가 산아래를 가리키며 말했다.

《자, 이젠 내려가세.》

(7)

도읍에서 북쪽으로 치우쳐있는 제나부에도 큰집이 있었다.

뜨락에 금잉어가 굼니는 련못도 있고 그곁에 앵무새, 공작새, 흰꿩과 같은 진귀한 새들을 가두어 기르는 새우리도 있는 이 집에서 우소가 살고있었다.

온화하고 따스한 기운이 떠도는 이 집의 밀실에서는 지금 우소가 뜨아한 눈길로 안류를 바라보고있었다.

평상에 걸터앉은 우소는 이목구비 지어는 턱수염조차도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조정에서 단연 첫손가락에 꼽히우는 미남자인데 지금은 얼굴이 어찌나 흐려있던지 리속을 다투느라 열을 올리는 늙은 장사군처럼 보이였다.

그앞에 올방자를 틀고있는 안류는 어려워하는 기색이 별로 없었다.

하긴 이 두사람은 나이도 동갑이고 아주 오래전부터 막역한 친구사이였으니 밀실에서까지 상하간의 딱딱한 틀을 차릴것은 없었다.

우소에게 있어서 안류는 친구이기 전에 은인이였다.

안류를 떠나서 이 집의 오늘과 같은 날은 생각지 못할것이였다.

이십여년전 어린 딸을 둔 우소는 그애가 커서 후궁의 주인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단지 딸애가 곱게 생기고 령리하기에 글이나 깨우쳐줄 생각으로 초면의 안류를 찾아갔었다. 이왕이면 성현이라 이름높은 학산의 수제자 안류에게 딸의 공부를 맡기고싶었기때문이였다.

안류는 명사중의 명사라 할만 한 사람이였다.

그의 슬하에서 몇해동안 글을 배운 딸이 시골에서 봉황이 났다는 소문을 낸것이였다.

딸이 학식은 물론 례의범절과 재색을 겸비한 요조숙녀라 소문이 나서 뜻밖에도 임금을 사위로 맞는 복을 지닐수 있었던것이다.

그러니 우소에게는 안류가 은인중의 은인인것이였다.

그런 까닭에 우소는 아무리 국구이고 제나부를 통솔하고있었지만 안류에게는 언제나 깍듯한 공대를 하지 않을수 없었다.

반대로 학식도 견문도 비할바없이 넓은 안류가 우소를 웃사람으로 공대하는것은 국구라는 점을 중시하기때문이였다. 연나부의 세상을 끝장내는 그날에 국구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없게 될것이라 조정을 쇄신하는데 그의 이름을 크게 빌려쓸수 있을것이였다.

《음… 그렇게도 을파소가 뛰여났단 말이지?…》

벌써 몇번째 곱씹는 질문에 안류는 얼굴을 붉히였다.

장황하다고 할만치 을파소의 됨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우소에게는 그 말이 곧이들리지 않는것 같았다.

하긴 이 먼곳에 앉아가지고 한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남의 말이나 들어가지고는 믿어지지 않을것이였다.

하지만 이미 을파소를 스승으로 여긴 안류에게는 우소의 곱씹는 질문이 스승을 깎아내리는것 같아 저으기 불쾌했다.

함께 손잡고 큰일을 맡아줄수 있는 큰 인물을 찾아낸 기쁜 소식을 한시바삐 알리려 피곤도 풀지 못하고 왔는데 너무하지 않는가.

안류는 어제 저녁 집으로 돌아와 지쳐 쓰러지다보니 아침에야 겨우 깨여 일어났다.

집에 돌아가거들랑 만사를 제쳐놓고 아가위로 약을 지어 아버님께 드리라고 그만큼 일러준 을파소의 당부도 뒤로 밀어놓고 우소부터 찾아온 안류였다.

은근히 치미는 불만을 누르며 안류는 입을 열었다.

《국구께서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는것은 곧 나를 믿지 않겠다는것이나 같소이다.》

그제서야 우소는 손을 내저었다.

《아아, 오해말게. 안공이 믿는다면 나도 믿어야지.》

안류는 힘을 주어 말했다.

《재삼 말씀올리오만 을파소는 당대의 호걸이라 허술히 보면 안되오이다. 그 사람은 초야에 묻혀있는 룡이라 나 같은건 도저히 미칠 바가 아니니 나라를 위해 그를 크게 써야 하오이다.》

우소는 딱한 기색이였다.

《안공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뛰여난 인재가 틀림없는데 나이가 많은것이 흠일세. 늙은이에게 무거운 짐수레를 메우면 얼마나 끌텐가?》

안류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모르고 하는 말씀이오이다. 그 사람의 집은 대대로 장수하는 집으로서 부친도 조부도 증조부도 다 일흔살을 넘어살았소이다. 아, 명림답부는 거의 백살의 몸으로 국상이 되셨는데 뭐 나이를 탓하겠소이까?》

우소는 게면쩍게 웃으며 변명조로 말했다.

《명림답부야 세상에 둘도 없이 뛰여난 기인이 아닌가. 하여간 그 사람이 나이는 많아도 정정하다니 꼭 써주겠네.》

우소는 안류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앞으로 을파소에게 어느 고을을 맡겨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건 그렇고… 우리 제나부의 대가들이 종들까지도 모두 거느리고 들고일어날 차비가 되여있은즉 언제쯤 연나부를 들이치는게 좋겠나?》

연나부것들을 짓부시는것은 임금이 알아할것이니 괜히 그런 일에 끼여들지 말고 바른 정사에 한몫할 젊은 인재들을 찾아내라던 을파소의 당부를 잊지 않고있는 안류는 입을 열지 않았다.

제 옷자락을 움켜쥔 우소가 이를 갈며 말했다.

《각을 떠서 매밥을 만들어도 시원치 않을 연나부것들을 살려두고 있자니 치가 떨려 견딜수 없네.》

우소가 이다지도 격분해하는데는 사연이 있었다.

우소가 어렸을 때였다.

재물이라면 나라의것이라도 제 집으로 끌어들이는데 이골이 난 연나부것들은 다른 부의 귀족들도 가리지 않았다.

우소에게는 증조할아버지때부터 물려오는 해마다 수백근의 은을 캐는 은소가 있었다.

그 은소의 덕으로 우소네 조상들은 잘살아왔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우소도 어렸고 또 그의 집안이 세력을 이루지 못하고있는것을 기화로 연나부것들이 제나부의 거두들과 짜고 은소가 있는 땅을 나라의것이라는 문서를 꾸며내여 그것을 가지였다. 우소의 아버지가 연나부를 찾아가 리치를 따지며 은소를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되찾지 못하였다.

조정을 틀어쥔 연나부의 결심이자 곧 법이였으니 세력이 없으면 그것들에게 짓밟히지 않을수 없었다.

이에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우소의 아버지가 졸도하여 죽기까지 했겠는가.

세월이 흘러 우소가 큰 세력을 이루게 되자 좌가려가 그때의 일이 잘못된것 같다면서 은소를 돌려주었으나 그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우소로서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연나부것들을 용서할수 없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조정에서 연나부의 독판치기로 제나부는 뒤자리를 차지하지 않을수 없었고 땅세라든가 부세 등을 연나부것들보다 더 많이 바쳐야 했으며 길을 가다가도 그들을 만나면 벼슬품계가 같은자라도 길을 비켜주어야 하고 그를 어기면 욕을 당해야 했다.

그러니 우소로서는 분이 날만도 하였다.

복수심으로 두눈을 부릅뜬 우소의 얼굴이 푸르딩딩해졌다.

《연나부 이놈들, 지금껏 나라의 법이 실행되지 않은것은 조정의 꼭두에 올라앉은 네놈들이 법을 어기였기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곧 네놈들의 단재미도 끝장이 날게다.》

우소는 연나부가 하루빨리 망하도록 룡신에게 매일이라도 빌고싶

었다.

우소가 하늘처럼 숭상하는 신은 룡신이였다.

고구려에서는 하늘신과 시조신은 말할것도 없고 사람의 머리에 소의 몸뚱아리를 가진 농사신, 야장신 등 여러 신을 숭배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중에는 박달겨레가 태고적부터 숭상해오는 룡신도 있었다.

사람마다 어느 신을 더 숭상하는가 하는것은 나름대로였으니 우소는 하늘신과 시조신외에 룡신을 독실하게 섬기고있었다.

그가 룡신을 그토록 믿는것은 가문의 풍습때문이였다.

까마득한 옛적부터 귀족가문인 우씨네는 사당앞에 황소만 한 돌룡신을 만들어놓고 무슨 소원이 생기면 그앞에 꿇어엎드려 비는것이 관례로 되여있었다.

우소의 조상들이 집마당에 만들어놓은 돌룡신의 생김새는 뱀대가리에 뱀이마, 사슴뿔에 토끼눈 그리고 물고기비늘로 덮인 구렝이배에 매발톱이 달린 범의 발을 가진 룡이였다.

룡신에게 넋을 맡긴 우소는 아침마다 꼭꼭 룡신앞에 엎드려 그날의 일이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데 그 정상이 자못 지성스러웠다.

이윽고 안류는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런 중대한 결심은 오로지 국구께서만이 직접 내려야 할줄로 아오이다.》

안류의 속마음을 알리 없는 우소는 벙글 웃었다.

《공은 언제 봐야 겸손하거던. 하긴 그래.》

연나부가 들고일어나면 임금이 제나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짓뭉개버릴수 있다는것을 잘 알면서도 우소가 한사코 먼저 거사를 하려 하는데는 바로 이 기회에 으뜸가는 공을 세우려는 음흉한 타산이 있기때문이였다.

고구려에서 가장 전투력이 강한 철기군은 예로부터 임금의 친솔하에 두고있었다.

게다가 요즘 임금은 경군의 여러 부대들을 림시로 자기의 동생들이 거느리게 하였다.

반란을 꾀하는 좌가려의 심복들중에 변방의 군사를 통솔하는 장수가 몇명 있었다.

허나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군사를 끌고 온다면 그날로 크게 소문이 날것이고 설사 그것들이 도성으로 쳐들어온다고 해도 경군을 당할수 없었다.

이것을 알면서도 우소는 선손을 써서 연나부를 치려 하는것이였다.

연나부에는 우소의 눈과 귀가 박혀있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좌가려네가 꾸미는 역모를 다는 알수 없었지만 하여간 머지않아 반란을 일으킬것임은 똑똑히 알고있는 우소였다.

요즘 좌가려네가 잠잠해있다는데 이런 때 온 제나부뿐아니라 제나부출신의 장수들이 거느린 군사들까지 불의에 내몬다면 얼마든지 연나부를 요정낼것이였다. 그렇게만 되면 태묘와 사직을 지켜낸 특등공신으로 조정을 틀어쥘수 있을것이였다.

우소에게는 50여년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그 무슨 리치라는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적수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전에 그 주먹을 다시한번 들여다보라는것이였다.

이 리치에는 세상을 살아가자면 매사에 머리부터 쓰고 묘한 계책으로 상대를 눌러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있었다.

우소는 연나부처럼 미욱한짓은 하지 않을 생각이였다.

꼬리털이 탐스러워야 가죽이 좋아보인다고 손발이 되여줄 부하들을 될수록이면 탐욕을 꺼리는 청렴한 사람들로 쓸것이였다.

말똥도 모르고 마의노릇을 한다는 말처럼 좌가려나 어비류는 정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도적놈들로 수족을 두었기에 그것들이 제 살일에만 돌아치면서 정사를 어지럽히였고 결국은 임금의 눈밖에 날수밖에 없었던것이다.

이윽고 우소는 방문을 바라보며 손벽을 쳤다.

그러기를 기다렸다는듯 곱살하게 생긴 시비가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은은한 향내를 풍기며 아름다운 꽃무늬를 수놓은 비단옷을 입은

시비가 들어서니 삽시에 방안이 환해지는듯싶었다.

시비는 나부시 절을 하며 물었다.

《음식상을 들여와도 되겠나이까?》

우소는 말없이 눈을 끔뻑했다.

화려한 치마를 찰찰 끌며 밖으로 나갔던 시비가 곧 음식상을 들고 들어왔다.

시비가 차려놓은 음식상을 굽어보던 안류는 무척 놀라왔다.

자배기에는 누런 잉어를 끓인 금잉어탕이 가득하였다.

금잉어는 우소가 제 살점마냥 아끼는 물고기였다.

우소가 재미나게 즐기는 취미의 하나가 넓은 뜨락을 차지한 잉어못에서 꼬리를 치며 굼니는 금잉어를 구경하는것이였다.

그것을 어찌나 즐기는지 어떤 날에는 한나절이나 잉어못에 붙어있었다.

하기에 지금껏 잉어못에서 잡은 금잉어를 누구한테도 대접한적이 없었다.

끓어앉은 시비가 안류에게 아뢰였다.

《금잉어탕이 특별히 몸보신에 좋다 하시며 국구어른께서 오늘 잉어못에서 금잉어를 잡도록 하시였나이다.》

아직은 우소가 남에게 금잉어탕을 대접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있는 안류로서는 그 말에 감동되지 않을수 없었다.

시비가 옥술잔에 맑은 술을 찰랑찰랑 부어넣고 나가니 우소가 웃으며 말했다.

《그저 나의 자그마한 성의로 알고 들게.》

안류는 우소의 앞에 놓인 자배기를 가리켰다.

《원, 국구어른도 참. 이 귀한걸 다…》

《인재에게야 보물인들 아깝겠나. 자, 어서 들게.》

두사람은 곧 수저를 놀리였다.

금잉어탕을 맛있게 드는 안류를 곁눈질하며 우소는 못내 흡족해하였다.

뛰여난 인재는 얻기도 힘들고 얻는다 해도 써먹기 어렵다지만 그것은 머리를 쓸줄 모르는 우둔한자들이 하는 소리이다.

믿음을 앞세운 인정에는 녹아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머리를 잘 쓰기만 하면 아무리 기개있는 호걸일지라도 팔다리처럼 부릴수 있는것이다.

강아지도 닷새면 주인을 안다는데 인정에 녹아난 사람은 반드시 인정을 안겨준 사람을 위해 죽기마련이다.

그런즉 안류와 같은 사람들로 조정을 꾸리면 그들이 어찌 나를 위해 뛰지 않겠는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게 정사의 묘술이렷다. …

술기운이 오른 두사람은 곧 말이 많아졌다.

술이 들어가면 얼굴이 하얘지는 우소는 반대로 얼굴이 시뻘개지는 안류에게 말했다.

《안공에 대한 왕후마마의 기대가 크오. 왕후마마께서 나에게 귀띔하기를 공은 중외대부감이라고 하셨소.》

왕후라는 소리에 안류는 가슴을 들먹이였다.

뜻을 가진 선비에게 있어서 제일 큰 재산은 손때묻혀 키운 제자인것이다.

우소가 욕심많은 사람인줄 알면서도 그와 그냥 상종하는것은 벼슬에 미련이 있기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왕후와의 인연을 중시하기때문이였다.

총명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우왕후와 손을 잡고있으면 어느때건 조정일에 나설수 있게 될것이였다.

《고맙소이다.》

안류는 기쁨에 겨워 한껏 숨을 들이켰다.

(8)

새봄이 왔다. 신미년(191년)의 봄은 너무도 일찍 오고 너무도 따스하여 좌물촌의 을파소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세상에 이런 봄도 있는가.

60여년을 살아오면서 이해의 봄처럼 때이르게 찾아든 따스한 봄은 생각나지 않았다.

해마다 봄을 먼저 알리는 꽃으로 청명을 며칠 지나 노랗게 피여 마을을 아름답게 단장하던 개나리꽃이 올해에는 보름전에 활짝 피였다.

꽃속에 묻혀있는 마을들은 아름다왔지만 인생살이는 여전히 모질었다.

겨우내 잡다한 부역으로 백성들을 들볶던 관가에서 압록강의 얼음이 풀리기도 전에 구실아치들이 살 새 집을 짓는 일에 또다시 불러내였다.

이에 응하지 않는 백성은 관가에 끌려가 매도 맞고 옥에 갇히워야 했다.

관가에서 백성들을 부역에 끌어낼 때마다 남역녀경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뇌이였다.

남역녀경이란 말은 사내들은 부역에 나가고 녀인들은 밭을 간다는 뜻으로서 이런 조치는 원래 나라에 전란이 닥칠 때 취해야 하는것이였다.

허나 오늘날 란시도 아니건만 탐관오리들이 한동아리가 되여 남역녀경을 국시로 삼고있으니 그통에 녹아나는것은 백성들뿐이였다.

보름나마 집짓는 부역에 불려나갔다가 4월도 반나마 지나간 며칠전에 돌아온 을파소는 이발이 쑤시는 아픔에 견딜수가 없었다.

아프다아프다 해도 이가 쏘는것만큼 큰 아픔도 쉽지 않을것이다.

온 입안이 쿡쿡 쑤시는 아픔에 견딜수 없어 을파소는 쏘는 이발을 뽑아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앓는 어금이를 없애기로 작정했는데 손자 륙손이도 앞이가 근들거려 뽑아야 할 사정이 생기였다.

륙손이는 맏아들네 셋째였지만 을파소에게는 여섯번째 손자였다. 그래서 이름을 륙손이라고 지어준것이였다.

을파소의 이웃에는 이발을 잘 뽑는 재간을 가진 사람이 살고있었다.

젊었을 때 어느 의원한테서 앓는 이를 뽑는 비방을 배운 사람이였다.

그까짓 늙은이의 이발이야 아무한테나 뽑아도 되겠지만 어린 손자애만은 그렇게 할수 없었다.

그래서 을파소는 건너마을에 사는 의원을 찾아 륙손이와 함께 집을 나섰다.

의신이라고 부르는 건너마을 의원은 이 일대에서 명의로 소문이 난 사람이다.

대대로 의원을 하는 집에서 태여난 의신은 어려서부터 의술을 착실히 배웠는데 타고난 총명에 학구열이 대단하여 선친들의 재주를 훨씬 뛰여넘었다.

제노라는 의원들이 죽을병에 들었다고 제쳐놓은 병자들까지 고치는 정도였으니 그의 의술이 얼마나 높은지 알수 있다.

그는 이발의 병을 고치는데도, 앓는 이를 뽑는데도 조예가 깊었다.

《할아버진 지금도 이가 쑤시오이까?》

을파소는 웃으며 말했다.

《지금은 그리 쏘지 않는다. 이가 쏠 때 뽑으면 몸에 병이 난단다. 그래서 쏘던 이발이 아프지 않을 때 제꺽 뽑아야 한다.》

《그렇소이까?》

몇걸음 강뚱거리며 걷던 륙손이가 또 입을 열었다.

《난 크면 할아버지 같은 농사군이 되지 않겠소이다.》

이제 겨우 아홉살밖에 나지 않은 코흘리개의 생각치고 너무도 당돌하여 을파소로서는 놀랍기 그지없었다.

《농사군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되겠느냐?》

《의원이 되겠소이다. 그 어떤 병도 척척 고치는 명의가 되여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사시도록 하겠소이다.》

애녀석의 대답이 하도 기특하여 을파소는 륙손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너야말로 효자로구나.》

을파소의 품에서 살짝 웃던 륙손이가 하는 말이 더 어른스러웠다.

《난 다 컸으니 내 발로 걸어가겠소이다.》

《허허—》

륙손이를 내려놓고 그의 손목을 쥔 을파소는 기분이 좋아하였다.

오래간만에 어린 손자와 함께 걷던 을파소는 자손들을 가르치는데 너무도 무관심했다는 자책감이 들었다.

부모들은 날 구려경당에까지 보내주었는데… 이제라도 륙손이에게 나의 뜻을 심어보는것이 어떨가. 사실 구려경당에 다닐 때 나의 뜻은 벼슬길에 올라 나를 바치는것이 아니였던가.

그런데 어이하여 벼슬길을 단념했던가.

그것은 오랜 충신들을 미워하며 마구 죽이고 간신들로 수족을 꾸려 국운을 기울게 하고있던 차대왕에게 침을 뱉고 돌아섰기때문이다.

옛글에도 나의 재주와 충정을 알아주고 써주는 현명한 임금에게는 몸과 마음을 다 바치라, 허나 덕을 짓밟고 악을 불러들이는 포악한 군주와는 멀리로 피하라는 말도 있지.

효도와 우애, 충정과 믿음을 가리켜 사덕이라고 할진대 이것을 짓밟는 임금을 어찌 따를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벼슬길에 등을 돌려댄것이였다.

젊었을 때 어느 길을 택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매듭지어진다더니…

내 다시 태여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면 주저없이 조정으로 나

가 나라의 국력을 키우는 일을 한몫 해제끼련만…

이것이 배운자 할바라고 생각하니 륙손이만은 공부를 크게 시켜서 벼슬길에 내세워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의신의 집은 건너마을의 한복판에 있었다.

륙손이의 손을 잡은 을파소가 그의 집앞에 이르니 마침 마당에서 의신이 투레질을 하는 검정말을 들여다보고있었다.

키는 작아도 몸이 탱탱한 의신은 을파소가 곁에 와 선줄도 모르고 말을 지켜보기만 하는것이였다.

《그동안 잘 있었소?》

을파소를 알아본 의신이 반색을 지었다.

《어르신도 편안하셨소이까?》

의신의 싹싹한 태도에 기분이 더 좋아진 을파소가 말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이 말이 병난게 아니요?》

의신이 우는소리를 하였다.

《이 말때문에 야단났소이다. 병자들을 찾아다닐 때 타는 말인데 눈병이 났으니… 눈약을 썼는데도 어인탓인지 말을 듣지 않소이다.

사람과 말은 같은 병일지라도 병을 고치는 처방이 그에 따라 달라야 하는가보오이다.》

을파소가 보건대 말의 두눈에 눈곱이 끼고 흰자위가 불그스름한것이 눈병이 틀림없었다.

《이 말은 눈에 벌레가 있소. 그래서 보통눈약으로는 고칠수 없는거요.》

의신이 뜨아한 눈길로 을파소를 쳐다보았다.

《그건?…》

을파소는 자신있게 말했다.

《내가 전장에 나갔을 때 말의 병을 귀신처럼 고치는 마의와 사귄바가 있었네. 그래서 이런 병을 좀 알지. 눈에 벌레가 든 말을 제때에 손쓰지 않으면 눈이 멀게 되거던.》

펄쩍 놀라 의신이 을파소의 손을 붙잡았다.

《내겐 이 말이 있어야 병자들을 찾아다닐수 있소이다.》

을파소는 말갈기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너무 근심말게. 마의의 말이 물푸레나무껍질을 달인 물로 며칠간 눈을 씻어주면 영낙없이 낫는다고 하였는데 나도 그렇게 해보았더니 정말 신통하게 낫거던.》

의신이 못내 기뻐하며 두눈을 슴벅이였다.

을파소는 찾아온 용건을 입에 올렸다.

《앓는 이를 뽑으러 왔으니 아프지 않게 뽑아주게.》

《그거야 뭐 어렵겠소이까. 잠간만…》

하더니 안으로 들어갔던 의신은 크고작은 집게들을 들고나왔다.

을파소는 옆에 끼고있던 륙손이의 등을 떠밀었다.

《이애부터 봐주게. 앞이가 근들거린다네.》

《그러지요.》

륙손이의 이발을 들여다보고난 의신은 두손으로 아이의 웃턱과 아래턱을 주무르는것이였다.

한동안 주무른 의신은 작은 집게로 륙손이의 앞이발을 재치있게 잡아뽑았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륙손이가 조금도 아파하지 않는것이였다.

을파소는 곧 의신이 손으로 턱을 눌러 이몸을 마취시켰음을 알아차렸다.

명의로 소문난 의신인데야 그만한 재간이 없겠는가.

이윽고 을파소의 입안을 들여다본 의신은 웃음을 지었다.

《앓는 어금이는 절반나마 썩었으니 그것만 뽑으면 나머지 이발들은 약을 써서 든든하게 해드리겠소이다.》

이번에도 을파소의 턱을 싸쥔 의신은 손가락으로 웃턱과 아래턱을 주물렀다.

을파소는 의신이 턱을 주무를 때마다 그 부위가 아파서 얼굴을 찡그렸다.

조금 지나 아무리 눌러도 아프지 않았다.

그렇게 되기를 기다렸던 의신이 말했다.

《이젠 입을 크게 벌리시오이다.》

을파소가 눈을 꾹 감고 입을 벌리니 어느새 웃턱에서 쿡 하는 둔한 아픔을 느끼였다.

《눈을 뜨소이다.》

눈을 뜬 을파소는 의신이 이발을 뽑아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을파소는 가슴이 후련하였다.

이제 더는 이가 쏘는 아픔을 겪지 않게 되였으니 얼마나 좋은가.

을파소가 돌아가려 하는데 의신이 《잠간!》 하고 일렀다.

《그러지 않아도 어르신을 찾아가려 했소이다. 잠간 방에 앉았다 가시오이다.》

《?…》

을파소는 의신에게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다.

을파소가 자리를 잡고 앉자 의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르신에게 하나 묻겠소이다. 지난해 봄 고을에 가던 길에 우황이 든 소를 끌고 가던 젊은이를 만난 일이 있소이까?》

을파소는 인차 생각났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그렇네.》

《그럼 어르신이 우황을 도읍에 가져다 팔라구 했소이까?》

《그렇네.》

의신의 얼굴이 울상이 되였다.

《그 젊은이가 제 처조카올시다. 바로 그때문에 그 사람이 죽게 되였소이다.

실은 나도 요 얼마전에야 그걸 알았소이다.》

영문을 알수 없는 을파소는 의신의 입만 지켜보았다.

《내 그만큼 그 사람에게 남의 일에 중뿔나게 나서지 말라고, 우황을 팔겠으면 눅더라도 여기서 팔라고 했는데 하 그 사람 종시

내 말을 안 듣고 빚까지 내여 우황주인에게 내주더니 기어코 제값을 다 받겠다며 올초에 도읍으로 올라갔소이다. 그러다 끝내 졸경을 쳤지요.

그 사람이 글쎄 옥졸을 어떻게 삶아냈던지 옥졸이란 사람이 열흘전에 그의 소식을 인편으로 알려왔댔지요. 인편에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처조카가 가진 우황이 보기 드물게 큰것이라는것이오이다. 대단히 큰 우황에 탐을 낸 장사군놈이 처조카에게 도적의 루명을 씌워 옥에 가두었는데 그 죽일놈이 글쎄 세도를 부리는 연나부의 사람이라고 하오이다.》

을파소는 후회막심하였다.

요즘 큰 고을로 나갈수록 탐욕스러운 왕도적들이 날치는데 그걸 생각지 못했으니…

을파소는 죄스러운 눈길로 의신을 바라보았다.

《지금 처조카네 집에선 어떻게 하고있나?》

《말도 마시오이다. 그 집에서 친척들까지 다 떨쳐나서 처려근지를 찾아가 우황의 행처를 밝히고 도와줄것을 간청하였지만 그 어른이 어디 들어주려 하오이까. 상대가 연나부라니 그럴만도 하겠지요.

그래서 어르신을 찾아가 처조카를 빼낼 의논을 하려 했소이다.》

을파소는 함정에 빠진듯싶었다.

농사군에 불과한 시골늙은이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도읍에서 잘못 걸려든 사람을 건져낼수 있단 말인가.

《듣자하니 어른에겐 도성에 힘있는 친구들이 있다던데…》

그 말에 을파소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본의가 아니더래도 남을 죽을 구멍에 빠뜨렸으면 무슨 대가를 치르더래도 구원해내는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안류 그 사람이 안면도 넓고 수완도 좋으니 그에게 도움을 청할수 있을것이다.

을파소는 힘주어 말했다.

《알겠네. 내 직접 도성으로 올라가 처조카를 빼내도록 하겠으니 그리 알게.》

(9)

《고국천왕때에 패자 어비류와 평자 좌가려 등이 모두 왕의 외척으로서 권력을 독차지하고 옳지 못한 일을 많이 하므로 백성들이 그들을 원망하고 분개해하였다.

왕이 성을 내여 그들을 죽이려 하니 좌가려 등이 반역을 도모하는지라 이들을 죽이고 여당들은 귀양을 보내였다.》(《삼국사기》 권 제45 렬전 제5)

의신의 집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을파소는 도성으로 올라갈 차비를 서둘렀다.

지금은 한창 봄철이라 어데 가나 백성들은 식량이 부족하다.

오죽했으면 봄친척은 꿈에 볼가봐 무섭다는 말까지 생겨났겠는가.

이런 형편에서 무전려행의 풍습이 있다한들 남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으로 을파소가 로자를 마련하고있는데 도성에서 란리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좌물촌에도 짜했다.

도성소식은 시골 가서 들으랬다고 국내성에서 생긴 큰 사변은 날개가 돋친듯 전국에 전해지는것이 정해진 리치였다.

그 소문에 을파소는 연나부것들이 반란을 일으켰음을 짐작했다.

연나부것들이 들고일어나는 날이자 멸망당하는 날임을 확신하고있던 을파소는 급히 도성행을 하리라 결심했다.

차라리 잘된셈이였다.

정말로 연나부가 란리를 일으키고 망했다면 틀림없이 안류가 조정대신으로 되였을것이라 그에게 도움을 청하면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을 손쉽게 빼낼것이였다.

래일은 집을 떠나기로 생각한 을파소는 아침부터 뜨락에서 짚신을

삼는 일을 벌려놓았다.

아무리 말을 빌려타고 간다 해도 짚신 몇컬레는 가져가야 할것이였다.

요즘은 한창 애벌김매기철이라 열살을 넘는 손자애들까지도 다 밭일을 나가고 륙손이만이 을파소의 말동무가 되여주었다.

을파소는 축축히 적셔놓은 삼껍질로 신바닥을 엮기 시작했다. 여섯줄로 날을 늘이고 날사이로 굵게 꼰 삼끈을 밀어넣으며 신바닥을 촘촘히 엮어나가느라니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돋았다.

륙손이가 얼른 수건을 가져다 을파소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을파소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여러모로 보아 기특도 하고 령리하기도 한 륙손이였다.

두벌자식은 덮어놓고 곱다고 하지만 륙손이는 곱게만 노니 칭찬이 모자랄 지경이였다.

《내 네 신도 곱게 삼아주마.》

륙손이 고개를 저었다.

《내건 아직 해지지 않았소이다. 할아버지, 나도 데리고 갈수 없나이까?》

《너를?!…》

《세상을 구경하고싶소이다.》

륙손이의 간절한 기대가 실린 눈길을 보느라니 그를 데리고 가는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냐, 데리고 가마.》

륙손이 손벽을 치며 환성을 올렸다.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이다.》

너무 좋아 어쩔줄 몰라하는 륙손이를 껴안아주는데 문득 웬 사나이의 웅글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인 있소?》

륙손이 대꾸했다.

《누구시나요?》

《할아버지 있느냐?》

귀에 선 목소리에 을파소가 일어섰다.

어느새 삽짝문을 활 열어제낀 륙손이가 마당에 서있는 낯선 사람들을 쳐다보며 물었다.

《왜 그러시나요?》

절풍을 쓰고 칼을 찬 사람이 처려근지라는것을 알아본 을파소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처려근지가 나를?!… 이거야말로 무슨 큰일이 생겼다는것이 아닌가.

삽짝문을 나선 을파소는 처려근지에게 절을 하였다.

《제가 을파소오이다. 루추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시오이다.》

키가 크고 잘 생긴 사나이가 먼저 삽짝문안으로 들어서는걸 보니 그가 더 높은 관리인것 같았다.

그뒤로 처려근지가 따랐다.

두사람만이 뜨락에 들어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삽짝문밖에 진을 치듯 서있었다.

뜨락에 들어선 을파소는 낯선 관리의 차림새를 눈더듬하였다.

놀라운것은 은장식의 허리띠를 찬 처려근지와 달리 낯선 관리의 허리에서는 시누런 금빛이 번쩍이였다. 금장식의 허리띠를 띤것이였다.

금허리띠에 매단 숫돌주머니도 금장식을 한 가죽주머니였다. 뿐더러 머리에는 높은 급의 무관들이 쓰는 붉은 책까지 쓰고있었다.

차림새를 보아 보통 큰 벼슬아치가 아니였다.

그런데 그에게 대뜸 마음이 끌리는것은 듬직한 몸가짐과 용모때문이였다.

둥글넙적한 얼굴에 이목구비가 하나같이 사내답게 잘 생기고 특히 반달모양의 두눈에 부드러운 미소가 어려있었다.

을파소는 이렇게 생긴 사람은 대개 정직하고 의로운것으로 여기고있었다.

그의 점잖은 행동거지에는 위엄 또한 어려있었다.

반대로 이마가 생기다만것 같고 광대뼈가 툭 두드러진 처려근지의 두눈은 먹을것을 노리고 졸라대는 수돼지의 눈과 같았다.

이렇게 막 생긴자는 대개 심술궂고 미욱하며 탐욕이 사납다고 을파소는 여기였다.

아니나다를가 처려근지가 호령조로 말했다.

《조정에서 이 집주인을 불러들이라는 령이 내렸으니 당장 떠나야겠다.》

아닌밤중에 홍두깨라더니 너무도 뜻밖의 일에 놀란 을파소는 말뚝처럼 굳어졌다.

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윽고 마음을 다잡은 을파소는 금허리띠를 찬 관리에게 말했다.

《하나 물어도 되겠소이까?》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어르신은 도성에서 내려오신가본데 도성에 란리가 일어났다는것이 사실이오이까?》

대바람에 처려근지가 성을 내며 소리쳤다.

《감히 뉘앞이라고? 백성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것이지 무슨 잔말인가 말이다. 당장 떠날 차비를 해가지고 나와.》

지난해 관가걸음을 할 때 얼굴이나 익힌 처려근지가 벼슬아치랍시고 나이가 우인 사람에게까지 반말질이라 을파소는 화가 벌컥 났다.

재주라고는 제살궁리를 하는것밖에 모르는 저런것한테 집에서까지 수모를 당해야 한단 말인가.

토방에 걸터앉은 을파소는 처려근지를 쏘아보며 입을 열었다. 성이 난 그의 입에서는 이전과 달리 걸죽한 욕설이 터져나왔다.

《너 이놈, 날 똑똑히 보아라. 이 집이 그래 어떤 집인지 네놈이 모른단 말이냐? 개도 터세를 한다고 했다. 네따위가 나라에 얼마만큼 좋은 일을 했기에 또 네놈의 조상들이 우리 겨레를 위해 어떤 업적을 남기였기에 큰소리냐? 백성이 뭐 어쨌다구? 아는것이란 사람을 업신여기는것밖에 모르는 네놈이 관모를 썼다고 꼴사납게 으시대

는걸 보니 야 이놈아, 애들도 웃겠다.》

그만에야 상대가 누구인지 깨달은 처려근지의 얼굴이 수수떡처럼 되고말았다. 조정에서 내려온 웃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생각만 앞세우던 나머지 앞뒤를 재지 않고 놀아댄 불찰을 알아차린것이였다.

오로지 권세를 부리는것밖에는 도무지 례의를 모르는 처려근지와 같은자에게는 존대의 말이 통하지 않는것이다.

이런자들에게는 단 한가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게 즉석에서, 그것도 되게 면박을 안겨야 한다는것을 을파소는 잘 알고있었다.

앉은자리에서 처려근지를 움쩍 못하게 눌러놓은 을파소는 잠시 생각했다.

조정에서 농사나 짓는 늙은이를 왜 부를가.

갈피를 잡을수 없었지만 명백한것은 호락호락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그것이였다.

을파소는 금허리띠를 띤 관리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젊은 어른, 나로 말하면 한생 열손가락이 닳도록 땅이나 만지는 농군이오이다. 그런즉 나는 나라에 터럭만큼도 해되는짓을 한게 없으니 어찌 죄인처럼 끌려가겠소? 억지다짐으로 날 붙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마소이다. 도대체 조정에 무슨 일이 생기였기에 날 부른다는거요?》

을파소가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관리는 속이 뒤틀려 씩씩거렸다.

그렇다고 강박할수는 더욱 없었다. 상관에게서 령을 받을 때 을파소를 잘 데려오라고만 하였지 다른 말은 없었던것이다.

금장식의 허리띠를 찬 이 사람의 이름은 고우루이고 왕궁호위를 통솔하는 중리도독의 막하장수이다.

고우루만큼 요사이 도성의 형편에 밝은 사람도 많지 않을것이였다.

임금이 국내성의 왕궁으로 돌아앉기 바쁘게 바로 이때라고 타산한 연나부것들이 반란을 일으키였다.

그것들이 어중이떠중이 수천명을 긁어모아가지고 궁성을 에워싸려

할 때 바로 이때를 기다려온 철기군이 즉시 반격을 들이댔다.

그 어떤 강포한 외적도 격파할수 있는 정예군이 고구려의 철기군이다.

천하으뜸인 철기군앞에 반란군은 그 즉시 무릎을 꿇고말았다.

그와 동시에 임금의 여러 동생들이 거느린 경군이 연나부로 쳐들어가 반란의 주범들을 일망타진하였다.

이로써 그렇게도 말썽많던 연나부는 끝장나고말았다.

임금은 즉시 새 조정을 내오기 위해 도처에서 사람들을 불러들이였다.

바로 그 일감이 고우루에게 맡겨졌다.

임금이 중리도독에게 어떤 사람들을 불러들이라는 령을 내리면 그 령이 곧 고우루에게 전해지고 고우루는 지체없이 군사들을 보내여 그들을 불러들이였다.

임금에게 불리워간 사람들에게는 두 길중의 하나가 놓여있는바 반란자들과 인연이 있는자는 형장으로 끌려나가고 그렇지 않은자에게는 관직이 차례졌다.

임금을 내놓고 그들에게 어떤 운명이 차례지겠는지는 누구도 미리 알수 없었다.

사흘전 중리도독은 고우루에게 직접 서압록고을에 내려가 을파소를 데려오라는 령을 내렸다.

을파소의 차후운명을 예측할수는 없어도 여느 사람들과 달리 궁중의 장수가 직접 데려오라고 하니 그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만은 짐작되였다.

그래서 수백리를 말을 타고 달려온 고우루는 관가를 통해 을파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알아보니 을파소가 옛적의 명재상 을소의 후손이라는것도 놀라왔고 구려경당을 나온 식자가 한생 농사를 짓고있다는것도 놀라왔다.

당당한 명문가의 자손이고 아는것도 많은 선비가 무엇때문에 벼슬길과 담을 쌓고 농사군이 되였을가.

그보다 놀라운것은 을파소가 작인들을 해친 동생을, 그것도 친동생을 가법에 따라 처형했다는 그것이였다.

세상에 보통사람으로서 악을 미워하여 제 친동생을 죽인 전례가 있단 말인가.

도저히 리해되지 않는 인물이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지금 이렇게 당자를 만나고보니 리해되는 바가 없지 않았다.

비록 초가집이긴 해도 사람들의 깐진 손길이 속속이 미쳐있고 집주인은 위엄이 있었다.

추녀낮은 집에 인물이 있다더니… 이 늙은이를 건드렸다가는 처려근지처럼 코가 납작하게 망신을 당할것이다.

고우루는 을파소의 엄한 눈길을 읽으며 그가 탐욕스러운 연나부것들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정직한 사람임을 확신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불러들이는것은 벌이 아니라 급히 쓰려 해서일 것이다.

고우루는 공손한 태도로 말했다.

《나이든 어른에게 뭘 숨기겠소이까. 역적들의 란동은 그날로 평정됐고 지금 나라에서는 지은 죄와 세운 공을 헤아려 사람들을 대해주고있소이다. 솔직히 난 로인장을 부른 까닭을 모르오이다.

하오나 로인장에게 해되는 일은 없을듯 하니 아무런 의심 마시고 저와 함께 가시오이다.

타고 갈 말도 가지고 왔으니 차비를 하고 나오소이다.》

고우루를 지켜보던 을파소는 그가 결코 얼림수나 쓸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겉보기가 속보기라고 고우루의 언행에는 처려근지와 달리 점잖고 무게가 있었다.

마음이 가라앉은 을파소는 방에 들어가 채롱에서 나들이옷을 꺼내였다.

나들이옷이래야 흔히 농사군들이 입는 베옷이였다.

을파소는 통을 좁게 만든 바지부터 갈아입었다.

통이 좁은 이런 바지를 궁고라고 하는데 부자들이 입는 통이 넓은 대구고와 달리 행동에 편리하였다.

이어 왼섶저고리로 갈아입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덧저고리를 걸치였다.

저고리 역시 팔소매가 넓은 부자들의것과 달리 소매가 좁았다.

옷섶을 바로 여미고 덧저고리를 입은 허리에 또 띠를 띤 을파소는 머리의 외상투를 매만지면서 꼼꼼하게 상투에 끈을 동여맸다.

그리고 검은색머리수건을 썼다.

사실 귀족인 을파소는 마땅히 비단으로 지은 통넓은 바지며 소매가 넓은 저고리와 덧저고리를 입고 가죽으로 만든 띠를 허리에 띠고 머리에는 적어도 절풍이라고 하는 쓰개를 써야 했다.

그러나 한생 농사로 늙다보니 자기를 보통농사군으로 치부해버리였고 또한 요즘의 집살림형편으로는 그런 값비싼 옷차림을 할수 없었던것이다.

옷을 갈아입은 을파소가 뜨락으로 나오니 륙손이 울상이 되여 팔에 매달렸다.

《할아버지, 이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소이다. 예, 할아버지?》

을파소는 눈물이 가랑가랑한 륙손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무 일 없으니 마음놓아라.》

을파소를 마뜩지 않게 노려보던 처려근지가 륙손이를 떠밀며 재촉했다.

《너무 지체했소.》

마당에 나서니 군사들이 을파소에게 타고 갈 말을 가져다주었다. 얼룩말이였다.

얼룩말에 올라앉은 을파소는 울고있는 륙손이에게 소리쳤다.

《얘야, 아버지에게 할아버지는 곧 돌아온다고 알려라.》

말을 탄 군사들이 을파소를 에워싸고 그뒤로 역시 말을 탄 고우루와 처려근지가 따랐다.

그들이 마을을 벗어나 고을로 향하는 큰길에 들어섰는데 《서시오!—》 하고 웨치며 말을 급히 몰아오는 두사람이 있었다.

뒤를 돌아보는 을파소는 그들을 첫눈에 알아보았다.

을파소는 칼을 뽑아드는 군사들에게 일렀다.

《저 사람들은 우리 마을사람들일세. 아마도 날 바래주려고 따라오는것 같네.》

을파소가 말을 세우니 일행모두도 멈춰섰다.

곧 인우와 정우가 들이닥쳤다.

키가 좀더 큰 사나이가 정우이고 볼에 칼에 찔린 흉터가 나있는 사나이는 인우였다.

말에서 뛰여내린 그들이 을파소앞에 꿇어엎드렸다.

《주인님, 륙손이에게서 다 들었소이다. 저희들이 시중을 들며 주인님을 모시고 가겠으니 허락해주시오이다.》

을파소는 자기를 부모처럼 따르는 이들의 마음을 돌려세울수 없음을 느끼였다.

처려근지가 악을 쓰며 소리쳤다.

《이 상놈들이 무례하게도 갈길을 지체시킨단 말이야?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목을 칠테다.》

을파소는 꼴사납게 놀아대는 처려근지를 못 본척 하고 고우루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나와 외적을 치는 전장에서 인연을 맺었소이다. 함께 가도록 허락해주오.》

이제는 을파소에게 호감을 품은 고우루는 처려근지에게 엄하게 일렀다.

《공은 자중하오. 난 저 두사람이 로인님을 시중들게 하는게 좋다고 보오.》

그 한마디에 처려근지는 삽살개처럼 싹싹해졌다.

《장군의 분부가 지당하오이다.》

제 3 장

임금은 궁궐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나라안에 훌륭한 인재없다 말을 말라네
(리익의 악부시 《서압록의 노래》중에서)

(1)

동부의 안류를 천거하매 임금이 안류를 불러서 나라정사를 맡겼다.

안류가 왕에게 말하기를 《미천한 저는 용렬하고 어리석어서 진실로 중대한 나라일에 참여할수 없나이다. 서압록고을 좌물촌에 사는 을파소라는 사람은 류리명왕때의 대신이였던 을소의 후손인데 그의 성질이 굳세고 지혜가 많으나 세상에 쓰이지 못하므로 농사를 지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있사온바 대왕께서 정녕 나라를 바로 다스리려고 하신다면 이 사람이 아니고는 안될것이오이다.》라고 하였다.(《삼국사기》 권 제45 렬전 제5)

해가 서산마루로 기울어질무렵 백마를 탄 안류는 국내성의 동문을 나섰다.

그의 앞뒤로 수십명의 마군들이 따르고있었다.

며칠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안류의 신변을 걱정하며 임금이 붙여준 군사들이였다.

동문앞으로 해자를 가로지른 다리를 건너선 안류는 말을 멈춰세웠다.

그가 아스라하게 높은 동문을 향해 돌아서니 군사들도 말을 멈춰

세우고 날카로운 눈길로 사방을 살피였다.

어느 명필이 동문이라고 글을 썼는지는 알수 없으나 글체에는 씩씩한 기백이 어려있었다.

동문의 현판에서 눈길을 뗀 안류는 이어 도성의 유래에 대해서 더듬어보았다.

국내성은 시조 동명성왕이 부여를 떠나와 처음으로 터를 잡은 고장이였다.

그때는 이 고장을 파루부라고 불렀다.

생각이 깊어진 안류에게 호위군사를 거느린 군사가 나직이 아뢰였다.

《중외대부어른께서는 너무 지체하는것 같소이다.》

중외대부라는 말에 목가적인 감정이 삽시에 식어버린 안류는 후두둑 높뛰는 가슴을 부여안았다.

살아생전 오늘처럼 바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지금껏 양지가 음지로, 음지가 양지로 되는 불의지변을 적지 않게 목격하였지만 자신의 신상에서 그런 변화를 당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였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바로 국상 다음의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될줄이야. … 그것도 연나부의 반란을 평정하는데 품 한자루 바치지 않은 자신이…

말없이 말머리를 돌려 집으로 향해가는 안류의 심정은 금의환향과는 거리가 멀었다.

제힘으로 이룬것이 아닌 영화인데야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뜻밖의 영화를 생각하면 꿈속을 헤매이는듯싶다.

보름전 연나부가 일으킨 반란은 그날로 평정되고 그 이튿날 임금은 연나부를 제외한 각 부에서 청렴한 인재들을 추천하라는 령을 내렸다.

그러기를 목마르게 기다려온 4부의 대가들이 인재선발명부에 저마다 앞을 다투어 제 이름을 써넣었다.

하면서도 저희들의 이름만을 그려넣기 멋적었던지 안류의 이름자도 한구석에 써주었다.

그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4부의 대가들을 모두 불러들인 임금은 연나부가 망쳐놓은 정사를 바로잡을 인물, 명림답부와 재주를 견줄만 한 충의지사가 있으면 나서라는 령을 내렸다.

지엄한 령에 제노라던 대가들은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진땀만 흘리였다. 조정대신은 되고싶어도 강대한 고구려의 위엄을 떨칠 능력도 담력도 없었으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어전회의에 참가한 안류는 손에 땀을 쥐고 누구인가 나서기를 기다렸다.

이런 때 국구가 있었다면 서슴없이 그의 등을 떠밀었을 안류였다. 왜냐하면 아무리 4부를 둘러보아야 우소만 한 인격과 의기를 갖춘 인물이 없기때문이였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우소가 없었다. 사실 우소는 임금에게 외척이나 처족되는 사람은 어전회의에 참가하지 말라는 임금의 령이 있어 이 자리에 나설수 없었던것이다.

이제부터는 외척이나 처족을 두번다시 권세를 부리는 자리에 들여놓지 않으려는것이 임금의 결심이였다. 안류가 아직은 임금의 그 뜻을 알리 없었다.

종시 첫날의 어전회의는 아무런 결실이 없이 끝나고말았다.

이튿날의 어전회의는 한식경도 못되는 사이에 결속되였다.

어전회의의 참가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것은 동부출신의 안류에게 조정정사를 위임한다는 어명이 떨어진 그것이였다.

너무도 놀란 나머지 안류는 어전회의가 끝나 사람들이 모두 돌아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서있었다.

임금이 부른다고 궁중구실아치가 일러서야 그를 따라 내전으로 갔던 그였다. …

해가 떨어져버린 서산을 등에 지고 붉은기와지붕의 웅장한 태묘의 앞으로 나있는 큰길에 들어선 안류의 생각은 내전에서 임금을 만

나던 그때에 가있었다.

먼발치에서 몇번 본바 있는 임금을 몸가까이에서 만나보기는 그때가 처음이였다.

궁중구실아치에게 이끌려 어느 방에 들어서니 임금이 반가이 맞아주는것이였다.

공손히 절을 드리는 안류를 바라보며 임금은 못내 만족해하였다.

《짐이 공을 알고있는지는 오래전이였소. 공이 왕후의 스승인데 어찌 모르겠소. 공의 됨됨도 재주도 잘 알고있는 짐은 그대에게 중외대부의 관직을 제수하자고 하오. 물론 왕후도 국구도 공을 추천했소.》

너무도 생각밖의 일에 안류의 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말직벼슬조차 차례진적 없는 내가 중외대부라니?!…

한참만에 마음을 다잡은 안류는 머리를 저으며 아뢰였다.

《대왕마마, 소신은 그런 큰 중임을 감당할수 없소이다.》

임금은 너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친근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누가 짐을 도와 나라의 정사를 바로잡을만 하오?》

그 순간 안류에게 선참 떠오르는 사람이 제나부의 우소였다.

우소보다 조정을 통솔할만 한 담력과 기개가 있는 사람은 없을것이였다.

《신의 생각엔 국구어른이 적임자인것 같소이다.》

임금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아니, 터놓고 말해서 역적들이 쏟아져나온것은 짐의탓이기도 하오. 자고로 임금의 친족은 말할것도 없고 외척이든 인척이든 조정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여있지 않소.

그런데 짐이 그 법도를 지키지 못했기에 외척을 업은 연나부것들이 조정을 차지할수 있었던거요.

옛말에 눈먼 정을 쏟아붓는 어미에게는 못된 자식이 있어도 주인이 엄한 집에는 거역하는 노복이 없다 하였는데… 짐이 연나부가 외척이라는데로부터 어루만지기만 하였으니 그것들이 역모까지 저지를

수가 있었던거요. 그러니 두번다시 그런 실책을 범하리오?》

그 말에 안류는 감탄해마지 않았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자는 현명해진다고 하지 않았던가.

임금이 잘못한것은 바로 사리에 밝고 청렴한 신하를 구하지 않고 리속만 챙기려드는 탐욕스러운자들을 크게 써준 그것이다.

탐욕스러운자들은 반드시 나라의 정사를 망쳐먹는 법이다.

임금이 뒤늦게나마 그것을 깨달았으니 나라에 통운이 텄다고 할 수 있다.

정사를 바른길로 이끌어나갈 의지가 명백히 엿보이는 임금의 태도에 안류는 가슴을 들먹이며 고개를 들었다.

《대왕마마, 대체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떳떳하고 옳바른 도리는 용기보다 썩 중하다고 하였나이다.

권세를 쥔 사람에게 용기는 있으나 도리가 없으면 악인을 면할수 없으니 도리를 모르는자는 당초에 쓰지 말아야 하나이다.》

미소를 머금은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다.

《참으로 지당하오.》

안류는 배에 힘을 주어 말했다.

《대왕마마, 옛말에 앉아야 할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에 앉는것은 탐위라 하고 받아야 할 명예가 아닌데 그것을 받는것은 탐명이라 하였소이다. 나라에 마침 더할나위 없이 걸출한 인재가 있사온데 그를 천거하지 않는다면 하늘이 벌을 내릴것이오이다.》

임금이 이만저만 놀라는 표정이 아니였다.

《그가 누구인가?》

《서압록고을의 을파소인줄 아오이다.》

《을파소?!…》

안류는 시간가는줄 모르고 을파소의 뛰여난 재질과 인품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아뢰였다.

을파소가 지금은 비록 나이많은 늙은이이고 게다가 오랜 농사일에 시달려 허리마저 구부정하지만 자세히 보면 젊었을 때의 학의 골격

에 봉황새의 자태가 의연히 남아있으며 더우기 만리밖의 일을 내다보는 선견지명까지 있다는 안류의 칭찬소리는 임금을 기쁘게 하였다.

하기에 임금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줄도 모르고 안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탄복해마지 않았다.

《아, 옛적의 명재상 을소에게 그런 비범한 후손이 있었단 말인가. 그걸 왜 진작 몰랐을고. 한심할지고… 짐이 그 사람을 만나보리다. 그를 만나보고 중히 쓰겠으니 공은 그대로 중외대부를 맡아하도록 하오.》

즉시 임금은 중리도독(왕궁호위장관벼슬)을 불러 을파소를 불러들이라는 령을 내리였고 그날부터 안류는 임금을 도와 정사를 바로잡는 일에 전심하였다.

허물어져가던 집을 다시 고쳐짓기가 더 어렵다더니 연나부것들이 망쳐놓은 조정을 바로잡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았다.

무엇보다 골치거리는 인재부족이였다.

악귀가 이끄는 무리는 하나같이 악꾸러기라고 연나부것들이 자기의 세력으로만 채워놓은 관청들마다 탐욕스러운자들이 득실거렸다.

그것들을 싹 다 갈아치우자면 청렴한 인재가 수없이 요구되였다.

돈이나 재물 같은것은 남에게 꿔다 써도 되련만 인재만은 천금을 주고도 사올데가 없었다.

썩어빠진 연나부의 세상에서 정사만 망친것이 아니라 인물까지도 가난에 들었으니 실로 막막하였다.

이 며칠동안 한잠도 자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여다니며 초야에 있을 때 뜻이 통하던 몇사람을 등용했을뿐이였다.

힘에 부친 그속에서 배심만은 든든하였으니 그것은 이제 곧 을파소가 온다는 믿음이였다.

을파소만 오면 조정을 바로잡는 일이 순풍에 돛단듯 수월하게 풀려나갈것이였다.

하기에 중리도독을 따로 만난 안류는 을파소를 손가락 하나 상하지 않고 데려올것을 부탁하였고 그가 오면 쓰고살 집도 마련해놓고

홀몸인 그를 돌봐줄 현숙한 녀인도 골라놓았다.

안류의 눈굽이 쩌릿하게 달아올랐다.

오늘 낮 임금은 며칠동안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고생이 많은 안류를 념려하여 오늘만은 일찌감치 집에 가서 부모님의 안부도 알아보고 푹 쉬라는 은총을 베풀었었다.

그리하여 이렇게 집으로 가고있는것이였다.

(?!…)

다시한번 눈여겨보니 집이 말머리앞에 있었다.

하긴 집이 궁성과 이웃한 마을에 있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동문에서 동쪽으로 불과 수백보에 이르면 태묘가 나지고 거기에서 또 그만큼 가면 안류가 태를 묻은 동부에 이른다.

소잔등처럼 생긴 크지 않은 동산을 끼고 넓은 평지에 대가들의 큰집이 즐비하게 들어앉은 동부의 한켠에 안류가 나서자란 집이 있었다.

안류는 크지는 않아도 기와를 얹은 아담한 고향집에 이어 그 둘레로 높이 자란 아름드리 잣나무를 쳐다보았다.

증조부가 자손들이 잘되기를 바래서 심었다는 잣나무숲에서 어떤 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쪽박ㅡ 쪽박ㅡ

해마다 봄이 오면 나무가 무성한 집주변에 날아들어 구슬프게 우는 쪽박새였다.

쪽박ㅡ 쪽박ㅡ

안류의 두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누구보다도 안류 자기를 아껴주고 애지중지 길러준 외할머니가 생각났기때문이였다.

안류의 외가집은 시골에 있었다.

외손자를 몹시 귀여워한 외할머니가 어린 안류를 맡아 키워주었다.

그때 외가집주변에서도 쪽박새가 울군 하였다.

쪽박새가 구슬프게 울 때면 외할머니는 안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군 하였다.

《저 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깨진 쪽박이라도 바꾸어주고싶어서 〈쪽박 바꿔주어.〉 하고 운단다. 너는 어서 커서 나라를 받드는 큰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악독한 놈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쪽박새도 기뻐서 눈물을 흘릴 게다.》

안류의 두볼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였다.

(2)

을파소는 집을 나선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도성으로 가는 길에서 제일 높은 고개(조골령)를 넘어 이웃고을에 들어섰다.

그의 기분은 집을 나설 때와 전혀 달랐다. 뭐니뭐니해도 일행을 거느린 고우루가 마음에 드니 마치 나들이를 나선 기분이였다.

관복쟁이들이 다 고우루처럼 정직하고 대가 바른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서압록고을의 처려근지처럼 한고을에서 살아도 정이 들기는커녕 그자의 낯짝은 보기만 해도 이가 갈렸다.

반대로 고우루는 지낼수록 마음도 끌리고 정도 통했다.

그게 무엇때문인가. 한마디로 그의 마음이 깨끗하고 그가 나라를 안고 살기때문이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단정할수 있는가.

첫 대면에 벌써 늙은이를 헤아려 말대접부터 공손하고 끼식도 잠자리도 차별없이 함께 하고 자기의 래력도 숨김없이 들려주고…

뿐더러 그의 말에서는 언제나 나라위한 마음이 엿보였다.

그에게 나라위한 마음이 간절하지 않다면 우거장군이 벼슬길에서 밀려난것을 애타하지 않았을것이였다.

우거장군은 이태전 후한의 요청으로 수만명의 고구려군을 거느리

고 부산적을 쳐이긴 로장군이다.

이 싸움으로 우거장군의 이름이 자자해지자 그전부터 청렴하고 대바른 그를 미워하던 연나부것들은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으니 이제는 쉬라고 집으로 들여보냈다.

그것도 부족하여 우거장군과 함께 출전하였던 연인장군에게는 무능하다는 오명을 씌워 군사와 인연이 없는 관직으로 돌려놓았다.

기실 그것은 병법에 밝은 그들이 군권을 쥐고있는 경우 저들의 반란에 장애가 될수 있기때문이였다.

령길을 내려 산골짜기의 개울을 몇개 건느니 둥근해가 머리우로 치달아오르고있었다.

을파소와 말머리를 나란히 한 고우루가 길가의 마을을 가리켰다. 마을로 통하는 길옆의 야산에서는 양무리가 풀을 뜯고있었다.

《여기가 어데오이까? 내려올 때 급히 오다보니 모든게 생소하오이다.》

을파소는 벙긋 웃었다.

애젊은 시절 배움의 뜻을 품고 구려경당으로 이어진 이 길을 오르내린 을파소로서는 오랜만에 가는 이 길이 감회롭기 그지없었다.

감회로운 기분에 혈기왕성한 고우루를 바라보며 말했다.

《장군의 젊음이 부럽소이다. 내 보기엔 장군이 아직 마흔살전 같은데 얼마나 많은 일을 할수 있겠소이까!》

동문서답이였지만 고우루는 유쾌하게 웃었다.

《고맙소이다. 나에게도 아버님이 계신다면 무엇보다 효도를 잘해보겠소이다.》

고우루의 눈가에 어린 물기를 본 을파소는 마음이 서글퍼졌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의 손에서 자란 고우루라고 하더니 아버지가 그리운 모양이였다.

문득 고우루가 말을 멈춰세웠다.

《여기서 좀 쉬여가는것이 어떻소이까. 마침 개울이라 물도 마시고…》

《그게 좋겠소이다.》

선두에서 말을 달리던 그들이 말에서 내려서자 일행모두도 말에서 뛰여내렸다.

이윽고 개울물을 떠마신 을파소는 길가의 풀섶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을파소가 손을 들어 앞을 가리켰다.

《우리 고장에 아가위나무가 흔하다면 이 고장에서는 보다싶이 뽕나무가 흔하오이다.》

길가에도 개울뚝에도 산에도 온통 뽕나무임을 알아본 고우루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 많은걸 다 사람들이 심은것이오이까?》

《저건 다 저절로 자라는 뽕나무이오이다. 그래서 이 마을을 가리켜 뽕골이라 하오이다.》

을파소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젊음이 그립구만. 나도 젊었을 때에는 신새벽에 말을 타고 나서면 늦어 사흘후 저녁에 도성에 들어서군 하였소이다.》

을파소가 말을 타려 하자 고우루가 그의 팔을 부여잡았다.

《가만, 등자가 어데 갔소이까?》

그 말에 을파소의 얼굴이 벌개졌다.

등자가 어데 갔는가고?!… 첫날 로상에서 잃어버리였다.

그날은 정신이 어찌나 번거로운지 등자가 떨어지는줄도 몰랐다.

을파소는 뒤더수기를 긁적이며 말했다.

《늙으면 부실해진다더니 그만 잃어버렸소이다.》

대범한 성미그대로 고우루는 자기 말의 고삐를 을파소의 손에 들려주었다.

《원 참, 등자를 잃었으면 진작 이야기하실것이지… 돌창길에 오죽 말타기가 힘들었겠소이까.》

막무가내로 떠밀치는 고우루를 당할수 없어 을파소는 백마우에 올라앉고말았다.

날래게 얼룩말을 탄 고우루가 소리쳤다.

《떠나자.》

선두에서 백마를 타고 가는 을파소는 늙은이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고우루의 마음에 두눈을 슴벅이였다.

을파소의 마음을 엿본 고우루가 웃으며 말했다.

《등자없이 말을 타는 멋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건 다 젊었을 때 하는 소리고… 참, 등자를 우리 고구려에서 제일먼저 만들었다는게 사실이오이까?》

을파소도 웃었다.

《나도 그런 말을 들었소이다. 그전에 외적이 우리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 전장에서 쓰러진 아버지의 원쑤를 갚으러 나온 어린 총각이 있었다고 하오이다. 그 총각이 남달리 말을 잘 타면서 적을 버이군 하였는데 그만 어느 한 싸움에서 잘못되였소이다. 고구려군의 승리로 싸움이 끝난 후 보니 총각이 타던 말에 이상한 마구가 있더라는것이오이다. 그게 바로 등자였지요. 그제서야 군사들은 그애가 남달리 말을 잘 타던 비결을 알았소이다. 나라의 원쑤, 아비의 원쑤를 갚을 마음이 얼마나 불같았으면 세상에 없는 등자까지 만들어가지고 나왔겠소이까.》

고우루의 목에서 울대뼈가 오르내리는것을 보며 을파소는 그의 됨됨을 다시한번 느낄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감동될줄 아는 사람만이 의로운 일을 할수 있는게 아니겠는가.

고우루를 더욱 믿게 되니 요즘 내내 무겁게 짓누르고있는 마음속의 고충을 그의 도움으로 털어버리고싶었다.

《장군어른, 나에게 근심거리가 하나 있는데 좀 풀어주겠소이까?》

고우루의 얼굴에 반색해하는 기색이 확연하였다.

《어서 말씀하소이다.》

《저… 이건 공사는 아니고 사사이오이다.》

《나쁜자의 공사는 사사로운 일이고 좋은 사람의 사사는 공사라

는 말도 있으니 마음놓소이다.》

을파소는 자기때문에 우황을 가지고 도성에 갔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힌 바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고우루의 얼굴이 분개로 이그러지고 숨소리도 거칠어졌다.

《로인님, 제 도성에 올라가는 즉시 그 일을 바로잡겠소이다.》

도성이라는 말에 을파소는 부지중 가슴이 두근거렸다.

고우루의 말을 들어보면 도성에서 나쁜 일이 기다리고있지는 않는듯싶은데 도대체 이 늙은 농군을 불러다 무슨 좋은것을 보여주려고 하는것일가.

나라를 위해 아무런 공도 없는 사람에게 그럴리는 없겠고…

이웃고을의 거리에 들어선 을파소의 일행은 큰 기와집마당에 모여들어 웅성이는 사람들을 볼수 있었다.

무슨 일인가 하여 을파소도 고우루도 말에서 내리였다.

웅성이는 사람들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선 을파소는 만삭의 녀인과 맞다들리였다.

해진 옷을 입은 녀인인데 얼굴이 퉁퉁 부어있었다.

여러 사람들이 그 녀인을 부축하면서 서로 끌어당기는 모습에 의문이 든 을파소가 한 로파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소이까?》

로파가 성난 목소리로 대꾸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 숨이나 크게 쉬겠소이까. 이 아낙네는 저 기와집에서 종살이를 했다우. 남정네는 주인놈을 따라 사냥에 나갔다가 곰에 치워죽고… 그런데도 주인놈은 제 집의 말이 망아지를 낳게 되였는데 종년이 아이를 낳으면 부정을 탄다고 나가라는것이우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이 아낙네를 서로 제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이러질 않수. 지난해는 제 집에서 소여물콩을 집어먹었다고 어린 종을 때려죽였다우. 그 아이로 말하면 작인집자식으로 이 집 주인의 빚단련에 부모가 병들어죽으니 그래서 이 집에 끌려와 종살이를 한거라우.》

생때같은 아이를 때려죽였다는 말에 을파소는 숨이 꺽 막히였다.

을파소가 주먹을 틀어쥐는데 그의 손목을 잡는 사람이 있었다. 고우루였다.

《로인장은 이 일에 참견마시오이다.》

사람들을 헤치고 나간 고우루는 군사들에게 기와집의 주인을 묶어오라고 소리쳤다.

기와집의 대문을 박차고 들어간 군사들이 인차 피둥피둥 살찐 남정을 끌고 나왔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묶여나온 주인놈은 얼마나 기겁했던지 벌벌 떨뿐이였다.

고우루가 그놈에게 만삭이 된 녀인을 가리켰다.

《네놈이 집에서 부리던 저 녀인을 쫓아냈다는게 사실이냐?》

겁에 질린 주인놈은 목이 꽉 잠긴탓에 고개를 끄덕이였다.

고우루가 성이 나서 꾸짖었다.

《이놈아, 아이밴 녀인을 박대하면 하늘이 노한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네놈은 아이밴 녀인을 박대하다 못해 쫓아내느냐? 그리고 또 빚값으로 끌어온 작인집 어린 자식이 여물콩을 먹었다고 때려죽였다는데 이건 살인이다, 살인!》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대였지만 서슬푸른 고우루의 기세에 혼맹이가 빠진 주인놈은 쩔쩔맸다.

《이놈아, 나라법에 살인자는 리유불문하고 죽이게 되여있다. 그러니 네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당장 목을 칠것만 같은 고우루의 기상에 낯짝이 새까매진 주인놈은 기겁하여 쓰러지고말았다.

고우루는 휘하의 군사에게 일렀다.

《자네가 직접 이놈을 관가에 끌고 가서 이놈이 지은 죄를 따지고 국법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조정에서 이 고을 처려근지를 결단코 가만두지 않을거라고 이르게.》

군사는 즉시 얼죽음이 된 주인놈을 말에 처싣고 관가로 떠났다.

살인자에게 마땅한 벌을 주도록 령을 내리는 고우루의 단호한 처사에 을파소는 격정이 북받쳤다.

나라법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받들려 하는 저런 사람이 나라의 기둥이 아닌가.

저런 사람이 조정을 차지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 안류 그 사람을 만나면 고우루를 크게 써줄것을 당부할테다.

(3)

요 며칠째 기분이 상해 집안을 오락가락하며 화를 내던 우소는 마침내 이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얼토당토않은 사람들이 계면떡 얻어먹듯 큼직한 자리를 하나씩 받아가지는 이때 뒤에서 제 가슴이나 치다가는 조정의 세력을 거머쥘수 없을것인즉 궁여지책이라 할지라도 임금의 동생들과 손을 잡아야 불리한 사태를 유리하게 바꿀수 있을것 같았다.

물론 안류를 조정에서 제일가는 중외대부에 올려놓은것은 더없이 기쁜 일이 아닐수 없었다.

비록 국구라는 그때문에 국상의 자리를 차지할수는 없었지만 안류를 국상이 비여있는 조정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으니 그를 통해 얼마든지 나라의 정사에 참여할수 있었다.

허나 안류가 왕청같이 을파소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간청하는 바람에 임금이 시골농부를 데려오게 하였다니 분통이 터질노릇이였다.

안류의 낯을 보아 어느 고을 하나를 맡기리라 생각했던 을파소가 중외대부로 된다면 이런 망조가 어디 있겠는가. 안류를 통해서 조정을 좌지우지하려던것이 물거품이 될것이라 을파소가 절대로 중외대부를 차지할수 없게 해야 한다.

선손을 써서 을파소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안류가 중외대부

를 그냥 맡도록 하리라는 생각에 우소는 임금의 동생들과 손을 잡기로 결심하였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느랬다고 이모저모 따져보니 우직스럽고 욕심사나운 발기가 그중 마음에 들었다.

리득을 노리고 벗을 사귀려드는것만큼 그런 사람과 손을 잡아야 욕심을 챙길수 있었다.

뛰여난 재주와 깊은 학식은 없어도 리속에 밝고 속에 능구렝이가 들어있는 음흉한 우소는 이런 타산으로 평소에는 미욱돼지라고 어성버성 지냈던 발기를 찾아가기로 용단을 내리였다.

그래도 국구라는 체면과 보다는 국구로서 종실과 공적인 일로 오가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백성차림으로 지어는 즐겨 쓰던 청라관마저 벗어놓고 베수건을 쓴채 조용히 집을 나선 우소는 누가 볼세라 고개를 수그리고 걸음을 재우쳤다.

발기가 사는 집은 대궐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다.

길넘는 담장에까지 기와를 얹은 발기의 집대문앞에서 두명의 파수군이 창을 꼬나들고 서있었다. 감때사납게 생긴 녀석들인데 힘꼴이나 씀직했다.

파수군들을 보는 순간 우소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늘 앞뒤좌우로 많은 수종군들을 거느리고 다니던 국구라는 사람이 쌀을 꾸러 다니는 아낙네처럼 허둥걸음을 치고있기때문이였다.

(에익, 돌아가버릴가?…)

대문가까이에서 주춤거리는 우소를 발견한 파수군들이 돼지멱을 따는듯 한 소리를 질렀다.

《넌 누군데 거기서 서성대는거야?》

《썩 물러가지 못할가.》

파수군들이 큰소리칠만도 하였다.

아무리 남의 집 문지기노릇을 해도 색있는 옷인 붉은 밤색의 바지에 풀색저고리를 입는데 우소는 색없는 베옷차림이니 업수임을 당할수밖에 없는것이였다.

우소는 자기를 몰라본것이 마치도 제탓이 아니기라도 한듯 성이 나서 소리쳤다.

《에끼, 눈망울들이 썩어문드러졌느냐. 이놈들, 사지를 찢어죽이기 전에 어서 네 주인을 부르지 못할가. 어서!—》

우소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파수군들은 당장 찌를듯 창을 틀어쥐고 야단쳤다.

《아니, 우리 주인을 찾아왔으면 공손하게 아뢰일노릇이지 왜 소리를 치는거야.》

《허, 미친 모양이구나. 미치지 않고서야 상스럽게 지랄칠게 뭔가?》

그만 울화통이 터진 우소는 노발대발하였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더니 네놈들은 내가 누구인줄도 모른단 말이냐?》

그제서야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본 파수군들은 금시 매본 까투리꼴이 되였다.

혼비백산한 그들이 황급히 대문안으로 사라지고 좀 있어 《누가 왔다구?》 하는 거만한 소리를 지르며 몸이 장대한 사나이가 대문밖에 나타났다.

누런 비단옷을 입고 청라관을 쓴 발기였다.

눈꼬리가 우로 째져올라가고 그때문에 감때가 사나와보이는 발기가 놀라는 눈길로 우소를 바라보았다.

《으험—》 하고 헛기침을 하는 우소를 알아본 발기는 제 눈이 믿어지지 않는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있었다.

언제 성을 냈던가싶게 웃음을 지은 우소가 먼저 말을 건넸다.

《자네와 의논할 일이 생겨왔네. 그런데도 이 늙은일 그냥 세워둘셈인가.》

그제서야 발기는 성큼 다가와 우소의 팔을 그러잡았다.

《하,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떴나보오이다.》

발기에게 이끌려 대문안에 들어선 우소의 눈에 선참 뜨이는것은 뜨락의 한복판에 차려놓은 해모양의 시계였다.

해시계에서 이채로운것은 금막대기밑에 붙어있는 금거부기였다.

언제인가 좌가려의 생일잔치에 초대되여갔을 때 그 집에서 본 그런 시계였다.

그날 좌가려는 애들 주먹만 한 금거부기를 가리키며 주인의 장수와 부귀를 상징하는 이런 모양의 일구는 천하에 이 하나뿐이라고 큰소리쳤었다.

해시계를 보는 우소는 눈이 쏘고 배가 아파 참을수 없었다.

거사가 뜻대로 되였더라면 이런 보배가 남의것으로 되지 못하였을것이였다.

연나부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임금은 지체없이 무적의 철기군으로 반란군을 쳐부시도록 하는 동시에 동생들에게는 경군을 거느리고 연나부로 쳐들어가 반란의 두목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라는 령을 내리였었다.

그전부터 좌가려의 재물에 눈독을 들여오던 발기는 이를 더없이 좋은 기회로 여기였으니 그가 선참 뛰여든 집이 좌가려의 집이였다.

좌가려의 집으로 뛰여든 발기는 군사들을 풀어 그 집의 식솔들을 모조리 잡아죽이고 재물을 몽땅 제 집으로 끌어들이였다.

나라에서 손을 쓰기 전에 온 제나부를 내몰아 연나부를 치려 했건만 그것들이 한걸음 먼저 들고일어난때문에 반란의 무리를 족치는 일에 끼우지 못한 우소는 역적들의 그 많은 재산을 하나도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밸이 꼴린 우소였다.

우소의 심정을 알리 없는 발기가 해시계를 가리키며 으시댔다.

《이걸 좀 보시오이다. 지금이 사정 일각(10시 15분)이로소이다. 일관들이 쓰는 놋으로 만든 일구를 보다가 금으로 만든것을 보니 정말 눈이 부시오이다.》

제것을 빼앗기기라도 한듯 우소는 속으로 앓는 소리를 질렀다.

(이런 보배를 허튼 놈이 가지다니…)

그러던 우소는 등골이 서늘해지는감을 느끼였다.

저런거야 임금에게 시간과 천문에 대해 늘 보고하는 천문을 맡은 관청에나 놓을수 있는건데 어찌 신하가 가질수 있단 말인가. 좌가려 그놈이야 늘 배속에 욕심이 가득차있는 놈이니 참람하게도 저런걸 만들어가진것이였고 그래서 끝내는 망하고말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런걸 발기 네가 가지다니… 또 너 그러다가 엉치 깨질라.

뜨락의 한켠에 자리잡은 정자에로 우소를 이끌며 발기는 새우리를 가리켰다.

정자곁의 구리줄로 엮은 큼직한 새우리에서는 희귀한 새들이 노닐고있었다.

《저 새들도 좌가려가 가지고 놀던 새올시다. 재물에는 정해진 임자가 없다더니 저것들이 우리 집으로 옮겨왔소이다.》

뱔이 뒤틀린 우소는 정자에 내다놓은 좌상에 걸터앉으며 말했다.

《물을 거울로 삼는자는 제 얼굴을 볼수 있고 사람을 거울로 삼는자는 길흉을 안다고 했네.》

아무리 학식이 깊지 못할지라도 왕가에서 자란 발기인데야 그 말의 의미를 모를리 없었다. 하지만 제 흥에 뜬 나머지 발기는 나직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것이였다.

《이제 무어라고 했소이까?》

우소는 얼른 혀를 깨물었다.

다행히 발기가 좌가려처럼 재물에 욕심을 부리려다가는 망한다는 뜻을 가진 그 말을 듣지 못했기에망정이지 어쩔번 했는가.

우소는 억지웃음을 지으며 딴전을 부렸다.

《좌가려가 하늘높은줄 모르고 날치더니만 천벌을 받았지. 그건 그렇고, 가는 길이 같으면 서로 돕는다는데… 안 그런가?》

우소의 속을 알리 없는 발기는 생각나는대로 대꾸했다.

《우리야 한집안이 아니오이까.》

발기가 큰코를 벌름거리며 범가죽을 편 좌상에 펄썩 주저앉는데 그의 몸이 어찌나 무거운지 든든한 좌상이 주저앉을것 같았다.

차반을 안은 시녀가 사뿐사뿐 다가와 나부시 절을 했다.

발기는 턱으로 우소를 가리켰다.

시녀가 내미는 차잔을 받아든 우소는 그안에 차가 아닌 금가루가 들어있음을 대뜸 알아차렸다.

우소가 보약의 으뜸인 금가루를 입안에 털고나니 이번에는 시녀가 산삼달인 물을 내밀었다.

그것도 얼른 받아 마시고난 우소는 우직한 발기와는 직통배기처럼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대가 이번에 대왕님을 받들어 좌가려를 잡아죽인 공을 세우긴 했지만 지내외병마사로는 되지 못했지.》

그 말에 발기는 입만 다실뿐이였다.

고구려에는 임금을 받들어 전군을 통솔하는 지내외병마사라는 최고의 군직이 있었다.

신대왕은 국상 명림답부에게 지내외병마사라는 최고의 군직을 겸하게 하였었다.

명림답부가 돌아간 후 오늘까지 국상의 관직과 함께 지내외병마사의 군직도 비여있었다.

사실은 발기도 조정의 실권을 가지고싶어했다.

그러나 임금은 연나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림시로 그에게 경군의 한개 부대를 통솔하게 하였을뿐 좌가려네가 멸망하자 아무런 실권도 주지 않았다.

입을 다시던 발기가 맥빠진 어조로 말했다.

《후ㅡ 우리 종실이야 벼슬을 할수 없게 되여있으니 별수 있소이까.》

풀이 죽은 발기의 대답에 우소는 코를 불었다.

《흥! 꼭 그런것만도 아닐세. 법이란건 그시그시 형편을 보아가며 만드는것이 아닌가. 요즘같이 인재가 부족한 때 그대가 임금을 도와나서지 않는다면 누가 돕는단 말인가.

허 참, 나중에 들어온 놈이 아래목을 차지한다더니… 현명한 임금은 록을 사사로이 주지 않으며 공을 세운자에게는 상을 내리고 재

주있는자에게는 벼슬을 준다고 하였네.

그런데 요즘 별 어중이떠중이들이 나라의 관직을 한자리씩 베여가지니 그걸 그냥 내버려두어야겠나?》

기분이 잡친 발기는 떡메같은 주먹을 내흔들었다.

《나도 요즘 꼴을 보아주기 힘드오이다. 일개 서생따위인 안류가 중외대부라니… 그래 나라에 그렇게도 인물이 메말랐단 말이오이까.》

안류를 생각하면 우소는 기쁨보다도 기분이 나빠졌다.

힘들게 차지한 중외대부에 곱게 앉아 이 우소의 뜻대로 백관을 통솔하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이 우소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조정을 꾸리면 국사를 제나부의 리익에 맞게 해나갈수 있겠는데 그것은 안중에도 없이 다른 부 지어는 고을들에서까지 인재를 천거하다 못해 을파소라는 시골사람에게 중외대부를 양보하겠다니 이런 밸빠진 처사가 어데 있단 말인가.

그러나 선손을 써서 을파소를 제 집으로 보내면 안류가 조정을 확고히 통솔할수 있을것이고 그러면 우소 자기는 권세의 꼭두에 올라앉게 될것이였다.

그래서 우소는 느슨한 어조로 말했다.

《진정하게.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새로 머리를 감은자는 머리쓰개에 묻은 먼지를 반드시 털어쓰고 새로 목욕을 한자는 옷에 묻은 먼지를 반드시 털어입는다고 하였네. 하듯이 몹쓸놈의 연나부것들을 끌장낸 대왕께서 조정을 쇄신하자니 학식도 깊고 마음도 깨끗한 선비를 높은 관직에 올려놓는게 옳은 처사가 아니겠는가.

안류 그 사람은 흔치 않은 재사일뿐아니라 마음도 약하니 그대나 나에게 해되는 일은 안할걸세.》

잡친 기분이 좀 가라앉기는 했으나 여전히 얼굴이 시뻘건 발기가 큰소리로 떠들어댔다.

《안류는 그렇다치고 듣자하니 농사나 짓던 시골뜨기 촌늙은이까지 조정에 끌어들이려고 한다던데 이게 될 일이요?》

그 말에 우소는 웃음보가 흔들거렸다.

바로 그때문에 이 집을 찾아왔는데 발기가 그것을 벌써 알고 분노하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우소의 가장 큰 골치거리가 바로 을파소였다.

우왕후를 통해서 안류가 임금에게 을파소를 중외대부로 써줄것을 간청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소는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였다.

그전에 안류가 더없이 뛰여난 인재라며 을파소를 크게 써줄것을 임금에게 알리자고 하였을 때 그러하마 하고 약속한것은 속심이 있어서였다.

청렴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을파소를 변방고을의 처려근지쯤으로 보내준다면 새 조정의 체면도 세울수 있고 그를 추천한 안류의 마음도 틀어잡을수 있으니 꿩먹고 알먹고 둥지털어 불때는 격이 아닐수 없었던것이다.

허나 천만뜻밖에도 대가 세다는 을파소가 중외대부를 차지한다면 우소로서는 조정의 권세를 완전히 잃는셈이였다.

그래서 발기와 손을 잡고 을파소를 제 집으로 쫓아버리자고 온것인데 벌써 일이 바로돼가고있었던것이다.

우소는 상대를 격동시켜 리용하는 수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알아보니 을파소란자가 여간 고집이 세지 않다누만. 그런자가 조정을 타고앉으면 그대나 나나 기를 펴지 못할걸세. 암, 그렇구말구.》

자리를 차고 일어선 발기는 칼을 뽑아들었다.

《그렇게는 안될걸. 내 그 얼뱅이같은 촌놈을 단칼에 버이여 후환을 없애겠소이다.》

발기의 두눈에 시퍼런 달이 비껴있었다.

뜻대로 발기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확신한 우소는 기분이 좋아서 웃었다.

《이보게, 혈기지분으로는 잘되는 일이 없다네. 좋기는 그자가 제가 눈 똥에 주저앉도록 머리를 써야 하네.》

《그건?…》

《먼저 을파소는 시골뜨기농군으로서 정사의 정자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놈이라는 말을 내돌립세. 그러면 그 말이 임금의 귀에도 들어갈수 있고… 온 조정이 그자의 등용에 반기를 들것일세. 그러니 열에 아홉은 벼슬감투도 가져보지 못하고 쫓겨나고말걸세. 만일 그 놈이 운이 좋아 중외대부를 차지하게 된다고 해도 이미 온 조정의 미움을 받게 된터이라 아무리 벼슬이 좋다한들 무슨 맥을 추겠나.

그때 우리가 그놈의 령이 내리먹지 못하도록 조정대신들을 부추긴다면 을파소야 허수아비지. 결국 그자는 개코망신을 당하고 스스로 뺑소닐 칠거란 말일세.》

발기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게 좋겠소이다. 나도 부하들을 시켜 그자가 하려는 일을 비틀게 하겠으니 국구어른도 그렇게 해주시오이다.》

기쁜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우소는 발기의 떡판같은 등을 철썩 때렸다.

《정말 괜찮아. 배짱이 맞는단 말이야. 자네 같은 사람이 병권을 가져야 나라가 강해질수 있어. 암, 그렇구말구.》

입이 헤벌쭉해진 발기는 가슴을 쭉 펴고 부르짖었다.

《이제 그 촌늙은이가 황겁해서 도망치지 않나 두고보시오이다.》

《아무렴.》

두사람은 제멋에 겨워 한껏 웃음을 터치였다.

(4)

도성에 불려올라온 을파소는 국내성의 남문안에 있는 덩실한 기와집에 려장을 풀고 성품도 어질고 행실도 고와 과시 현숙한 부인이라고 부를만 한 젊은 녀인의 시중까지 받고있지만 심기가 여간 무직하지 않았다.

조정에서 임금과 종친들이 사는 5부의 중심지 과루부에서도 노란자위라고 할수 있는 국내성안에다 거처를 정해준걸 보면 불길한 일은 없을상싶은데 속이 무직한것은 앞일을 전혀 예측할수 없기때문이였다.

차라리 불길한 일이 차례진다고 해도 그게 무엇인지 속시원히 알고있다면 이다지도 불안스럽지는 않을것이였다.

이런 때 안류를 찾으면 좋으련만 파수군들이 문밖출입을 엄히 단속하고있으니 불안한 마음을 혼자 묵새겨야 했다.

그런 속에서 한시름놓이는것은 우황때문에 옥고를 치르던 고향사람 바호가 옥에서 나왔다는 소식이 온것이였다.

고우루가 도성에 당도한 그 다음날로 옥에서 그를 놓아주게 하였을뿐아니라 우황도 찾아주고 악독한 장사군놈을 옥에 처넣었던것이다.

그것을 놓고보면 확실히 고우루는 의리도 있고 실속도 있는 사내다운 사내임을 알수 있었다.

이제는 일부러 도성에 올라와 빼내려 하였던 그 사람을 구원해냈으니 지금은 이내 앞날이 어찌되는가를 기다리면 될것이였다.

이러구러 도성에 올라온지 닷새가 되는 날이였다.

당기지 않는 아침밥을 몇술 뜬 을파소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뜨락을 거닐고있었다.

그때 호화로운 수레 한대가 마당에 멈춰서더니 낯모를 사람들이 내리였다. 두사람인데 모두다 머리에 절풍이 아닌 책을 썼다.

절풍보다 운두가 높고 뒤부분이 두가닥으로 갈라져올라간 책은 신분이 아주 높은 대가들이나 쓸수 있는것이였다.

고을을 다스리는 처려근지조차도 절풍을 써야 하는데 두사람이 다 책을 썼으니 보통벼슬아치는 아닐것이였다.

키가 좀 작고 몸이 갱핏한 사람이 을파소에게 물었다.

《혹시 서압록고을에서 오신분이 아니오이까?》

그들이 바로 자기를 찾아왔다는것을 안 을파소는 대뜸 긴장해졌다.

《그렇소이다.》

그 사람이 수레를 가리켰다.

《함께 가셔야겠소이다.》

을파소는 대관절 누가 자기를 찾고있는지 알고싶었다.

《어데로 가야 하오이까?》

그 사람은 딱 잘라말했다.

《그런건 묻지 마소이다. 자, 어서!》

울렁이는 가슴을 부여안고 을파소는 수레에 올라앉았다.

세필의 말이 끄는 호화로운 수레는 경쾌하게 내달렸다.

넓은 대통로를 타고 얼마쯤 내달리니 온통 붉은기와를 떠인 요란한 대궐을 둘러싼 궁성의 웅장한 대문앞에서 멈춰서는것이였다.

《이젠 내리시오이다.》

수레에서 내려선 을파소는 비로소 임금이 자기를 불렀다는것을 깨달았다.

《자, 들어가시오이다.》

벼슬아치들의 안내를 받으며 궁성문으로 들어선 을파소는 다른 사람도 아닌 임금이 불렀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요즘같이 복잡한 때에 임금이 시골의 늙은이나 만나 무엇을 하겠는가.

무심결에 옷매무시를 바로하던 을파소는 졸지에 몸이 쪼그라드는 듯싶었다.

자기의 차림새가 너무 초라하기때문이였다.

궁성안의 사람들은 하다못해 심부름이나 하는 궁인일지라도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값진 갖신을 신고있었다.

그러나 기운 베옷차림의 을파소로서는 남의 꽃밭을 밟는듯 옹색하기 그지없었다.

마음이 쫄아든 을파소는 죄를 진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고 그들이 이끄는대로 걸음을 옮겼다.

을파소는 앞뒤좌우에서 이끄는 그들을 따라 어느 한 방에 들어

섰다.

크지는 않아도 볕이 잘 드는 방이였다.

방에 들어선 을파소는 맞아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순간 황급히 꿇어엎드렸다.

오채로 단장한 옷을 입고 흰 백라관을 머리에 쓰고 허리에 금띠를 띤 이런 차림은 나라에서 오직 한사람, 임금밖에 할수 없는것이였다.

삽시에 얼굴에 땀이 내밴 을파소는 머리를 조아리며 입을 열었다.

《대왕마마, 좌물촌의 농군 을파소 문안드리오이다.》

갈린듯 하나 퍼그나 부드러운 목소리가 을파소의 머리맡에서 울리였다.

《일어나오.》

임금이 몸소 부축하여 일으키니 을파소는 너무도 황송하여 손발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눈길은 또 어데다 건사해야 할지 몰라 허둥거렸다.

《자, 여기에 와앉으소.》

혼이 빠진듯싶은 을파소는 임금이 이끄는대로 몸을 맡길수밖에 없었다.

을파소를 좌상에 앉힌 임금은 황송하여 눈길을 허둥거리는 그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늙은 을파소가 기운 옷을 입었어도 또 볕에 타서 얼굴이 새까매도 준수한 용모에 도도한 기품이 어려있는것이 마음에 들었다.

정말 이 늙은이가 천하에 보기 드문 인재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안류에게서 을파소의 래력과 자질, 인품을 안 임금이였지만 그에게 나라의 실권을 맡기자고보니 직접 만나 보다 깊이 료해하고싶었던것이다.

그래서 을파소를 불러들이라는 어명을 내린것이고 당분간 그 누구와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것이였다.

아무런 예고없이 불의에 불러들여 질문을 한다면 그의 됨됨을 더 잘 알수 있을것이였다.

을파소를 마주 향해 룡상에 걸터앉은 임금은 시종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짐이 그대를 부른건 몇가지 국사를 론하고싶기때문인즉 서로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하오.》

모든게 뜻밖이기만 한 을파소는 지금의 일이 현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다.

조정에 인물가난이 들었기로서니 나라님과 국사를 론할 몇몇 재사마저 없겠는가. 세상에 나 같은 시골사람과 국사를 론하겠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꿈에서는 언제인가 나라님을 만나 백성들의 하정도 아뢰이고 나라를 강대국으로 일떠세우는데 필요한 조언도 드리고 임금과 한자리에 앉아 음식도 나누었었다.

그리고 생시에는 단신으로 대궐로 불려들어가 국사를 의논하는 상상을 해보았지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리라고는 한번도 믿어본적 없었다.

정녕 어떤 국사를 론하자고 하는것인지?!…

일개 촌늙은이로서 지엄한 임금님과 한자리에서 국사를 그것도 단둘이서 론한다는게 말도 되지 않는다. 후날 남들의 웃음감이 되지 않으려거든 애초에 물러감이 바른 처사이리라.

머리를 조아리며 집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애원하려 했던 을파소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뜻을 가진자 두번다시 없을 이 좋은 기회를 어찌 놓칠수 있단 말인가. 고구려를 위해 더없이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죽어서도 후회하게 될것이다.

정신이 번쩍 든 을파소는 한생에 터득한 모든 재간을 다해 임금을 도우리라 마음다졌다.

(5)

《임금이 사신을 보내여 겸손한 말과 두터운 례의로 을파소를 맞이하고 중외대부로 임명하였다.》(《삼국사기》 권 제45 렬전 제5)

임금은 진지한 표정의 을파소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요즘 나라의 정사가 어떠한지는 시골에서도 알것이요. 어지러워진 정사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것 같소?》

이 질문은 사실상 대단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들이 엉켜있어 세상리치를 환히 꿰뚫고있는 현자일지라도 용의주도한 판단력과 과단한 결심이 부족하면 즉석에서 옳은 대답을 내릴수 없을것이였다.

을파소의 실력검증을 위하여 임금은 여러날동안의 사색끝에 얼핏 듣기에는 단순한것 같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복잡한 문제를 생각해낸것이였다.

또한 평소에 나라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설사 뛰여난 학식에 비상한 판단력이 겸비되여있다 해도 쉽사리 옳은 판단을 찾을수 없었다.

을파소에게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풀어내는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다.

《대왕마마, 란시에나 태평시절에나 나라에서 항시 중시해야 할 국사로는 반드시 세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할것인줄 아오이다.

우선은 국법의 날을 엄히 세우고 그가 누구든 설사 대왕께서 장중보옥처럼 아끼시는 신하라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 법으로 따져 그에 맞는 벌을 내려야 하오이다. 법이 부자라고 해서 눈감아주고 가난뱅이라고 해서 엄하다면 언제 가도 나라의 기강을 바로세울수 없소이다.

둘째로, 대왕께서는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탐욕을 부리는 토호들의 악행을 억누르고 거덜난 국고를 재부로 가득 채우는 조치를 강하게

실행해야 하오이다. 백성들이 미워하는 토호들의 탐욕을 막는다면 인심도 얻을수 있사오니 일석이조라 하겠소이다.》

비장한 마음을 먹고 을파소는 하기 힘든 말까지 꺼내지 않을수 없었다.

《신이 경당에 다닐 때 스승께서 이르시기를 대체로 백성은 우매하기는 해도 속일수 없고 천하기는 해도 버릴수 없으며 임금이 인심을 얻으면 능히 임금노릇을 할수 있지만 인심을 잃으면 필부라 아니할수 없으니 그래서 백성은 임금에게 있어서 하늘과 같고 경륜이 없는 대신이나 재능없는 장군이 공로없이 받은 봉록은 장사하는것보다 리익이 크며 임금이 대신과 장수로 하여금 공로없이 리익을 얻게 한다면 나라에 이보다 해를 끼치는 일이 없다고 일러준바가 있소이다.

바로 그렇소이다. 대왕께서 무능하면서도 관직을 차지하고 한 일 없이 국록을 타먹는자들을 유능하고 일 잘하는 인재들로 바꾸고 탐욕스러운 토호들의 악행을 짓누른다면 얼마든지 정사를 바로잡을수 있으니 어찌 국운이 기운다 근심할게 있나이까.》

정말이지 하기 힘든 말을 내뱉고난 을파소의 가슴은 쿵쿵 높뛰였다.

임금이 귀에 거슬리는 이 말에 어떻게 대하겠는지?!…

진정 을파소가 나라때문에 걱정하는 충의지사라면 목에 칼이 들어온대도 할 말은 하고야말것이라는 생각을 했던지라 임금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계속하오.》

정신을 가다듬은 을파소가 다시금 입을 열었다.

《셋째로는 선왕께서 그러했던것처럼 상무를 국사에서 우선시하고 존비귀천 막론하고 사내들은 모두 군역을 지도록 엄하게 다스려야 하오이다. 사실 이런것쯤은 보통사람들도 알고있소이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에 옮기기는 말처럼 쉽지 않소이다.》

아무런 표정변화도 없는 임금의 안색을 느끼며 을파소는 당황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 집의 형편을 다 들여다볼수 없는것처럼 지금 임금이 이 한순간에 이 촌늙은이의 됨됨을 어떻게 다 알아낼수 있겠는가.

《천하없는 보약을 써도 사람이 늙어죽는것을 막을수 없소이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5장6부가 날로 못쓰게 되기때문이오이다.

나라도 매한가지이오이다. 어떤 나라들은 건국 수십년만에 무너져버렸소이다. 어느 나라이든 건국초기에는 기강도 있고 민심도 헤아려서 백성을 다스리오이다. 그렇게 하게 되는것은 새 나라를 세울때 초야에 묻혀있던 인재들이 떨쳐나 새 임금을 돕기때문이오이다.

청렴한 인재라 해서 자손들이 다 그를 닮는것은 아니오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국공신의 자손이라 하여 덮어놓고 권세를 잡게 한다면 점차로 나라의 기강은 물러지고 우아래로 정사가 어지러워질수 있소이다. 결국 나라는 인물가난이 들게 되며 외적란이나 역적란에 망할수 있소이다.

반대로 부단히 청렴한 인재들을 찾아내여 조정을 끊임없이 쇄신해나가는 나라는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하지 않을것이오이다.

옛적에 박달임금이 세운 나라가 장구한 세월 광활한 강토를 가지고 국력을 떨치여온것은 새로운 인재들을 끝없이 찾아내여 중히 쓴것과도 관련이 있사옵니다.》

을파소는 보다 힘을 주어 말했다.

《청렴한 인재라야 국법대로 오로지 국익을 도모하기 위해 애쓸수 있소이다.

대왕마마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시말해서 재물에 탐을 내지 않는 인재들을 찾아내여 크게 써주신다면 수백년을 이어오는 고구려를 세상에서 으뜸가는 강국으로 그 위업을 떨칠수 있소이다.》

임금은 그 말에 마음이 끌리였다.

을파소의 말은 들을수록 임금된 자각과 분발심을 솟구치게 하였다.

력사를 거들어 오늘을 론할줄 알고 대세를 똑바로 가려볼줄 아는 이런 사람과는 밤을 지새우며 국사를 의논한다 해도 피곤할것 같지 않았다.

임금이 요즘 자나깨나 가슴을 조이게 하는 걱정거리를 입에 올렸다.

《짐의 생각엔 미구에 외란이 들이닥칠것만 같소. 우리 고구려를 먹지 못해 몸살을 앓는 외적이 이런 때 달려들지 않으면 어느때 쳐들어오겠소. 공의 생각엔 지금 외란이 일어나면 막아낼수 있겠소?》

나라위한 근심이 떠나본적 없는 을파소는 자기의 속생각을 털어놓았다.

《한나라의 류철이 우리 고구려에 첫 외란을 일으킨이래 지금껏 많은 싸움이 있었소이다. 그중에서도 대무신왕때에는 적의 대군이 도읍에까지 기여들어왔다가 우리에게 참패를 당하였소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겨레의 강토를 강탈해가지자는것이 외적들의 흉심인것만큼 앞으로도 외란은 피할수 없소이다.

자고로 외적과 싸워 이기는것도 좋지만 당초에 선손을 써서 외란을 미리막아내는것이 더 좋다고 하였소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선조들이 좋은 수완을 보여주었소이다. 아마도 우리 선조들에게 용맹과 지혜가 없었더라면 강포한 외적때문에 어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을것이오이다.

닥쳐오는 외란을 막아내자면 두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하오이다. 하나는 정연한 대군을 변방에 주둔시키고 군심을 모으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물물교환의 명목으로 저 멀리 서쪽나라들에 사신을 파하자는것이오이다.》

임금의 두눈이 금시 둥그래졌다.

《사신을 파한다는건 무슨 소린가?》

《근래에 우리 장사군들이 거기 장사군들과 거래한적이 있지 않았소이까?》

생각해보던 임금이 그제서야 깨도가 되여 벙글 웃었다.

그 당시 아시아대륙의 서남에는 페르샤국의 후신인 파르티아국이

있었다. 그 나라의 동쪽지경은 중앙아시아에 이르렀다.

고구려는 이미 오래전에 한나라의 대거침입을 견제하기 위한 책략으로서 그들의 북쪽에서 세력을 떨치는 흉노족, 선비족들과 손을 잡았을뿐아니라 고구려장사군들은 중원과 서쪽으로 멀리 이웃해있는 머나먼 파르티아국의 장사군들과 장사거래를 하고있었다.

고구려에서는 파르티아국을 안식국이라고 불렀다.

《그러니 공은 이전처럼 선비족과 그러했듯 머나먼 서쪽나라에까지 오감으로써 후한것들을 놀래워보자는것인데 그게 꽤 통할가?》

을파소는 힘주어 말했다.

《대대로 중원에서는 여러 종족들이 패권을 다투어오면서 굳어진 습성이 있사온데 그것은 이웃들을 리간시키고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어부지리를 얻는것이오이다. 지어는 차도살인이라고 남의 손을 빌려 적수를 제거하는 교활한 계책까지 꾸며내고있소이다.

자고로 우리 선조들은 적을 제압하려면 불은 불로 다스리되 반드시 선손을 쓰라고 하였소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서쪽의 선비족과도 손을 잡은것이였소이다.

물론 선조들이 그네들의 힘을 크게 바라고 손을 잡은것은 아니였소이다. 바로 적을 놀래우기 위해 그렇게 한것이였소이다.

그 계책이 여러번 은을 내였소이다. 차도살인을 신통한 계책으로 여기는 한나라조정은 고구려와 화친한 여러 나라들이 자기의 등에 칼을 박지나 않을가 우려하던 나머지 변방에 대군을 끌어다놓고도 우리와 감히 싸우지 못했소이다.》

을파소가 병서도 많이 읽었다는것을 알아본 임금은 경탄해마지 않았다.

《과시 고견이요.》

을파소는 임금의 태도에 고개가 숙어졌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줄 아는자 현명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을파소는 공손한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말했다.

《그와 동시에 동족의 나라들과 화친을 보다 더 굳게 해야 하오이

다. 외적이 탐을 내는것은 바다나 우리 고구려의 강토만이 아닌 부여와 백제를 포함한 우리 겨레의 모든 강토임을 동족들도 모르지 않으니 이런 때 일제히 그모두에게 사신을 보내여 화친을 두터이 한다면 외적이 감히 덤벼들지 못하오이다. 이외 무얼 더 론하겠소이까.》

임금은 대단히 만족스러웠다.

지금껏 을파소처럼 흉금을 터놓고 깨끗한 제 진속을 서슴없이 아뢰인 신하도 없었거니와 또 들어볼만 한 이런 말을 들려준 사람도 없었다.

을파소에게 반한 임금은 저녁늦게까지 당면하게 제기되는 조정의 쇄신으로부터 민심을 수습하는 일과 형벌의 적용 지어 적정을 알아내는데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질문하였다.

그때마다 을파소는 오랜 스승인듯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었다.

나라의 정사를 바로잡을수 있게 하는 을파소의 대답을 듣고보니 임금으로서는 구름을 제끼고 해를 본듯 한 심정이였다.

확실히 을파소는 중외대부의 정도가 아닌 국상감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이 늙은이를 명림답부와 같은 큰 인재로 여겨 국상의 관직을 맡겨야 한단 말인가?

룡상의 등받이에 등을 푹 기대인 임금은 두눈을 내리감고 생각하였다.

말이 곧 그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말만 듣고 국상의 중임을 내주는것은 경솔한 처사가 아닐가. 말은 쉬워도 실행은 어렵다고 아직은 최고의 중임을 맡길수 없다. 그럼 무슨 관직을 맡긴다?…

그에 앞서 이 늙은이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한번 따져보자.

이 늙은이를 농사밖에 모르는 농군이라고도 할수 없고 책에 묻혀 글귀나 론하는 서생이라고도 할수 없으며 아는것이 있다고 훈시질을 좋아하는 말꽁부쟁이는 더욱 아니다.

고금의 력사와 성현들의 리론에 도통하고 아래형편에도 환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것을 나라와 떼여놓고 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늙은이다.

하늘은 특별히 친근한 사람이 없고 오로지 덕을 쌓는 사람을 돕는다고 하였다.

이런 리치로 본다면 이 늙은이를 크게 쓰는것이 조정의 쇄신을 뜻하는 군주의 도리일것이다.

확실히 이 늙은이에게는 5부의 대가들에게서는 바랄수 없는 뛰여난 장점들이 있다.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친동생마저 서슴없이 처형한 사람, 그래 이런 사람을 요즘 세상에서 찾아볼수 있는가.

그런 결단을 가진 사람이 조정을 맡으면 나라의 리익을 해치는자들이 견뎌배기지 못할것이다.

을파소를 믿고 중임을 맡길 결심을 내린 임금은 크게 숨을 들이켰다.

가만, 아직 한번도 관직을 맡지 못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대신들을 통솔하게 하는것은 조급한 처사가 아닐가.

동서고금에 한갖 시골사람을 불러 즉석에서 나라의 정사를 주도하는 재상을 시킨 전례가 없고보니 임금으로서는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겉보기에 출중한 인재같은 사람이 중임을 맡아가지고 큰일을 망친 실례가 오죽이나 많은가.

그러니 낮은 관직을 주어가지고 그의 재주를 알아보는것이 어떨가.

임금은 고개를 저었다.

보건대 을파소는 늙은 룡이라고 할수 있었다. 룡은 얕은 물에서 놀지 않고 봉황은 좁은 골안에서 날지 않는 법이다.

이런 룡을 크게 써주는것이 임금된 사람의 바른 처사일것이다.

크게 써준다는것은 곧 전례를 뛰여넘어 백관을 통솔하는 지위에 내세워준다는것이다.

그렇다고 명림답부가 가졌던 국상을 줄수는 없지 않는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 문무지덕을 겸비하였을뿐아니라 대담무쌍하고 강의한 기질을 가지였기에 포악한 군주를 몰아내였고 이 땅에 침노한 외적

의 대군도 격멸한것이다.

하기에 그는 명장이라는 이름을 후세에 남긴것이다.

그러나 을파소에게는 장군다운 기질, 바로 대담무쌍하고 강의한 그것이 엿보이지 않는다.

고구려의 국상은 임금의 휘하에 전국을 통솔하는 지내외병마사의 중책도 겸할수 있으니 손탁이 여의치 못한 사람에게는 그 자리를 줄수가 없다.

그러니 중외대부정도의 벼슬을 주는것이 마땅하리라.

다음순간 임금은 가슴이 떨리였다.

현명한 임금은 모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요행을 바라지 않는다는 옛말이 생각났기때문이였다.

지금껏 전혀 알지도 못했던 생면부지의 시골농사군에게 보통관직도 아닌 재상의 관직을 맡긴다는것은 사실 모험이 아닐수 없었다.

그래, 이건 분명 요행수를 바라는게다. 정녕 이런 모험을 하지 않고 정사를 바로잡을수 없단 말인가.

가만,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4부에 중외대부를 맡아할만 한 인물이 없을가.

아무리 따져보아야 안류를 내놓고 도저히 마음에 드는 인물이 없었다.

하나같이 제살궁리나 권세를 부리는 일에서라면 잠도 자지 않고 뛰여다닐 소인들이였다.

그래, 안류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던가. 이 나라에서 자기에게 스승이 될만 한 인걸은 오로지 을파소밖에 없다고 하였지.

안류를 믿는다면 이 사람도 아니 믿을수가 없구나. 안류에게는 형벌에 관한 일을 맡기리라.

마침내 용단을 내린 임금은 룡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을파소의 손을 힘있게 부여잡았다.

《공을 알게 되여 정말 기쁘오. 짐은 공에게 중외대부를 맡기겠소.》

을파소에게는 그 말이 꿈속에서 들려오는듯싶었다.

한갖 농사나 지어먹던 촌늙은이에게 중외대부라니?! 아니, 그럴수 없어. 내 망녕되게도 허튼 생각을 하다니…

멍하니 땅바닥을 내려다보는 을파소를 부축하며 임금이 말했다.

《동부사람 안류가 공을 천거했소. 짐은 공이 조정을 잘 이끌어 나가리라 믿소.》

을파소는 여전히 꿈을 꾸는 기분이였다.

임금은 을파소에게 관복을 내여주었다.

노란색바탕에 붉은 무늬를 수놓은 비단옷을 입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또 청라관을 쓰고 갖신을 신고 궁성을 나서는 을파소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보이였다.

이제야 귀족의 당당한 차림새였다.

이튿날 임금은 조정대신들을 불러들이고 안류를 나라의 형벌을 다스리는 관직으로 고쳐 임명하고 을파소에게 중외대부를 맡기였음을 알리였다.

(6)

천만뜻밖에도 중외대부가 되여 처소로 돌아온 을파소는 그날 밤 잠들수 없었다.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주저없이 벼슬길에 나서리라 생각은 했었지만 젊어서 그 길에 나섰다 해도 바라보기 힘들었을 재상의 지위에 오르고보니 꿈만 같았다.

한뉘 농사나 짓던 시골사람이 국상이 없는 조정에서 제일 높은 관직을 감당해낼수 있을가. 과연 내가 명림답부가 그러했던것처럼 조정을 바로 이끌어갈수 있겠는지…

그것을 론하기에 앞서 나라는 사람이 과연 옛 국상에 비길만 한가, 그것부터 따져야 할것이다.

명림답부로 말하면 조정에 들어오면 명재상이고 전장에 나가면 명

장이였다.

그의 남다른 훌륭한 점은 불의라면 결단코 짓부셔버리는 대담무쌍한 기질이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공적을 세운것이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아무리 따지고들어도 그런 장점이 있는것 같지 않았다.

아니야, 큰 소가 나가면 작은 소가 큰 소 구실을 하고 보통사람도 부닥치면 할바를 찾아한다고 나라를 위한 마음만 있으면 무슨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을파소는 곧 고개를 저었다.

내 성미에 그렇게는 힘들어. 내 성미가 어떠한가, 뭐니뭐니해도 나에게는 결단력이 부족하다.

마음착한 시골아녀자마냥 그저 유하고 그저 우유부단한 그런 성미를 가지고 제노라 하는 대가들이 판을 치는 조정을 어떻게 휘여잡을수 있단 말인가. 어림도 없지.

을파소는 또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렇게만 볼것도 아니다. 불은 세차도 반석을 어쩔수 없으나 물은 유해도 바위를 뚫을수 있다.

나라위한 마음만 변치 않으면 내 성미에도 조정을 쇄신할수 있을것이다. 걸음걸음 옛 국상을 본받으면 될게 아닌가.

걸음걸음 옛 국상을 본받고저 마음다진 을파소는 고구려의 강토를 그려보았다.

고구려는 서쪽으로 료동반도중부를 차지하고 료동지방의 태자하와 혼하의 중류를 끼고 후한과 국경을 접하고있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눈강하류를 계선으로 후부여와 지경을 가르며 북옥저의 앞바다에 이르렀고 남쪽은 평양이남의 락랑국, 대방국과 백제, 신라와 접하였다.

물론 고구려가 처음 일떠섰을 때보다 강토를 여러배 넓히였다고는 하지만 겨레의 광활한 강토를 전부 하나로 이으려던 동명성왕의 뜻

에 비긴다면 아직도 멀었다.

박달겨레의 흥성을 이루자면 조정의 정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강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서 나라가 흥하는것이 아니고 이전에 강대국의 위엄을 떨치였다 할지라도 나라의 정사가 문란해지면 국운이 기울고 국운이 기운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고마는 법, 이것이 력사의 대답인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것이였다.

국력은 조정에 달려있다. 작은 나라일지라도 정사가 바르면 대국들과도 맞설수 있다.

내 기어이 정사를 바로잡아 국운을 일으키고 조상의 땅을 다시 찾으리라.

뜬눈으로 새날을 맞은 을파소가 선참으로 펼친 정사는 조정의 쇄신과 더불어 나라방비에 관한 일이였다.

특히 나라를 임의의 순간에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끄떡없이 지켜내자면 뭐니뭐니해도 변방에 진을 친 대군을 통솔하는 장수들부터 용맹하고 지략있는 장군들로 꾸려야 하는것이였다.

그때문에 시급히 료해해보니 서쪽변방에 나가있는 장수에게 문제가 있었다. 후한과 대치한 서쪽변방에 나가있는 장수는 좌가려에게 붙어살던자로서 병법에도 어둡고 비겁했다.

서쪽변방이 어떤 관문인가.

고구려가 선이래 지금껏 이 땅을 넘보며 전란을 들씌우는 외적을 견제하는 제일 중요한 관문인데 거기를 지켜선자가 떨떨한자니 그런 사람에게 나라의 대문을 맡겨놓고 무슨 정사를 운운할수 있겠는가.

초야에 있을 때 이 나라에서 제일 출중한 장수가 우거장군임을 알고있던 을파소는 그에게 서쪽관문을 맡길것을 임금에게 상주하였다.

물론 을파소는 조정쇄신의 첫걸음으로 자신이 다스리는 관청의 관리들을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갈아치우는것을 잊지 않았었다.

그와 동시에 서쪽변방에 군사를 증강하고 군량과 병쟁기를 저축하는 일도 내밀었다.

뿐더러 놓치지 않은것은 변방의 장수들에게 적정을 자세히 료해하

여 조정에 보고하라는 령을 시달한것이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변방에서 료해할수 있는 적정이란 기껏 대치하고있는 적군의 실태뿐 적소굴의 형편까지는 알수 없었다.

후한의 조정이나 적어도 료동의 공손도가 어떤 꿍꿍이를 하고있는지를 알려거든 그 소굴에 우리의 눈과 귀를 묻어두어야 할것이였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눈과 귀로 될수 있는가.

적의 소굴에 들어가 그것들의 흉계를 알아내는 일은 아무나 할수 없다. 나라를 위해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맡아하려는 굳센 마음을 지니고 머리를 쓸줄 아는 사람만이 할수 있다.

때마침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일이 되느라 이미 파악한 바호가 을파소를 찾아온것이였다.

악독한 장사치의 모해로 옥에 갇히웠다가 무죄로 놓여나왔을뿐아니라 우황까지 되찾은 바호는 자기를 구원해주게 한 사람이 을파소임을 알았던것이다.

나라의 눈과 귀로 쓸만 한 사람이 또 있었다. 결에 데리고 다니던 정우였다.

어려서 후한군에게 붙잡혀 끌려다니면서 그네들의 말과 풍습도 배운 정우는 머리를 잘 쓰고 진중하여 렴탐일에 적임자였다.

그 두사람을 후한의 대군이 둥지를 틀고있는 료동의 양평에 들여보내리라 생각한 을파소는 그들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이였다.

심중한 안색의 을파소앞에서 그들은 숨을 죽였다.

무슨 긴요한 일을 분부하려고 저리도 심각해하는것일가?!…

이윽고 을파소는 방안의 고요를 깨뜨렸다.

《지금 나라에 절실히 필요되는 사람은 료동에 틀고앉아 우리를 넘보는 후한군의 동태를 알아내는 사람일세. 생각끝에 난 자네들을 료동으로 보내기로 결심했네.》

무슨 분부인들 다 따를 마음이였지만 놀란 나머지 그들은 입을 딱 벌리였다.

사람의 처지가 낮과 밤이 바뀌듯 급변할수 있지만 제 나라, 제 고향을 두고 적의 소굴에 가야 하는 그런 경우를 상상이나 했던가.

그들에게 놀란 마음을 가라앉힐 여유를 주고싶은 을파소는 한동안이 지나 무거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자네들의 등을 억지로 떠밀지는 않겠네. 본색이 드러나면 목숨을 잃게 되는 렴탐군의 일은 억지로 할수가 없네.》

깊은숨을 내쉰 정우가 먼저 말했다.

《주인어른, 나라를 위한 일인데 어찌 가고말고가 있겠소이까.》

바호도 가슴을 펴며 말했다.

《저도 가겠소이다.》

그렇게 나오리라 믿었던 을파소는 무르익힌 궁냥을 터놓았다.

《나라에서 밑천을 대주겠으니 자네들은 양평에다 음식점을 차리게. 음식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 얼마든지 후한군의 움직임을 알아낼수 있을거네.

물론 처음 하는 일이라 모르는것이 많겠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눈과 귀를 밝히면 능히 해낼수 있을거네.》

을파소는 몹시 흥분해있는 바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는 우황을 팔아 빚을 물어주고 정우와 함께 처자들을 거느리고 양평으로 가게. 한두달이면 자리를 잡을수 있을거네. 그러면 자네들에게 사람을 보내겠네. 자네들이 할바는 그 사람에게 알아낸 것을 전해주는것일세.》

을파소는 이들에게 날래고 후한의 말도 아는 인우를 보내여 적정을 받아오게 할 생각이였다.

나라를 위해 한몸을 바치리라는 각오를 가진 그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어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소이다.》

이날 을파소는 임금의 허락을 받고 국고에서 금붙이를 꺼내다 정우와 바호에게 주었다.

이튿날 그들은 조용히 서압록고을로 떠났다.

(7)

며칠후 우거장군에게 서쪽변방을 맡긴다는 임금의 어지가 떨어졌다.

임금의 어지를 받은 을파소의 기분은 이만저만 아니였다. 그동안 알아보니 놀라웁게도 우거장군도 그렇고 연인장군도 구려경당의 출신이였다.

예로부터 구려경당은 문무를 겸비하는 인재가 많이 나오는 경당으로 소문이 났는데 이런 큰 장수들도 같은 경당의 출신이라니 반갑기 그지없었다.

어지를 받은 을파소는 지체없이 그의 집을 찾아 떠났다.

우거의 집은 국내성 남쪽의 남부에 있었다. 관나부라고도 부르는 남부에서 대가들이 사는 거리에 우거의 집이 있었다.

우거는 대가집출신이였다.

고구려에서는 상층귀족의 관료층을 대가, 중하층귀족의 관리들을 소가라고 하였다.

대가출신만이 5등급벼슬인 대형이상의 높은 벼슬에 오를수 있고 머리쓰개로는 책을 쓸수 있었다.

반대로 소가출신들은 대형이상의 벼슬에 오르기 힘들고 쓰개도 절풍을 써야 했다.

그러나 때로는 소가출신도 책을 쓰는 벼슬에 등용되기도 하였다.

몇명의 수종군을 거느린 을파소가 말을 타고 우거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웃통을 벗어던진 우거는 집뒤의 넓은 후원에서 칼춤을 추고있었다.

후원의 한가녁에는 몇백년도 묵었을 우불구불한 거대한 소나무가 몇그루 서있고 그 그늘속에서 체격이 크고 건장하게 생긴 두명의 젊은 종이 량손에 검을 들고 쌍검무를 추는 우거를 지켜보고있었다.

종들이 창과 도끼를 안고있는데 그것들은 무게가 쉰근이 넘는것

들이였다.

신바람이 나서 쌍검무를 추는 우거가 아무때건 창이든 도끼든 바꾸어들고 그에 맞는 무술을 펼칠것이였다.

지금 우거가 가지고있는 칼들도 보통칼이 아닌 힘장수들이 쓰는 스무근이 넘는 대검이였다.

이런 칼로 내리치면 메돼지라도 몸뚱이가 두동강이 나고만다.

이처럼 크고 무거운 대검을 우거는 나무검인양 아주 가볍게 휘두르는데 량손의 칼이 허공을 써는 소리는 소름을 끼치게 하였다.

쌍검으로 다듬이질을 하는듯 허공을 잽싸게 후려치던 우거가 별안간 공중으로 몸을 솟구쳐올랐다.

무려 한길이나 솟구쳐올랐던 그는 별안간 땅으로 곤두박질을 하며 딩굴었다.

하건만 그의 량손에서 칼만은 쉬임없이 허공을 찌르고 그때마다 서리발 같은것이 날카로운 빛을 뿜었다.

어찌나도 쌍검이 앞뒤좌우에서 날파람을 일으키는지 우거의 몸은 잘 보이지 않고 자욱한 구름이 낀듯싶었다.

우거의 습관중의 하나가 하루 한번은 각이한 병쟁기를 가지고 무술의 극치를 펼치는것이였다.

젊어서 붙은 습관때문에 역신들의 모해로 성쌓고 남은 돌의 신세가 되였어도 우거는 어느 하루도 무술만은 번지지 않고있었다.

그 다음은 보풀이 인 병서를 펼쳐보는것이였다.

우거가 애독하는 병서는 이웃나라의 병서가 아닌 선조들이 남긴 것이였다.

선조들이 저술한 병서는 《손자》이니, 《륙도》이니 하는 다른 나라들의 병서들과 달리 산이 많고 지세가 험한 고구려의 실정에 꼭 맞는 병법들이 수록되여있어 고구려장수라면 누구나 애독하는것이다.

사흘만 병서를 손에서 놓고있으면 장수의 머리가 둔해진다는것이 우거의 지론이기에 그는 어느 하루도 병서를 덮어두는 날이 없었다.

우거야말로 나라를 지키는 싸움을 위해서 태여난듯싶었다.

두팔과 가슴에서 주먹같은 쇠덩어리가 굴러다니는듯 잘 단련된 근육이 쉬임없이 꿈틀거리는 우거의 몸에서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한창혈기의 젊은이인듯 얼굴이 불깃한 그에게서 백발의 머리카락과 수염만 아니라면 그를 어찌 늙은이라 하겠는가.

우거가 다시한번 공중으로 몸을 솟구쳐오르면서 칼을 휘두르는데 대문을 지키던 종이 달려와 소리쳤다.

《장군어른, 조정에서 중외대부어른이 행차하셨소이다.》

그 말에 우거는 두손을 멈추고 대문쪽으로 돌아섰다.

그도 새 조정의 중외대부로 을파소라고 하는 정직하고 학식이 높은 농군이 임명되였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 소문에 환성을 올렸던 우거였다.

(나에게 볕이 드는가부다.)

너무도 기쁜 나머지 우거가 어찌할바를 모르고있는데 벌써 을파소가 후원에 들어서며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로장군,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소?》

그 한마디에 격정이 북받친 우거는 온 마음을 을파소에게 주고싶었다.

을파소는 떡메같이 크고 든든한 우거의 주먹을 덥석 그러쥐였다.

그리고 땀투성이인 우거의 넓은 가슴과 든든한 팔에 이어 방금전까지도 그의 손에서 서리발을 번쩍인, 지금은 땅바닥에 딩구는 두개의 장검을 바라보았다.

을파소도 여간 흥분되여있지 않았다.

중외대부가 되기 바쁘게 을파소가 제일먼저 관심을 돌린 사람이 우거장군이였던것이다.

고우루에게서 우거가 뛰여난 장수임을 안 을파소는 그에게 나라의 관문을 맡기고싶었다.

그래서 안류와 의논을 하였더니 그도 남달리 용맹하고 지략이 뛰

여난 우거야말로 그 적임자라는것이였다.

후한군도 선비족도 무서워하는 우거에게 나라의 서쪽관문을 맡긴다면 사람들이 발편잠을 잘수 있다는 안류의 지지를 받은 을파소는 그길로 임금을 찾아갔던것이다.

우거의 손을 잡은 을파소는 찾아온 사연을 털어놓았다.

《대왕께서는 로장군에게 또다시 대군을 통솔하게 하라는 어지를 내렸소.》

그 말에 우거는 한바탕 큰 웃음을 터치였다.

이윽고 그는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말하였다.

《난 어느때건 반드시 이런 날이 오리라 믿었소이다. 무인이 늙었다 어찌 자리에 누워있겠소이까.》

몹시 통쾌해하는 우거의 태도에서 을파소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장수임을 확신할수 있었다.

역신들에게 몰리여 장수복을 벗기웠어도 주눅이 들지 않는 이런 사람이 어디 쉬운가.

을파소는 마음 한편으로 미안한감도 없지 않았다.

《로장군에게 골라골라 변방을 맡기자니 안됐소. 후한과의 국경에 진을 친 모든 군사를 통솔하여 나라의 대문을 지켜주오.》

또 한번 크게 웃고난 우거는 대궐을 향해 정중히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대왕마마, 로신은 래일 진중으로 가겠사오니 부디 서쪽변방은 근심마소이다. 로신이 살아있는 한 나라의 대문을 열어주지 않겠소이다.》

우거의 충정스러운 태도는 을파소의 가슴에서 뜨거운것이 솟구치게 하였다.

이튿날 이른새벽 공을 세우고 임금께 인사를 드리겠다는 글을 을파소에게 남긴 우거는 준마를 타고 서쪽으로 달리였다.

우거의 글을 받은 을파소는 또 한번 큰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오늘은 막부득이하여 로장군을 사지판으로 보냈지만 정사를 바로

잡으면 조정으로 불러들일것이다.

을파소는 토목공사를 맡은 관청에 가있던 연인장군도 임금에게 아뢰여 나라의 서북쪽 선비족과의 국경지대를 지키는 장수로 보내였다.

주변국들이 두려워하는 두 장군에게 나라의 주요관문을 맡기고보니 마음이 좀 놓이였다.

이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끈셈이니 조정을 쇄신하는 일에 전심할수 있게 되였다.

(8)

나라를 지키는데서 급하게 제기되는 일거리를 처리한 을파소는 신심에 넘쳐있었다.

국상이 결원된 조정에서 제일 높은 관직을 차지한 자신이 벼슬길의 경험이 전혀 없어도 마음먹은대로 정사를 해나가니 재상의 일도 한 집안을 이끌어나가는 가장의 일과 별다른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 을파소는 진중하고 의리가 깊기로 알려진 이전 여러명의 대신들을 불러들여 고구려를 위해 동족의 나라들에 화친의 사절로 다녀올것을 부탁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나라앞에 무슨 일인들 하고싶어하던 그들은 기꺼이 응해나섰다.

하여 한날한시에 임금의 령을 받은 그들은 후부여와 백제, 신라를 향해 도성을 나서게 되였다.

또 한가지 일을 해치운 을파소는 늦어 한해안에 조정을 깨끗이 쇄신하리라 마음을 먹고 더 힘껏 정사를 내밀었다.

조정을 쇄신하려면 두가지 즉 우로는 조정대신으로부터 아래로는 작은 고을의 관리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리들의 잘못을 살피고 잘못을 범한자들에게는 엄벌을 주는 법도를 바로 되살리는것과 함께 경당을 다닌 사람들속에서 문무를 갖춘 인재들을 찾아내여 소가나

대가출신들로는 무능하고 욕심많은 관리들을 대신하게 하고 평민출신으로는 관속을 시키는것이였다.

인재등용이자 정사를 바로잡는 길이기에 결국 이 조치는 부국강병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고 할수 있었다.

임금에게 아뢰여 인재를 널리 등용하자면 그에 앞서 각 관청들을 료해하고 내쫓을 대상들을 바로 선정해야 했다.

그래서 을파소는 여러 관청들에 나가 관리들을 료해하는 일을 벌려놓았다.

그러나 을파소는 이러한 처사가 조정대신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마치도 어깨를 겯고 기다린듯 모든 관청들에서 을파소의 분부를 거역해나섰다.

지어는 을파소가 맡은 관청에서까지 부하들이 그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그들이 반박해나서는 리유는 중외대부는 아래에 국법을 시달하고 그 법의 집행을 추진하고 역모를 시도하는자들을 잡아내는것이 전례인데 무엇때문에 모든 관청, 모든 고을들의 관리들에 이르기까지 떼고붙이는 일에 간참하려드는가 하는 그것이였다.

을파소는 그들의 반박을 받아들일수 없었다.

국상이 결원된 이때 임금으로부터 조정의 쇄신을 위임받은 중외대부가 임금에게 인재를 직접 천거하는 일을 맡아 행한다는걸 그렇게도 모른단 말인가.

그러나 실은 을파소가 조정에서 제일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있기는 하지만 임금이 그에게 그런 권한까지는 주지 않은것이다.

을파소가 임금에게 인재를 천거하는 일은 자신의 일감이라고 말해주었지만 부하들은 들은척도 하지 않았다.

부하들마저 이 꼴이니 다른 관청들은 더 말할것이 없었다.

관리들을 떼고붙이는 관청에서는 《중외대부가 인물차지인줄 아는가?》라고 삿대질을 하면서 을파소가 인재등용이란 말도 붙이지 못

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격분한 마음을 달래며 이리 뛰여다니고 저리 뛰여다니면서 대가들을 설복하던 을파소는 한달만에 두손을 들고 나앉았다.

이제 더는 열정 같은것을 그에게서 찾아볼수 없었다.

수척해진 그의 얼굴에는 오로지 절망의 그림자만이 진하게 어려있었다.

관가로 끼식마저 날라다 먹으며 그리도 애를 썼던 을파소는 처소로 돌아와 하루종일 밖에 나오지 않았다.

집뒤의 자그마한 후원을 거닐며 한숨짓는 을파소의 얼굴은 중병든 사람마냥 누렇게 떠있었다.

《아, 나를 가리켜 시골농부라 한단 말이지. …》

요즘 많은 대가들이 을파소의 앞에서까지 시골농부라고 내놓고 야유하는 정도였다.

그 말은 정사의 리치도 모르는 무식한 시골늙은이가 무슨 중외대부냐 하는 조소였다.

《아,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물론 임금에게 도움을 청하면 반기를 든자를 한두명 떼여버릴수 있을것이였다.

하지만 어떻게 일일이 임금에게 구원을 청하여 막아나서는자들을 모조리 갈아치울수 있단 말인가.

을파소의 입에서 개탄소리가 흘러나왔다.

《재상이란 명색뿐 이런 허수아비가 어데 있겠는가.》

내가 왜 이 꼴이 되였을가.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을파소로선 그쯤한 원인을 밝히기란 어렵지 않았다.

사실상 이 을파소가 임금에게 아뢰여 관리들을 떼고붙이는 일을 맡아한다면 권세잡은 벼슬아치들이 손해를 볼것이다.

나라에서 주는 국록만으로 살아가려는 관리는 너무 적고 다수는 남의것을 빼앗아 배를 불리는자들이라 피를 물고 반기를 들수밖에

없다.

대대로 부귀를 누려오는 그들이 그 좋은 권세를 내놓겠다고 할리 있는가?

그런데로부터 그것들이 모두 한동아리가 되여 완력사나운 골받이를 하는것이였다.

악한자는 죽이고 착한자는 살릴수 있는 그런 권한을 임금에게서 부여받지 못했으니 국상의 다음가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다한들 불복하는자들을 전혀 다스릴수 없는것이였다.

을파소의 입에서 또다시 한탄이 흘러나왔다.

《이런 처지에서는 조정의 쇄신이 한갖 그림의 떡이로구나.》

온 조정이 반기를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형편에서 을파소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바람앞의 등불은 꺼지기마련이고 위태로운 곳에서는 몸을 피하라 했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던 을파소는 이제 더는 자기의 힘으로 백관을 다스릴수 없으며 남들의 더 큰 웃음거리를 사기 전에 도성을 떠나는것이 임금을 위해서도 상책임을 깨달았다.

드디여 락향하리라 결심을 세운 을파소는 볼에 칼맞은 자리가 있는 인우를 불렀다.

《너도 집으로 가고싶겠지? 나도 그렇다. 그러니 우리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는게다.》

을파소의 고충을 잘 아는 인우가 허리를 굽석이며 기뻐했다.

《당장 돌아가면 좋겠소이다.》

《좋아, 그럼 입궐했다가 오겠으니 떠날 차비를 해두거라.》

을파소는 기뻐하는 인우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대궐을 향해 처소를 나섰다.

마침 임금이 침전앞의 화원을 돌아보고있었다.

한무릎을 꿇으며 문안인사를 올린 을파소는 절절하게 말하였다.

《이 늙은게 무능하여 중외대부를 감당할수 없나이다. 다른 사람

을 쓰시고 이 늙은걸 집으로 내려가도록 허락해주시오이다.》

아무런 말이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임금의 심상한 태도에 을파소는 숨이 좀 나갔다.

농사나 짓던 촌늙은이를 재상으로 내세워준 임금의 은총에 보답을 못하고 가자니 마음이 무거웠는데 대범하게 리해해주니 정말 고마왔다.

그러나 어렸을 때 겪은 심한 고생으로 병에 든 임금을 두고 가자니 걸음이 떨어질것 같지 않았다.

나라가 흥하려면 군주가 현명해야 하고 현명한 군주의 무병장수는 나라의 복이라 하였는데 임금이 병들었으니 걱정이 산같았다.

을파소를 굽어보는 임금의 마음은 허전하였다.

임금은 이 한달동안 조정의 쇄신을 위해 을파소가 어떻게 애를 썼는지 잘 알고있었다.

지금껏 을파소처럼 나라일을 하려 침식마저 일터로 옮기고 애쓴 신하를 보지 못하였었다.

《할 말이 있으면 하오.》

을파소는 할 말을 생각해냈다.

《패전지장에게 무슨 할 소리가 있으랴만… 신의 집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한말씀 올리겠소이다.

류리명왕때 신의 조상이 나라를 지키고 조정의 쇄신에 기여할수 있은것은 남다른 재주가 있어서보다 임금님의 믿음이 컸기때문이라 하오이다. 신나라의 대군이 고구려에 쳐들어왔을 때 류리명왕께서는 신의 조상에게 보검과 함께 군률을 어긴자의 목을 먼저 치고 후에 임금에게 보고하는 선참후계의 특권을 주었고 그래서 그가 전군을 통솔하여 적군을 쳐이길수 있었소이다. 또 신의 조상에게 정사를 바로잡으라는 중임을 맡길 때에도 그가 조정대신일지라도 국법을 어기고 민심을 어지럽히는자는 즉석에서 처형할수 있는 권한을 주셨소이다.

신하들의 됨됨을 헤아려보고 믿음이 가는 신하에게 큰 일감을 맡기면서 그 누구에게도 구애되지 않는 위엄을 부여해준 여기에 류리

명왕의 뛰여난 덕망이 있는것이오이다.

재주가 뛰여난 신하를 구해서 임금님의 위엄을 빌려주신다면 대왕님은 부국강병의 뜻을 이룰수 있을가 하나이다. 부디 룡체를 돌보시옵소서.》

큰절을 드린 을파소가 물러가려 하자 임금이 한손을 쳐들었다.

《가만!》

임금은 을파소가 하려 한 모든 일이 부국강병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을 잘 알고있었다.

그것을 알면서도 을파소를 떠밀어주지 않은것은 조정의 쇄신을 바라지 않는 대가들의 움직임을 좀더 알고싶었기때문이였다.

그러했기에 임금은 을파소를 반대한 주범이 다름아닌 동생 발기와 국구 우소라는것을 알아낸것이였다.

나라에서 거물이라고 할수 있는 그들이 한사코 을파소의 앞을 막고있었으니 아무리 애를 쓴들 그가 한걸음도 나갈수 없었던것이다.

이제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으니 을파소가 더는 앉아뭉개지 않을것이다.

조정을 통솔하는 손락이 별것이랴. 나라를 위하려는 충정과 국운을 일신시킬수 있는 남다른 재주를 지닌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에게는 마땅히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막강한 권한을 주어야 하리로다.

《래일모레 어전회의를 열것이니 공이 꼭 참가해야겠소.》

임금의 생각을 알수 없는 을파소는 한숨을 내쉬였다.

한시가 지긋지긋한데 돌아갈 길이 지체되다니…

(9)

이제는 여생을 손자들을 키우는데 바치리라 마음먹은 을파소는 도성에서의 한시가 석달만큼이나 길고 지루했다.

지루한 도성살이가 끝나게 될 이 아침 을파소는 어전회의가 진행될 대궐을 향해 처소를 나섰다.

보기만 해도 구역질나는 탐욕의 무리와 오늘로써 영 결별이라고 생각하니 더러운 오물구뎅이에서 뛰쳐나오는 기분이였다.

대궐문앞에 이르니 파수병들이 얼른 문을 열어주었다.

아직은 조정에서 제일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있으니 그럴것이였다.

그러나 대궐출입도 오늘로써 끝장이라 그동안 안면을 익힌 파수군들과도 영리별일것이였다.

대궐의 정전에 들어선 을파소는 남볼세라 허리를 굽히고 백관의 맨 뒤자리의, 그것도 어둑시근한 곳에 가섰다.

좀 있어 이 을파소의 파직이 공개되고 새 사람이 중외대부로 임명될것이라 조정반렬의 앞자리를 차지하는것이 부끄럽기때문이였다.

인차 임금을 맞는 례식이 진행되였다.

룡상에 걸터앉은 임금의 눈길이 여느때와 달리 엄엄하였다. 엄엄한 임금의 눈길이 와닿을 때마다 아첨기를 지은자들이 와뜰와뜰 놀랐다.

이윽고 임금이 정전이 떠나갈듯 입을 열었다. 노성이였다.

《조정의 정사가 바르면 나라가 흥하고 정사가 어지러우면 망한다고 했다. 오늘의 어지러워진 정사가 뉘탓인지는 그대들도 모르지 않을것이다.

짐은 늦게나마 잘못된 정사를 바로잡자는것이다.》

임금은 허리에 찼던 보검을 뽑아 상우에 올려놓았다.

《그가 누구든 짐이 바른 정사를 펼치는데 방해가 된다면 결단코

이 칼이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임금의 눈에서 불꽃 같은것이 이는것을 본 신하들은 자라목이 되여버렸다.

지금처럼 임금이 진노한 때가 있었다면 연나부의 반란무리를 짓뭉개버리라는 어명을 내릴 때뿐이였다.

그러니 신하들이 겁에 질려 할만도 하였다.

보검을 지팽이삼아 짚고 선 임금은 겁에 질린 신하들을 굽어보았다.

그는 지금 옛적에 어떤 나라의 임금이 간신들의 판인 조정을 바로잡기 위해 제일 못된 두목을 잡아 끓는 가마에서 삶아죽이는 형벌에 처했다는 일화를 생각하고있었다.

그 나라에서는 간신의 두목을 삶아죽이였더니 그날로 조정의 정사도 바로잡히고 나라의 기강도 섰다고 한다.

고구려가 강해질수만 있다면 그런 형벌인들 어찌 꺼리랴.

조정을 다시 꾸릴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나선 임금은 큰소리로 웨치였다.

《짐은 이 자리에서 파직시킬 사람은 파직시키고 새로 등용할 사람은 등용시키자고 한다.》

눈길을 들어 장내에서 을파소를 더듬어찾던 임금의 목소리가 좀 낮아졌다.

《을파소를 중외대부의 직에서 파직시키노라.》

순간 겁에 질려있던 신하들이 환호성을 터치였다.

임금의 엄한 기세에 눌려 기가 죽었던자들이 시골농부를 몰아냈다는 쾌감에 서로서로 쳐다보며 실눈이 되여 웃었다.

을파소는 막상 파직을 당하고보니 너무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수 없었다.

임금의 목소리가 크게 울리였다.

《조용들 하라.》

장내는 곧 쥐죽은듯 잠잠해졌다.

《현명한 군주는 현명한 신하를 쓰는 법이다. 오늘 이 시각부터 짐

이 등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뒤소리를 하거나 그의 분부에 불복하는자는 그 즉시 엄벌에 처하겠노라.》

을파소를 뗴버렸다고 환성을 지르던자들이 또다시 겁에 질려 숨도 크게 쉬지 못하였다.

《자고로 나라의 병권은 나라에서 으뜸가는 장수, 병법에도 밝고 지략도 뛰여나고 무술에도 능할뿐더러 남달리 충의로운 장수에게 맡기였다.》

백관은 일제히 목을 빼들고 임금을 쳐다보았다.

그럼 명림답부가 세상을 떠난 후 지금껏 비워두었던 지내외병마사의 군직을 회복시킨다는것일가.

지내외병마사는 경군과 지방군을 전부 통솔하는 최고의 군직이였다.

그렇다면 어느 부의 어느 사람이 지내외병마사로 되는것일가?…

임금은 서쪽의 변방에 나가있는 우거에게 지내외병마사의 다음가는 지내외병마부사의 군직을 주고싶었다.

지내외병마부사는 지내외병마사의 휘하에서 나라의 군사관계의 일을 맡아보는 군직의 거물이였다.

임금은 이전에 좌가려의 패당에게 지내외병마부사의 군직을 맡기였으나 그들의 됨됨을 내다보고 경군은 물론 지방군까지도 함부로 움직일수 없게 엄하게 단속하였었다.

그래서 연나부것들이 맥을 추지 못한것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전례대로 전군을 통솔하는 지내외병마사와 함께 그를 받드는 지내외병마부사도 다시 내올 결심이였다.

우거장군이 지내외병마부사로서 적임자였지만 서쪽변방의 장수로 나가있으니 그를 쓸수 없었다.

조정정사가 심히 어지러워진 이때 그 무엇보다도 나라의 대문을 지키는 일을 가장 중요한 국사로 여겨 그를 변방에 내보내야 한다고 제기한 을파소의 주장이 지극히 옳기때문이였다.

그럼 누구에게 지내외병마부사의 중임을 맡겨야 한단 말인가.

이 문제를 붙안고 그동안 고심을 한 임금이였다.

큰 소가 나가면 작은 소가 밭을 간다고 장수들속에 우거와 견줄만 한 인재가 없는것은 아니였다.

그 사람은 임금이 다년간 몸가까이에 두고 충분히 검토한 젊은 장수였다.

《짐은 고우루를 지내외병마부사로 봉하노라.》

모멸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던 을파소가 번쩍 머리를 쳐들었다.

아, 이야말로 탄복할만 한 일이 아닌가.

을파소도 고우루를 장수로서 큰일을 감당할 인재로 보지 않은것은 아니였다.

도성으로 올라오는 길에 정에 끌려서라기보다는 그가 범상한 사람이 아님을 알았기때문이였다.

고우루가 출중한 장수임을 알면서도 그에게 그런 큰 군직을 주지 못한것은 조정대신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기때문이였다.

물론 을파소가 고우루야말로 전군을 통솔할만 한 장수라고 임금에게 상주하지 않은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조정대신들이 일제히 반기를 드니 임금도 그들의 반대를 무시할수 없었던것이였다.

임금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 다음 중외대부를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하는것이다.》

숨을 죽인 문무백관은 손에 땀을 쥐였다.

그 자리에 누가 올라앉는가에 따라 그가 속한 부가 조정에서 독판치기를 할수 있기때문이였다.

더 많은 리속을 챙길수 있는 가장 요긴한 관직이 이 한순간에 결정되는것으로 하여 그들은 잠시도 임금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을파소도 몹시 긴장해서 임금을 쳐다보았다.

과연 어떤 사람이 중외대부로 되겠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임금은 고심이 많았다.

이틀동안 임금은 밤잠도 잊고 4부의 모든 대가들을 한사람도 빼놓지 않고 됨됨과 재주를 따져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호감을 가지고 대했지만 을파소보다 난 인물은 없었다. 자기를 위한 욕심에서는 하나같이 엄지손가락이지만 나라를 위하려는 마음이나 학식, 인품에서는 을파소의 발뒤꿈치에도 따라서지 못하는자들뿐이였다.

아니, 전혀 인물이 없는것은 아니였다. 중외대부감으로 적중한 사람이 한명 있었으니 그도 임금이 오랜 기간 파악한 인재였다.

《짐은 안류를 중외대부로 봉하노라.》

을파소는 너무 기뻐 눈물이 핑 돌았다.

형법을 맡아보던 안류 그 사람이 중외대부로 되였으니 아주 잘됐어.

안류도 고우루도 다 도성에 태를 묻은 대가집자손들이니 터도 있고 세력도 있다. 그러니 나와 달리 기운을 크게 쓸것이다.

아, 그래서 임금이 그 두사람을 크게 등용하는것을 보여주려고 나의 귀향길을 지체시키였구나.

임금의 깊은 마음에 감동된 을파소는 가슴을 쭉 펴며 앞을 바라보았다.

그때 누구를 찾는것인지 임금이 장내를 눈빗질하고있었다.

인차 임금의 목소리가 장내를 흔들었다.

《다들 명심해듣거라. 우리 고구려는 부왕대에 이르러 처음 보는 문무백관을 모두 통솔하여 오로지 임금에게만 복종하고 만인을 다스리는 국상의 관직을 새로 내왔노라.

고구려의 국상은 이웃나라들의 승상보다 권한도 중임도 크다.

국상에게는 선참후계의 특권이 있으며 인재를 등용하고 파직시킬수 있으며 법을 어긴자, 반역을 꾀하는자를 즉석에서 목을 칠수 있다. 설사 종실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리고 국상에게는 전군을 통솔하는 지내외병마사의 군직이 부여되여있다.

하기에 국상으로는 아무나 될수 있는게 아니다. 누구보다도 나라를 아끼는 사람이여야 하며 만조백관이 거울로 삼을수 있는 자질이

뛰여난 사람만이 될수 있노라.

그래서 짐은 초대국상이였던 명림답부만 한 뛰여난 인재가 없다면 국상의 자리를 비워두는 한이 있어도 인재가 아닌자는 쓰지 않은것이다. 그러나 오늘 국상의 자리를 더는 비워두지 않게 되였노라.》

잠잠하던 장내가 술렁거렸다.

그렇다면 갑자기 명림답부만 한 큰 인물이 나타났다는것인가.

신하들은 서로 쳐다보며 어리벙벙해하였다.

을파소도 마찬가지였다.

정녕 이 나라에 큰 인물이 있다는걸 왜 몰랐을가. 혹시 구려경당의 학루는 아닌지?!… 학루라면 얼마든지 국상의 직분을 감당할것이다.

나라에서 손꼽히는 학식에 오랜 기간 인재를 키운 학루가 조정에 나서면 임금이 만시름을 놓게 될것이다.

《으험ㅡ》

임금의 기척소리에 술렁이던 장내는 조용해졌다.

《어떤 사람이 국상으로 될수 있는가?》

임금의 질문에 대가들은 저를 불러낼것 같아 목을 움츠렸다.

제 리속을 타산하는 일에서라면 누구보다도 촉기와 후각이 예민하지만 그런 질문에는 하루종일 세워놓아도 옳은 대답을 내지 못할 위인들인것이다.

《국록이면 만족해하고 오로지 몸과 마음을 다해 나라일을 해제끼려 애쓰는 그런 충신이 5부에 있다면 나서라.》

임금의 눈길과 마주칠가 겁이 나서 고개를 떨구는 대가들을 굽어보며 임금이 고개를 저었다.

《과연 없노라. 연나부에도 관나부에도 환나부에도 제나부에도 과루부에도 말이다. 하다면 나라에도 없단 말인가? 아니, 있노라.》

두손에 힘을 주어 보검을 틀어잡은 임금은 기백에 넘쳐있었다.

《류리명왕시기에 그런 인물이 있었다. 출장입상이라고 전장에 나가면 군정에 밝은 명장이고 조정에 들어오면 민정에 밝은 명재상이

였다.

그 재상에게는 남다른 뜻이 있었으니 자기는 몸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바로 나라가 무사하고 나라가 부강하면 그만이라는 그것, 자기의 몸이 나라를 고이는 주추돌이 되면 그만이라는 그것이였다.》

임금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을파소는 어리둥절해졌다.

임금이 말하는 류리명왕때의 명재상이 어쩜 나의 조상과 비슷할가.

《샘이 나오는 곳에서 금이 나오고 좋은 고장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 하였다. 뿐더러 명재상의 가문에서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 하였노라.

명재상이 돌아간 후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조세도 바치고 군역도 지고 부역에도 나갔다. 그의 한 후손은 세상리치를 통달하고 조정을 쇄신할수 있는 궁냥도 자질도 있은즉 국상의 권한을 주면 짐을 도와 능히 부국강병에 이바지할수 있을것이다.》

임금은 크게 숨을 들이켰다.

진작 크게 믿고 써준 그에게 국상을 주었더라면 헛수고를 하지 않았을것이다.

임금은 장내가 떠나갈듯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은 다름아닌 서압록고을사람 을파소인줄 알리노라. 짐은 을파소에게 좌물촌을 식읍으로 하사하며 더불어 국상으로 봉하노라.》

임금은 겁에 질려 몸을 떠는 대가들을 쓰겁게 굽어보았다.

원쑤처럼 미워하던 사람이 제일 큰 권세를 가진 국상이 되였으니 그들이 겁에 질릴만도 하였다.

이윽고 임금은 을파소를 바라보며 친근한 어조로 말했다.

《짐은 국상에게 보검을 하사하노라. 자, 국상은 이앞으로 나오도록 하라.》

임금의 분부가 떨어지기 바쁘게 무사들이 다가와 을파소를 부축하였다.

을파소는 처음부터 임금의 분부를 받은 무사들이 문곁에서 자기를 지켜보고있었음을 알리 없었다.

무사들에게 부축되여 임금의 앞으로 가는 을파소는 도무지 제 발을 움직여가는것 같지 않았다.

이게 취중일가?…

얼나간듯 비칠거리는 을파소를 미덥게 지켜보던 임금이 입을 열었다.

《다들 새겨듣거라. 이 한달동안 국상을 업신여긴자들은 스스로 국상을 찾아가 죄를 빌지어다. 알겠는고?》

신하들은 일제히 끓어엎드렸다.

《알겠소이다.》

임금이 허리에 보검까지 채워주니 을파소는 이제 더는 자신의 목숨이 자기의것이 아닌, 오로지 나라를 받들어 헌신하다가 죽는 길뿐임을 절감하였다.

《임금이 말했다. <귀한자나 천한자나 할것없이 진실로 국상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일족을 멸하리라.>

을파소가 물러나와서 말했다. <때를 만나지 못하면 은퇴하고 때를 만나면 벼슬을 하는것은 선비로서 떳떳한노릇이다. 이제 임금께서 나를 중히 써주시니 어찌 다시 전일과 같이 은퇴할것을 생각하랴.>》(《삼국사기》 권 제45 렬전 제5)

제 4 장

어진 사람 등용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재주따라 일맡김도 쉬운 일이 아니라네
(리익의 악부시 《서압록의 노래》중에서)

(1)

국상이 되여 처소로 돌아오는 을파소에게는 새롭게 깨달아지는것이 있었다.

아무리 식자일지라도 늙어죽을 때까지 배우고 부닥치는 정황이 다양해질수록 세상을 대하는 안목도 트인다더니 국상의 지위에 오른 오늘 국력에 대한 견해가 이전과 달라지는것이였다.

그전에는 국력이라고 할 때 자기 강토를 지키려 애쓰는 그 나라 백성들의 의지가 크게 관계된다고 생각하였었다.

물론 국력은 강토의 크기며 인구수와 군사의 수, 나라의 재력 등에도 달려있는것이다.

그러나 지금 누가 국력에 무엇이 또 관계되는가고 묻는다면 두말없이 임금과 그를 받드는 재상의 자질이라고 말할것이였다.

지나온 력사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얻을수 있는것이다.

동명성왕이 고구려를 세울수 있은것은 천제의 아들로서 남달리 뛰여난 재주와 수완이 있었기때문이고 또한 오이와 마리 같은 뛰여난 인재들이 그를 떠받들었기때문이였다.

대주류왕(고구려 4대임금)이 강토를 크게 넓히고 항우에게 몰리우던 류방에게 정예군을 보내여 전장의 형세를 역전시키고 한나라를 세

우는데 기여한것도 추발소 같은 충신들이 있었기때문이였다.

류리명왕이 천하대국이라 뽐내던 신나라의 변방을 들이치고 크게 이길수 있은것도 을소와 같은 충의지사들이 정사를 도왔기때문이였다.

대무신왕에게는 을두지, 태조대왕에게는 고복장과 같은 명재상들이 있었다.

신대왕이 임금이 되여 외적을 쳐부실수 있은것도 명림답부가 있었기때문이였다.

고구려가 국력을 떨친 시절에는 례외없이 현명한 임금과 명재상이 있었다.

결국 국력이란 임금과 재상에게 달려있다는 답이 나오게 되는것이다.

이 진리에 오늘을 비추어보면 어떠한가. 임금이 선왕대때처럼 애를 썼건만 어이하여 국운이 기울었던가.

독불장군이란 말도,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구친다는 말도 있다.

바로 그것이다. 불우하게도 임금에게는 조정을 옳게 통솔할만 한 재상이 없었다.

오죽했으면 임금이 국상의 자리를 십여년이나 비워두었겠는가.

충신은 열명이라도 적고 간신은 하나라도 많다 하였다. 란신이 무리를 이루면 반드시 저희들의 탐욕을 다스리려드는 사람이 설사 임금이라 할지라도 반기를 들기마련이다.

그래서 연나부가 들고일어났던것이 아닌가.

이것을 념두에 둘 때 국상의 일감이 명백하다. 강대한 고구려를 일떠세우려는 임금의 뜻을 따르지 않는자, 탐욕밖에 모르는자들을 조정에서 몰아내고 이에 불응하는자는 결단코 목을 쳐야 한다.

조정을 충의지사들로 꾸린다면 강대국을 이루는것이 무엇이 어렵고 외적을 짓부시는것이 무엇이 어렵다 하겠는가.

명백히 할바를 깨닫고보니 마음도 가벼워지고 배심도 든든해졌다.

다음날 임금이 준 보검을 차고 대궐앞의 이전 국상이 일하던 관

청에 들어선 을파소는 신선궁에 온듯 한 심정이였다.

고구려의 초대국상이 바로 여기에서 백살의 몸으로 조정을 쇄신했고 나라에 기여든 외적을 전멸시킬 통쾌한 구상을 하였으니 신선궁이라면 이보다야 별스러울것인가.

명림답부가 돌아간 후 10여년세월 닫고있던 관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보니 그처럼 임금을 모시고 부국강병을 이루는 벅찬 길을 가리라는 마음이 더더욱 굳어지는것이였다.

을파소는 이날 하루종일 여러 방들과 뜨락을 돌아보며 옛 국상의 체취를 더듬어보았다.

내 반드시 명재상을 본받아 고구려의 국상이 어떤 사람인줄 천하가 알도록 할테다. …

이튿날 이른아침부터 국상으로서 을파소의 하루일과가 시작되였다.

이날 을파소는 자기 휘하의 관리들과 관속들을 한명한명 만나 그들의 재주에 알맞는 자리들을 맡겨주었다.

모든 관청들과 모든 관리들을 원만히 통솔할수 있자면 부하들이 절반나마 모자랐지만 당장은 그들을 데리고 첫 정사를 바로할 생각이였다.

이틀째 되는 날 을파소가 펼친 첫 정사로는 전국의 모든 관리들이 연나부것들의 세상에서 비법적으로 사취한 나라의 재산, 남의 재산을 한달기간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한다는 공문서를 만들어 모든 관청들과 고을들에 시달한것이였다.

그날부터 을파소가 일하는 곳에서는 자정이 넘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시급히 나라에 기강을 세우자면 무엇보다도 국상의 권능을 선대국상때처럼 세워야 했다.

하기에 을파소는 자기 휘하에 관리등용을 보는 관청, 군사를 보는 관청, 법을 맡은 관청, 조세와 호구를 다루는 관청, 토목공사를 맡은 관청, 례의와 교육 그리고 대외관계를 맡은 관청은 말할것도 없고 중외대부까지 종속시키는 엄격한 질서부터 세워놓았다.

또한 안류에게 령을 내려 모든 관리들의 잘못을 살피는 제도를 엄하게 세우도록 하였다.

아무리 옳은 법을 내리여도 그 법을 어기는자들을 내버려둔다면 언제 가도 나라의 기강을 바로세울수 없었다.

그와 함께 자기밑에 모든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는 부서를 새로 내왔다.

이렇게 해야 반역을 꾀하는자들을 미리 솎아낼수가 있었다.

을파소는 그 부서를 내부라고 불렀다.

이렇게 국상의 지휘체계부터 세워놓은 을파소는 이어 인재등용을 강하게 밀고나갔다.

을파소는 먼저 안류와 고우루는 물론 변방에 가있는 우거와 연인에게도 사람을 보내 충의로운 인재들을 천거하게 하였다.

충신이 충신을 알아보고 인재가 인재를 가려본다고 이렇게 쓸만한 사람들을 골라내는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례였다.

을파소자신도 농사군시절에 파악한 서압록고을의 구실아치 덕문을 추천하여 그를 그 고을 처려근지로 임명하였다.

을파소는 인재등용을 제 혼자의 생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임금을 찾아가 의논을 하였고 때로는 상주문을 올리고 어지를 받아 처리했다.

이렇게 조정에서 탐욕의 무리를 몰아내니 국상의 령이 아래에 쭉쭉 내리먹을수 있었다.

지금은 나라의 리익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여가며 내리는 을파소의 결심이자 임금의 결심이였다.

밤낮을 따로없이 애면글면 국사를 붙안고 씨름한 결과로 두달만에 바른 정사의 기틀을 마련해놓은 을파소는 보다 원만한 조정쇄신에 달라붙었다.

조정을 임금의 뜻대로 하나로 움직여 부국강병을 이루자면 인재등용을 보다 널리 해야 하였다.

을파소는 모든 관청들에서 제가 쓸 인재를 선발하여 공문서로 올

리라는 령을 내렸다.

인재선발의 기준도 하달하였는데 반드시 경당을 나와야 하고 문무를 겸비했을뿐아니라 품성이 좋은 사람을 공문서에 올리게 하였다.

만일 인재가 아닌자를 추천하여 그가 후날 관리로서 무능하거나 죄를 짓는다면 그를 추천한 사람도 함께 벌을 받는다는것도 선포하였다.

인재선발명단은 먼저 중외대부가 출신과 경력으로부터 현재의 동향에 이르기까지 재확인한 다음 자기에게로 보내게 하였다.

관가로 올라온 추천명단은 을파소가 검토하고 중요관직에 등용할 사람은 직접 만나본 후 결심을 내리였다.

여기서도 법도를 세워놓았는바 평민출신은 주로 관속으로, 특출한 인재라면 지방관으로, 귀족출신은 벼슬아치로 배치하였다.

관가로 끼식을 날라다 먹으며 반년나마 애쓴 결과로 충의로운 인재들로 지방관까지 어지간히 꾸릴수 있었다.

그제서야 숨이 좀 나갔다.

바쁜 속에서도 을파소는 료동에 묻어둔 눈과 귀를 통하여 후한군의 움직임을 살피는것을 잠시도 잊지 않고있었다.

을파소의 몸은 날로 쇠약해져갔다.

젊은이도 아닌 늙은이가 그처럼 무리하게 일하고있으니 몸이 견딜수 없었던것이다.

몸이 어찌나 쇠약해졌던지 정신이 어리어리해지고 다리가 다 휘친거렸다.

이를 헤아린 임금은 을파소에게 며칠간 일체 국사를 단념하고 처소에 돌아가 쉬라는 어지를 내리였다.

임금의 령은 곧 법이라 을파소는 하는수없이 관가를 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처소에 돌아와 방에 들기 바쁘게 묵은 피로가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2)

너무도 무리하게 일한탓에 자리에 누웠건만 을파소는 잠에 들기는 커녕 근심걱정만이 겹쳐들었다.

조정을 쇄신하려 악꾸러기들이 남겨놓은 더러운 진때를 아직 걷가죽도 벗기지 못하였는데 벌써 몸이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으니 앞일이 까마득하게 여겨졌던것이다.

이게 다 늙어가지고 벼슬길에 나선 잘못이 아닐가. 여기서 더 맥을 추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나 한사람의 망신이나 실책으로 끝나지 않을것이다.

그것은 나라에 큰 해를 미칠것이니 죽는대도 주저앉아서는 안된다. 죽기를 마다하면 죽은 사람의 원도 풀어준다는데 임금이 떠밀어주는데야 무슨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니 몸은 비록 무거워도 마음은 가벼워졌다.

정신이 한결 맑아진 을파소는 지금껏 벼슬길에서 잘한것과 잘못한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보았다. 바로 여기서 교훈을 찾는다면 리익이 될것이였다.

자리에 누워있는지 이틀째 되는 날이였다.

이날도 앞으로 국사를 어떻게 내밀것인가를 궁냥하고있는데 방문밖에서 인우의 목소리가 들리였다.

《국상어른, 발기전하께서 만나뵙기를 청하고있소이다.》

그 말에 을파소는 급히 일어나 앉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금의 친동생이 찾아왔는데 어찌 앉아서 맞아들인단 말인가.

관복을 입고 청라관을 쓴 을파소가 방문을 열며 일렀다.

《어서 전하를 안으로…》

을파소가 휘청이는 몸을 끌고 뜨락으로 내려서니 활짝 열어놓은

대문으로 혈기왕성한 발기가 들어서고있었다.

우람한 몸에서 막강한 힘이 넘쳐나는 그를 보니 을파소는 힘이 솟는듯싶었다.

《국상어른께 문안드리오이다. 과로하게 일한탓으로 앓으신다는데… 제가 미처 국상어른을 돕지 못했소이다.》

공손한 그의 인사에 허리를 굽히며 을파소가 입을 열었다.

《그런 말씀만 들어도 몸이 거뜬한것 같소이다.》

발기가 뒤에 선 시종군에게 눈짓을 하니 그가 안고있던 큼직한 함을 을파소에게 내보였다.

놋장식의 귀중품함이였다.

발기가 함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안에 국상어른께서 쓰셔야 할 금분과 록용이 들어있소이다. 저의 약간의 성의이니 받아주시면 기쁘겠소이다.》

사양하려 하던 을파소가 웃음을 지었다.

《다른분도 아닌 전하께서 주는건데 어찌 달게 받지 않겠소이까. 어제는 대왕마마께서 산삼과 금분을 보내주시였는데… 정말 고맙소이다.》

어제 임금은 어의에게 백년이상 묵은 산삼과 함께 적지 않은 량의 금분을 들려보내면서 을파소의 병을 보아주게 하였다.

발기도 웃었다.

《저도 알고있소이다. 어지럽던 정사를 바로잡은 국상어른에게야 무엇을 아끼겠소이까?》

을파소와 발기는 방에 들어가 앉았다.

먼저 발기가 진지한 어조로 입을 뗐다.

《저… 주제넘은 물음이오만 연나부를 어떻게 하시려 하오이까?》

연나부가 화제에 오르니 을파소의 이마살이 찌프려졌다.

태후의 친척임을 턱대고 국익까지 해치면서 온갖 못된짓을 일삼던 연나부의 귀족들이 이를 제압하려드는 임금을 오히려 몰아내려 하였다가 목없는 귀신이 되였다고는 하지만 그것들이 망쳐놓은 국사를

바로잡기가 헐치 않았다. 그중에서도 연나부를 통솔할 평자를 새로 선출하는 일이 더 애를 먹이였다.

이번에 을파소는 과루부와 연나부를 제외한 다른 부들의 평자를 갈아치우는 동시에 오로지 국법이상의 권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엄하게 다스렸다.

나라법에 평자는 5부의 어느 한 부만을 통솔하게 되여있었다.

그런데 좌가려는 한개 부의 평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상인듯 행세하면서 모든 관청들에 이래라저래라 호령해왔다.

이런 폐단을 그대로 둔다면 조정은 허울만 남게 될것이였다.

그래서 을파소는 조정은 말할것도 없고 관할지역에 있는 관청들의 일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엄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5부는 도성의 고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기 휘하에 직속시키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5부의 평자들은 제 관할지의 백성들만 다스리게 되였다.

연나부의 평자만은 맞춤한 인물이 나서지 않아 국상자신이 겸하고있었다.

연나부는 다른 부들과 달라서 손탁이 센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스리기 힘든 조건이 있었다.

원래 연나부는 동명성왕이 고구려를 세우기 전에 존재했던 구려국의 도읍이 있던 곳이다.

오랜 세월 구려국을 다스려온 임금들은 말할것도 없고 조정대신들도 거의가 연나부출신들이였다.

부여국을 떠나온 동명성왕도 구려국임금의 사위가 된 후 바로 연나부땅에서 고구려를 일떠세웠었다.

그때부터 대대로 고구려임금들은 연나부에 장가를 들었고 하여 연나부의 세력은 대대로 5부의 으뜸이였다.

류리명왕이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해왔을 때 연나부의 귀족들도 거의다 이곳으로 옮겨왔었다.

국내성으로 천도한 류리명왕은 도읍을 동서남북과 그 중심의 5개로 부를 내오고 출신지역이 같은 귀족들끼리 그 5개의 부에 나누어 살도록 하였다.

실례로 연나부의 귀족들은 연나부라고 새로 정해놓은 서부에 자리를 잡게 한것이였다.

조정에서 세도를 부리는거나 머리수나 재력으로 보아도 다른 4개의 부를 합친것보다 결코 작지 않은 연나부인것으로 하여 연나부의 평자는 보다 큰 인물들이 맡아하였다.

큰 인물이 아니고서는 대대로 세도를 부려온 연나부사람들을 다스릴수 없었던것이다.

이때문에 을파소는 연나부를 맡길 인물을 고르는데 보다 심중하지 않을수 없었고 그래서 아직도 자리가 비여있는것이였다.

《아직 적당한 사람이 나서지 않았기에 연나부의 평자만은… 맞춤한 사람을 고른다는게 참 헐치 않소이다.》 하고 을파소가 탄식하니 발기가 정색해서 말했다.

《혹시 제가 한사람을 천거해도 되겠소이까?》

을파소는 진심으로 반가왔다.

《어서 말씀하소이다.》

《저… 연나부태생으로 연가성을 가진 연량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은적이 있소이까?》

늙었어도 비상한 기억력이 변함없는 을파소는 연나부출신의 귀족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들중에서 그런 사람의 이름을 본 생각이 났다.

체격이 크고 온순하며 임금의 증조외할머니와 친척이 된다는 그는 좌가려네 패당과 담을 쌓고 살아온 사람이였다.

연량리는 본명이 아니고 별명이였다. 한때 벼슬을 살면서 아주 어질게 백성들을 대해주어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 그것이 그만 이름처럼 굳어져 오늘은 그의 본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도 연량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아, 생각나오이다. 나이는 마흔고개이고 역적무리를 미워한 사람

이 아니오이까?》

발기는 벼슬길에 오르지 않은 사람까지도 알고있는 을파소앞에 탄복해마지 않았다.

《바로 맞혔소이다. 국상어른은 정말… 사실 연량리 그 사람은 역적들의 음모를 나에게 알려준 충신이오이다. 아는것도 많고 불의를 미워하는 인재이니 아마 연나부를 맡기면 국상어른을 크게 도울수 있을것이오이다.

성인도 좋은 때를 만나 재상의 지위에 올라야 인재를 찾아낼수 있다는 옛말이 국상어른을 념두에 두고 생긴게 아니겠소이까.》

을파소는 저으기 놀라왔다.

떠도는 말이 발기는 무술에는 능해도 글에는 어둡다는데 옛글을 척척 외우는걸 보니 단단히 잡도리를 하고 찾아온것 같았다.

《국상어른, 한번 만나보고 마음에 드시면 써보는것이 어떻소이까?》

을파소는 발기의 의견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되였다.

《아직은 그 사람에 대해 아는것이 적어서 딱히 마음을 정하지 못했더랬는데… 전하의 말씀대로 꼭 만나보겠소이다.》

기뻐하는 을파소를 건너다보며 발기는 속으로 환성을 질렀다.

을파소를 해치지 못해 몸살을 앓던 발기가 허리를 굽히고 찾아온 데는 음흉한 속심이 있어서였다.

우소의 충동질에 넘어가 을파소를 모해하였건만 오히려 국상이 되니 생각이 달라졌다.

자기가 아무리 임금의 동생일지라도 임금의 뜻에 어긋나게 군다면 가차없이 처형할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쥔 국상과 덧났댔자 리익을 볼것은 아무것도 없었던것이다.

그럴바치고는 을파소와 손을 잡는것이 장차 크게 유익할것이였다.

그것은 자식이 없는 임금의 병이 점점 심해지고있으니 오래 살지 못할것은 뻔하였기때문이였다.

때문에 임금이 돌아가면 바로 발기자신이 룡상의 주인이 되여야 하는것은 명백한 일인것이다.

하지만 국상의 눈밖에 난다면 그게 성사된다고 장담할수 없었다.

그래서 이전과 달리 을파소의 환심을 사려 병문안을 온 발기였다.

발기가 또 한가지 노리는 점은 자기의 먼 친척간이고 누구보다도 친한 연량리를 연나부의 주인으로 만드는것이였다.

그전부터 작은 조정으로 불리우는 연나부를 틀어쥐면 앞으로 을파소를 제거해야 하는 때에 그들을 요긴하게 써먹을수 있을것이였다.

볼장을 다 보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발기의 음흉한 속심을 알리없는 을파소는 기쁜 마음으로 그를 대문밖까지 나가 바래주었다.

발기를 바래주고 돌아서려는데 언제 나타났는지 안류의 부하가 절을 하는것이였다.

이어 그는 밀봉한 문서를 내밀었다.

《중외대부어른께서 국상어른께 전하라 하였소이다.》

을파소가 문서를 받아드니 그는 다시 절을 하고 돌아갔다.

병치료에 방해가 될세라 제기되는 일을 문서로 보내주는 안류의 마음에 을파소는 눈굽이 쩌릿하였다.

《원, 사람두. 벗을 만나는것이 제일 큰 효험인줄 모른다니까.》

방에 들어와 공문서를 읽는 을파소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의 입에서 느닷없는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어쩜 이럴수가 있단 말인가.》

(3)

며칠전 내부를 맡은 사인 극실기가 훔쳐가진 나라의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경군의 어느 군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바 있었다.

군장의 이름은 하려궁이고 과루부출신이였다.

좌가려네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군사를 거느리고 연나부로 쳐들어간 하려궁은 역적의 두목들과 그 일족을 붙잡아들이면서 좌가려의 집에서 백여근이나 되는 엽전을 제 집으로 가져갔다는것이였다.

역적들의 재산은 다 남의것을 빼앗아들인것으로서 나라의 재산이라고 할수 있었다.

을파소는 극실기에게 하려궁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라는 분부를 내리였다.

했더니 그가 그저께 다시금 하려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에 의하면 하려궁은 임금의 먼 친척이 되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재주는 없으나 조상의 덕으로 장수가 되여 걸핏하면 부하들을 못살게 굴고 재물욕도 많고 주색질에 과한자라는것이였다.

결국 파직시켜야 할 대상에 빼놓지 말아야 하는자였다.

임금의 령으로 쉬지 않을수 없게 된 을파소는 안류에게 그자를 법대로 처리하라는 공문서를 보내고 처소로 들어왔었다.

그런데 안류는 그자의 처리를 보류하는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공문서를 보내온것이였다.

공문서의 글은 이러했다.

어제 안류는 하려궁을 불러들이고 직접 문초하였다.

놀라운것은 그 돈을 발기가 상으로 주었다는것이였다.

하가가 군사를 거느리고 연나부로 쳐들어갔을 때 그를 통솔한 사람이 발기였다.

좌가려의 재산을 몰수한 발기는 상이라고 하면서 그 집의 돈고간에서 큰 궤짝에 담겨있는 돈을 궤짝채로 주었고 그래서 하가는 다른 사람도 아닌 임금의 동생으로부터 직접 받은 상이기에 내놓을수 없다고 도리여 큰소리를 쳤다는것이였다.

그것이 을파소를 격분시키였다.

역적의 재산은 예로부터 반드시 나라의것으로 만드는것이 상례이고 또 그때는 설사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상으로 받았다고 해도 오늘 나라에서 내놓으라고 하였으면 그 령을 따라야 하지 않는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법비법으로 긁어들인 남의 재물을 다 반환하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류는 하가를 구류하기는커녕 집으로 돌려보

냈으며 이 사건을 덮어두자고 하니 답답한 일이였다.

원, 사람두. 그렇게 대가 약해가지고서야 어찌 정사를 바로해나갈 수 있단 말인가.

을파소가 보건대 안류 역시 자기처럼 마음이 여린게 탈이였다.

《국법을 쥐고 악을 짓부신다는 사람이 그렇게도 우유부단해가지고서야…》 하고 탄식하던 을파소는 안류에 대한 불만감을 삭이였다.

이제 겨우 조정을 바로잡는 첫걸음을 뗀데 불과한 처지에 다른 사람도 아닌 임금의 동생과 마찰이 생길가봐 안류 그 사람이 걱정하지 않을수가 없지.

을파소는 크게 숨을 들이켰다.

내가 누구인가? 국상이다.

국상의 자리는 타고난 나의것이 아닌 바로 임금이 세워준 자리이다.

결국 나의 목숨은 임금의것이라 내 무슨 리속을 헤아려 꼬리를 사릴수 있단 말인가.

임금을 받들어 조정을 쇄신하자 나섰으면 그가 누구이든 굴복할 수 없다.

강심을 먹은 을파소는 방문을 벌컥 열었다.

《게 누구 없느냐?》

인우가 얼른 달려왔다.

을파소는 인우에게 일렀다.

《자네 중외대부에게 지금 당장 하려궁을 잡아들이고 래일 아침 나에게로 압송시키라고 이르게.》

《알겠소이다.》

그길로 임금을 찾은 을파소는 하려궁을 심문하라는 승낙을 받았다.

이튿날 관가로 나온 을파소는 아직은 맵짠 바람이 부는 늦겨울이건만 뜨락에 심문청을 차리게 하였다.

을파소가 상좌에 나앉으니 안류를 비롯한 관리들이 그 량옆으로 벌려서고 이어 피고석에 형리들에게 끌려나온 하려궁이 꿇어엎드렸다.

하려궁은 30대의 사나이로서 인물이 어느 하나도 흠잡을데 없이

잘난 미남자였다.

참, 인물이 아깝구나 하고 속으로 탄식하고난 을파소는 낮으나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좌가려의 집에서 많은 돈을 가졌다는게 사실이냐?》

하가는 별걸 다 따지고든다는 태도인지 대답이 건방지기 짝이 없었다.

《굳이 이렇게 차린 마당에서 따져야 옳소이까. 이미 말했지만 또 따지고드니 대답을 피하리까. 가져갔소이다. 하지만 그건 발기어른께서 상으로 주신것이오이다. 그래도 내놓으라 하겠소이까?》

뻔뻔스러운 하가의 태도에 을파소는 격해서 소리쳤다.

《역적의 집에 쌓여있는 재물은 모두가 나라의것이다. 나라의것을 나라에 바치라고 했으면 바칠것이지 무슨 허튼소리이냐? 그래 그 돈을 네 손으로 곱게 바치겠느냐 아니면 못되게 뻗치겠느냐?》

을파소의 최후통첩에 하려궁은 수그러드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전하께서 주셨으니 그 어른께서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는 바칠 수 없소이다.》

그 말에 을파소는 바느질을 하다가 손끝을 찔린듯 흠칫 놀랐다.

저런 놈 봤나, 저놈은 나라의 법도 안중에 없이 오직 발기를 섬기겠다는 뜻이 아닌가. 저놈의 배속에도 역적의 마음보가?!…

을파소는 하가를 후려칠듯 사나운 눈길로 쏘아보았다.

《그럼 넌 나라의것을 나라에 바치라고 한 임금의 령을 따르지 않겠다는거냐?》

하가는 뻣뻣해서 대들었다.

《난 발기어른과 임금님을 떼여놓고 생각해본적이 없소이다. 그래 이것을 죄라고 하겠소이까?》

을파소는 비로소 대대로 권세를 누려온 대가집에 태를 묻은 하가에게는 세상리치가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깨달았다.

이런자들은 불의한짓의 불의함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또 알수도 없는것이다.

을파소는 손가락으로 하가를 겨누었다.

《한지붕아래 두 아비가 있을수 없고 나라에는 두 임금이 있을수 없다. 임금님앞에서는 그가 설사 임금의 동생일지라도 한갖 신하일뿐더러 무슨 괴이한 수작이냐.

이제라도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돈을 가져다 바치면 용서를 받을것이지만 끝끝내 버틴다면 목이 무사치 못할것이다. 알겠느냐?》

그 말에 미칠듯이 화가 난 하가는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대들었다.

《그래 나를 죽인다면 국상어른이 무사할수 있다고 생각하오이까? 어의들의 말이 임금님께서 몸이 편치않으시다는데 바로 이러한 때 누구보다도 나라를 받들려 하는 발기전하를 한갖 신하라고 하는건 너무하오이다.》

을파소는 주먹이 떨리였다.

을파소도 요즘 어의들을 통해서 임금이 겉보기와 달리 속병이 아주 심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래서 임금의 병을 고칠 대책을 시급히 세우려고 하는중인데 저 놈이 여느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될 그 내막을 감히 이런 자리에서 지껄일줄이야. …

안류도 격해서 소리쳤다.

《너 이놈, 여기가 어데라고 언감생심 그런 미친 수작이냐. 너 같은 못된놈이 어데 있는가 말이다.》

너무도 격분하여 숨조차 내쉬지 못하였던 을파소는 오늘 자신이 벼슬길에서 처음으로 가장 극단한 형벌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절감했다.

어쩜 군사를 거느린 군장이라는자가 임금의 병을 고쳐드릴 마음은 없고 잘못될것만 생각하고있으니 저런 놈이 바로 역적중의 상역적이 아니고 뭔가?!…

하가를 쏘아보는 을파소에게서 벽력같은 목소리가 울렸다.

《너의 본심이 그다지도 못되지 않았더라면 집으로 돌아갈수 있었으련만…》

을파소는 문득 입을 다물었다.

극단한 경우에도 한번 더 돌이켜보라는 말이 생각난때문이였다.

만일 하가를 죽인다면 발기가 어떻게 나오겠는가?!… 그가 진심으로 자기를 임금의 신하라 여긴다면 별일이 없을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앙갚음하려들것이다. 발기가 룡상에 오르는 그날 우리모두가 죽음을 당할수도 있다.

아니, 이 무슨 망녕된 생각인가. 내 기어코 임금의 병을 고쳐드려 태묘사직을 지켜낼테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저놈이 발기가 누구보다도 임금을 받들려 한다고 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시 발기가 역모를?…

성정이 악하고 탐욕스러운 발기이고보면 룡상을 넘보지 않는다고 장담할수는 없다.

발기가 감히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놈을 죽여야 한다.

임금이 나를 믿고 국상으로 내세워주었는데 그 권한으로 나라를 해치려 하는자들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거기에 무슨 보답이 있다고 하겠는가.

죄를 엄하게 다스리지 않을바에는 차라리 그만두는편이 낫다는 말도 있거니 내 무엇을 망설인단 말인가.

을파소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렬녀는 두 지아비를 모르고 충신은 두 임금을 모른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충신은 오로지 한 임금만을 따라야 하는거다. 그런데 너는 임금의 신하를 신하가 아니라고 우기고있으니 어찌 살아 숨을 쉴수 있겠느냐.

나라의 후환을 없애야 하겠기에 널 죽여야겠다. 이놈을 즉시 형장으로 끌어내다 목을 쳐라.》

설마하니 하가를 죽이기까지야 하겠는가 하고 생각했던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하가도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이미 국상의 분부가 내려졌으니 누구도 그 령을 되돌려세울수 없었다.

때늦게야 죽음앞에서 절망에 사로잡힌 하가는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하가는 곧 형장에 끌려가 목없는 귀신이 되여버렸고 이 소식은 그날로 온 도성에 짜했다.

(4)

《을파소가 지성으로 나라일을 받들어 바른 정사에 힘쓰고 상과 벌을 신중하게 처리하니 민심이 안정되여 안팎으로 무사할수 있었다.》(《삼국사기》 권 제45 렬전 제5)

생각밖에 하려궁을 죽이지 않으면 안되였던 까닭을 을파소에게서 보고받은 임금은 대단히 만족해하였다.

을파소가 결기와 대담무쌍한 기백이 부족한 늙은이임을 알면서도 굳이 대담하게 쓴것은 정사에 대한 옳은 주견과 남다른 학식을 가진 그때문만이 아니였다. 을파소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보기 드문 의로움을 귀중히 여기는 굳센 마음을 알아보았기때문이였다.

의로움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은 비록 성미가 유순해도 불의한것을 보고 참지 못하는 그것이 있기에 을파소는 악독한짓을 한 친동생도 처형할수 있은것이였고 오늘은 또 국법을 어긴자들을 가차없이 쓸어버리는것이 아닌가.

이로써 임금은 을파소가 있는 한 조정의 쇄신은 물론 국력도 높아질것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였다.

반면에 제우에 누가 있으랴 하며 기고만장해서 조정을 우습게 여기던 왕족과 그 친척들은 임금의 뜻을 거스른다면 그가 누구이든 무사치 못하다는것을 알고 나라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 사건으로 누구보다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발기였다.

류류상종이라고 욕심꾸러기가 탐욕스러운자와 통하는 법이다.

하려궁이 재물욕이 심하다는것을 안 발기는 그를 끌어당기기 위해 엄청난 량의 돈을 상이라고 주었던것이다.

세력을 꾸리는데서 왼팔이나 오른팔로 삼으려 했던 하려궁이 발기 자기를 임금의 한갖 신하가 아니라는 말을 했다고 하여 역적으로 몰려 목을 잘리웠으니 복통이 터질노릇이였다.

하려궁이 형틀에 목을 올려놓았을 때 발기어른의 세상이 오면 국상까지도 무사치 못할거라고 꿰쳤다는데 정말 룡상의 주인이 된다면 제일먼저 을파소부터 목을 치리라 윽별렀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의 일이고 지금 당장이 문제였다.

불충불의한자는 설사 제 친동생이라 해도 결단코 용서치 않는 을파소와 엇나는 날에는 룡상의 주인은커녕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당할것이였다.

하는수없이 속에 칼을 품은 발기는 국상이 하가를 처형한것은 아주 잘한 조치라는 글을 써서 임금에게 올리였다.

이것이 또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로써 충신들은 임금의 뜻을 받들어가는 국상을 더욱 신뢰하게 되였고 딴꿈을 꾸던자들은 겁에 질려 거짓열성이라도 내여 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날이 갈수록 을파소가 주도하는 조정의 정사는 사람들의 좋은 화제거리로 되였다.

썩어빠진 연나부것들때문에 골병이 든 조정을 바로잡으려 탐욕의 무리를 몰아내고 불충한자를 가차없이 처형하는 을파소의 과단한 정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통쾌하고 신바람나는 이야기거리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억누르고 탐욕을 부리던자들이 벼락을 맞으면 제일로 기뻐한다.

이로써 나라에는 이전과 달리 기강이 서고 바른 정사를 감히 내놓고 맞서는자가 없게 되니 국력이 날로 강해졌다.

더불어 동족의 나라들에 갔던 여러 사신들이 화친의 정을 두터이 한 자랑을 안고 돌아왔다.

이제는 후한과 엇서고있는 선비족과 흉노를 거쳐 머나먼 안식국에 사람을 보내는 일만이 남아있었다.

을파소로서는 거치른 사막과 험산준령을 뚫고 그들을 찾아가는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수 없었다.

동족의 나라들을 다녀온 사신들은 대개 늙고 지치였기에 그들속에는 적임자가 없었다.

젊고 문무를 갖추었을뿐아니라 매사에 주도세밀하고 언변술이 뛰여난 동시에 지체가 높아야 고국을 멀리 떠나 고군독전을 해야만 하는 중임을 감당할수 있을것이였다.

적임자가 누구일가?

을파소는 바쁜 속에서도 자나깨나 나라의 안전과 관련된 일에 관심을 놓치지 않고있었다.

벌써 여러차례나 양평의 정우와 바호에게 인우를 보내여 후한군의 움직임을 알아옴으로써 정보를 아주 유용하게 써먹었다.

후한군이 고구려군의 전투력을 타진할 심산으로 변방을 치려 한다는 정보를 즉시에 우거장군에게 전해주어 단매에 쳐부실수 있게 한것이였다.

그와 함께 발기의 준동에 대처하여 부하들에게 그의 일거일동을 언제나 살피도록 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이 나날 을파소는 자신이 아주 큰것을 놓치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임금의 신상에 관한 문제였다.

힘장사라 할만큼 체격도 우람하고 한창나이의 임금이 골병에 든탓으로 몸이 쇠약해지고있는것을 걱정이나 했을뿐이였다.

임금이 현명하지 못했다면 이 을파소의 오늘이 있을수나 있는가. 현명한 임금이 있기에 고구려의 전도가 밝아졌다는것을 잊다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임금의 룡체를 길이 보전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어의들에게만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기여서는 안된다. 전국의 명의들을 다 불러들여 임금의 병을 보게 하는것이 어떨가?

명의라 할지라도 지닌 재간이 사람마다 다르기마련이다.

을파소는 곧 고향의 명의로 알려진 의신을 생각해냈다.

죽을병에 든 병자를 살려낸 그가 아닌가.

을파소는 즉시 부하들에게 서압록고을의 의신을 불러들이라는 령을 내리였다.

(5)

그 다음날 고구려의 기나긴 변방을 빠짐없이 돌아본 고우루가 국상을 찾아왔다.

몇달동안 보지 못했던 고우루가 찾아오니 을파소는 너무 기뻐 눈물이 글썽해졌다.

여러해동안 헤여져있던 친자식을 만난 심정이라고 할가.

을파소는 살구꽃이 만발한 후원으로 고우루를 이끌었다.

《우리 시원한 이곳에서 이야기를 나눕세. 허ㅡ 난 요즘 절기가 바뀌여지는줄도 모르겠다니까.》

정말 그랬다.

을파소에게는 집을 떠나온 한해가 10년처럼 아득하게 여겨졌다.

어찌나도 바삐 돌아가는지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어떻게 가고 봄이 왔는지 모를 정도였다.

그래서인지 화창한 새봄이 신비롭기만 하였다.

고우루는 지난해보다 눈에 뜨이게 늙은 을파소를 바라보며 말했다.

《국상어른께서 발기어른이 천거한 연량리에게 연나부를 맡기였다고 하는데… 전 그게 마음에 싸지 않소이다. 제 보기엔 발기어른이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고 야심도 많은것 같소이다.》

을파소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전 을파소는 연량리를 만나본 후 임금에게 상주하여 그를 연나부의 평자로 임명했다.

연량리를 쓰는데서 을파소는 편견을 두지 않았다.

만나보니 연량리는 학식도 있고 정사에 대한 옳은 견해도, 사람들을 통솔할만 한 손탁도 있어보였다.

잘만 이끌어준다면 장차 조정대신으로도 쓸만 한 인물이였다.

그러나 발기가 추천한 사람이다보니 사실 쓰고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다.

하가가 감히 발기를 임금에 견준것은 평소에 발기가 자기를 임금에 비기였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였다.

임금이 병에 들었다 할지라도 정사를 보고있는데 벌써 룡상을 넘볼수 있겠는가. 임금이 왕위를 넘겨줄 후임을 정하지 않았건만 룡상을 탐낸다면 발기는 조정의 적이라 할수 있는것이다. 그래서 그의 움직임을 살피는것이고 만일 움쩍하려 한다면 가차없이 짓뭉개버릴것이였다.

이런 마음인 을파소가 연량리를 쓰기로 결심한것은 아직도 연나부를 맡길만 한 다른 사람을 찾지 못했기때문이였다.

솥이 검기로서니 밥까지 검을소냐 하는 말도 있듯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추천했다고 해서 다 심보가 고약하지는 않을것이였다.

을파소는 속이 좋지 않아하는 고우루를 바라보며 웃었다.

고우루는 이모로 보나 저모로 보나 장수로서 나무랄데가 없었다. 병법에도 무술에도 밝은 그런 재주는 그만두고 무엇보다 듬직하고 씩씩하고 결패있는 그의 성미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 이런 사람은 잘만 이끌어주면 큰일을 할수 있어.

《이 사람, 인재가 바른 이때 쓸만 한 사람을 그냥 두고 인재가 없다고 하겠나?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남을 천거하는데서는 설사 원쑤진 사람일지라도 나라를 위해 쓸모가 있다면 마다하지 말라고 하였네. 난 군사에 통달한 자네가 있으니 배심좋게 정사를 내미는거네. 그건 그렇고 자네 일은 어떻게 돼가고있나?》

고우루는 팔소매에서 비단천을 꺼내 펼치였다.

지도였다.

《국상어른의 뜻대로 되였는지 모르겠소이다.》

전국의 모든 성들은 물론 새로 쌓을 성들과 보자(경비초소) 그리고 고구려군의 배치정형이 표시된 지도였다.

지난해 을파소는 국상으로 되기 바쁘게 고우루를 불러들여 전국의 모든 성들을 보다 든든히 고쳐쌓고 동시에 요해처들에 새로 성을 만들며 전시에 대처하여 작전안을 일신시킬데 대한 분부를 하였었다.

을파소가 국상으로서 자나깨나 가슴속에 묻고있는 지론이 있었으니 그것은 적이 쳐들어오지 않으리라는것을 믿지 말고 나라방비에 빈틈이 없게 하는것만을 믿으라는 격언이였다.

그때문에 고우루는 그동안 변방을 돌아본것이였다.

이제 구체적인 타산이 서면 온 나라를 동원하여 성을 개축도 하고 새로 쌓는 공사도 크게 벌릴 작정이였다.

후한과 접하고있는 수백리 변방에도, 서해의 수백리 해안가에도 새로 쌓아야 할 성의 위치가 표시되여있는 지도를 한동안 들여다보던 을파소는 만족해하였다.

《정말 품을 들인게 알리네. 헌데 두군데를 놓치였구만.》

을파소를 스승으로 여기는 고우루는 공손하게 대꾸했다.

《가르침을 주소이다.》

을파소는 지도에서 후부여와의 국경일대를 가리켰다.

《이곳에도 성들을 쌓고 대군을 주둔시켜야 하네.》

고우루는 의아한 기색이였다.

《후부여야 동족의 나라이고 또 우리가 어찌할가 하여 두려워하는데 그럴것까지 있겠소이까?》

고우루로서는 그렇게 생각할만도 하였다.

겨레의 모든 강토를 하나로 합치리라는 큰뜻을 품은 동명성왕이 고구려를 세우고 령토를 넓혀나갈 때부터 그에 한사코 반기를 든 나라가 부여였다.

북방의 광활한 강토를 차지하여 동족의 나라들에서 령토가 가장 큰 부여는 군력도 제일 강했다.

그것을 믿고 부여임금은 대군을 내몰아 고구려를 요람기에 먹어치우려고 하였다.

그때문에 고구려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다.

여러차례 부여군의 침입을 물리친 고구려는 4대임금인 대주류왕때 드센 반격을 들이대여 부여임금을 쳐이기고 그를 속국으로 만들었다.

속국이였던 부여에서 수십년후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세력은 멀리 북쪽으로 가서 후부여를 세웠다.

후부여는 고구려가 두려워 변방에 대군을 주둔시키였으나 감히 소란스럽게 굴지는 못하고있었다.

을파소는 북쪽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그곳에다 대군을 주둔시키자고 하는것은 후부여를 치자는것이 아닐세. 지금은 동족의 나라들과 다툴 때가 아닐세.

우린 적을 치고 그것들에게 빼앗긴 조상의 땅을 되찾아야 하네.

군력이 약한 후부여를 후한도 선비족도 넘보고있네. 그러하기에 우린 후부여의 가까이에 정예군을 주둔시켰다가 전란이 일어나는 경우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네. 그렇게 해야 동족의 나라들을 더 빨리 귀속시킬수가 있네.》

을파소는 감탄해마지 않는 고우루의 손을 잡고 남쪽으로 돌아섰다.

《또 하나는 자네가 패수(대동강)를 낀 박달임금님의 왕검성(평양)을 중시하지 못하고있는거네. 우린 마땅히 왕검성을 크게 일떠세워야 하네.》

을파소는 젊었을 때 외적이 기여들어 여러 고을들을 파괴하였던 그때를 그려보았다.

나라가 강하지 못하였다면 그때 파괴되였던 고을들이 다시 일떠서지 못하였을것이고 또 평양이 오늘까지도 소국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것이다.

《저 남쪽의 서해로 기여드는 적의 침노를 막자고 해도 그래, 패

수남쪽의 나라들을 귀속시키자고 해도 그래 우린 평양에 더 크게 성을 쌓고 대군을 주둔시켜야 하네.》

흥분한 고우루가 부르짖었다.

《잘 알았소이다. 국상어른의 분부대로 평양을 잊지 않겠소이다.》

을파소는 서쪽으로 돌아섰다.

《만약 외적이 대부대로 쳐들어오는 경우 자넨 어떻게 막을 생각인가?》

고우루는 지도에서 서쪽에 있는 신성을 가리켰다.

신성은 후한이 차지한 료동의 현도군과 대치하고있는 고구려의 변방고을이였다.

《적군은 앞으로도 반드시 이쪽을 거쳐 국내성을 치려 할것이오이다. 왜냐하면 이 길이 비교적 평지를 끼고있어 산악전에 서툰 적들로서는 속히 우리의 도성을 빼앗으려면 그렇게밖에 달리할수 없소이다.

우리로서는 변방에서 도읍까지 겨우 천리밖에 안되는것이 제일 큰 흠이오이다.

불의의 기습을 노리는 적군이 빠른 말을 타고 달려들면 며칠안으로 국내성을 에워쌀수 있소이다.》

고우루는 지도에서 비류수와 대량수를 가리켰다.

《그래서 전 이곳들에 새로 성을 쌓고 요긴하게 써먹자는것이오이다.

물론 적군에도 계략에 능한 장수들이 있을것이니 다른 길로도 쳐들어올수 있소이다. 그러나 고구려의 지형은 우리가 더 잘 아오이다.

전 적이 쳐들어올수 있는 길목들에 새로 성을 더 쌓고 정예군을 주둔시키는것은 물론 일단 적이 쳐들어오면 날랜 군사로 료동을 답새기겠소이다. 나아가서는 적의 도성도 때리겠소이다. 우리 땅에서만 싸우라는 법이 없지 않소이까.》

을파소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고우루의 궁냥은 결코 새로운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명장 부분노가 늘 쓰군 하던 유인기습전의 전법이고 지금껏 고구려군이 써온 수

법이였다.

《외적들이 우리 강토에 쳐들어올 때마다 써먹은 잔인한 전법이 뭐라고 생각하나?》

을파소의 질문에 고우루는 잠시후 대답했다.

《화공전이라고 생각하오이다.》

을파소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바로 그걸세. 그놈들은 우리의 마을들과 밭들과 산들과 도읍까지도 불태웠네. 사람도 강산도 재로 만들려고 하였네. 앞으로도 그놈들은 잔인한 화공전을 버리지 않을거네.

화공전을 꾀하는 그놈들에게 죽음을 안기자면 무슨 전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나?》

고우루는 숨만 길게 들이쉴뿐 대답을 못하였다.

《허ㅡ 수화상극이란 말 잊었는가?》

을파소가 튕겨주어서야 고우루는 부르짖었다.

《아, 수공전!》

고우루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적군이 쳐들어올수 있는 길목의 가까이에 강과 개울을 막아두었다가 물벼락을 안기겠소이다.》

을파소도 격해서 말했다.

《이 땅을 탐내여 외적이 기여들면 우린 그것들을 모조리 아예 씨도 없이 없애버려야 하네. 알겠나?》

《명심하겠소이다.》

이윽고 을파소는 꽃이 만발한 살구나무에 앉아 꼬리깃을 흔들며 지저귀는 한쌍의 제비를 쳐다보았다.

《이 사람, 인차 봄씨붙임이 끝날것이라 전국에 령을 내려 변방의 성들부터 개축을 해야겠네.》

고우루의 두눈이 둥그래졌다.

《아니, 김매기철인데도 말이오이까?》

을파소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겨울철을 기다려서는 안되네. 흉악한 외적이 잠을 자지 않고 우리를 넘보고있는데 한시라도 앞당겨야 하네. 천만가지 국사중에서 나라방위보다 더 급하고 더 무거운 일이 없으니 농사철이라고 마다하면 안돼. 농사는 녀인들과 늙은이들에게 맡기고 백성집장정들뿐아니라 부자집도 례외가 아닐세. 대가집일지라도 말이네.》

고우루는 통이 크고 과단하게 국사를 내미는 을파소앞에 고개가 숙어졌다.

(6)

을파소는 가슴을 조이고 임금의 병든 몸을 진찰하는 의신을 지켜보고있었다.

한평생 지금처럼 마음이 한줌만해서 병자를 진찰하는 의원을 지켜본적이 없는 그였다.

과연 어떤 답이 나오겠는지?!…

을파소는 어제 저녁 도성에 온 의신을 오늘 아침 대궐의 침전으로 데려왔다.

꼼꼼하고 침착한 의신은 주의깊게 임금을 살펴보고있었다.

여느 사람도 아니고 임금인데야 보다 더 그래야 할것이였다.

의신이 어찌나도 숨을 죽이고 살피는지 그를 지켜보는 을파소의 등골에서 진땀이 흘러내렸다.

임금의 푸르께하면서 컴컴한 얼굴색이며 부석부석한 눈두덩, 누르스름한 눈자위, 피기없이 터갈라진 입술에 이어 턱밑의 가슴부위에 나있는 검붉은 점들을 살피고난 의신은 병자의 밭은 숨결소리에 한동안 귀를 기울였다.

그와 함께 병자의 몸에서 나는 이상한 체취도 맡아보았다.

이윽고 병자의 입을 벌리게 한 의신은 혀의 색과 입안냄새를 맡아보았다.

그 다음 병자의 옷을 벗게 하고 잔등으로부터 가슴과 배에 이르기까지 눌러도 보고 만져도 보았다.

그것도 부족하여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에 이르기까지 살피였다.

한나절이 흘러서야 맥을 보는데 그것도 량손에서 다 보는것이였다.

맥까지 보고나니 벌써 정오가 되였다.

그동안 말 한마디 없었던 의신이 임금앞에 엎드려 입을 열었다.

《함부로 룡체를 건드려 죄송하오이다.》

임금이 빙그레 웃었다.

《그것은 의원의 할바이니 개의치 말라. 그래 짐의 병이 어떤가?》

의신은 곁에 선 어의를 가리켰다.

《대왕마마, 이분과 만나 알아볼것이 있사오니 하루 말미를 주셨으면 하오이다.》

《그렇게 하라.》

임금의 허락을 받은 의신은 어의와 함께 먼저 침전을 나섰다.

홀로 남아 요즘의 정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임금에게 아뢰이는 을파소의 정신은 의신에게 가있었다. …

꼭 하루만인 이튿날 정오에 의신은 을파소와 그가 일보는 관가에서 마주앉았다.

온밤 자지 못하고 어떤 답이 나올가 속을 태운 을파소는 가슴을 울렁이며 물었다.

《그래 어떤가?》

의신은 대답대신 한숨을 내쉬였다.

그것이 답답하여 을파소는 언성을 높이였다.

《도대체 어찌된건지 말해야 알게 아닌가?》

한참만에 의신이 기여드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너무 늦었소이다.》

그 말에 을파소는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뭐라구, 그럼 고칠수 없다는건가, 엉?》

고개를 떨구는 의신의 태도에 을파소는 자신이 너무 격했다는것을 깨달았다.

천천히 자리에 앉은 을파소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왕님의 몸이 그렇게 된것은 내탓일세.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는지. …》

《국상어른, 너무 념려마소이다. 소인이 나라를 위해 재주를 바칠 때가 오늘인것 같소이다.》

을파소는 기대감에 재촉했다.

《무슨 생각인지 어서 터놓게.》

의신은 가슴을 들먹이며 대꾸했다.

《우리 의원들에게 전해오는 말이 있는데 몸이 너무 쇠약해져 약을 먹을수 없게 된 병자, 음양과 5장의 기가 맞지 않는 병자는 병을 고칠수 없다는것이오이다. 물론 이 말은 의술의 신일지라도 부인할수 없소이다. 하지만 병자의 명을 좀 늘여줄수는 있소이다.》

을파소의 찌프렸던 미간이 좀 풀리였다.

《어서 말하게.》

《대왕님의 몸은 다됐소이다. 5장의 어느 장기도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제일 어려운것은 간이 상당히 굳어진것이오이다. 5장이 녹아나면 6부도 녹아나게 되여있소이다. 대왕님의 위는 붓고 헐어있소이다.》

을파소는 가슴이 아파 고개를 떨구었다.

임금이 어린시절 악독한 차대왕을 피해 산속에 숨어살 때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골병이 들었겠는가.

의신의 다음 말이 을파소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대왕님이 이만큼 살수 있은것도 어의들이 힘썼기때문이오이다. 어의들이 대왕님의 몸에 맞는 좋은 약을 써주었기에 한때 별로 앓지 않고 기력이 세찼던것이오이다.

그러나 날이 감에 따라 이미전에 몸에 침습했던 독기가 독을 쓰기 시작했소이다. 그런데 어의들이 석웅황이라는 약이 여느 약으로

말을 듣지 않는 경우 신비한 효험을 내는 그 점만 보던 나머지 그걸 좀 오래 썼던것이오이다. 석웅황을 오래 쓰면 오히려 몸을 망치게 되오이다. 맞춤한 비방을 찾아내지 못했으니 그걸 쓸수밖에 없었던것이오이다.

그래서 전 해독제와 함께 간이 굳어지는것을 지연시키는 약에 모를 박고 동시에 5장6부를 보해주는 비방을 쓰겠소이다. 이 비방은 약으로는 할수 없고 오로지 음식을 조화롭게 쓰는것이오이다.

며칠간 어의들에게 이 비방을 알려주고 돌아가겠소이다.》

그 말에 을파소는 속이 좋지 않았다.

병든 임금을 두고 가겠다니 이 사람도 사람인가. 무릇 비방을 씀에 있어서 그것을 깊이 터득한 사람만이 효험을 부리는 법이다.

《아니, 자네는 집으로 갈수가 없네.》

의신이 어리둥절해졌다.

《그건… 그건?…》

《오늘부터 자네가 어의를 맡아주어야 할것 같네. 난 자네가 대왕님께 충정을 다하리라 믿네.》

의신은 너무도 놀라서 입을 딱 벌렸다.

시골의원이 어의라니 웬 말이냐.

을파소는 벙글 웃었다.

《수일내로 자네 식솔들을 모두 데려오겠으니 마음놓고 대왕님의 병시중에 전심하게.》

감격한 의신은 목메여 부르짖었다.

《고맙소이다.》

이날로 을파소는 의신을 어의로 임명하고 그가 주동이 되여 임금의 병치료를 벌리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7)

봄씨붙임이 끝나기 바쁘게 전국에 령을 내려 성을 고쳐쌓는 공사를 벌려놓은 을파소는 여전히 후한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적정을 료해하는데서 후한의 양평에 박아놓은 정우와 바호뿐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리용하였다.

이해 정초에 적정을 전업으로 알아내는 렴탐부서를 내오고 거기에 남달리 학식도 깊고 머리를 쓸줄 아는 날랜 사람들을 골라주었다. 뿐더러 외국말을 잘 아는 사람들도 보내주었다.

그들중에서도 외국말을 잘하고 특별히 령리하고 붙임성도 좋은 사람들을 뽑아 후한의 도성에 급파했다.

물론 그들은 그곳에 발을 붙일수 있는 밑천을 넉넉히 가지고 떠나갔다.

지어 을파소는 발기가 준 금분까지도 그들에게 주어보냈다.

또한 여러명의 젊은이들을 료동으로 보냈다. 장사군으로 위장한 그들은 그곳에서 행상을 하면서 적정을 내탐할것이였다.

며칠전 그들에게서 소식이 날아왔는데 한결같이 후한의 대군이 료동에 집결하고있다는것이였다.

양평에 음식점을 차려놓은 정우네도 그와 같은 소식을 보낸것으로 보아 가까운 시일안에 적군의 침입이 있을것이였다.

성을 고쳐쌓는 일이 이제야 시작인데 적이 쳐들어오면 명백히 불리하였다.

어떻게 할것인가.

불리할수록 선손을 써야 한다고 이런 때 두가지 선택이 필요하였다.

적의 대군이 집결되고있는 료동을 선제공격하는것이 첫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대군을 변방에 들이밀어 적을 위압하는것이였다.

전자의 우점은 적의 주력을 사전에 섬멸해치울수 있고 불리한 점은 그것이 곧 보다 큰 전란으로 번져질수 있는것이였다.

반대로 후자의 우점은 싸우지 않고서도 전란을 막을수 있고 부족점은 코앞에 모여든 대적을 살려두게 된다는것이였다.

생각끝에 을파소는 후자를 택하였다.

보다 나라의 방비책을 원만히 세워놓고 싸워야 피를 적게 흘릴것이였다.

정예군을 우거장군에게 보내기로 결심한 을파소는 임금을 찾아갔다.

국상이 된이래 크고작은 모든 국사를 임금에게 아뢰이고 처리하는 원칙을 지켜오는 을파소였다.

아무리 국상일지라도 임금의 신하인데 임금이 병들었다고 하여 어찌 독단으로 국사를 결정할수 있단 말인가.

대궐을 찾으니 한결 얼굴색이 좋아진 임금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건강이 다소나마 회복된 임금의 모습에 을파소는 감격하여 눈물이 핑 돌았다.

좀더 일찌기 손을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을파소를 나무그늘로 이끌며 임금이 말했다.

《국상이 천거한 의원이 귀신은 귀신이요. 약은 그전의 반에 반도 쓰지 않고 끼식마다 요것조것 맛있는 별식들을 한상 가득 차려주는데 그게 뭐 음양의 조화를 다스리는 특식이라는거요. 그 덕에 요즘 몸이 한결 거뜬해졌소.》

을파소도 기쁨에 겨워 말했다.

《그게 다 대왕님의 덕망이 높기때문이오이다.》

임금은 을파소의 팔을 옆에 끼며 웃었다.

《아니, 내게 뒤늦게나마 국상복이 있기때문이요. 그대 같은 귀인을 너무 늦게 만난것이 야속할뿐이요.》

임금은 시종 웃으며 말했다.

《5부의 대가집사람들도 부역에 열성이라는게 사실이요?》

언제나 아래형편에 환한 을파소가 공손히 대답했다.

《대왕님께서 현명하시여 그들에게 하호의 수에 따라 일감을 나누어주게 하였으니 여부가 있겠소이까.》

달포전 을파소와 전국의 모든 성들을 든든히 고쳐쌓기로 의논할 때 임금이 대가들에게는 그 한몫이 아니라 하호의 수에 따라 공사량을 정해주라는 령을 내렸었다.

도성에만도 하호들을 부려먹고 사는 부자들이 만여명이나 되였다.

그들에게 매여사는 하호들이 쌀과 고기와 물고기, 소금, 남새 등을 가져다 바치는데 그로 하여 날마다 도읍의 거리들은 짐수레들의 통행으로 어느 하루도 번잡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연나부의 대가집들에 매인 하호만 해도 3만여명이라니 온 도읍의 작인들을 다 합치면 5만명도 넘을것이였다.

을파소가 임금의 령을 받들어 하호의 수에 따라 부자들에게 공사량을 나누어주니 그들도 부역장에 나가지 않을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공사를 걸써 대했다가 국상에게 걸리면 가혹한 벌을 면할수 없기에 열성을 낼수밖에 없는것이였다.

은행나무아래에서 걸음을 멈춘 임금은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을파소를 바라보았다.

《국상은 지낼수록 나의 부친같기만 하오. 내뒤에 만사에 환하신 부친이 있으니 무얼 근심하리오. 그런데 국상의 안색이 어두우니 내 마음도 좋지 못하오.》

사실 을파소는 오래 살수 없는 임금과 국사를 론할 때면 가슴이 아파 얼굴이 밝지 못하였다.

을파소는 웃어보이며 말했다.

《후한이 료동에 대군을 들이미는 형편에서 신의 생각에는 변방에 대군을 들이밀어 적이 움쩍하면 답새기겠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면 하오이다.》

《좋은 생각이요. 그런데 어디에서 대군을 뽑아보내겠소?》

《졸본에서 보내는게 좋겠소이다.》

《졸본이라…》

고구려의 이전 도성인 졸본에는 항시 만여명의 대군이 진을 치고 있었다.

임금은 을파소의 손을 꽉 움켜쥐였다.

《국상의 결심대로 하오. 도성의 철기군도 보내도록 하오.》

을파소는 목이 메여올랐다.

이 늙은것의 의견이라면 힘껏 떠밀어주는 임금을 모시였으니 무슨 일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8)

후한의 도성에도 찬바람이 불고있었다. 벌써 임신년(192년)의 한해도 다 기운것이다.

도성의 거리마다에서 람루한 옷을 걸친 백성들이 허기진 배를 그러안고 밥동냥을 하고있을 때 덩치큰 대궐에서는 어전회의가 진행되고있었다.

어전회의에는 조정의 권신들이 참가하였는데 그들속에는 조조라는 사람도 있었다. 보통키나 다부진 몸매, 밭은 목, 하지만 얼굴이 잘생긴 조조는 자신만만해하는 태도였다.

세상에 저보다 지혜롭고 재주있는 사람은 없다고 자처하는자이니 그럴만도 하였다.

마흔고개를 앞둔 조조의 관직은 기껏 동군태수 그리고 진동장군에 지나지 않지만 대군을 거느리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중의 하나였다.

조조가 임금이 아는 사람으로 된데는 대군을 거느리고 반란세력을 진압하는 싸움에서 공을 세운 덕이였다.

몇해전 대군을 끌고 도성으로 쳐들어와 조정을 거머쥐였던 동탁은 군국대사에서 어린 임금을 제쳐놓고 독판치기로 눈에 거슬리는 사람

들을 닥치는대로 죽이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원로대신들이 계책을 꾸며 동탁을 죽인 후 지방의 장수들에게 그의 무리를 족치라는 령을 내리였다.

이로써 전란이 터지고 어지러운 전란속에서 두각을 나타낸 장수가 조조였다.

오래전부터 권력에 야심을 품고있던 조조는 이때라고 군사를 이끌고 전란속에 뛰여들었다.

이미 황건폭동을 진압하는 싸움에서 언제 한번 패전을 모른 조조는 지략과 통솔력이 뛰여났던지라 어렵지 않게 동탁의 무리를 쳐이길수 있었다.

이 나날 대군으로 세력을 크게 기른 조조는 군력으로 조정을 끌어당김으로써 중요자리들을 차지한 대신들의 호감을 살수 있었다.

머지않아 후한의 조정은 문무를 겸비했노라 자처하는 조조의 세상으로 될것은 명백한 일이였다.

그래서 조조는 원로대신들의 추천으로 어전회의에 참가한것이였다.

후한의 조정이 중요한 국사를 론할 때마다 한가지 빼놓지 않는것이 있으니 그것은 고구려문제였다.

오늘도 례외가 아니였다.

후한임금의 스승인 태사의 관직을 가진자가 임금을 대변하여 입을 열었다.

《공들은 한나라의 5대황제이신 무제께서 왜서 동쪽의 나라를 치는 싸움을 벌리였는지 그걸 알아야 하오이다. 고구려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동쪽의 땅을 모두 빼앗아가질수도 없으며 높은 베개를 베고 발편잠을 잘수도 없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하오이다.》

늙은 태사에 이어 어린 임금을 바라보는 조조의 얼굴에 야릇한 웃음이 비끼였다.

그는 지금 속으로 코흘리개임금이라고 비웃고있었다.

동탁의 손에서 룡상을 차지하였다가 오늘은 또 동탁을 죽인 사람들의 손에서 꼭두각시로 놀아나는 11살 나는 임금이 우습기도 하고

불쌍해보이기도 하였다.

차라리 잘되였다, 저것에게 나이도 있고 세력도 있었다면 이 조조가 쉽게는 조정에 발을 붙이지 못했을게 아닌가고 속으로 딴꿈을 꾸고있는 조조는 이를 사려물었다.

이 자리에 모인 벼슬아치들치고 한나라의 류철이 조선으로 쳐들어간 그 일을 모르지 않는다.

까마득한 옛적에 동쪽땅에 큰 성인이 나타나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으니 그가 바로 박달임금이였다.

그때 박달겨레의 한갈래가 만리장성이 있기 전 그 이남의 강토를 차지하고있었다.

황하류역에서는 후날 중원의 시조가 된 헌원씨가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헌원씨는 세력이 커지자 그 일대로 쳐들어왔다.

위기에 처한 이 고장 사람들은 동족의 나라인 고조선에 구원을 청하였다.

하여 조정에서는 군사를 통솔하던 치우의 자손들에게 대군을 주어 동족의 강토를 지켜내라는 령을 내리였다.

아직은 중원이 알지도 못하는 청동투구를 쓴 젊은 장수들이 거느린 고조선군이 중원전장에 나타나자 전장의 형세는 그 즉시 역전되였다.

군사들의 머리는 어찌된것인지 칼에 맞아도 끄떡하지 않았다.

그때 그들은 군사들이 쓴 청동투구를 가리켜 동두철액이라고 비명을 지르며 무서워하였다.

동두철액이란 구리머리에 쇠이마란 뜻이였다.

숱한 주검을 내고 제 소굴로 쫓겨간 헌원씨는 젊은 장수들이 거느린 고조선군이 쳐들어올가봐 겁이 나서 발편잠을 자지 못했다고 한다.

저희들의 시조인 헌원씨를 본받아 동쪽의 나라를 탐낸 한나라 임금 류철은 자기의 선조인 류방이 항우와 싸우다가 궁지에 빠졌을 때

최정예의 기마군을 보내여 도와준 고구려의 은혜를 저버리고 박달겨레의 강토에 쳐들어간것이였다.

그때부터 시작된 싸움은 지금도 그치지 않고있었다.

후한임금이 태사에게 물었다.

《요즘 고구려의 형편이 어떠하오?》

태사가 말했다.

《지금 고구려에선 을파소라고 하는 큰 인물이 국상이 되여 조정을 쇄신하고 나라방비를 내밀고있다 하나이다.

온 나라가 국상의 령을 잘 받든다고 하니 장차 고구려가 더 큰 우환거리가 될것 같소이다.》

임금이 구원의 눈길로 조조를 바라보며 물었다.

《고구려가 이러하다니 그들과 싸워야겠소?》

조조는 인차 입을 열지 않았다.

꾀를 잘 쓰는 조조는 중원의 강한 적수인 고구려의 형편에 누구보다도 환했다.

조조는 고구려의 형편을 내탐해오는 일을 전업으로 하는 많은 렴탐군들을 수하에 가지고있었다.

이윽고 조조는 뜨직뜨직 입을 열었다.

《제노라 하는 성현일지라도 좋은 기회를 스스로 만들수는 없다는 말이 있소이다.

우린 근래에 고구려와 싸워 이길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소이다. 고구려에서 연나부의 대가들이 반란을 꾀하면서 민심을 망쳐놓았을때와 그것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가 바로 고구려로 쳐들어가 이길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소이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친것은 동탁의 무리들때문이였소이다.

이젠 때가 늦었소이다. 그사이 고구려임금이 을파소라는 인물을 대담하게 국상으로 등용하였소이다.》

처음 듣는 그 말에 후한임금은 두눈이 퀭해졌다.

《을파소란 대체 어떤 사람이요?》

임금의 질문에 받은 목을 빼든 조조는 심중한 어조로 대꾸했다.

《신은 고구려의 을파소를 강태공에 비길수 있는 인걸로 생각하오이다.》

그 말에 깜짝 놀란 모두가 두려운 눈길로 조조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강태공과 같은 인재가 있단 말인가.

강태공은 중원의 력사에서 몇손가락에 꼽는 뛰여난 사람이였다.

그의 본이름은 강망인데 기원전 11세기 중원에는 노예소유자국가인 상나라가 있었다.

상나라의 마지막임금인 주왕은 포악무도할뿐더러 주색잡기에 미쳐날뛰였다.

이웃종족을 쳐이기고 얻은 미녀 달기를 왕비로 삼은 주왕은 그에게 푹 빠져버리였다. 어찌나도 빠졌던지 달기를 웃긴다며 백성들에게서 마구 빼앗아들인 재물로 도처에 놀이터를 만들고 그야말로 주지육림 즉 술로 늪을 삼고 고기를 걸어 숲을 이루게 하였다.

이로써 그의 곁에는 간신들이 욱실거리였고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게 되였다.

이러한 때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고 악행을 일삼는 폭군을 들어낼 뜻을 품은 강망은 중원의 각지를 돌아다니며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위인을 찾던중 늙마에 위수가에서 낚시질로 세월을 보내고있었다.

그때는 마침 주왕을 원쑤처럼 미워하는 희발(후에 주나라 무왕)이 주족의 호걸로서 천하를 가질 야심으로 자기의 뜻을 받들만 한 모사를 찾는중이였다.

우연히 위수가에서 낚시질을 하는 강망을 만난 희발은 나라를 바로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케 하는 비결과 병법에 대한 대화를 가지였다.

주로 희발이 질문을 하고 강망이 대답을 하였는데 바로 이들의 대화를 후날에 적어놓았다고 하는것이 중원의 유명한 병서로 일러주는 《륙도》였다.

강망의 식견에 탄복한 희발은 그를 스승으로 삼고 군사를 일으켜 상나라를 멸망시키였다.

강태공이 아니였다면 어찌 주무왕이 상나라를 꺼꾸러뜨리였겠는가.

이러한 강태공에게 고구려의 을파소를 비긴다니 임금도 대신들도 놀라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조조가 을파소를 강태공에게 비긴것은 고구려의 조정을 어렵지 않게 쇄신해나가는 그의 뛰여난 수완에 탄복했기때문이고 한편으로는 자기를 내세우고싶었기때문이였다.

앞으로 을파소를 압도하고 고구려를 무너뜨린다면 조조 자기는 강태공보다 뛰여난 인물로 찬양받겠기에 그런 말을 한것이였다.

조조는 오로지 자기만이 고구려의 을파소를 당할수 있는 중원의 인재라는 배심으로 어린 임금을 굽어보며 입을 열었다.

《폐하, 을파소는 국상으로 되기 바쁘게 전국을 휘동하여 이미 우리와 싸울 차비를 다 갖추어놓았소이다.

변방에는 고구려의 이름난 장수들이 나와있고 고구려임금이 제일 아끼는 철기군까지 진을 치고 성들도 고쳐쌓았다고 하니 이런 때 싸우자고 하는것은 섶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격이오이다.》

코흘리개 어린 임금이 우는소리를 하였다.

《큰일났군. 료동태수 공손도는 20만군사만 주면 고구려를 쳐없앨수 있다고 하던데 조정의 대신들은 왜 이 모양인가?》

조조는 부아가 치밀어올랐다.

코흘리개임금이 공손도를 거드는것은 바로 조조 자기를 꾸짖지 못해서 하는 소리임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조조는 공손도쯤은 개, 돼지로 여기는 사람이였다.

그는 불원간 고구려와의 힘겨루기가 자기와 을파소와의 겨루기로 될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만큼 조조는 자기가 임금까지도 줌안에 넣고 쥐락펴락하는 실권자가 될것임을 의심치 않고있었다.

하지만 간특한 조조는 이런 속심과는 달리 공손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동안 공손도는 여러번이나 고구려의 변방을 건드렸다가 군사만 잃었소이다. 공손도는 을파소의 상대가 못되오이다. 그러니 공손도에게 20만대군을 주는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오이다.》

조조는 득의양양한 기세로 원로대신들을 둘러보고나서 말을 이었다.

《알아보니 고구려임금은 앓고있고 국상이 모든 군국대사를 주관하고 지어 시골의 정사까지 살피느라 밤늦도록 일을 한다고 하오이다. 지나치게 무른 쇠는 쉽게 구부러들고 지나치게 굳은 쇠는 쉽게 깨진다고 하였소이다.

고구려의 국상이 지나치게 강직하여 소소한 일까지 붙안고 마음을 쓴다니 늙은 몸이 오래 견디지 못할것이오이다.

자고로 큰일은 억지로 되지 않고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하였소이다.

폐하께서는 공손도더러 고구려의 변방을 소란하게 만들라 령을 내리고 정예한 대군을 마련해두었다가 을파소가 쓰러질 때 고구려를 치시오이다. 그러면 반드시 이길수 있소이다.》

조조의 의견을 모두가 두손을 들어 지지하였다.

이로써 후한조정은 모든 힘을 기울여 고구려와의 싸움준비를 갖추는 일에 달라붙었다.

(9)

새해 계유년(193년)에도 을파소는 여전히 긴장하게 국사에 전심하고있었다.

새해벽두에는 변방성들의 개축공사가 끝난것과 관련하여 을파소는 각 고을의 우두머리들과 조정대신들의 모임을 열고 그를 총화하였다.

모임에서 을파소는 공사를 걸써 대한 관리들의 목을 떼고 새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였다.

이어 나머지 성들의 개축공사를 분담해주고 다음해 씨붙임전으로 공사를 끝낼데 대한 령을 내렸다.

성들의 개축공사가 끝나면 새로 성을 쌓는 공사를 벌릴것이였다.

모임에서 또 한가지 강조한것은 민가는 물론 관가들에서도 말기르기를 보다 널리 하도록 해야 한다는것이였다.

이는 군마를 넉넉히 마련하는데서 반드시 필요한것이였다.

임금을 찾아뵈온 을파소는 올봄에 예로부터 해오던 사냥경기를 크게 열것과 지방들에서도 철기군을 무을데 대한 의견을 아뢰였다.

임금이 그의 의견을 지지해주었음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임금의 허락을 받은 을파소는 철기군을 뭇는 일을 내밀었다.

철기군을 늘이는데서 제일 걸린것은 군마들에 씌울 말갑옷과 마면갑이였다.

사람과 말이 화살에 맞아도 견딜수 있도록 쇠판을 두른 군사를 가리켜 철기군이라고 하였다.

군사들이 걸칠 쇠갑옷과 투구는 고을들에서 자체로 만들게 해도 되겠지만 말갑옷과 마면갑은 그렇게 할수 없었다.

말의 발목에 닿도록 온몸을 푹 덮을수 있게 만든 갑옷을 말갑옷이라고 하는데 소가죽도 많이 들고 쇠쪼각도 많아야 하였다.

철판을 두드려서 말의 머리를 푹 씌울수 있게 만든 마면갑에는 두개의 눈이 앞을 볼수 있도록 구멍도 뚫어야 하고 귀덮개까지 붙여야 하는것만큼 품도 많이 들었다.

이미 나라의 병기장에서 말갑옷과 마면갑도 만들고있으니 지방의 철기군에도 만들어주면 될것이였다.

그래서 을파소는 고우루와 함께 병기장을 찾아나섰다.

여러가지 병기를 전업으로 만드는 병기장은 국내성의 교외에 자리잡고있었다.

재간이 좋은 수많은 장공인을 가진 이 병기장은 나라에서 제일 클뿐아니라 설비도 그쯘하여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병쟁기도 꽝꽝 만들어낼수 있었다.

넓은 부지를 가진 병기장에서 눈길을 끄는것은 집채같은 쇠부리로(용광로)들이였다.

바로 그 쇠부리로들에서 구리돌과 쇠돌을 녹여 뽑은 구리와 쇠를 가지고 갖가지 병쟁기를 만들고있었다.

군사들의 호위속에 을파소가 탄 수레가 병기장에 들어서니 이곳 관리들이 황황히 뛰여나와 맞이하였다.

지난해 변방에 보내줄 활과 화살때문에 이곳을 다녀간바 있는 을파소는 장공인들의 머리수로부터 병기생산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다 파악하고있었다.

을파소는 깍듯이 례를 차리는 관리들속에서 이곳의 우두머리인 감을 알아보고 그에게 다가갔다.

이름을 어친가라고 부르는 감은 입술이 너무도 두툼하여 미욱해 보였다.

을파소는 직판 찾아온 용건을 입에 올렸다.

《이보라구 감, 이달부터 매달 말갑옷과 마면갑을 각각 오백개씩 만들수 있겠나?》

어친가는 두툼한 입술을 비죽 내밀었다.

《아… 아니, 그렇게 많이는 만들수 없소이다.》

머리를 흔드는 어친가의 태도에 을파소는 기분이 언짢아졌다.

지난해 변방에 보내줄 수천개의 활과 10만개의 화살을 만들도록 했을 때에도 이 구실, 저 구실을 붙여가며 늦장을 부리던 어친가였다.

그때문에 을파소는 부하들을 병기장에 내려보내여 관리들을 다몰아대게 함으로써 변방에서 요구하는 병기를 보내줄수 있었다.

사실 이런 큰 병기장에서 한달에 5백개의 말갑옷과 마면갑을 만드는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였다. 그전에도 한달에 삼사백개를 어렵지 않게 만든바 있었다.

쇠돌과 숯, 소가죽만 넉넉하면 그 이상도 만들수 있는것이다.

고우루가 어친가를 쏘아보며 물었다.

《정말 못하겠다는건가?》

어친가는 목을 움츠리며 대꾸했다.

《실은 쟁인바치놈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날마다 먹을걸 내라고 성화인데 아무래도 몇놈 잡아족쳐야 할것 같소이다.》

을파소는 엄하게 일렀다.

《그래선 안된다. 이제 무슨 수가 생길테니 그때까지만 참으라고 하라.》

요즘 을파소는 백성들이 빚을 지지 않게 하는 방책을 모색하고있었다.

백성들의 식량사정이 어려운것은 탐욕스러운 토호들의 빚단련이 심하기때문이였다.

토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꾸어주고 리자를 터무니없이 받고있는데 묵은빚일수록 리자가 곱으로 새끼를 치기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난에서 도저히 헤여나올수 없게 되여있었다.

국상으로서 나라에 무익한 토호들의 배나 불리워주는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결코 국력을 일신시킬수 없다는것을 을파소는 잘 알고 있었다.

을파소의 속을 알바 없는 어친가는 무슨 구실을 대여서라도 힘에 부친 일감을 덜어보려고 잔꾀를 부리였다.

《국상어른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쟁인바치들이 날로 못되게 굴고 있소이다. 지어 병기장에 불을 지르는 놈도 있소이다.》

아래를 언제나 장악하고있는 을파소였지만 그 말은 처음 듣는 말이라 대바람 신경이 곤두섰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바로 그때 장공인들이 달려와 을파소앞에 꿇어엎드렸다.

국상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억울한 하정을 아뢰이려고 온 장공인들이였다.

그들을 본 어친가가 잡아먹을 기세로 야단을 쳤다.

《이놈들이 감히 뉘앞이라고 낯짝을 들이미는거냐. 당장 물러가

지 못할가?》

어친가를 제지시킨 을파소는 땅에 이마를 조아리고있는 장공인들에게 물었다.

《무엇때문에 이러는거냐?》

나이지숙한 장공인이 고개를 들었으나 차마 쳐다보지는 못하고 입을 열었다.

《국상어른께 아뢰나이다. 옥에 갇혀있는 사람은 병기장에 불을 지르려 한것이 아니오이다.

그 사람은 10여년간 고생을 하면서 화전이라는걸 처음으로 만들어냈는데 이번에 거기에 쓸 염초를 만들다가 아차실수로 불이 날번 했던것이오이다. 한번만 용서해주시오이다.》

화전이란 말이 듣다 처음인 을파소는 자신이 병기장을 너무나도 잘 알지 못하고있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여기서 시간이 지체된다고 하여도 사연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을파소는 어친가에게 일렀다.

《어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

어친가가 허둥지둥 달려가더니 인차 머리를 풀어헤친 사람을 데리고 왔다.

매를 맞았는지 피딱지가 붙어있는 장공인의 얼굴은 시꺼멓게 멍들어있었다.

을파소는 끓어엎드리려는 그를 제지시키였다.

《그냥 서있거라. 그래 네 이름이 무엇이고 화전은 대체 어떤 병기냐?》

허리를 굽히고 선 장공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인의 이름은 뉴기라 하오이다. 소인의 이웃집에 의원이 살고있는데 그는 염초를 가지고 병을 잘 고치는 남다른 의술이 있사옵니다.》

을파소도 염초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고구려의 의서들에서는 염초의 쓸모를 밝히고있었다.

아궁바닥이나 짐승우리바닥의 흙과 뽕나무재 같은것을 섞어서 우린물을 달이면 가루가 얻어지는데 그것이 염초였다.

이렇게 얻어낸 염초를 설사를 멈추고 어혈과 독을 풀며 오줌을 잘 나가게 하는데 쓰고있었다.

《그런데 염초만큼 불이 잘 당기는것이 또 없을것이오이다.

그래서 소인은 염초를 가지고 적진을 불지르려고 화전을 만들었소이다. 지금까지 불화살은 짐승기름에 절인 천을 화살대에 감고 불을 달아 날리는것인데 비가 내릴 때에는 그 효험이 별로 없소이다. 그래서 비가 내릴 때에도 쓸수 있는 화전을 더 좋게 만들다가… 그만…》

염초가 불에 잘 탄다는것도 알고있는 을파소는 뉴기가 기발한 궁냥을 해냈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이거야말로 인간세상을 크게 뒤흔들어놓을수 있는 새롭고 기이한 발견이 아닌가. 제노라 하는 식자들도 염초가 기름마냥 불에 잘 타는 성질이 있음을 알뿐 그것을 가지고 적진을 불지를 생각이나 했던가.

염초를 싸움에 써먹는다면 흐린 날에도 적진을 마음대로 불지를 수 있을것이다.

옛사람들이 저절로 일어난 산불을 보면서도 불을 일으킬줄 몰라 생음식을 먹었다더니 지금껏 염초를 약재로나 쓴것과 무엇이 다른가.

《화전을 보여줄수 있느냐?》

끓어엎드린 장공인들속에서 한사람이 머리우로 화살대 같은것을 쳐들었다.

한 관리가 얼른 그것을 받아다 을파소에게 내밀었다.

화살대는 흔히 보는것인데 활촉의 바로 그뒤에 애기주먹만 한것이 붙어있었다. 그 애기주먹만 한 곳에 노끈 같은것이 한뽐가량 달려있었는데 그것이 불심지인줄 을파소는 알리 없었다.

뚫려진 구멍은 둘째손가락이 드나들만 하였다.

구멍으로부터 한자가량 들어와 그 구멍과 통하는 작은 구멍이 겉

으로 뚫려있었다.

을파소는 뉴기에게 화전을 내보이며 말했다.

《화전에 대해서 다들 알아듣게 말하여라.》

뉴기는 여전히 고개를 떨군채 입을 열었다.

《그 화살대에 달려있는 애기주먹만 한 곳에는 염초가 채워져있고 밖으로는 면실로 꼬아만든 불심지가 나와있는데 이걸 가리켜 화전이라고 하는것이오이다. 화전의 불심지에 불을 달고 살에 재워 날리면 염초가 타면서 그 힘까지 합쳐서 화살이 보다 멀리 날뿐아니라 적진에 불을 지를수 있소이다.》

귀맛이 돈 을파소는 따지듯 물었다.

《화살이 얼마만큼 멀리 날아갈수 있느냐?》

뉴기의 목소리는 신심에 넘쳐있었다.

《보통 천보는 능히 날릴수 있소이다.》

그 말에 을파소는 또 한번 놀랐다.

쇠뇌보다 멀리 화전을 날릴수 있다니…

고구려에는 천보의 거리에 화살을 날려보내는 쇠뇌가 있었다.

화전이 쇠뇌보다도 더 멀리 화살을 쏠수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것이였다.

을파소는 뉴기를 안아주고싶었다.

을파소는 기쁜 내색을 감추고 어친가를 바라보았다.

《그대 생각은 어떤가, 이 화전이란게?》

화가 치민 어친가가 뉴기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대꾸했다.

《이놈이 미쳤소이다. 염초인지 하는게 불에 타면 화살이 저절로 날아간다고 하는데 이런게 도깨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소이까. 이런 놈을 그냥 두면 병기장을 구워먹고말것이오이다.》

을파소는 쓸모있는 사람에게 병기장을 맡기지 못한 후회로 한숨을 내쉬였다.

이윽고 을파소는 어친가의 뒤에 선 병기장의 관리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대들도 같은 생각인가?》

그들이 어친가의 눈치를 보며 주밋주밋하는데 맨뒤의 체소한 관리가 한걸음 나섰다. 병기장에서 말직인 주부의 관직을 맡은 양쇠루였다.

《소인이 한말씀 올리겠나이다. 태고적에는 사람들이 불을 쉽게 일으킬줄 몰랐소이다. 그러던것을 박달임금의 아들 부소어른이 부시돌로 불을 쉽게 일으키는 비방을 밝혀내였소이다.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새것이 도깨비로 보일수 있소이다. 진작 떠밀어주었더라면 우린 벌써 군사들의 손에 화전을 들려주었을것이오이다.》

악에 받친 어친가가 도끼눈으로 양쇠루를 노려보았다.

그 꼴을 보는 을파소는 어친가를 두고서는 마음대로 병기를 만들수 없음을 절감하였다.

나라를 위해 심신을 바치기 싫어하는 이런자는 한시라도 급히 떼버려야 한다고 마음먹은 을파소는 짐짓 엄한 눈길로 양쇠루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어찌 웃사람을 욕되게 하는 말을 할수 있느냐? 좋다, 너에게 화전을 만들 일감을 맡겨주겠는데 만일 한달안에 만들지 못한다면 벌을 내리겠다. 그래도 맡아나설수 있겠느냐?》

양쇠루의 낯색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알겠소이다.》

배심있게 나서는 양쇠루의 태도에서 을파소는 그가 씀직한 사람임을 가려보았다.

재능있는 사람일수록 어려운 일에 겁을 먹지 않는 법이다.

양쇠루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은 을파소는 여전히 엄한 어조로 말했다.

《감은 말갑옷과 마면갑을 많이 만들수 없다고 하는데 그대에게 맡기면 해낼수 있는가? 물론 부족되는것은 풀어주겠다.》

양쇠루는 비장한 태도로 대꾸했다.

《나라가 바란다면 어찌 다른 말이 있겠소이까.》

을파소는 양쇠루도 안아주고싶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병기장을 맡겨야 하는것이다. 오늘 뜻밖에 남들이 생각지도 못할 우리만이 가질수 있는 염초를 쓰는 병기도, 그 병기를 훌륭히 만들어낼 양쇠루도 알게 되였으니 이런게 복이 아니겠는가.

기분이 날아갈듯 하였지만 을파소는 일부러 엄하게 일렀다.

《오늘부터 그대에게 병기장을 맡기겠다. 그대에게 부하들을 마음대로 등용하고 또 그대의 분부에 거역하는자는 마음대로 뗴버릴 권한을 주겠으니 한달후 회계를 하자. 그래 어떤가?》

양쇠루는 침을 모아삼키며 대답했다.

《알겠소이다.》

양쇠루의 신심있는 태도에 을파소는 한시름이 놓였다.

재능있고 강기있는 사람이 큰일을 칠수 있으니 무엇을 더 일러주겠는가.

(10)

처소로 돌아온 을파소는 즉시 어친가를 파면시키고 병기장에 소가죽이며 구리돌, 쇠돌 등을 넉넉히 보내주는 조치를 취한 다음 자신의 록봉에서 쌀을 뚝 떼여내서 장공인들에게 보내주었다.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양쇠루의 사람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알아보니 양쇠루의 아버지도 병기장에서 한생 병기를 만들다가 생을 마친 사람이였다.

병기를 만드는 일에 조예가 깊은 양쇠루는 어친가와 달리 일욕심이 많고 친절해서 장공인들속에서 신망이 높았다.

그런 사람을 찾아냈으니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드바쁜 국사는 어느 하루도 을파소에게 편안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후한에 가있는 간자들이 보내온 자료중에서 을파소의 흥미를 끄는 인물은 조조였다.

황건폭동을 진압하는데서 련전련승하고 정예하다고 소문났던 동탁의 군사를 괴멸시켰다는 조조가 장차 후한의 실권을 쥘수도 있다는 것은 스쳐지날수 없는 일이다.

예로부터 싸움에서 제노라 하는자들이 중원의 실권을 장악하면 반드시 주변나라들에 전란을 몰아온것이 전례이고보면 조조라고 다를수가 없는것이다.

을파소는 간자의 일을 맡아보는 사인 왕지길에게 조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오라는 분부를 하였다.

인차 양평에서 공손도가 저희 군사를 늘이고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료동에서는 무지막지한 공손도가 칼을 물고 날뛰고 만만치 않은 조조가 조정에 세력을 뻗치고있다니 불원간 큰 전란이 일어날수 있었다.

그때문에 을파소는 철기군의 비중을 늘이는 일을 더 힘껏 내밀었다.

꼭 한달만에 양쇠루가 오백개의 말갑옷과 마면갑, 화전을 만든 소식을 안고 을파소를 찾아왔다.

을파소를 기쁘게 한것은 천하가 알지 못하는 화전의 위력이였다.

화전에서 울리는 소리도 통쾌하였지만 멀리로 화전을 날리는 위력은 가슴이 터져나갈듯 통쾌하였다.

이런 화전으로는 그 어떤 적진도 불지를수 있을것이였다. 화전을 꽝꽝 만들어 우리 군사들에게 들려주게 되였으니 고구려가 얼마나 강해질것인가.

이날 을파소는 양쇠루를 정식 병기장의 감으로 임명하고 화전군을 조직하였다.

화전군의 군장으로는 양쇠루를, 부군장으로는 뉴기를 임명하였다.

전례에 없는 화전군은 전시에만 출전하는 특수한 부대였다.

화전은 남들이 알아서는 안되는 비밀무기인것으로 하여 그것을 만드는 장공인들로 부대를 조직한것이였다.

이어 을파소는 꽃피는 삼짇날에 전례대로 무술인재를 선발하는 사냥경기를 연다는것을 전국에 알리도록 하였다.

이를 계기로 연나부의 썩은 정사에 등을 돌려댔던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하리라는 마음을 먹고 보다 더 무술을 다지게 되였다.

드디여 그날이 왔다.

삼짇날 아침 위나암성의 북쪽길로 임금의 거동이 있었다.

일행으로는 수백명인데 맨앞에는 천자의 행차임을 알리는 누런기를 든 수십명이 그리고 그뒤로 북과 주라, 징을 든 군사들이 따랐다.

그 다음 날이 시퍼런 도끼에 창이며 활을 든 군사들의 행렬이 늘어섰다.

그들을 앞세우고 기마군의 호위속에 여러필의 준마가 끄는 호화로운 수레가 나가고 수레의 뒤로 말을 탄 조정대신들이 따르고있었다.

호화로운 수레에는 임금이, 그뒤를 따르는 수레에는 을파소가 앉아가고있었다.

원래 을파소는 말을 타고 가려 하였지만 임금의 령으로 그 수레에 오른것이였다.

임금의 행차는 나무가 울창한 넓은 골안에서 멈춰섰다.

골안의 공지에 남녀로소가 어찌도 많이 모여들었는지 사람들로 숲을 이룬듯싶었다.

주라소리가 길게 울리는 속에 수레문이 열리고 임금이 내리였다.

현지에 나와있던 고우루를 비롯한 장수들이 군례로써 임금을 정중히 맞이하였다.

임금이 누런 천으로 해를 가리운 자리에 놓은 룡상에 앉자 길게 울리던 주라소리가 멎었다.

수만명의 군중이 에워싼 한가운데에 사냥경기에 나설 젊은이들이 모여있었다.

임금의 뒤에 허리를 굽히고 선 고우루가 나직이 아뢰였다.

《대왕마마, 오늘 시합에 모인 사람들이 천명을 넘소이다.》

호탕한 웃음을 날리며 임금이 못내 만족해서 말하였다.

《시합자가 천명을 넘는다니 전례에 드문 일이로다. 오늘 같은 날에 산짐승을 잡는게 여간 헐치 않겠는걸. …》

임금은 곁에 앉은 을파소를 바라보며 물었다.

《사실 이런 날에 토끼조차 한마리 잡는다는것이 정말 헐치 않을거요. 이 숱한 무사들이 저마다 한마리씩 잡을 짐승이 어데 있겠소. 그래서 짐의 생각엔 어미토끼를 잡는 사람도 급제시켜야 마땅할것 같소.》

《지당하신 분부인줄 아오이다.》

드디여 임금의 령이 내려졌다.

《시작하라.》

사냥경기를 알리는 주라소리가 울리였다.

임금을 향해 절을 올린 시합자들이 골안의 북쪽으로 틔여놓은 길로 말을 타고 내달렸다.

기운차게 울리는 말발굽소리에 골안이 떠나갈듯 하였다.

인차 그들의 모습이 숲속에 묻혀버리였다.

시합자들은 정오까지 돌아와야 했다.

시합자들이 섰던 자리에서 춤판이 펼쳐졌다. 시합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꽃처럼 어여쁜 무희들과 어리광대들이 춤도 추고 또 힘장사들이 씨름도 펼칠것이였다.

을파소는 안류가 함께 오지 못한것이 못내 아쉬웠다.

국사때문이니 할수 없는 일이였다.

을파소는 자기나 안류, 고우루 이 세사람중에서 어느 한사람은 언제나 국내성에 남아 조정의 정사를 맡아보는 법도를 정해놓았다.

국상으로서 만일이라는 경우를 타산하지 않는다면 뜻밖에 랑패를 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해서였다.

때문에 을파소는 그 세사람중에서 어느 한사람을 늘 도성에 남아

불의지변에 대응하도록 한것이였다.

임금이 을파소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늘만은 머리쉼을 하면서 한담이나 할가. 참, 국상도 사냥시합에 참가해보았소?》

혈색이 도는 임금을 보는 을파소의 기분은 대단히 좋았다.

《예, 두번씩이나 나섰댔소이다.》

《두번씩이나?》

놀라와하는 임금을 바라보며 을파소는 웃음을 지었다.

《한번은 신이 구려경당에 다닐 때 참가했었는데 상대들이 어찌도 날랜지 겨우 꿩 두마리밖에 잡지 못하였소이다. 그러니 락방이였소이다. 그 다음은 구려경당을 마치던 그해에 나섰댔는데 그날은 운수가 좋아서 큰사슴을 한마리 잡았소이다. 결국 급제를 했소이다. 하지만 그때는 벼슬에 미련이 있어 나선것이 아니였기에 집으로 돌아오고말았소이다.》

임금은 못내 아쉬워하였다.

《거참, 그때 벼슬길에 나섰더라면 우린 이미 오래전에 만났겠는데…》

을파소는 뒤에 선 고우루를 가리켰다.

《고굥은 바로 이 시합장에서 급제했다 하오이다.》

임금이 웃으며 고우루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에 대해서야 짐이 잘 알지. 이 사람은 바로 이 시합장에서 큰 메돼지를 두마리씩이나 메쳐놓고 급제했소. 그때부터 짐은 이 사람을 곁에 두고 아껴왔던거요.》

고우루가 감격해서 부르짖었다.

《대왕마마께서는 태자시절 씨름장에서 중소까지 둘러메치지 않았소이까.》

임금의 눈가에 눈물이 어리였다.

《그때가 벌써 까마득한 옛일같소.》

눈굽을 닦으며 을파소를 바라보던 임금이 물었다.

《국상은 사냥시합의 유래를 어떻게 생각하오?》

력사에 환한 을파소는 별로 더듬지 않고 대답했다.

《신의 생각에는 사냥시합이 이미 동명성왕때에 벌써 있었다고 보오이다.

오이와 마리, 협보 이 세 신하를 데리고 부여를 탈출한 동명성왕께서 구려로 오시던중 모둔곡에서 묵거와 무골, 재사를 만나고 또 그들뿐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신하로 되지 않았소이까.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와서 과루부에 터를 잡은 동명성왕께서는 이 고장 사람들의 재물에는 털끝만큼도 다치지 못하도록 하시고 식량을 얻기 위해 날마다 사냥을 벌리였소이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신의 소견에 우리 겨레는 먼 옛날부터 조상대대로 사냥시합을 해온것 같소이다.

동명성왕이 어린시절을 보낸 부여를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소이다.

부여에는 이미 사냥놀이가 있었소이다. 하기에 부여왕자들은 동명성왕과 함께 사냥에 나섰다가 큰 망신을 당한것이오이다. 부여왕자들과 40여명의 시중군들이 달라붙어 겨우 사슴 한마리를 잡았을 때 동명성왕은 혼자서 많은 사슴을 잡았기때문이오이다. 그래서 성이 난 왕자들은 동명성왕을 큰 나무에 비끄러매놓은것이 아니겠소이까.

이렇듯 부여에 있을 때 사냥시합을 겪으신 동명성왕이였기에 구려땅에 오시여서도 사냥을 크게 벌린것이라고 말할수 있소이다.

사냥은 두가지 좋은 점이 있었소이다. 들짐승을 잡아다 식량을 바꾸니 좋고 사냥을 통해 무술이 뛰여난 사람들을 찾아내여 크게 등용하니 좋았소이다. 그래서 고구려를 세운 후에도 동명성왕께서는 자주 사냥놀이를 열고 무술에 뛰여난 인재들을 찾아내시였소이다. 그러니 이 좋은 사냥시합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을수 없었소이다.》

《참말 그럴듯하오. 국상과 마주앉으면 모든것이 석연해지오.》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덧 해는 정오를 가까이하고있었다.

춤과 씨름으로 열을 올렸던 자리로 말우에 사냥물을 실은 시합자들이 들어오고있었다.

사슴을 잡은 사람도 있었고 메돼지를 잡은 사람도 있었다.

시합을 주관하는 관리들이 사냥물의 크기에 따라 시합자들의 순위를 정하느라 분주히 뛰여다녔다.

을파소는 가슴을 울렁이며 시합자들을 둘러보았다.

과연 오늘시합에서 어떤 큰짐승을 잡은 사람이 으뜸으로 인정되겠는지…

드디여 정오를 알리는 징소리가 울리였다.

이윽고 장부를 든 관리가 임금앞에 꿇어엎드리고 길게 목청을 뽑았다.

《대왕마마, 오늘시합에서는 표범과 메돼지를 포함해서 수백마리의 들짐승을 잡아들였소이다.》

임금이 물었다.

《어떤 짐승을 잡은 사람에게 장원을 주려 하느냐?》

관리가 대답했다.

《표범을 잡은 사람과 중소만 한 메돼지를 잡아온 사람이 있사온데 신은 이들중에서 누구를 으뜸으로 꼽겠는지 모르겠사옵니다.》

임금이 을파소를 바라보며 물었다.

《국상의 생각은 어떠하오?》

첫 시합자가 들어설 때부터 살피였던 을파소가 나직이 대꾸했다.

《신이 알기에는 여우를 세마리씩이나 잡은 젊은이가 있소이다.》

그 말에 놀란 임금이 꿇어엎드린 관리에게 물었다.

《그게 사실인고?》

《예, 그렇소이다.》

임금은 감탄해마지 않았다.

《여우는 아주 교활하고 꼬리를 사리는데서 으뜸가는 짐승인데 그런 여우를 세마리나 잡았다니 정말 놀랍도다. 표범을 잡은 사람과 여우를 잡은 사람을 데려오라.》

인차 두 젊은이가 임금앞에 꿇어엎드렸다. 둘 다 잘 생긴 얼굴에 두눈이 억실억실했다.

관리가 표범을 잡은 젊은이를 가리켰다.

《대왕마마, 표범을 잡아온 이 젊은 장사는 우거장군의 손자 우릉걸인줄 아나이다.》

을파소도 기쁨에 겨워 땅에 머리를 조아리는 젊은이를 굽어보았다.

범같이 든든해보이는 이 젊은이가 우거장군의 손자란 말인가.

관리는 우릉걸의 곁에 엎드린 체소한 사람을 가리켰다.

《여우를 세마리나 잡은 이 총각은 비류부의 농군 마영이라 하오이다.》

즉석에서 임금이 령을 내리였다.

《대가집자손 우릉걸을 변방철기군의 군장으로, 비류부사람 마영을 부군장으로 봉하노라.》

이미 임금은 오늘 사냥시합의 장원급제자를 우거장군에게 보내주는 철기군의 군장으로 등용하기로 을파소와 의논했던것이였다.

너무도 감격한 두 젊은이는 목청껏 《만세!》를 웨치였다.

그 순간 온 골안이 떠나갈듯 만세의 소리로 들끓었다.

이날 시합에서는 짐승을 잡아온 사람들을 모두 무사로 등용하였으며 좌가려의 반란이후 중지되였던 삼짇날의 사냥시합을 다음해부터는 해마다 연다는것을 선포하였다.

(11)

오늘도 여느날과 마찬가지로 아침일찍 관가에 나온 을파소는 먼저 안류가 올려보내온 공문서를 펼치였다. 폐행을 일삼는 벼슬아치들과 구실아치들의 잘못에 관한 공문서였다.

을파소가 어느 하루도 놓치지 않고 일관하게 내미는 정사의 하나가 나라를 좀먹고 국익을 해치는 탐관오리들을 제때에 밝혀내고 갈아치우는것이였다.

악독한 관리들의 죄행을 두번씩이나 읽고난 을파소는 그자들의 재

산을 몰수하고 북방의 변방으로 수자리를 보내라는 글을 썼다.

이제 이 글을 중외대부에게 내려보내면 국익을 해치던 그자들이 홍찌를 갈기게 될것이였다.

이어 나라방비를 맡아보는 군부에서 보내온 공문서를 펼치니 성들의 개축공사형편이 자세히 씌여있었다.

이번에도 을파소는 봄씨붙임이 끝나기 바쁘게 나머지 성들의 개축공사를 벌려놓았다.

온 나라가 발편잠을 자게 하려면 지금은 힘이 들더라도 성부터 바로 쌓아야 했던것이다.

공사가 제일 어려운 조건인 몇개소에 주변에 주둔한 군사들을 동원시키라는 글을 써넣은 을파소는 그 다음 군사들의 집형편을 료해한 공문서를 집어들었다.

호구와 조세를 맡은 관청에서 보낸 공문서였다.

나라법에 군사들의 가족은 부역을 면제하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일부 고을들에서는 그들의 가족까지 잡다한 부역에 끌어내고있었다.

이것이 바로 군심을 어지럽히는 소행이였다.

분노한 을파소는 군심을 해치는 고을들의 우두머리를 파면시키기로 결심하고 관리등용을 맡아보는 소실기류를 불러들였다.

소실기류는 개국공신인 소실묵거의 후손으로서 초야에 묻혀있었는데 지난해 임금의 천거로 나라의 관리등용을 맡아보게 되였다.

소실기류에게 며칠안으로 고을을 바로 다스릴만 한 강직한 사람을 여러명 내신하라는 령을 내린 을파소는 이어 사인 왕지길을 불렀다.

후한의 도성에 가있는 간자들의 신변이 걱정돼서였다.

료동에 있는 간자들은 본색이 드러나는 경우 쉽게 고국으로 빠져나올수 있지만 머나먼 후한의 도성에서는 그렇게 할수 없었다.

더우기 후한조정의 일거일동을 지켜보는 간자들은 천금을 받는대도 내줄수 없는 귀중한 사람들이였다.

그들에게 충분히 쓸수 있는 금품을 보내줄것과 매사에 조심하라

는 국상의 부탁을 전해주라고 분부하여 왕지길을 돌려보낸 을파소는 커다란 지도를 펼치였다.

지도에서 부여며 백제, 신라와 같은 동족의 나라들을 굽어보는 을파소의 생각은 많아졌다.

동족의 나라들과는 화친을 두터이 하고있으니 외적이 더는 남쪽과 북쪽에서 길을 빌려가지고 기여들지 못할것이다.

걸린것은 안식국과 손을 잡지 못하고있는건데… 과연 안식국에 보낼 적임자가 없단 말인가.

손탁이 세고 문무를 겸비한 고우루가 적임자이긴 한데…

아니, 아니다.

고우루는 적어도 한두해동안은 나라를 뜰수가 없어. 그가 해야 할 일이 오죽이나 많은가?!…

며칠전 고우루는 우거장군에게 소속시킬 철기군을 거느리고 변방으로 떠나갔다.

새로 무은 철기군의 군장은 우거의 손자인 우릉걸이고 지략을 겸비한 마영이 부군장이였다.

뿐더러 장수들과 군사들도 알쭌히 이번 사냥시합의 참가자들로 꾸리였다.

한해가량 우거의 슬하에서 싸움법을 익힌 그들속에서 뒤이어 뭇게 될 철기군의 골간들이 나와야 할것이였다.

호시탐탐 이 땅을 노리는 후한것들과의 접경지대를 끌날같은 무사들에게 맡기고보니 어지간히 숨이 나갔다.

이윽고 다른 생각에 묻힌 을파소는 지도에서 후한의 도읍을 더듬었다.

후한에서 급속히 세력을 떨치고있는 조조가 병법에 귀신이라는데 그가 장차 우리 나라를 치려 한다면 어떤 수를 쓰려 할가?…

나름대로 조조의 몰골을 그려보던 을파소는 방안을 오락가락하였다.

내가 조조이고 고구려를 치려 한다면?!…

을파소는 지도에서 고구려의 변방을 굽어보았다.

조조라… 조조가 나를 강태공에 비기였다던데 그자가 우리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는것이 많구나.

강태공이 중원의 인물일지는 몰라도 우리 겨레에게는 그보다 뛰여난 인물이 많고도 많다.

박달임금의 충신들인 치우장군, 신지, 주인 같은 명인들은 강태공보다 썩 전에 천하에 명성을 떨치였고 고구려의 오이, 마리, 부분노 같은 사람들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인재들이다.

내 고구려사람으로서 그들을 본받자 애쓰는데 기껏 중원땅에 전란을 가져다준 강태공에 비긴단 말인가. …

두눈을 슴벅이던 을파소에게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그렇지, 조조 그자가 바로 강태공을 본따려 하는것이다. 그가 나를 강태공에 비긴 진속은 바로 자기가 강태공처럼 되려 하기때문이다.

조조가 만약 조정의 실권을 쥔다면 그는 반드시 후한을 뒤엎으려 할것이다.

중원에서 그를 당할만 한 인물이 없고 야심만만하다니 능히 그럴것이다.

장차 고구려의 위험한 적수가 될 조조를 그려보는 을파소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였다.

중원에 조조와 같이 야심많고 어벌큰 계략의 능수가 나타났으니 외란은 피할수 없을것이다.

이자가 앞으로 어떤 잔꾀로써 우리와 싸우려 할가?…

강태공을 숭상하는자이니 《륙도》의 수법을?!… 《륙도》라?

6권으로 서술된 《륙도》에서는 싸움준비나 전장에서 제기되는 전법들을 밝히였을뿐 계략에 대해서는 별로 없었다.

그러니 조조는 《륙도》가 아닌 손자병법을 써먹자 할것이였다.

중원이 천하제일이라 떠드는 손자병법도 꿰뚫고있는 을파소인지라 조조가 쓸수 있는 계책을 나름대로 짐작해보았다.

이일대로라고 제힘을 보존하면서 상대를 피로케 하고 불리한 형세

에 몰아넣은 다음 쳐이기는 계책이 아니면 거짓공격으로 적을 견제하고 그 배후를 우회하여 불의타격으로 이기는 암도진창의 계책 그리고 일부러 변방을 조용하게 하여 상대를 해이시킨 기회에 드센 공격으로 이기는 욕금고종의 계책, 마지막으로 일단 적의 약점을 알아낸것이 비록 작은것일지라도 제때에 리용하여 이기는 순수견양의 술책을 쓰려 할것이다.

이 네가지 계책중 열에 아홉은 욕금고종일것이다.

왜 그렇다고 믿고싶은가.

간계를 꾸미는데 이골이 난 조조라니 렴탐을 중시할것이다. 그가 간자를 통해 우리가 싸움준비를 갖추었다는것을 알고있을것이니 지금 당장은 가만있으면서 고구려가 발편잠에 들기를 기다릴것이다. 그 다음 료동에서는 보군을, 바다로는 수군을 들이미는 수륙병진을 꾀할것이다.

먼저 륙로를 보자. 지금껏 후한군은 료동의 양평에서 오렬수와 현도군에서 소렬수의 강기슭을 따라 기여들군 하였다.

그러나 조조는 기이한 꾀를 잘 쓰는자이니 다른 길로도 불의에 쳐들어올것이다.

을파소는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파악이 없는 험한 길을 택하는것은 우둔한짓이다.

상대도 어리석지는 않은지라 험한 길이라고 해서 비워두지 않을것임을 아는 조조로서는 파악이 있는 좋은 길로 불의에 속히 쳐들어가는 수를 쓸것이다.

그러니 오렬수와 소렬수의 그 두길에 보다 든든한 진을 쳐야 하며 다른 길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지도에 표시된 바다에로 눈길을 옮긴 을파소는 압록강과 패수(대동강)의 하류를 눈여겨보았다.

지금 을파소는 아직은 후한의 제노라는 책략가들일지라도 그렇게까지 멀리로 내다볼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번중 한번일지라도 나라방비에 실책을 범하면 안된다는 위구심에 휩싸여 이런 생각을 하

는것이였다.

내가 조조라면 어느 길을 택할것인가. 압록강쪽은 아니야…

절대로 압록강으로는 기여들지 않아. …

그전부터 압록강일대에는 성이 조밀하고 대군이 진을 치고있었다. 뿐더러 압록강하구에 많은 병선을 가진 수군진도 있었다.

을파소의 눈길은 평양에 눈그루를 박고있었다.

만일 적군이 패수를 거슬러올라 평양을 차지한다면 그 후과는 실로 엄중할것이였다.

평양을 빼앗긴다면 적은 그곳을 거점으로 만들고 국내성의 배후를 칠것이였다.

인차 새로 조직하는 철기군을 평양사람들로 꾸릴 결심을 한 을파소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철기군을 무으라는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군사일을 맡아보는 관청에 내려보낼 공문서였다.

공문서를 작성하고났는데 인기척이 나더니 방문이 열리였다.

점심밥을 싸든 인우가 들어서는것이였다.

그제서야 을파소는 정오가 되였음을 알아차렸다.

《허ㅡ 벌써 때가 이렇게 되였나?》

점심을 차려놓은 인우가 정색해서 아뢰였다.

《국상어른, 중실부인이 오늘 저녁만은 꼭 일찍 들어오시라고 하오이다.》

《?!…》

중실부인이란 을파소를 시중드는 녀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녀인의 성씨가 중실씨였다.

언제나 화려한 수를 놓은 주름치마며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덧저고리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올린 머리를 곱게 가꾸는 중실부인의 버들모양의 눈섭과 새별같은 눈을 그려보며 을파소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녀인처럼 곱게 생긴 눈섭과 눈을 가리켜 류미성안이라고 하지. 참, 잘 생긴 녀인이거던. 그런데 무슨 일이 있기에 일찍 들어오

라고 하는것일가. 지금껏 그런 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녀인인데…》

현숙하고 지조있는 녀인이고보면 범상치 않은 일이 생겼기때문일것이였다.

(12)

해질녘에 일찌감치 처소로 돌아오니 벌써 중실부인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있었다.

진수성찬이라고 할만큼 요란한 음식상에 나앉은 을파소는 의문이 가득하였다.

오늘이 무슨 날이기에 색다른 음식을 차렸을가, 생일날도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야 알수 없었다.

색다른 음식중에 을파소의 마음을 보다 끄는것은 양불고기였다.

《허ㅡ 임자가 해주는 음식은 뭐나 다 보기에도 맛도 좋지만 오늘은 더더욱 갖가지 음식이라 이게 웬 일이요?》

정히 무릎을 꿇고 술이 가득한 은술잔을 내밀며 중실부인이 입을 열었다.

《오늘이 바로 국상어른이 국상으로 된지 꼭 이태가 되는 날이오이다.》

벌써 이태가?!…

본인도 생각지 못한 일을 잊지 않고 생일처럼 여겨주는 중실부인의 마음에 을파소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나 같은 늙은이를 친혈육처럼 여겨주는 녀인도 있다니…

감동된 을파소는 받아든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거친 숨만 내쉬였다.

외지에서 사는 이태동안 어느 하루도 게을리함이 없이 알뜰살뜰 돌봐주고있는 이 녀인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가.

음식은 말할것도 없고 옷도 제손으로 빨아주고 때로는 병시중도

들어주는 다심한 녀인이였다.

이런 녀인이 안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지낼수록 애틋한 정을 품게 해주는 녀인이였다.

격정을 누르며 술을 마신 을파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고맙네.》

흰 이를 가지런히 드러내며 중실부인이 웃었다.

《소녀에게는 국상어른께서 정정한 몸으로 국사를 돌보시면 더 바랄게 없나이다.》

중실부인의 가슴에는 을파소에 대한 련정이 차넘치고있었다.

나라에 중실부인의 래력을 아는 사람은 몇사람뿐인 임금과 우왕후 그리고 안류였다.

우왕후보다 열살우인 중실부인은 제나부출신으로 개국공신 중실무골의 후손이였다.

천제의 자손으로서 천자의 나라를 세울 뜻을 안고 부여를 떠나 구려국으로 찾아가는 동명성왕을 모둔곡에서 찾아뵙고 신하가 된 사람이 중실무골이였다.

그때 동명성왕은 가난한 평민으로 해진 옷을 입고 찾아온 무골의 정직하고 의로움을 헤아려 신하로 써주었을뿐아니라 고구려를 세운 그날에는 중실이라는 성까지 하사했었다.

그런 개국공신의 가문에서 태여났건만 어려서 부모를 잃고 외가에서 자란 중실부인은 총각으로 변복하고 구려경당을 마치였다.

사내들처럼 문무를 갖추고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려는 뜻을 지닌 그는 녀인의 몸으로 벼슬길에 오른 첫사람이 되고싶었다.

허나 세상은 치마두른 녀인을 용납하지 않았다.

아무리 녀걸일지라도 녀인은 가사나 돌보라는것이 세상의 법도로 되여있으니 임금이란들 그의 뜻을 받아줄수 없었던것이다.

녀인으로서 벼슬길에 오를수 없다는것을 뒤늦게야 깨달은 중실부인은 우소의 청탁을 받아들여 어린 우왕후에게 글공부를 시키였다.

우왕후의 첫 스승이 된 중실부인은 그가 글눈이 뛰여난 신동임을

알아보자 또다시 황당한 생각이 떠올랐다.

치마두른 사람이라도 사내들보다 뛰여난 재주를 가지면 벼슬길에 오를수도 있지 않을가.

미련이란 이렇게 검질긴것이였다.

자기보다 뛰여난 어린 우왕후에게 못 이룬 뜻을 이루게 하리라 생각한 중실부인은 뛰여난 박식가로 알려진 안류를 우소에게 소개하였고 그래서 그가 우왕후를 가르치게 된것이였다.

벼슬길에 오른 첫 녀인으로 키우리라 했던 우왕후가 뜻밖에 후궁의 주인으로 되고보니 중실부인은 세운 뜻을 포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대신 진짜배기 호걸이 아닌 사내에게는 몸을 허락하지 않으리라는 새로운 뜻을 세웠다.

그래서 로처녀가 된 그를 공경하여 우왕후가 중실부인이라 불렀는데 그것이 그만 그의 이름처럼 되고만것이였다.

그런 중실부인이 을파소의 시중을 자청해나선데는 까닭이 있었다.

조정의 대신들속에도 눈에 차는 대장부가 없다고 단정한 중실부인은 안류까지도 더없이 훌륭한 인걸이라고 존경하는 을파소와 사귀고싶었다.

을파소가 홀몸이라니 사귀여보고 정녕 뛰여난 인물이면 몸을 의탁할 생각이였다.

하여 안류의 줄을 타고 을파소의 시중을 들게 된것이였다.

처음 만나본 을파소는 너무도 로쇠했으며 사내다운 기백이 엿보이지 않았다.

세상에 사내다운 사내가 없으면 말았지 저런 늙은이한테 마음을 두겠는가. …

실망속에 돌아서려 하였지만 나라일에 동분서주하는 그가 측은하여 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었다.

그래서 얼마동안 밥시중이나 들자 했던노릇이 그를 사모하는 지경에 이른것이였다.

중실부인의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우왕후뿐이였다.

지난해 을파소가 국상이 된지 한해가 되는 날 우왕후를 찾아간 중실부인은 을파소에게 몸을 의탁하려는 제 심정을 털어놓았던것이였다.

그날 우왕후는 생각을 잘했다며 기뻐하였다.

녀인의 마음은 사내가 안다고 중실부인의 그 마음을 을파소가 느끼지 못할리 없었다.

중실부인에게 마음이 끌린 을파소는 그의 진정을 받아들일수 없는것이 안타까왔다.

임금도 중실부인을 안해로 맞는것이 좋겠다고 하였지만 결심을 내리지 못하는것은 나이차이때문이였다.

십년만 젊었어도… 늙고 병든 나무에는 눈먼 새도 내려앉지 않는다는데…

련정의 눈길로 을파소를 바라보며 중실부인이 입을 열었다.

《제 너무 늦게야 국상어른이 불고기를 좋아한다는것을 알았나이다. 진작 그걸 알았더라면 더 자주 대접하는건데…》

그동안 을파소는 중실부인이 해주는 불고기를 여러번 맛있게 먹었지만 그것을 제일 좋아한다는 말만은 하지 않았었다.

며칠전 안류에게서 꼬치불고기를 을파소가 아주 즐기는 별식임을 안 중실부인은 마음먹고 이 자리를 마련한것이였다.

자나깨나 자기를 위해주는 중실부인의 마음에 을파소는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고마우이.》

을파소는 중실부인이 들려주는 꼬치불고기를 받아 맛있게 먹으며 말했다.

《자넨 양이 어떤 재부라고 생각하나?》

중실부인은 을파소에게 또 한잔 술을 권하며 대답했다.

《아이참, 삼척동자도 양이자 맛좋은 음식감이고 겨울옷감인줄 아는것이 아니오이까.》

을파소는 웃었다.

《그야 물론… 우리 겨레의 강토가 얼마나 넓은가. 하기에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오곡을 심어먹으면서 집짐승들도 많이 길러왔네. 더우기 추운 곳에서는 양도 적지 않게 길러 고기와 함께 털을 내여 옷을 지어입었다네.》

중실부인이 을파소의 말을 이었다.

《그래서 양을 가리켜 재산이라 하지 않소이까. 제 알기엔 양은 성질이 온순하고 추위에도 잘 견디여 새끼도 잘 낳아 기르고 풀만 먹고도 잘 자라는 까닭에 기르는것 같소이다.》

을파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 양처럼 무리지어 살기 좋아하는 짐승도 없을거네. 새끼양은 젖을 먹을 때 반드시 무릎을 꿇고 어미젖을 빠는데 그것도 기이하고… 고기는 맛도 좋고 양기를 돋구어주는 특효가 있고…

그런 까닭에 일부 사람들이 양을 가리켜 다산과 다복을 가져다주는 길한 짐승이라 한거네. 그래서 더 많이 기르는거라네.》

그 어떤 화제거리에도 막힘없이 알기 쉽게 깨우쳐주는 을파소앞에 중실부인은 고개가 숙어졌다.

이런 기인이기에 조정을 옳게 이끄는게 아닌가. 이런 사람을 잘 모시는게 내 할바이니라.

《저… 소녀 한마디 여쭈어도 되겠나이까?》

술을 마시고난 을파소가 정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 하게.》

《소녀가 정사하는 묘리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말을 더 잇지 못하는 중실부인의 두눈에 눈물이 맺히였다.

을파소는 중실부인을 의아히 건네다보며 고개를 기웃거렸다.

왜서 갑자기 눈물을 머금는것일가?…

이윽고 중실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소녀는 나라에 복이 있고없는것은 우로는 임금을 충의로 받들고 아래로는 법대로 조정을 이끄는 명재상이 있고없는가에 따른다

고 생각하나이다.

복이란건 화와 달리 잠간 들어왔다 사라지기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복이 찾아들었을 때는 모르다가 그 복이 꺼진 뒤에야 그게 복이였던지 안다고… 그래서 복속에서 복을 모른다는 말이 생기였다고 하였나이다.

나라에 현명한 재상이 있으면 모두가 아껴야 하지만 재상자신이 자기를 아낄줄 알아야 한다고…》

또박또박 씹어말하던 중실부인이 을파소의 손을 부둥켜잡았다. 그러는 중실부인의 두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있었다.

《재상이 매를 석대 안기는 작은 일에까지 참여한다면 오래 살수 없다고… 소녀는 그렇게 생각하나이다.》

그 말에 을파소는 눈앞이 뿌잇하였다.

이 늙은걸 진정으로 아끼는 녀인이 곁에 있었구나. 얼마나 나를 위했으면 이런 자리를…

하지만 내 어찌 그 리치를 모르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그렇게밖에는 달리할수가 없는것이다. …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을파소는 중실부인의 손을 어루만지였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임자를 잊지 않겠네.》

그만 중실부인은 오열을 터뜨리며 을파소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국상어른…》

제 5 장

하늘에서 은은히 우뢰소리 울리더니
을파소 어진 선비 그에 따라 이르렀네
봄날의 단비런듯 그 혜택 고루 펴니
바람일고 우뢰치듯 온갖 생령 살아났네
(리익의 악부시 《서압록의 노래》중에서)

(1)

사나운 동장군이 살판치던 동지달에 이어 섣달도 가고 새해의 정월이 왔다.

그러나 아직은 약동하는 봄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

단지 양지바른 개울가에서 유독 버들이 조심히 움을 틔우고있을 뿐이였다.

쌀쌀한 바람이 향방없이 부는 이 아침 호화로운 수레 한대가 국내성을 나섰다.

서북쪽의 졸본으로 뻗어간 큰길에 들어선 수레를 백여명의 말탄 군사들이 호위하고 그뒤로 역시 말을 탄 수종군들이 따르고있었다.

다섯필의 힘센 준마가 끄는 수레에는 을파소가 앉아있었다.

지금 그는 수백리가량 떨어진 졸본으로 가는 길이였다.

춘하추동의 변화무쌍한 바람새마냥 종잡기 어렵고 수렁판에서 감탕을 퍼내듯 힘겨운게 국사인데 그때문에 지친게 아니라 보다 억세지고 보다 세련된 을파소였다.

길을 오가던 행인들이 을파소가 탄 수레가 나타나면 황급히 끓

어엎드린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이 수레는 임금의 어명으로 특별히 품들여 만들어 을파소에게 하사한것으로서 제노라는 대가들도 아직은 가져본적이 없는 극히 화려한것이였다.

수레는 아주 쓸모있게 만들어졌는데 그안에서 누워 잠을 잘수도 있고 식사도 사무도 볼수 있게 되여있었다.

인우가 마부가 되여 모는 수레안에서 을파소의 생각은 졸본에 가 있었다.

크고작은 국사가 산더미처럼 쌓여드는것을 두고 어이하여 졸본을 찾아가는것인가. 그 리유는 세가지때문이였다.

국상으로서 을파소가 새롭게 깨달은것이 고구려는 천자국이라 나라에는 도읍과 함께 임금이 정사를 볼수 있는 행궁을 가진 여러개의 도회를 두어야 한다는것이였다.

하다면 몇개를 두어야 하겠는가?

세상을 의미하는 수가 좋을것이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가리켜 3재라고 하니 천자국이 가져야 하는 대궐을 둔 도회의 수는 셋이 좋을것이다.

어쩌면 하늘이 점지해준듯 고구려에는 이미 도읍으로 정했던 큰 도회들이 있다.

고구려가 처음 도읍으로 정했던 졸본과 박달임금이 조선을 세웠던 평양이였다.

졸본은 크기로 보나 인구로 보나 국내성에 못지 않은 큰 도회이다.

게다가 그곳에는 동명성왕의 무덤도 있다.

그러나 졸본의 성은 쌓은지 오래되여 무너질 우려가 없지 않다.

그래서 성을 돌아보고 개축하자는것이였다.

이것이 을파소가 졸본을 찾아가는 첫째 목적이였다.

둘째로는 졸본의 태수를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을파소는 산골고을에서 처려근지를 하던 대실근을 졸본성

의 우두머리로 크게 등용하였다.

대실근은 대주류왕때 비류부의 부장이였던 추발소의 후손이였다.

청렴결백하기로 소문난 추발소는 비류부에서 탐욕을 부리다가 파직된 이전 부장들을 리치로 타일러 지은 죄를 반성하게 하였고 바른 정사로 탐관오리들이 망쳐놓은 고을정사를 회복함으로써 고구려의 국력을 다지는데 기여한 충신이였다.

하기에 대주류왕은 추발소를 명관이라며 대실이란 성을 준것이다.

을파소는 대실근이 추발소의 후손이라는 점보다 국익을 탕치던 연나부와 담을 쌓고 오로지 고을정사에 힘쓴 그 점을 크게 여겨 그를 일약 졸본의 태수로 쓴것이였다.

졸본은 크기도 하거니와 이전의 도성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그곳을 다스리는 태수를 조정대신으로 파하는것이 전례로 되여있었다.

그래서인지 졸본의 관리들이 대실근의 전직을 우습게 보고 그의 분부에 고분고분하지 않고있었다.

사실 졸본만큼 관리들의 터세가 심한 곳도 없었다.

원래 졸본은 연나부의 터였고 또 도읍지였던 연고로 이곳의 관리들은 거의가 옛적 대신들의 후손들이였다. 그리고 국내성과 연나부의 대가들과 한집안들이였다.

이런 사정이 세력이 없고 처려근지로 있던 대실근을 곤경에 빠뜨리고있었다.

대실근이 못되게 구는 관리들을 처형하려고 하면 그것들이 한동아리가 되여가지고 변명을 하고 싸고돌며 여기에 조정의 대신들까지 편들어주니 바른 정사를 내밀수 없었다.

그가 부하들을 휘여잡지 못하고있는데는 뿐더러 덤비는탓도 없지 않았다.

매사에 실태를 자세히 알아보고 빈틈이 없게 정사를 해야겠으나 급하게 서두르기만 하니 탐욕스러운자들을 이길수 없었던것이다.

그래서 을파소는 대실근이 바른 정사를 내밀수 있도록 이 길에 나선것이였다.

또 한가지는 구려경당의 학루가 사망했기때문이였다.

그동안 을파소는 여러차례 사람을 보내여 학루가 조정에 나올것을 요청하였었다.

그때마다 학루는 자기는 늙고 병든 몸이니 벼슬길에서 짐밖에 될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대신 똑똑한 제자들을 써달라고 하면서 그들의 명단을 보내주었었다.

그 덕에 을파소는 쟁쟁한 인재들을 쉽게 등용할수 있었다.

대실근도 학루가 키운 제자의 한사람이였다.

그 학루가 얼마전 병으로 잘못되였다.

옛친구의 묘를 한번이라도 찾아가보는것이 도리중의 도리라고 여기는 을파소였다.

(2)

을파소가 졸본으로 가고있을 때 발기는 말을 타고 우소의 집이 있는 제나부로 들어서고있었다.

수굿이 허리를 굽힌 발기의 두눈에는 독기가 서려있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에도 물의 흐름을 멈춰세워가지고 썩이려드는 웅뎅이가 있고 숲이 우거진 산속에는 남의 목숨을 노리는 맹수가 숨어있는 법이다.

자기를 깡그리 바쳐가는 을파소의 노력에 의해 고구려의 국력이 강해지고있는 그늘속에서 충신을 해치지 못해 몸살을 앓는자가 있으니 그가 발기였다.

발기가 을파소를 해치지 못해 독을 쓰는 리유는 단 한가지 그가 자기를 섬기려 하지 않기때문이였다.

그전에 우소의 충동질에 넘어가 을파소를 모해하려 한것은 그가 조정대신이 되면 물욕이 심한 자기를 싫어할수 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달랐다. 어의들을 통해 임금이 불치의 병에 걸린것을 알아낸 오늘 병든 임금이 오래갈수 없거니와 태자마저 없으니 다음번 룡상의 주인이 누구라는것쯤은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것인데 을파소가 허리를 굽히려들지 않으니 이게 무슨 심사인가.

이것은 을파소의 마음속에 이 발기가 들어있지 않다는것이다.

그러니 을파소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른다. …

그래서 발기는 수틀리면 을파소를 제거할 생각으로 세력을 규합하는중이였다.

벌써 그의 무리는 상당한 정도로 커지였다.

발기의 세상에서 국상으로 천거될 연량리도 있었고 어친가처럼 을파소때문에 밥줄이 떨어진 탐관오리들이 썩은 고기에 날아드는 파리마냥 발기의 품으로 기여들고있었다.

그렇다고 발기가 내놓고 세력을 키우는것은 아니였다.

도처에 을파소의 눈과 귀가 박혀있기에 삼라만상마저 깊이 잠든 밤중에만 도적고양이마냥 연량리를 통해 권세와 재물에 빠진자들을 한놈한놈 끌어들였다.

그런자들이라야 저희들의 밥줄을 해치는 을파소에게 칼을 물고 달려들수 있었던것이다.

어지간히 세력을 기른 발기는 큰 인물과도 손을 잡을 생각이였다.

누구보다도 우소가 마음에 들었다.

을파소를 눈에 든 가시처럼 미워하는 우소이니 손만 내밀면 얼마든지 힘을 합치자 할것이였다.

만일 내가 내미는 손을 뿌리친다면 앞으로 목숨을 부지할수 없음을 아는 우소이니 싫든좋든 따라나설것이 아닌가.

이런 속심에 우소의 집을 찾은 발기는 곧 그와 밀실에서 마주앉았다.

화려한 좌상에 거만스레 앉은 우소를 보느라니 발기는 자기를 업신여기는것 같아 속이 울컥 치밀어올랐다.

이 늙다리가 딴마음을 먹은게 아닐가?!…

심술주머니가 흔들린 발기는 우소를 쏘아보며 걸터앉은 좌상우에서 엉덩방아질을 해댔다.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말을 꺼내야 할지 그만두어야 할지 마음을 정할수 없는지라 발기는 저도 모르게 육중한 몸을 그냥 흔들었다.

표범가죽을 편 값진 좌상이 마사질듯 삐걱대니 우소의 눈섭이 꿈틀거렸다.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있었나?》

그제서야 바로 앉은 발기가 두눈을 부릅떴다.

그리고 궁냥해가지고 온 말주머니를 열었다.

《간밤에 하도 이상한 꿈을 꾸어서 찾아왔소이다. 젊은이의 꿈은 개꿈이라고 하지만 그렇더래도 해몽해주소이다.》

우소는 조폭하고 우악한 발기와 더는 상대하고싶지 않았지만 성이 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것을 꺼려 억지웃음을 지었다.

《해몽이야 값드는것도 아닌데 어찌 마다하겠나.》

발기는 짐짓 심중한 안색으로 말했다.

《글쎄 우리 도성에 쌍무지개가 비끼였는데 을파소 그 늙은이의 집지붕에 한무리의 까마귀가 내려앉아 까욱까욱 청승맞게 울어대는것이 아니겠소이까. 헌데 제나부의 국구댁에는 멋진 백학이 떼를 지어 날아들고 풍악소리도 요란했소이다.

제 보건대 일대호걸이신 국구어른께서 머지않아 국상이 될 조짐인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소이까?》

우소는 가슴이 활랑거렸다.

이것은 분명 자기의 세상이 오면 나를 국상으로 써주겠으니 제 말에 순종하라는 뜻이다.

이를 거역한다면?…

겁에 질린 우소는 부엉이눈으로 자기를 빤히 건너다보는 발기가 두려워 두눈을 내리감았다.

두눈을 내리감으니 차대왕처럼 룡상의 주인이 되기 바쁘게 충신들을 마구 죽이는 발기의 악독한 몰골이 보이는듯싶었다.

그래, 머지않아 발기 저 사람의 손에 조정은 형장으로 될게다. 이것도 하늘의 뜻인가. 어이하여 하늘은 우리 임금에게 그런 병을 내리였는지…

겁에 질려 몸을 떠는 우소를 노려보는 발기는 등이 달아올랐다.

우소만 굽어들면 을파소는 조금도 꺼릴바가 없었다.

왜냐하면 우소이자 우왕후이기때문이였다.

아비의 뜻을 거역하는 딸은 없을것이라 우소가 을파소를 제끼자고 자꾸 졸라댄다면 우왕후도 엇나가지는 않을것이였다.

요즘 왕궁의 형편을 엿보니 임금의 병세가 호전되는것이 알리였다.

의신인지 귀신인지 하는 의원이 어떤 묘술을 부리였는지 임금의 룡안에 혈색이 오르고 음식도 달게 든다니 인차 잘못되지는 않을것이였다.

임금이 좀더 오래 건재할수록 불안스러운것은 동생 연우의 세력이 커지는 그것이였다.

어엿한 대장부로 성장하여 문무를 겸비하고 나라일에 지극한 연우였던것이다.

을파소가 그가 누구이든 비법으로 앗아들인 남의것을 반환하라고 하였을 때 선참 발벗고 나선 사람은 연우였다.

연우가 연나부의 반란을 진압할 때 빼앗아가졌던 재물을 고스란히 내놓자 왕족들도 더는 앉아버틸수 없게 되였다.

천성이 의젓하고 의로운 연우가 국상을 돕기 시작하면서부터 제노라 하던 대가들이 더더욱 머리를 쳐들지 못하였다.

그런 연우를 사랑하여 임금이 자주 대궐로 불러들여 국상을 잘 도우라 분부하니 그의 존재는 날로 뚜렷해질수밖에 없었다.

연우가 세력을 기르지 못하게 하자면 을파소를 제껴버려야 하며 그렇게 하자면 우왕후의 지지를 받아야 하였다.

이런 생각이였지만 차마 속심을 터놓지 못하고 에둘러 말했다.

《난 누구보다도 대왕님을 돕고싶소이다. 그런데 대왕님의 주위에 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 무리가 그들먹하기에 국구어른의 힘

을 빌리자는것이오이다.》

말속에 말이 있다고 앞으로 나라의 주인이 될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그 말에 우소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국구라는 사람이 임금의 뒤를 이을 동생으로 지명되지도 않은 사람과 한배속이 되는것이 옳은가. 그렇다고 그를 모른다 하면 후날에 내 목숨이 위태롭겠고…

반드시 우소를 줌안에 넣으리라 마음먹은 발기인지라 외워가지고 온 옛책의 글까지 입에 올리였다.

《제 말 좀 들어보시오이다. 백성이 지내 가난해지면 착한 마음을 잃게 되여 나중엔 법을 어기고 도적질에 나선다, 그렇게 되기를 내버려두었다가 벌을 주는것으로는 나라를 바로 다스릴수 없다, 하기에 마땅히 백성들이 생업에 힘쓸수 있도록 돌봐도 주고 미덕으로 교화해야 나라를 능히 보전할수가 있다. 그래, 어떻소이까?》

우소의 입이 항 벌어졌다.

저 사람의 머리에 언제 옛글이 저리도 꽉 들어찼을가?!…

놀라는 우소를 바라보며 발기는 벌쭉 웃었다.

《칼부림밖에 모른다던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게 신기하오이까? 자고로 땅과 백성과 정사는 삼보라 하였고 그중에서도 백성이 제일가는 보배라 하였소이다. 하기에 백성이 첫째이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 하지 않았소이까.

그런데 지금 국상, 아니 그 촌늙은이가 어떤짓을 하며 돌아치고있소이까. 성을 고친다, 군사를 징발한다 하며 어느 하루도 백성을 들볶지 않는 날이 있소이까? 그통에 백성살이가 녹아나고있소이다. 지금 백성살이가 좌가려네때보다 뭐가 좋아졌소이까?》

그 말에 우소는 두눈을 크게 떴다.

그렇지, 그래. 백성살이란게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어. 이것을 가지고 을파소를 때리면 입이 열개라 한들 할 말이 없지.

언제 한번 백성살이를 걱정은커녕 더 많은 재물을 차지할 욕심뿐인 발기가 그런것을 생각해낸것을 보면 기어코 을파소를 물어메칠 잡

도리로구나. 완력사나운 발기의 손에 을파소가 죽겠구나. 그러니 발기에게 붙어야 앞날이 편안할수가 있어. …

발기의 욕설이 계속되고있었다.

《그 촌늙은이가 참 안하무인이오이다. 돌아가며 관리들을 떼고 죽이고… 이러다 조정이 무인지경이 되겠소이다. 이번에는 또 졸본사람들의 목을 친다고 갔소이다.》

우소는 제 목이 상하기라도 한듯 몸서리를 쳤다.

몸서리를 치는 우소를 보며 발기는 열을 올렸다.

《백성을 삼보라 하는건 다 그놈들을 코꿴 소처럼 부리자고 하는 소리이고 우리가 손잡고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촌늙은이를 쫓아낼수 있소이다.》

발기가 손을 잡자고 할 때 손을 잡아야 앞으로 무사할수 있다고 타산한 우소는 그에게 기울어지고말았다.

《좋네. 그럼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좋겠나?》

발기는 너무 좋아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말했다.

《그리 힘든 일은 아니오이다. 왕후마마께… 지금처럼 을파소에게 국사를 맡긴다면 나나 국구어른이 기를 펴고 살수 없지 않소이까. 그러니 왕후마마께 아뢰여 그자를 시골로 쫓아내야 하오이다. 그자만 쫓아내면 제 힘껏 국구어른을 받들겠소이다.》

우소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임금의 자리를 감히 넘보는 우악스러운 이 사람때문에 장차 어떤 화가 들이닥치겠는지…

(3)

을파소는 국내성을 나선 이틀후 아침 졸본에 들어섰다.

동명성왕의 무덤을 찾아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하고나니 국상이 행차했다는 기별을 받은 대실근이 달려와 깍듯이 맞이하였다.

대실근의 차림새에서 국상과 차이나는것은 머리쓰개였다. 그는 비색의 비단으로 만든 비라관을 쓰고있었다.

청라관은 국상이나 중외대부, 왕족들이 썼다면 비라관은 그 아래급의 대신들이 쓰는 머리쓰개였다.

책은 청라관이나 비라관을 쓸수 없는 그 다음급의 귀족들이 썼다.

대실근과 인사를 나눈 을파소는 부하들에게 일렀다.

《내 조용히 구려경당을 돌아보겠으니 너희들은 태수와 함께 관사에 가서 기다려라.》

을파소는 애젊은 시절 청운의 뜻을 품고 열심히 문무를 배우던 그리고 스승들과 벗들의 체취가 어려있는 잊지 못할 경당을 홀로 돌아보고싶었다.

인우만을 거느린 을파소는 걸어서 구려경당으로 향했다.

야산가에 자리잡은 경당의 구내길에 접어드니 총각시절로 되돌아온듯싶었다.

그때의 스승이 한명도 남지 않았건만 글 한자, 무술 한동작을 정담아 배워주던 스승들이 금시라도 반갑게 맞아줄것만 같았다.

백발이 되여서야 경당을 찾아왔다는 자책으로 가슴을 두근거리며 몇걸음 가다가는 멎어서고 또 몇걸음 옮기고 멈춰서기를 거듭했다.

고색짙은 경당건물을 내놓고는 모든게 낯설었다.

한참만에 낯익은 나무가 눈에 뜨이였다. 무술을 닦는 련무장의 한켠에 넓은 그늘을 지우는 소나무였다.

밑둥이 두아름이나 되는 굉장히 큰 소나무는 한길높이에서 세갈래의 줄기를 치였는데 솔방울이 많기로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었다.

바로 그 나무밑에서 여름이면 학루와 모기불을 피워놓고 밤깊도록 론쟁도 하고 어떤 날에는 스승들을 청해다가 고금동서의 이름난 학자들의 업적을 캐묻기도 하였다.

참으로 꿈많던 그 시절을 불러주는 사연깊은 나무였다.

을파소가 소나무를 하염없이 쳐다보고있을 때 인우는 경당에 들어가 국상이 행차했음을 알리였다.

국상이 직접 찾아왔다니 깜짝 놀란 사부들이 허둥지둥 달려나와 을파소앞에 꿇어엎드렸다.

이에 놀란 을파소는 다급히 그들모두를 손잡아 일으키였다.

사부들을 둘러보는 을파소의 두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였다.

이들이 다 옛 스승처럼 여겨졌고 또 학루인듯싶었다.

이윽고 을파소는 사부들의 안내로 학루의 무덤을 찾았다.

학루는 경당을 한눈에 굽어볼수 있는 양지에 묻혀있었다.

그의 무덤앞에 이른 을파소는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을수 없었다.

조금만 빨리 왔어도 학루를 만나보는건데…

털썩 무릎을 꿇은 을파소는 봉분을 그러안았다.

《미안하네, 학루!》

한명밖에 남지 않았던 경당시절의 벗마저 땅속에 있다고 생각하니 외롭고 쓸쓸했다.

국상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니 사부들도 눈물을 흘리였다.

이윽하여 례를 갖추어 친구의 무덤에 술을 붓고 절을 하고는 경당으로 내려온 을파소가 사부들에게 물었다.

《누가 구려경당을 맡아보고있느냐?》

구려경당의 주인이였던 학루가 잘못된지도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 후임이 경당을 맡아볼것이였다.

키크고 젊은 사부가 한걸음 나섰다.

《국상어른, 소인의 이름은 류지어라 하오이다. 돌아가신 학루사부님의 제자로서 스승의 유언대로 구려경당을 맡아보고있소이다.》

을파소가 보건대 류지어는 사람됨이 진중한것 같았다.

그가 을파소에게 종이말이를 내밀었다.

《스승께서는 돌아가기에 앞서 직접 쓰신 이 글을 국상어른께 올리라고 했소이다. 공문서로 국상께 올리려던 참이였는데…》

종이말이를 펼친 을파소는 한참만에 삐뚤삐뚤 흘려쓴 글이 학루의 필체임을 알아보았다.

《을공, 고구려를 강대한 나라로 일떠세우려는 임금님의 뜻을 받

들고 애쓰는 그대를 돕지 못하고 먼저 가오.

나라에는 정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관리를 키우는 사람도 있어야 하기에 그대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거요. 그대에게 부탁할것은 조정에서 우리 경당을 중시해달라는거요.》

을파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명성왕때 문을 연이래 고구려건국에 기여한 공신들을 수많이 배출한 구려경당을 조정이 어찌 중시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그리고 구려경당의 인재들을 널리 써주게나. 늙마에 난 명림답부 어른의 후손을 제자로 두었네. 이름은 명림어수인데 삼년째 가르치네. 어려서 신동으로 이름을 낸 그애가 터득한 학문은 오랜 선비들 못지 않고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옛 국상을 본받자고 애쓰는 아이라네. 그애를 그대에게 맡기고싶네. 그대가 맡아 키우면 나라는 반드시 동량지재를 얻게 될거네. 아, 좀더 살아서 후진을 키우고싶건만…》

종이말이우에 을파소의 눈물이 떨어졌다.

내 어찌 고인의 부탁을 저버릴수가 있으랴.

눈굽을 닦은 을파소는 류지어에게 물었다.

《여기에 명림어수가 있나?》

류지어의 손짓에 한 총각이 나섰다. 명림어수였다.

명림어수가 스무살안팎의 름름한 대장부일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방없이 키가 작았다.

저런 키작달이를 어느 세월에 키워 덕을 보겠는가.

《몇해쯤 장독을 축내고 오렴.》 하고 말을 하려 했던 을파소는 고개를 저었다.

명림답부의 후손을 품들여 키우는것도 도리가 아니겠는가.

을파소는 자신의 귀밑에 드는 명림어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옛적에 어떤 늙은이는 애어린 잣나무를 심어 그 덕을 보았다는데…

이날 을파소도 그렇고 경당사람들모두도 수십년후 명림어수가 고구려의 4대국상으로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류지어와 함께 경당을 돌아본 을파소는 후진을 키우는데서 애로

가 되는 문제들을 속속이 료해하였다.

류지어에게 후진을 잘 키우라는 부탁을 남긴 을파소는 명림어수를 데리고 구려경당을 나섰다.

(4)

그날 밤 졸본의 관사에 거처를 정한 을파소는 명림어수와 한방에 자리를 잡았다.

을파소는 초불이 환한 방에서 명림답부의 손자와 함께 있는것이 기이하게 생각되였다.

을파소는 중년시절 명림답부를 가까이에서 한번 보았었다.

그때가 후한군이 졸본의 옛 도성에까지 기여든 해였으니 20여년 전이였다.

그해 을파소는 백살을 넘는 그가 거느린 군사로 출전하여 좌원에서 후한군을 통쾌하게 족치였다.

수만대군을 전멸시킨 공으로 명림답부는 좌원고을을 식읍으로 받았었다.

좌원은 졸본에서 서쪽으로 200리가량 되는 곳에 있었다.

그곳으로 이사를 간 부모들때문에 명림어수는 본적지인 도읍의 연나부가 아닌 좌원에서 자랐다.

학루가 여러 제자들중에서 명림어수만을 나에게 부탁한것을 보면 이애가 보통인재는 아닐것이다.

인재일수록 배운바를 가지고 사물의 리치를 밝혀내는 재주가 비상한 법이다. 이런 인재라면 나라에 더없이 귀중한 충신으로 키워야 할것이다.

명림어수에게 흥미가 끌린 을파소가 나직이 물었다.

《부모님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좌원에서 여전히 농사일을 하오이다. 명림답부어른께서는 자손

들에게 나라에 쓸모있는 재주가 없으면 벼슬길에 나서지 말라고 했다 하오이다. 그래서 조부님도 부모님도 농사군이 되고말았소이다.》

을파소는 가슴이 쩌릿하였다.

인걸들의 생각은 하나같다고 어쩌면 명림답부도 우리 조상과 생각이 꼭같았을가.

《졸본의 정사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명림어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직도 졸본에는 국법을 어기고 악행을 일삼는자들이 적지 않소이다. 그만큼 나라에서 국법을 어기지 말라 했건만 부자들은 지금도 남의 땅을 빼앗고있소이다.》

그쯤은 을파소도 아는것이였다.

《국상어른, 저에게 원한이 있사온데 풀어주사이다.》

《원한이 있다?》

《이건 졸본사람들의 원한이기도 하오이다.》

《그렇다?》

《졸본에서 그중 경치가 좋기로 알려진 곳은 비류수를 낀 곳이오이다. 몇해전 그곳 사람들이 자식들을 위해 푼전을 모아가지고 비류수가에 경당으로 쓸 덩실한 기와집을 지었소이다. 그리고 구려경당을 나온 식자를 청해다 아이들에게 글을 배워주도록 하였소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글읽는 소리는 오래가지 못하였소이다. 덩실한 기와집을 탐낸 부자놈이 그것을 빼앗아가졌기때문이오이다.

경당을 빼앗긴 사람들은 눈물이나 흘릴뿐이고… 왜냐하면 그들은 그 부자놈한테 빚진 신세이다보니…》

분노한 을파소는 주먹을 꽉 틀어쥐였다.

세상에 경당까지 빼앗는 불한당도 있단 말인가.

을파소는 그 일부터 바로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분해 이를 가는 명림어수를 보며 을파소는 이 기회에 그의 재주를 시험하고싶었다.

《내 너에게 국상의 권한을 준다면 경당을 찾아낼수 있겠느냐?》

명림어수가 기세를 올렸다.

《찾아낼수 있소이다.》

《좋아.》

…

새날이 밝았다.

아침식사를 치른 을파소는 명림어수에게 일렀다.

《정오무렵 너있는 곳으로 가겠으니 너는 국상의 부하라 하고 경당을 찾아내거라. 물론…》

을파소는 인우를 가리켰다.

《이 사람을 붙여주겠다.》

명림어수와 인우를 떠나보낸 을파소는 대실근과 함께 관가로 향했다.

졸본의 관청은 비류수가 굽이치는 졸본성(평지성)안에 있었다.

을파소는 이번 기회에 축성된지 오래된 졸본산성을 개축하고 성안에 임금이 정사를 보는 행궁을 보다 든든하게 지을 방안도 생각하였다.

졸본은 산성과 서남으로 20여리 떨어져있는 평지성을 사이에 두고 펼쳐진 거대한 도회였다.

관청앞에 이른 을파소에게는 불쑥 안식국으로 보낼 사신문제가 떠오르고 임금의 둘째동생 연우가 그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때로는 긴 날을 두고 애를 먹이던 수수께끼가 부지불식간에 풀린다더니…

임금의 동생들중에서 제일로 출중하고 제일로 의로운 연우라면 그보다 어려운 일도 해제낄것이였다.

을파소가 연우에게 정이 쏠리는것은 새것에 민감하고 씩씩하고 결패가 있고 도량도 크며 보다는 나라를 아끼는 마음이 있기때문이였다.

하기에 그는 임금의 동생이 아니였다면 앞으로 국상으로 쓸 재목이였다.

마침내 그 어떤 험한 길도 뚫고가 고구려의 위엄을 떨칠수 있

는 사신감을 찾아낸 을파소는 졸본의 관리들이 기다리는 관청에 들어섰다.

을파소에게는 모임을 짧게 그러면서도 관리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묘리가 있었다.

이미 국법을 어기고 폐행을 일삼는자들의 죄행을 알고 언제나 그러하듯 그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임금의 윤허를 받고 온 그는 즉석에서 목을 뗄 놈은 떼고 곤장을 칠 놈은 치고 정배를 보낼 놈은 보내였다.

그리고 대실근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빈자리를 메꾸었다.

이로써 못된 세력을 이루고 태수에게 맞서던자들이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고 관청의 기강도 바로잡히게 되였다.

…

한편 객주집으로 쓰이고있는 경당을 찾아간 명림어수는 집주인을 불러내였다.

찌그러진 상통에 진때가 낀듯 낯가죽이 꺼먼 퉁방울눈이 주인이랍시고 팔자걸음으로 나타났다.

인우가 명림어수를 가리켰다.

《젊은 이 어른은 국상어른께서 보내신분이요.》

주색을 누리러 왔을것이라고 지레짐작한 《퉁방울눈》은 구면친구를 만난듯 너스레를 떨었다.

《잘 오셨소이다. 마침 꽃처럼 이쁘고 사내들도 다룰줄 아는 미인들을 데려왔은즉 뼈마디가 눅진하도록 대접을 잘해올리겠소이다.》

명림어수의 숨결이 높아졌다.

이자가 매양 이렇게 관속들을 주물렀겠지?!…

《네가 갈보장사군이겠다?》

그런 말을 듣는데 인이 배겼는지 《퉁방울눈》은 오히려 히물거렸다.

《나 같은 장사군이 없다면 달콤한 그 재미를 어떻게 맛보겠소이까?》

넉살스러운 《퉁방울눈》의 대꾸질에 명림어수는 구역질이 났다.

《에익, 더럽다. 난 구린내나는 다담대접이나 받자고 온게 아니라 갈보장사군이 빼앗은 이 집을 아이들에게 찾아주자고 온게다.》

《퉁방울눈》은 입술을 비죽 내밀고 빈정댔다.

《내 집을 빼앗겠다? 이보시오, 그렇게 에돌지 말고 대관절 돈이 얼마나 소용되는지나 직판 부르시오이다.》

도대체 상대를 가려보지 못하는 《퉁방울눈》을 쏘아보며 명림어수는 쓴입을 다시였다.

하긴 관가에 공것이라면 개똥도 처먹을 작자들이 수두룩하니 저런 놈이 날치는게 아닌가.

두눈을 부릅뜬 명림어수가 호통쳤다.

《너 이 집을 내놓겠느냐, 목을 바치겠느냐?》

명림어수의 험한 기상앞에 그제서야 《퉁방울눈》은 상대가 돈과 구들대접을 바라고 온게 아님을 알아차렸다.

(흥, 코밑에 수염턱이 지나지도 못한 애숭이가 감히 나와 맞서겠다구, 흥!)

아니꼬운 눈초리로 명림어수를 노려보며 《퉁방울눈》이 똥똥한 배를 쑥 내밀었다.

《이 집을 내놓으라? 그럼 긴말 좀 해봅시다. 사실 이 집은 다 쓰러져가는걸 내가 사서 작년에 다시 지었단 말이오이다. 그것도 관가의 허락을 받고 내가 이 집을 사지 않았더라면 글을 배우던 아이들이 무너지는 집에 깔려죽었을거우다. 그건 그렇고, 내 미리 일러두지만 나와 맞서다가는 궁둥이가 깨질수 있다오. 내뒤엔 관속들을 떼고 붙이는 큰어른이 있으니까.》

명림어수는 허세를 부리는 《퉁방울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네가 이 집을 샀다고 하는데 돈은 누구한테 주었느냐?》

《퉁방울눈》은 히죽 웃더니 안에다 대고 소리쳤다.

《게 누구 없느냐?》

기다렸다는듯 미욱돼지처럼 생긴자가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왔다.

《퉁방울눈》이 그자에게 일렀다.

《네 얼른 이 집을 나에게 판 거렁뱅이들을 여기로 끌고 오라.》

《알겠소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람루한 옷을 걸친 사람들이 나타났다.

《퉁방울눈》이 그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엄포를 놓았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주라는 바로 불라고 했다. 내가 너희들에게서 이 집을 살 때 금방 무너질것만 같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집을 사준 나에게 고맙다고 절을 했다. 그런데 어느 못된놈이 내가 남의 멀쩡한 집을 빼앗아가졌다고 고소를 했다. 그래, 내가 다 쓰러져가는 집을 사지 않았단 말이냐. 엉?》

사람들은 성이 나서 고아대는 《퉁방울눈》과 여차하면 후려칠듯 몽둥이를 꼬나든자를 번갈아 보며 대꾸했다.

《옳소이다. 저 집은 그때 쓰러져가고있었소이다.》

《돈을 섭섭치 않게 받았소이다.》

뜻밖이라 명림어수는 어리벙벙해졌다.

어쩌면 경당을 빼앗긴 당사자들이 이렇게 나올수 있단 말인가. 하긴 빚진 종이라고 저놈에게 오죽이나 많은 빚을 졌으면 저러겠는가.

명림어수는 한걸음 뒤로 물러서지 않을수 없었다.

《좋다, 그럼 집을 돌아보자.》

《퉁방울눈》과 사람들을 뒤에 달고 명림어수는 기와집을 돌아보았다.

옻칠을 한 서까래에도, 기둥에도 윤기가 찰찰 흐르고 둥근 주추돌들도 하나같이 볼품있었다.

벽은 또 얼마나 회죽미장을 잘하였는지 눈이 부셨다.

그 벽체에 《문무》라는 두 글자가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명림어수는 서까래와 기둥을 가리켰다.

《작년에 지은 집이라면서 저것들에서 송진내가 풍기질 않고… 그건 경당의 목재를 고스란히 썼기때문이라고 변명하겠지만 어쩌면 저리도 흠집 하나 없으니 그건 또 뭐라고 변명하겠는가?》

명림어수는 글자가 씌여있는 벽체를 가리켰다.

《이 집에 〈문무〉라는 글이 웬 일이냐?》 하더니 명림어수는 목을 움츠리고 선 사람들에게 절절하게 말했다.

《내 기어코 이 경당을 주인들에게 찾아주려 하는데 그대들은 나쁜 놈에게 억눌려 거짓증언을 하고있으니 웬 일이오이까?》

그들이 털썩 무릎을 꿇으며 부르짖었다.

《잘못했소이다. 소인들은 돈을 한푼도 받지 못했소이다.》

명림어수가 시퍼런 불이 이는 눈으로 《퉁방울눈》을 쏘아보는데 인우가 끓어엎드린 사람들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려고 하는 놈을 단매에 쓸어눕히였다.

《퉁방울눈》은 그만 어리친 개처럼 비틀거렸다.

그때 모임을 마친 을파소는 대실근과 함께 수레에 올라 명림어수가 있는 곳으로 말을 내몰고있었다.

수레는 추녀가 높고 학이 날아가는듯 멋스러운 합각지붕을 떠인 기와집앞에서 멈춰섰다.

부자놈이 객주집으로 만든 경당이였다.

집둘레로 버드나무가 우거지고 그뒤로 비류수를 낀 거리가 펼쳐져있었다.

을파소는 명림어수가 어떻게 처신했겠는지 몹시 궁금하였다.

수레에서 내려선 을파소에게 인우가 다가와 있은 일을 아뢰였다.

명림어수가 경당을 빼앗은 놈을 굴복시켰다는 말에 을파소는 흡족해하였다.

(키는 작아도 학루의 제자답군. 아무렴, 명재상의 자손이 아닌가.)

을파소는 대실근에게 말했다.

《뒤일은 그대가 알아 처리하게.》

국상까지 내려와 떠밀어주니 대실근은 자신심에 넘쳐있었다.

(5)

을파소는 보름나마 졸본에 머무르고있었다.

적어도 한달쯤 허비해야 졸본에서 할바를 할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벌써 세가지 일을 다 이룬셈이였다.

구려경당을 일신시키게 한것이 무엇보다도 마음에 들었다.

며칠전 부역군들을 들이밀어 더 크고 번듯한 경당청사를 지을 터를 닦아놓았다.

이해말에는 새 건물에서 총각들이 문무를 배울수 있게 될것이였다.

뿐더러 인재를 널리 받아들일수 있도록 조치도 취했고 구려경당에서 요구하는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는 질서도 세워놓았다.

졸본산성의 개축공사도 타산을 세웠다.

이번에 돌아보니 졸본산성의 개축공사가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공사량이 대단했다.

그래서 잡도리를 잘하고있다가 한해후 이 일대의 사람들을 총동원시킬 생각이였다.

그렇게 하면 늦잡아 삼사년안에 졸본을 고구려의 서쪽도성으로 일떠세울수 있을것이였다.

졸본의 정사도 이제는 제 궤에 들어섰다고 할수 있었다.

강직하고 청렴한 대실근이 태수로서의 큰 권한으로 불의한자들을 답새기고 나라를 위해 분발하고있으니 마음을 놓을수 있었다.

을파소는 졸본에 와있어도 언제나 나라전반의 형편에 환했다.

그것은 국내성에 남아 조정을 돌보는 부하들에게서 날마다 나라형편을 보내오기때문이였다.

요즘 을파소는 또 하나의 구상을 무르익히고있었다.

그것은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쌀을 꾸어주도록 하는것이였다.

가난한 백성들이 부자들에게 더는 빚을 지게 하지 않도록 하자면 나라에서 낮은 리자로 쌀을 꾸어주면 될것이였다.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리자로 쌀을 대여해주어야 국익에도 맞고 백성들의 환심도 살수 있을가, 바로 이것이 의논되면 결단코 실행할 생각이였다.

래일은 도성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한 을파소는 머리도 식힐겸 거리 구경을 하고싶었다.

그래서 평민복을 입고 명림어수와 인우를 데리고 관사를 나섰다.

《어데로 가시겠소이까?》

명림어수의 물음에 을파소는 벙글 웃었다.

《그렇지, 네가 가자는대로 가자꾸나.》

그에 사기가 오른 명림어수가 앞으로 나섰다.

《그럼 좋소이다. 즐기는데서 식도락이 제일이라는데 오늘 점심은 귀천을 막론하고 다 좋아하는 소내포국을 드시는게 어떻소이까. 난 졸본에서 소내포국을 제일 잘하는 집을 아오이다.》

식도락이란 소리에 기분이 흥그러워진 을파소가 대꾸했다.

《아주 좋아. 벌써부터 목젖이 근질거리는구나. 자, 어서 가자.》

사기가 나서 이끄는 명림어수를 따라 한동안 가니 거리의 한 변두리였다.

《다 왔소이다. 이 집이 유명짜한 소내포국집이오이다.》

큰 거리의 기와집들과 달리 초가집뿐인 이곳은 소내포국집도 초가집이였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드는 내포국집인것 같았다.

구수한 내포국냄새가 바람을 타고 실려와 내장을 끓게 하였다.

《허ㅡ 어수가 늙은이의 마음을 아는군.》

여러칸으로 된 어느 한 방에 들어서니 벌써 한구석에서 두 젊은이가 음식상을 마주하고있었다.

명림어수가 빈 상앞으로 을파소를 이끌며 말했다.

《할아버님, 시원한 막걸리도 드시는게 어떻소이까?》

관복을 입지 않았을 때에는 국상의 본색을 숨기기로 한 약속을 어기지 않은 명림어수가 기특하여 을파소는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좋지, 마침 속이 컬컬하댔는데 한두사발쯤 마시는것도 괜찮지.》

세사람이 상에 둘러앉기 바쁘게 주인이 막걸리동이도 들여오고 소내포볶음도 몇접시 차려주었다.

인우가 막걸리를 한사발 가득 떠서 을파소에게 내밀었다.

《드시오이다.》

을파소는 쾌히 받아들었다.

《자네들도 들게.》

을파소는 쩡하면서도 시큼하고 그러면서도 감미로운 막걸리맛에 피로가 쑥 가셔지는것 같았다.

숨 한번 내쉬지 않고 내처 막걸리사발을 바닥내고서야 을파소는 크게 숨을 들이켰다.

《야ㅡ 이 맛 참 좋다.》

명림어수가 부어준 막걸리사발을 또 받아든 을파소는 한구석을 차지한 두 젊은이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내가 자네라면 망할 놈의 이 땅을 훌 떠나버리고말았을거네.》

그 말에 막걸리맛이 싹 없어진 을파소는 두 젊은이를 곁눈질해보았다.

베옷차림에 검은 수건을 머리에 쓴 젊은이는 농군일것이고 붉은 밤색바지에 풀색저고리를 입고 다리에 행전을 친 젊은이는 군졸일것이였다.

농군이 또 입을 놀렸다.

《자넨 아픔밖에 준것 없는 이 고장에 무슨 미련이 있어 그러나. 군진에서 빌려타고 온 군마까지 촌장놈에게 빼앗겼으니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면 무사치 못할거네. 게다가 수자리를 마치고 돌아와도 촌장집에 끌려가 종살이를 해야 하는데 그럴바치고는 도망치는게 낫지.》

긴 한숨끝에 군졸이 대꾸했다.

《나도 그런 마음이 없는게 아니야. 하지만 생각 좀 해보게. 여기엔 의지가지할데 없던 날 길러준 양부모의 묘가 있지 않나. 고마운 양부모님들의 묘를 돌보지 않고 나만 잘살겠다고 도망친다면 그게 무슨 사람이겠나. 난 죽어도 그렇겐 못해.》

《그럼 너 종살이를 하다가 양부모처럼 골병들어 죽겠다는거야?》

《후ㅡ 별수가 있니?》

들어볼수록 심상치 않는 일이라 을파소는 두 젊은이가 마주한 상을 바라보았다.

조밥에 국이 전부였다. 가난한 사람들이니 그럴것이였다.

을파소는 막걸리를 두사발 떠서 그들앞으로 옮겨주었다.

《나에게도 자네들 같은 자식이 있네. 그러니 사양말고 받게.》

을파소의 마음을 안 인우와 명림어수가 상을 맞들어 그들의 상에 잇대여놓았다.

곧 두 젊은이는 허물없는 사이가 되여 주는대로 막걸리를 받아 마시였다.

이윽고 을파소가 군졸에게 물었다.

《보아하니 자네에게 가슴아픈 사연이 있는가본데 내가 좀 알아도 되겠나?》

막걸리를 마시고난 군졸은 고개를 저었다.

《괜히 로인장님의 마음까지 상하게 하고싶지 않소이다.》

농군이 손을 내저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겠소이다. 이 친구와 나는 졸본의 서부에 사는데… 세상에 이 친구처럼 팔자가 사나운 사람도 드물것이오이다.

이 친군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이웃집에서 데려다 길렀소이다. 양부모도 째지게 가난했지만 그속에서도 이 사람의 배를 곯리지 않으려고 촌장집에서 쌀을 꿔다 먹었는데 그게 새끼를 치고 또 새끼를 쳐서 나중에는 엄청난 빚이 되였소이다.》

을파소는 가슴이 답답하여 목깃을 헤치였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서 쌀을 꾸어먹고 빚을 지도록 더는

내버려둘수가 없다. …

《십년전 촌장놈은 이 친구를 제 집 식솔로 군적에 올리고 수자리로 내보냈소이다. 그때부터 이 친구는 그 집 떨거지들 몫으로 돌아가며 군역을 지고있소이다. 그동안 촌장집 빚단련에 시달리던 양어머니가 먼저 죽고 이번에는 양아버지마저 잘못되였소이다.

두번씩이나 이 사람이 없이 양부모의 장례를 치를수 없기에 제 송아지친구로서 변방을 찾아가 부고를 전했소이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군마를 빌려타고 와 양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었소이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기 바쁘게 촌장놈이 나타나 빚값으로 군마를 빼앗아갔소이다.》

격분한 명림어수가 주먹을 내흔들었다.

《두눈을 시퍼렇게 뜨고 군마를 빼앗긴단 말이오이까?》

농군이 명림어수의 어깨를 치며 말했다.

《이 친구 영 셈판을 모른다니까. 촌장이 빚값으로 말을 내놓겠느냐, 종신 수자리를 살겠느냐 야단을 치며 빼앗아가는데 별수가 있겠나?》

명림어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부르짖었다.

《죽여도 시원치 않을 촌장놈을 당장 잡아다 족쳐야 하오이다.》

격분한 명림어수의 입에서 국상이라는 말이 튀여나올것 같아 얼른 입을 다물라는 눈짓을 한 을파소가 농군에게 물었다.

《촌장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농군이 치를 떨며 말했다.

《그놈은 짐승만도 못하오이다. 젊었을 때 어느 대가집에서 심부름질을 해먹었다는데 그 대가에게 잘 보여 촌장이 되였다고 하오이다. 아첨질에 이골난 그놈이 촌장질을 하면서 관가를 업고 갖은 수단을 부려 오늘은 십리아근의 땅이 다 그놈의것으로 되고말았소이다.

어느해인가 그놈은 마마를 앓는 제 손자를 구완한다면서 남의 집 젖먹이를 빚값으로 빼앗아다 호구별성귀신한테 제를 지내고 산에 내다버려 죽게 했소이다.》

민심을 더럽힘으로써 국익을 해치는 촌장에 대한 분노로 을파소

는 이를 갈았다.

지난날 시골에서 토호들의 악행을 목격할 때면 가슴에서 불이 일군 하던 그런 심정이였다.

며칠 더 묵더라도 토호들의 악행을 막아야겠다고 결심한 을파소는 군졸을 바라보며 물었다.

《자네 이름이 뭔고?》

군졸이 대답했다.

《구시라고 하오이다.》

을파소는 속으로 탄식해마지 않았다.

이 군졸의 부모들은 자식이 귀하게 되길 바라서 구슬이란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었건만…

을파소는 군졸에게 일렀다.

《자넨 나와 함께 갈데가 있으니 딴 생각말고 따르게.》

(6)

관가로 돌아온 을파소는 즉시 대실근을 불러 구실아치들의 악행에 대한 조사를 엄하게 진행하라는 령을 내리였다.

그날로 온 관가가 발칵 뒤집혔다. 대실근까지 아래로 내려갔다.

을파소의 분부를 받은 명림어수는 이름이 구시인 군졸과 함께 그의 고향마을로 갔다.

며칠후 국법을 어기고 나라의 재물, 남의 재물을 가로채고 무고한 사람들을 해친 구실아치들이 관가에 끌려왔다.

을파소는 구시의 군마를 빼앗은 촌장을 직접 문초했다.

형틀에 묶이운 촌장을 굽어보는 을파소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자의 상통은 아무리 좋은 감정을 가지고 뜯어보아도 어느것 하나 바로 생기지 못하였다. 도무지 사내축에 끼우지 못할 좀상한 몰

골을 한 이놈이 숱한 사람들의 명줄을 거머쥐고 제 하고싶은대로 못되게 굴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돼지도 돌아앉아버릴만큼 추한 놈이 큰 마을을 타고앉아 멀쩡한 사람들을 짓밟았단 말인가.

명림어수가 그자의 죄행을 렬거하는데 너무 역겨워 듣지 못할 정도였다.

그 꼴에 얼굴이 반반한 녀인들을 겁탈하고 거짓으로 나라에 바칠 거라며 내리먹여 거두어들인 재물을 제 집에 들여쌓고 제놈의 못된 짓을 아는 녀종에게 독약을 먹여 죽이고…

당초에 어미배속에서 악꾸러기로 삐여져나온 놈이기에 그런 악행을 저질렀으리라.

을파소는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에 사무친 그놈을 마을에 끌어다 릉지처참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놈의 재물을 마을사람들에게 되돌려주도록 하였다.

이어 악독한 구실아치들이 차례로 끌려나와 지은 죄에 따르는 벌을 받았다.

을파소에게는 한가지 깨달아지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우에 앉아 호통이나 해서는 시골에까지 바른 정사가 미칠 수 없다는 그것이였다.

시골에까지 바른 정사가 내리먹도록 하자면 국상이 직접 고을들을 돌아보면서 정직한 관리들을 도와주고 악독한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할것이였다.

이튿날 관사에서 점심상을 물린 을파소가 벽에 기대앉아 숨을 돌리고있는데 조심히 방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다. 군마를 되찾은 구시였다.

끓어엎드린 구시는 눈물을 머금고 아뢰였다.

《국상어른의 은혜를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지 않겠소이다. 부디 옥체만강하옵소서. 그럼 소인은 군진으로 돌아가겠소이다.》

을파소가 한손을 쳐들었다.

《가만, 내가 도와줄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말해라.》

잠시 망설이던 구시가 입을 열었다.

《소인은 지금껏 남의것을 빼앗고 백성을 죽이게 하는것이 나라의 령인줄 알았소이다. 오늘 그게 다 국법을 어기는 권세잡은 놈들의짓이라는것을 알고보니 나라를 더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였소이다. 소인은 철기군에 들어가 한생 나라를 지키는 군사가 되고싶소이다.》

을파소는 기분이 좋아졌다.

의로운 사람을 얻는 재미보다 더한 즐거움이 어데 있겠는가.

인심도 군심도 얻는 일에 열백밤을 팬다한들 어찌 마다하랴.

을파소는 붓을 집어들고 우거에게 보내는 글을 썼다. 구시를 철기군에서 중히 쓰라는 글이였다.

수자리 10년이면 얼마든지 그 중임도 감당해낼것이였다.

글월을 구시의 손에 들려준 을파소는 말했다.

《이 글을 우거장군에게 전하거라.》

을파소는 구시에게 해주고싶은 말이 많았지만 짤막하게 말하였다.

《세상엔 쉬운 일도 없거니와 헐하게 뜻이 성취되는 일도 없다네.

난 자네가 다진 마음 변치 말고 이악하게 분발하여 반드시 나라에 군공을 세우기를 바라네.》

《명심하겠소이다.》

구시를 바래워준 을파소는 대실근을 불렀다.

《앉게.》

대실근의 둥근 얼굴에서 인상적인것은 환하고 넙적한 얼굴에 비해서 눈이 작고 오른쪽볼에 칼맞은 흉터가 있는것이였다. 젊은 시절 변방의 군사로 외적과 싸울 때 많은 적을 버이고 입은 상처였다.

그 흉터를 보며 을파소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뒤로 물러서지 않는 고구려사람의 기질에 대해서 다시한번 느낄수 있었다.

을파소와 무릎을 마주한 대실근은 송구한 마음이였다.

아직은 한창나이이고 또 조정대신의 권한이 부여된 졸본의 태수

로서 늙은 국상을 돕지는 못할망정 짐이 되였으니 얼굴을 들수 없었던것이다.

을파소는 죄책감에 잠겨있는 대실근을 바라보며 말했다.

《난 래일 떠나겠네. 그런데 자네에게 정이 들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것 같아. 사람의 정이란 참…》

진정이 담긴 그 말에 눈물이 글썽해진 대실근이 목메여 말했다.

《국상어른, 두번다시 국상어른의 속을 태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소이다.》

을파소도 그 말에 눈물이 글썽해졌다.

대실근은 다짐하듯 힘주어 말했다.

《구려경당도 잘 돌보고 졸본성도 개축할 차비를 잘하겠으니 졸본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이다.》

감동된 을파소는 대실근의 손을 부여잡았다.

《자넨 다 좋은데 꼼꼼하지 못하고 덤비는게 탈이야. 정사를 바로하자면 아래를 잘 살펴야 하네.》

대실근은 고개를 떨구었다.

이번에 대실근은 을파소의 도움으로 토호들의 악행을 바로잡으면서 크게 깨달은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아래를 세세히 살피지 않고 호령으로만 고을을 다스리려 한것이였다.

인구도 적고 세력있는 부자도 적은 산골고을에서는 그렇게 해도 관가를 통솔할수 있었지만 도읍에 못잖게 큰 도회인 졸본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았다.

도적은 앞으로 잡아야 한다고 도회에 득실거리는 토호들을 다스리자면 그자들의 죄행부터 낱낱이 알아내야 했었다.

그런데도 관청에 앉아 아래에 나가보지 않았으니 토호들의 뒤구석을 알리 없었던것이다.

옛날부터 항간에 나가보아야 어두운 구석을 알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말대로 을파소는 항간을 가까이했기에 한그물로 국법을 어긴

무리를 잡아낸것이였다.

《국상어른, 명심하겠소이다.》

《음… 나 같은 늙은게 이제 살면 얼마를 더 살겠나. 고구려는 자네 같은 사람들의 어깨우에 실려있네. 난 잠결에도 외적때문에 가슴을 조이네. 우리에게 수십만대군이 있다 해도 조정대신들이 제살궁리나 한다면 나라는 결코 무사할수가 없는거네.》

격정에 북받쳐 흘리는 대실근의 눈물이 을파소의 손등에 떨어졌다.

자나깨나 나라를 붙안고 근심하는 이런 늙은이가 가자고 하는 길이라면 물속에란들 꺼리랴, 불속에란들 주저하랴.

자기의 손등에 떨어지는 대실근의 눈물을 느끼며 을파소는 또 한 시름을 놓을수 있었다.

을파소는 요즘 구상해오는 일거리를 입에 올렸다.

《이건 좀 다른 일일세. 난 나라에 곡식을 저축해두었다가 봄에 부자들보다 낮은 리자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자는것일세. 이제 도성에 돌아가 의논에 붙여보고 좋다고 하면 임금님께 상주하여 실행해 보려고 하네.》

대실근이 감탄을 터치였다.

《이건 국상어른만이 생각해낼수 있는 명안이오이다. 그렇게 하면 부자들의 쌀고간을 채우던 쌀이 나라의 고간으로 들어올것이고 또 백성들의 환심도 모을수 있으니 이런게 정사의 묘술이 아니겠소이까.》

대실근의 지지에 을파소는 배심이 든든해졌다.

《그래서 난 자네가 그 일을 잘해보라는것일세. 그가 누구이든 땅을 가진 사람에게서 조세를 나라법대로 받아두었다가 조정에서 령이 떨어지면 자네가 선참 솜씨를 보여주게.》

《알겠소이다.》

대실근의 힘있는 대답에 을파소는 가슴이 후련하였다.

졸본에 내려온 소득이 이만하면 대단하다고 할수 있었다.

(7)

졸본에 내려간 을파소가 그곳의 정사를 바로잡느라 애쓰고있을 때 발기와 손을 잡은 우소도 가만있지 않았다.

을파소가 도성에 없는 이때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타산한 우소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들었다. 우소의 생일날에 임금이 그의 집에 왕림한것이였다.

임금의 가시아버지로서 마음만 먹으면 아무때건 대궐에 들어가 임금을 뵈올수 있지만 남의 눈을 꺼려 이날을 기다린 우소였다.

주연이 끝나자 우소는 임금을 별실로 안내했다.

이미 사환군에게 그 누구도 별실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단단히 이른 우소는 자리에 앉은 임금을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신은 국구된 몸이라 나라정사에 참여하면 안되는줄 아오만 오늘 대왕마마를 모시였기에 조용히 한말씀 아뢰자고 하오이다.》

임금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이런데서까지 군신의 간격을 두어야 하겠소. 사위는 반자식이라지만 짐은 국구어른을 친부모로 여기지 않은적 없으니 허물없이 대해주기 바라오.

그리고 짐은 나의 집안사람들이 관직을 탐내거나 세력을 모으는걸 금하라 하였지 정사가 잘되게 하는 의견을 내놓는것을 금한다고 하지 않았소. 그러니 꺼리지 마오.》

임금과 진정 한식솔이고 부모라는 자부심에 흥이 난 우소였지만 군신간의 례의만은 잊지 않았다.

《대왕마마, 나라일에 신의 소견을 좀 아뢰인다면 국상이 국상구실을 바로한다고 볼수 없는줄로 아오이다.》

육친의 정이 가득했던 임금의 마음은 저으기 긴장해졌다.

국상이 국상구실을 하지 못한다?…

우소도 안색이 흐려진 임금의 태도에 저으기 긴장되였다.

을파소의 허물을 끄집어내여 임금이 노한다면 야단인데… 아니야, 말만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우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신이 보건대 국상이 마구 일을 벌려놓는것 같소이다. 좌가려네 때문에 고생을 한 백성들을 안착시킬 생각은 않고 도처에 성을 개축하는 역사를 잔뜩 벌려놓았으니 어찌 민심을 모을수 있겠소이까.》

임금은 불쾌해진 마음과는 다르게 미소를 지었다.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더라면 즉석에서 가만두지 않았을것이였다.

나라방비로 백성이 고생한다면 그게 무슨 대수란 말인가.

좌가려네가 정사를 망칠 때 민심을 가지고 우려한것은 백성이 들고일어날가봐서였다. 백성이 들고일어나면 이때라고 탐욕의 무리가 반란을 꾀할수 있고 그를 기화로 도처에서 권력을 탐내는 토호들이 란리를 일으킬것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정사가 바로잡히고 고을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령이 쭉쭉 내리먹고있다.

그런데도 우소가 민심을 운운하면서 국상을 탓하려 하는것은 아직까지도 을파소를 조정에서 몰아내지 못해 몸살을 앓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였다.

불쾌해진 임금이 한마디 하였다.

《국상은 단지 짐의 령을 받아 일했을뿐이오.》

임금의 비위를 거슬린 우소였지만 주저앉지 않았다.

발기의 청도 청이지만 조정에서 을파소를 몰아내야만 자기도 권세를 부릴수 있었기때문이였다.

《민심은 그렇다쳐도 국상이 사람들을 마구 처형하는것은 잘된것 같지 않소이다. 아무리 선참후계의 특전을 부여받았다고 해도 국상도 신하인데 죽을죄를 진자라 해도 대왕마마께 아뢰인 다음 어지를 받아 벌을 주는것이 마땅한줄 아오이다. 더우기나 멀리 떨어진

전장도 아닌데 하려궁을 먼저 죽이고 상주한것은 심히 잘못된 처사이오이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자식이 가사를 독단으로 처리하는 집은 아비가 바지저고리와 같고 신하가 국사를 마음대로 실행하는 나라의 군주는 목숨이 위태롭다고 하였사옵니다. 신의 소견이 지나쳤다면 용서해주사이다.》

임금은 마음이 무거웠다.

하려궁을 죽일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을파소로부터 전해들었을 때에는 그의 처사에 다른 의견이 없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우소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되였다.

먼곳도 아닌 도성에서까지 그래야 옳은가?!…

이런 임금의 심중을 엿본 우소가 힘주어 말했다.

《인재등용도 그렇소이다. 국상이 천거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그의 눈에 든 사람들이오이다. 인재를 천거하는데서는 미운 사이라도 꺼리지 않는게 바른 처사가 아니겠소이까.

그런데 국상은 대왕마마의 윤허를 받은것이라 할지라도 제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천거한것이였소이다.

세력이 커지면 충의를 뇌이던 사람도 변할수 있다는것이 지나간 일들이 보여주는바가 아니오이까?》

심기가 몹시 불쾌해진 임금은 말이 없었다.

듣고보니 우소의 말은 그른데 없는것 같았다.

내가 국상에게 지내 큰 권한을 준게 아닐가?!

조정을 자기 사람들로 꾸린 국상이 딴마음을 먹는다면 돌이킬수 없는 랑패를 당할것이다.

정녕 국상이 나의 은총에 딴마음으로 갚을 사람일가?… 그가 나를 배반한다면?…

그가 나를 배반한다면 즉시 파면시키면 될것이다. 선손을 써서 파면시키는것이 어떨가?… 아니, 아니야.

임금은 아직 을파소를 믿고싶었다. 이제 와서 그가 없으면 나라의

어느 한가지 일도 바로잡아나갈것 같지 못했다.

국상을 그대로 쓰면서 서로 견제할수 있도록 조정대신들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로 등용하면 어떨가?

그런 생각에까지 이른 임금은 이내 머리를 저었다.

조정을 서로 반목질시하도록 만든다면 강대한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개싸움으로 지리멸렬되고말것이다.

임금의 령을 어김없이 따르는 조정만이 외적을 제압하고 강대국의 위엄을 시위할수 있는 법이다.

고구려력사에 임금의 총애를 받은 늙은 재상들이 임금을 진심으로 섬긴 례는 많아도 반역을 저지른자는 없다.

시조의 뒤를 이은 유류왕은 19살의 애젊은 나이에 보위에 올랐지만 오이, 마리, 부분노 같은 로신들이 떠받들었고 역시 새파란 나이에 임금이 된 대주류왕도 옥지, 구추 등 늙은 재상들이 받들었기에 강대국을 유감없이 다스린것이 아닌가.

옳다, 내 만일 국상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나를 의심하는 것이다. 국상과 나는 한마음한뜻이거니 의혹을 없애고 참언을 물리쳐야 한다.

자신을 되찾은 임금이 낮으나 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현명한 아비는 자식을 알고 현명한 군주는 신하를 안다고 했소. 국상이 하는 일은 다 짐을 받드는것이고 태묘사직을 위한것이오.

하늘이 짐을 위해 국상과 같이 더할바없이 참되고 훌륭한 인재를 보내주시였는데 어찌 그를 의심하리오.

국구가 아닌 사람이 그런 참언을 하였더라면 즉석에서 참해버렸을것이오.》

임금과 국상이 한몸임을 안 우소는 목을 움츠리고말았다.

목을 움츠린 우소를 보며 임금은 바른 정사에 힘쓰는 국상을 헐뜯는자는 결단코 엄벌에 처하리라 마음다졌다.

이렇듯 충신을 지켜주는 임금이였기에 을파소는 그 누구에게도 구애되지 않고 국력강화에 전심할수 있었다.

(8)

평민복을 차려입은 을파소는 대실근의 바래움속에 귀로에 올랐다.

졸본이 보이지 않자 말을 멈춰세운 을파소는 수레에서 내렸다.

졸본으로 내려올 때에는 큰길로 수레를 타고 왔지만 돌아갈 때에는 좁은 길로 말을 타고 가는것이 좋을상싶었다.

이제부터는 될수록이면 마을들을 돌아보면서 나라의 정사가 속속이 미치도록 손을 댈 생각이였다.

그러니 인가를 낀 좁은 길로 가야 했다.

부하들에게 수레를 끌고 큰길로 돌아가라고 분부한 을파소는 인우와 명림어수를 거느리고 좁은 길로 접어들었다.

그들의 뒤로 몇명의 기마군사들이 따랐다.

국상을 호위하는것이 어길수 없는 직분이라 을파소가 만류해도 물러설 그들이 아니였다.

얼마쯤 갔는데 고개가 나지고 고개아래에서 사람들이 모여 웅성이고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박우물을 손질하는 사람들이였다.

마침 갈증이 난 을파소가 말에서 내리였다.

《우리도 물을 마시고 가자.》

호로병을 든 명림어수가 박우물로 뛰여갔다. 그러나 곧 볼이 부어가지고 오는 명림어수였다.

《할아버님, 인차 물을 마시기는 케가 틀렸소이다.》

《그건 왜?》

심상한 을파소의 물음에 명림어수가 불평조로 대꾸했다.

《글쎄 방금전에 이 길로 웬 벼슬아치가 지나갔는데 그자가 물을 처마시고는 박우물에 말을 직접 들이밀었다고 하오이다. 그래서 말이 물을 마시느라 박우물에 쌓은 돌들을 무너뜨리고 똥까지 싸놓았

기에 길손들이 저렇게 손질하고있소이다.》

그 말에 을파소는 분노가 치밀었다.

길손이라면 누구나 신세를 지는 박우물에 말을 직접 들이밀다니…

그것도 관복쟁이가? 그런 놈이 정사를 하면 얼마나 바로하고 그런 놈이 나라를 받들면 얼마나 받들겠는가. 바로 그런 놈이 제살궁리로 국익을 해친다.

을파소는 뒤따라온 군사들에게 일렀다.

《방금전에 이 길로 웬 벼슬아치가 말을 내몰아 박우물을 짓부시고 갔다고 한다. 너희들은 그놈을 붙들어 조정으로 압송하라.》

군사들은 말에 박차를 가하며 앞으로 내달렸다.

기분이 잡친 을파소는 말우에 올라앉았다.

《그냥 가자.》

울적한 마음으로 을파소는 지나치는 길가를 바라보았다.

한 골안이 지나면 또 다른 골안이 나지고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졌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무성한 산골짜기들을 바라보던 을파소의 두눈이 커지였다.

길에서 수백보 떨어진 협소한 산골짜기에 한채의 초가집이 있었다.

가파로운 산들의 짬사이로 실개울이나 흐르는 저런 좁은 골안에 집이 있다니… 정배살이도 저런 외진 곳에서 홀로 하지는 않는데… 혹시 저 집에 세상과 담을 쌓은 사람이 사는것은 아닐가. 무엇때문에?…

이것을 헤쳐보는것도 내 할바가 아니겠는가. 가는 길이 지체되더라도 알아보자.

을파소는 오솔길도 찾기 힘든 골안으로 말머리를 돌리였다.

그 집의 가까이에 이르니 몇마리의 양이 밭머리에 매여있는 소궁둥짝만 한 뙈기밭에서 백발로인이 콩을 심고있었다.

말에서 내린 을파소는 조심스레 인기척을 냈다.

인기척에 허리를 편 로인이 을파소의 일행을 보고 놀라와했다.

을파소는 로인에게 다가가며 입을 열었다.

《이 집에서 점심을 지어먹고 갈가 해서 들렸소이다.》

로인의 얼굴이 환해졌다.

《외진 내 집에 사람들이 찾아드니 반갑소이다.》

로인에게 이끌려 집마당에 들어선 을파소는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새초를 두툼하게 얹은 초가집의 둘레로 돌각담과 뙈기밭이 널려있었다.

그뒤로 금시 무너져내릴것 같은 가파로운 산이 솟구쳐있었다.

뙈기밭농사나 하자고 이런 험지에서 사는것일가.

이윽고 방에 들어선 을파소는 놀랐다.

식솔이라고는 늙은 내외와 예닐곱살 난 총각애가 전부였던것이다.

보다 놀라운것은 안늙은이가 차린 점심상이였다.

그릇에는 콩을 섞은 수수밥이 곡상으로 담겨있고 말린 버섯반찬과 말린 고사리반찬이 올라있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정도이면 생일상이라고 해야 할것이였다.

을파소는 웃으며 밥그릇을 가리켰다.

《이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먹어야 할것 같소이다.》

로인이 웃으며 명림어수를 가리켰다.

《이 젊은이는 돌도 삭이겠고… 농군은 뭐니뭐니해도 밥낟가리가 높아야 땅과 씨름할수 있소이다.》

로인의 후더운 정에 을파소는 달갑게 밥을 들었다.

밥상을 물리자 을파소는 찾아온 사연을 말했다.

《주인장은 어이하여 이런 험한 곳에서 홀로 사는것이오이까?》

로인이 대꾸했다.

《관가가 꼴보기 싫어서이지요. 백성들의 등가죽을 벗기는 관가것들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더라니… 이 골안은 옛적에 어느 심보고약한 벼슬아치가 사냥을 왔다가 범에게 물려죽었다고 해서 범골이라고 하오이다. 그래서 인적이 없어졌지요. 그래 난 일부러 인적이 없어진 이곳을 찾아왔소이다. 까짓거, 세상구경을 못한다고 해도 마음

이 편하니 살것 같소이다.》

《그럼 관가단련을 받지 않는다는것이오이까?》

을파소의 질문에 로인은 한숨을 내뿜었다.

《백성이 사는 곳이라면 땅속 천리란들 기어코 쫓아와 등가죽을 벗기는게 관가이지요. 하지만 나라에 못 돼먹은 벼슬아치만 있는게 아닌것 같소이다. 내가 관가단련을 면할수 있은것은 고마운 장군어른의 덕이지요.》

《주인장에게 무슨 곡절이 있은가보오이다.》

로인은 무릎에 와앉은 손자녀석을 껴안으며 대꾸했다.

《세해전 초여름이였소이다. 그날도 뙈기밭에서 김을 매고있는데 관가것들이 들이닥쳤소이다. 그놈들은 대바람 관가의 허가없이 땅을 일구었다고 야단을 치더니 밭을 개간한지 한해이니 스무섬의 곡식을 땅구실로 바치라는것이였소이다.

외진 곳에서 살면 관가의 꼴을 보지 않을가 해서 손끝이 닳도록 밭을 일구었는데 밭고장의 좋은 밭보다 더 많은 땅구실을 내라니 이게 어디 될말이오이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바에는 백성을 못살게 구는 놈들을 까눕히고 죽자. 이런 생각에 난 도끼를 들고나섰수다.

내가 도끼를 들고나서자 그놈들이 칼을 뽑아들고 죽이겠다고 호통을 쳤지요.》

을파소는 피터지는 싸움을 그려보며 숨을 죽이였다.

《그때였소이다. 〈이놈들아, 칼을 치우지 못할가?〉 하는 천둥같은 소리와 함께 말탄 사람이 달려왔소이다. 전복을 입은 장수였소이다.

장수의 뒤로 창을 꼬나든 군사들이 들이닥쳤소이다. 장수어른이 다짜고짜 관가것들에게 말채찍을 휘둘렀소이다. 벼락치듯 날아드는 채찍에 관가것들이 아우성을 지르며 도망치려 하자 군사들이 달려들어 두들겨팼소이다.

난 깜짝 놀랐소이다. 원, 세상에 관가사람들을 욕보이다니요.

한참만에 매질을 그만둔 장수어른이 머리를 싸쥔 관가것들에게 소리쳤소이다.

〈이놈들아, 내 다 들었다. 한해 땅구실로 곡식이 스무섬이야? 그래 이 집에서 곡식을 심은 밭이 얼마나 되느냐? 고작 네놈들의 궁둥짝만 한 밭이 몇뙈기뿐인데… 게다가 새로 일군 땅은 몇해동안 조세를 내지 말라는것이 나라법이야. 국법도 모르는 이놈들아.〉 하더니 그 어른은 또다시 채찍을 휘둘렀소이다.》

을파소는 듣던중 통쾌하여 숨을 크게 들이켰다.

로인은 흥이 나서 말했다.

《장수어른은 또다시 소리쳤소이다. 〈너희 고을 우두머리에게 우거라는 사람의 말이라고 일러라. 국법을 어기고 백성을 못살게 구는게 나라님의 뜻이 아니라고. 내 오늘은 이쯤하고 간다만 끝내 이 집을 못살게 굴면 아무리 바빠도 달려와 네놈들을 모조리 목매달고말테다.〉 관가것들이 땅바닥에 이마를 처박고 벌벌 떠는데 우거장군은 나타날 때처럼 바람같이 사라졌소이다.》

을파소는 무릎을 쳤다.

그러면 그렇겠지, 우거장군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놈들을 짓뭉갤수 있겠는가. 세해전 초여름이라면 그때 우거장군은 변방의 장수로 부임되여가던 길이다. 아마도 지름길인 이 길로 가다가 관속들을 혼내웠을것이다.

로인은 눈물이 글썽해서 말했다.

《난 그날 장군어른이 고마와 울었소이다. 그런 장군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소이까.

그해부터 난 새땅이건만 조세를 바치고있소이다. 이것이 우거장군의 은혜에 보답하는것이 아니겠소이까.》

명림어수가 불쑥 물었다.

《로인장에게는 자식들이 없소이까?》

《왜 없겠소이까. 아들이 셋이고 딸이 둘에 손자, 손녀가 그들먹하오이다.》

《왜 모여살지 않소이까?》

을파소도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싶었다.

《내 살던 마을은 예서 사십리 떨어진 벌방이오이다. 허나 농사가 잘되면 뭘 하겠소? 관가가 좋아야지. 사실 난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자식들을 데려오려고 하였소이다.

그런데 농사를 짓던 어른이 국상이 되여 바른 정사를 펼친다기에… 부자놈들이 빼앗아가진 땅도 돌려주게 하고 악행을 일삼는 관가것들의 목도 뗴고… 참, 꿈같은 일이지. 그러니 세상이 달라질것 같더군요. 세상이 달라지면 이런 험지에서 힘들게 살게 뭐겠소이까.》

《그럼 어서 자식들에게 돌아가시오이다.》

제일처럼 생각해주는 명림어수를 바라보며 로인은 웃었다.

《헌데 아직은 일러. 내 보기엔 국상도 농군이였다지만 우리 같은 가난뱅이는 아닌것 같애.》

명림어수에게 아무런 내색을 말라는 눈짓을 하며 을파소가 물었다.

《그건 어떻게 하시는 말씀이오이까?》

《우리 같은 가난뱅이가 지지리도 못사는건 땅도 땅이려니와 그놈의 빚때문이 아니겠소이까. 국상이 빚단련을 받아보았다면 벌써 그걸 없앨 방책을 내놓았을것이오이다.》

을파소는 로인의 말이 귀에 거슬렸지만 꾹 참고말았다.

《주인장이 국상이라면 가난한 백성들이 빚구럭을 지지 않게 할수 있소이까?》

을파소의 물음에 로인은 자신있게 말했다.

《할수 있다마다요. 악독한 부자들은 봄씨붙임때나 보리고개를 기다려 고간에 쌀을 가득 채워두었다가 5할의 리자로 쌀을 꾸어주는데 나라에서는 머리를 쓰지 않고있소이다. 우에서 백성을 생각한다면 리자없이 쌀을 대여해주면 될게 아니겠소이까. 그러면 정신이 나갔다고 부자들한테 쌀을 꾸어다 먹겠소이까.》

나라에서 리자없이 쌀을 대여해준다?!…

을파소는 속으로 《안될 말.》 하고 뇌이였다.

온 나라 백성들에게 쌀을 대여해주자면 숱한 곡식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저축하고 나누어주는데만도 많은 사람을 두어야 할것이다. 게다가 곡식이란 하루를 묵여도 축나는것인데 나라가 밑지면서까지 그렇게는 할수 없다.

《이것저것 타산해서 2할의 리자로 쌀을 대여해주는것이 어떻겠소이까?》

로인이 얼굴을 붉히며 대꾸했다.

《내 생각이 짧은것 같소이다. 내 집에도 쥐가 있는데 나라의 쌀고간이야… 2할의 리자로 쌀을 대여해주어도 백성들이 한숨을 돌릴것이오이다.》

제앞에 앉은 을파소가 국상임을 알리 없는 로인은 제 하고싶은 말을 꺼리지 않았다.

구상을 무르익혀오던 참이라 지지를 받고보니 을파소는 만족해하였다.

오로지 제살궁리밖에 모르는 밉고미운 토호들이 마땅히 나라로 들어와야 할 백성들의 곡식을 더는 빼앗아가질수 없게 할수 있으니 어이 기쁘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나라의 쌀고간에 쌀이 넘쳐날수 있으니 국력은 보다 강해질것이다.

그럼 이 조치를 뭐라고 부른다?…

어쨌든 나라가 백성을 위해주는 조치라고 해야 그들의 환심을 살수 있으니 그에 맞게 이름부터 바로 정해야 한다.

그렇지, 나라가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나라의 쌀로 죽을 쑤어먹게 구제하는것을 진휼이라고 하니 이 조치를 진대법이라고 하면 좋을것이다.

그리고 나라에서 대여해주는 쌀을 진휼하는 쌀이라는 뜻에서 진대미라고 하면 될것이다.

(9)

을파소가 도성으로 돌아오니 말을 풀어놓아 길가의 박우물을 짓밟은 벼슬아치가 군사들에게 끌려와있었다.

그자를 심문해보니 연량리의 부하였다.

그자에게 엉치살이 터져나가도록 매를 안기게 한 을파소는 연량리를 불러들여 꾸짖었다.

음흉한 연량리는 을파소의 꾸짖음에 공손히 허리를 숙이고 잘못을 빌었다.

안류에게 관리들의 잘못을 속속이 더 잘 살피라는 공문서를 내려보낸 을파소는 임금을 찾아가 진대법을 가지고 의논하였다.

진대법이야말로 국익에도 맞을뿐아니라 백성들의 환심을 모을수 있는 조치임을 깨달은 임금은 곧 어전회의를 열었다.

어전회의에서 임금은 차비를 잘해두었다가 올해말 진대법을 공포하겠다는 령을 내리였다.

이로써 을파소는 또 하나의 큰 일감을 붙안게 되였다.

어전회의를 마친 그길로 을파소는 연우를 찾아갔다.

후리후리한 키에 힘장사같은 기백이 넘치고 얼굴이 백옥같이 환한 연우는 실로 미남이였다.

용모로 보나 출신으로 보나 재주로 보나 연우야말로 고구려의 사신으로서 강대국의 위엄을 빛내일만 하였다.

그런 사람과 마주앉은 을파소는 힘이 솟구침을 느끼였다.

《국상어른!》

언제나 을파소를 아버지처럼 여겨 공대해마지 않는 연우의 목소리에는 친근한 정이 어려있었다.

《어떤 분부라도 따르겠으니 큰 일감을 맡겨주사이다.》

나라일이라면 언제나 발벗고 나서는 연우의 됨됨을 잘 아는 을파

소에게는 그가 고구려를 버티는 기둥처럼 여겨졌다.

《전하에게야 무슨 긴말을 하겠소이까. 대왕마마와 이미 의논이 있었는데 전하께서 선비족, 흉노족에까지 다녀와야 할것 같소이다.》

《알겠소이다. 그러지 않아도 보다 큰일을 하고싶었는데 국상어른이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였소이다.》

연우가 웃으니 방안이 환해지는것 같았다.

탐욕스러운 발기와는 전혀 딴판인 연우를 바라보며 을파소는 속으로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먼저 이웃의 선비추장부터 만나보시오이다. 선비족과 우리는 이웃간이니만치 우리가 외란을 당하면 그들도 편안할수 없소이다.

그러니 그에게 우리들의 사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을 알리고 흉노를 찾아가소이다. 그러지 않아도 후한과 끝이 없는 분쟁때문에 이를 갈고있으니 우리가 손을 내밀면 대단히 기뻐할것이오이다.

안식국을 찾아가서는…》

기분좋게 말을 이어나가던 을파소가 불쑥 입술을 깨물었다. 어제 밤에는 이 일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을파소였다. 긴 밤 안식국을 찾아가야 하겠는가 말겠는가 하는것을 가지고 앞뒤를 재여가며 따져본 끝에 내린것은 아직은 그 길이 시기상조라는 판단이였다. 나라위한 욕망은 수만리 머나먼 나라들과도 모두 손을 잡고 적국을 견지하는 일에 끌어들이고싶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을파소자신이 맡아야 한다면 그 길을 끝까지 가고싶다만 발등에 떨어진 불과도 같다. 국사에 발목이 잡혀있으며 그것은 한갖 꿈같은 일뿐이였다. 그렇다고 남들에게 안식국에까지 가라고 한다는것은 너무한 처사라 아닐수 없었다.

한것은 안식국에 가려면 수천리 황량한 사막과 눈덮인 험산들을 넘어야 하는데 그 길에 사나운 떼도적까지 있으니 자칫하다가는 목숨을 잃을수 있었다. 나라위한 일에야 그 누가 목숨을 아끼자고 하랴만 설사 안식국과 손을 잡았다고 해도 그들이 그 먼길까지 헤치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겠는지 장담할수도 없는 일이였다.

욕망과 현실은 같지 않다고 하였으니 안식국과 손을 잡는 일은 아직은 좀 두고보아야 할노릇이였다.

그래서 그 일만은 덮어두자고 하였는데 또다시 욕망이 끓어올라 안식국을 입에 떠올렸던 을파소였다.

《안식국은 뒤로 놓아야겠소이다. 아직은… 전하께서 이번 걸음에 선비족에 이어 흉노와도 화친을 굳게 이어놓고 그래서 그들과 교역도 크게 하고 사신이 오가도록 약조를 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공이 없을것이오이다.》

한번 해볼만 한 일을 맡게 된 연우는 너무 좋아 어쩔줄 몰라했다.

《고맙소이다. 제 이번 걸음에 천하가 우리 고구려를 얼마나 공대하는지 그걸 후한것들이 알게 하겠소이다.》

을파소는 할바를 중히 여기는 연우를 미덥게 바라보며 말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부여에 들리시오이다.》

이미 고구려는 후부여 등 동족의 나라들에 사신을 보냈었다.

그때는 동족간의 화친에 대해서만 중시했던 관계로 교역은 론의하지 않았었다.

철기군을 대폭 늘이고있는 고구려에서는 군마가 많이 요구되였다.

《부여임금을 만나 우리 고구려에서 부여에 병쟁기를 만들수 있는 구리와 쇠를 주겠으니 부여에서는 우리에게 군마로 쓸 말을 내주도록 약조하시오이다.》

연우가 신심에 넘쳐 말했다.

《알겠소이다. 동족이 힘을 합쳐 겨레의 강토를 지키자고 하는데 누가 마다하겠소이까.

우리 고구려도 군마가 많이 나기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부여는 예로부터 명마의 산지가 아니오이까. 그러니 우리가 부여한테 쇠를 주겠다고 한다면 얼싸 좋아라 달라는대로 좋은 말을 줄것이오이다. 제 부여국에 가면 시조대왕께서 부여에서 타고 오셨다는 붉은 준마와 꼭같은 말을 가져오겠소이다.》

을파소는 못내 기뻐하며 말했다.

《그럼 제 대왕께 아뢰여 곧 떠나도록 하겠으니 차비를 잘해주소이다.》

며칠후 임금으로부터 고구려사신단의 정사로 임명받은 연우는 수백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도성을 나섰다.

그로부터 반년후 길을 다그쳐 머나먼 흉노족에까지 찾아가 화친을 두터이 하고 돌아오는 길에 후부여에 들렸던 연우는 수백필의 말과 함께 두필의 붉은 준마까지 얻어가지고 돌아왔다.

동명성왕이 부여를 탈출해올 때 어머니 류화가 골라준 붉은 준마와 꼭같은 말이였다.

광활한 초원과 산림을 가진 부여는 예로부터 이런 붉은 준마처럼 몸집이 우람한 키큰 말도 많았다.

연우가 올린 두마리의 붉은 준마를 받은 임금은 그중 한마리를 을파소에게 주었다.

이 한해도 끝없이 제기되는 크고작은 국사를 맡아 눈코뜰새없이 드바쁜 속에서도 고을들에 조정대신들을 내려보내여 국법대로 조세를 받아들인 을파소는 임금의 어명대로 10월 전국에 진대법을 실시한다는 방을 일제히 내다붙이였다.

5할로 리자를 받아들이는 부자들과 달리 나라에서는 대단히 낮은 리자로 곡식을 대여해준다는 진대법이 발포되니 예견했던바대로 백성들이 좋아했다.

백성들의 환심을 크게 모은 을파소는 묵어오던 과로로 다시금 몸져누웠다.

밖에서 아츠러운 윙윙 소리를 일으키며 찬바람이 부는 이밤 캄캄한 방에 을파소는 외로이 홀로 누워있었다.

자정이 넘었건만 그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지끈지끈 머리도 쑤시고 팔다리도 허리도 시큰거리고 기침도 나고…

괴로움속에 을파소는 긴 한숨을 내그었다.

《후ㅡ 늙긴 늙었어.》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처량하였다.

쓸쓸한 기분속에 옛 국상을 그려보느라니 그가 부러웠다.

《참 신선같은 어른이야. 백살도 넘은 몸으로 국상을 하였으니. …》

이어 또다시 한탄이 흘러나온다.

《할 일은 많은데 나이가 원쑤로구나. 로쇠에는 장사가 없다던데… 더 늦기 전에 후임을 정해두어야 하지 않을가.》

후임을 정하자고 생각하니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나타나는것이였다.

안류, 고우루, 대실근… 아니, 내 무슨 나약한 생각을… 이쯤한 고생에 마음이 흔들려서야 되겠는가. 후임을 바로 정해두되 숨지는 순간까지 억세야 해.

문득 객ㅡ 객ㅡ 하는 게사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기러기를 잡아 길들인게 게사니렷다.》 하고 중얼거리는 을파소에게는 뒤시중을 들어주는 중실부인의 현숙한 자태가 보이는듯싶었다.

을파소는 일부러 게사니를 가져다 기르는 중실부인의 마음을 알고있었다.

《그래, 국사에 부대끼는 나에게 잠시나마 즐거움을 주자고 기르지, 암.》

갑자기 쿨룩ㅡ 쿨룩ㅡ 기침이 터져나왔다.

뻐근해지는 가슴을 부여안는데 《몸이 더 편치않은가 보오이다.》 하는 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즐거워지는 중실부인이 방문밖에 초불을 켜들고있었다.

이밤도 잠 못 드는 자기를 지켜주는 중실부인임을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다.

《곤할텐데 쉬지 않고…》

《약을 달여왔소이다.》 하더니 방문이 열리고 중실부인이 들어

선다.

급히 일어선 을파소는 중실부인이 쥔 초불을 받아들었다.

《아무리 약이라도 그렇지, 깊은 밤인데… 자, 이리로…》

중실부인의 손을 잡아 뜨뜻한 아래목에 눌러앉힌 을파소는 그의 앞에 앉았다.

초불에 드러난 중실부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였다.

중실부인이 약사발을 내밀었다.

《나라일로 애쓰시는 국상어른을 잘 돕지 못해서… 이 약을 드시면 기침이 한결 덜해질것이오이다.》

약사발을 받아든 을파소는 중실부인에게서 정찬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약인데?》

부끄러움을 머금은 중실부인이 나직이 대꾸했다.

《의원의 말이 열이 나면서 기침하는덴 꽈리가 좋다고 했소이다.》

《그럼 이 밤중에 꽈리를?》

격정으로 을파소는 목이 꽉 메이였다.

오늘 낮 을파소는 어의 의신을 청해오겠다는 중실부인을 만류하였다.

을파소는 자기가 앓는다는것이 밖으로 새여나가지 않도록 엄히 단속하고있었다.

임금이 앓는데 국상까지 앓고있다는것이 밖으로 새여나가면 민심에도, 나라방비에도 좋지 않을것이기때문이였다.

하는수없이 중실부인은 을파소의 병세를 알아가지고 여기저기 항간의 의원들을 찾아다녔다.

마침내 담열로 기침하는데는 꽈리가 좋다는것을 알아낸 그는 밤늦게야 꽈리를 손에 넣은것이였다.

중실부인의 지성에 감동된 을파소는 단숨에 약물을 마시였다.

중실부인은 을파소를 부축하여 엎드리게 하였다.

《허리를 두드려드리겠소이다.》

중실부인이 을파소의 허리를 두드려주며 말했다.

《바람이나 구름처럼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정이 들지 않는다 했나이다. 소녀는 제발이지 국상어른이 저에게 있어서 바람이나 구름처럼 지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호ㅡ 하고 가는 한숨을 내쉰 중실부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남아호걸은 세상을 다스리고 녀중호걸은 남아호걸을 다스린다는 말 아시오이까?》

그 말에 을파소는 만시름을 잊고 웃었다.

웃고나니 쑤시고 무겁던 몸이 날아갈듯 하였다.

이어 방안에 울리는 중실부인의 목소리는 을파소의 마음을 보다 흥그럽게 울려주었다.

《의서를 보니 홀로 사는 나이든 사내인 경우 젊은 녀인을 재취하면 십년이상 더 오래 산다고 하오이다. 그래서 소녀가 국상어른께 어울리는 젊은 녀인을 중매설가 하나이다.》

방금전에 이제는 다 살았노라고 한탄했던 을파소는 그 말에 벌떡 일어나 앉았다.

사내라는게 얼마나 용렬해보였으면 아녀자가 먼저 그런 말을 꺼냈겠는가.

이런 녀인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난 사내가 아니다. 더우기 나에게는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직분이 있다.

젊음이 되살아난 을파소는 대담하게 중실부인을 그러안았다.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부르짖었다.

《이 사람, 나도 사내일세, 사내란 말일세. 임자를 내 사람으로 여긴지는 오랬어.》

《국상어른…》

(10)

이튿날 신기하게도 을파소의 몸은 거뜬해지고 기분도 상쾌해졌다.

그렇게 괴롭던 기침마저 가뭇이 사라져버리니 을파소는 젊은 녀인의 정이야말로 진짜 명약이로구나 하고 탄복했다.

늙은 홀아비에게는 젊은 녀인의 후더운 손길이 불사약임을 체험으로 느낀 을파소는 더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일욕심으로 가슴을 울렁거렸다.

좀더 일찌기 중실부인과 정을 맺지 못한것이 후회되였다.

허 참, 나이차이가 무슨 대수란 말인가. 나야말로 졸장부였어. 녀인과 정을 한껏 통하고 갱소년되니 얼마나 좋은가.

인차 임금께 아뢰이고 혼례식을 하리라 마음먹은 을파소는 또다시 정사에 달라붙었다.

을파소가 병석에서 일어난 소식은 그 즉시 임금에게 전해졌다.

을파소가 자기의 병을 숨기였지만 국상의 생사를 자신의 생사와 떼여놓고 생각지 않는 임금이 모를리 없었다.

국상을 며칠만이라도 쉬게 해야겠는데…

곧 그럴상싶은 궁냥이 떠올랐다.

그렇지, 사냥이 좋겠군. …

며칠후 사냥군차림을 한 임금과 을파소는 연우가 가져온 붉은 준마를 타고 위나암성너머의 북쪽길로 접어들었다.

그들의 뒤로 기마군사들이 따랐다.

길을 오가는 사람들은 누구도 임금이 행차했음을 알지 못하였다.

고삐를 끄당겨 을파소와 말머리를 나란히 한 임금이 그를 련민의 정으로 바라보았다.

확실히 을파소가 처음 도성에 올라왔을 때보다 늙었다는것이 알렸다.

뿐더러 얼굴에서는 병색까지 엿보였다.

그런데도 임금의 병을 걱정하여 이모저모 애쓰니 내 이런 충신을 언제 가져보았던가.

《오늘만은 일체 국사를 론하지 말고 신변잡사를 론했으면 하오. 국상은 왜 어의가 가져간 금분을 받아두고 드시지 않소?》

을파소는 놀라왔다.

어떻게 그런것을 임금이 알가?…

사실 을파소는 발기가 가져온 금분도, 임금이 보내준 금분도 고스란히 후한에 가있는 간자들의 활동비용으로 보내주었다.

임금이 을파소의 신상에 대해서 손금보듯 아는것은 우왕후의 덕이였다.

진대법을 공포한 다음날 을파소가 몸져누운것을 우왕후가 알려주었다.

우왕후의 눈과 귀라고 할수 있는 중실부인이 을파소를 시중들고있으니 국상의 신상에 대해서 환할수밖에 없었다.

얼굴이 축간 을파소를 바라보는 임금은 마음이 무거웠다.

국상에게 할 일이 오죽이나 많은가. 며칠후에만도 동맹을 또 주관해야 한다.

예로부터 고구려에서는 매해 10월에 도읍은 물론 전국의 모든 고을들에서 사람들이 하늘에 제를 드리는 동맹을 가진다. 이 의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다고 하여 국중대회라고도 부른다.

이날에 고구려사람들은 농사가 잘되게 해준 하늘에 감사를 드리고 노래와 춤으로 즐기는 한편 도읍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나있는 동굴인 국동대혈에 두었던 동명성왕과 그의 어머니 류화를 형상한 신들을 모셔내여 제를 지내는 일도 함께 했다.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국사를 토의하기도 했다.

국사를 위해 국상의 몸이 건강해야 하는데 금분을 간자들에게 보냈다니 임금으로서는 섭섭한 일이였다.

《국상은 일개인의 몸이 아닌만치 제발 그러지 마오. 이번에는 중

실부인에게 금분을 보내주겠으니 그가 주는대로 꼭꼭 드오.》

골병든 임금이 도리여 신하의 건강을 념려하니 을파소는 눈물이 솟구쳤다.

임금이 웃으며 물었다.

《언제까지 국상은 홀로 있을 작정이오?》

을파소에게서는 진속과 달리 불쑥 다른 말이 나갔다.

《고목에 꽃이 피겠소이까?》

쑥스러워하는 을파소의 태도에 임금은 껄껄 웃었다.

《신하로서 군주에게 속에 없는 말을 하면 벌을 받소. 짐이 눈을 감고있는가 하오? 국상과 중실부인간의 정이 자별하다던데…》

을파소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중실부인과 백년해로를 언약한 사실을 본의아니게 숨기려 하다니…

《대왕마마, 인차 례를 갖추어 중실부인을 맞이하겠소이다.》

그 사실도 알고있는 임금이 기뻐하며 말했다.

《진작 그랬어야지. 큰 나라의 국상이 홀아비라고 하면 세상사람들이 우리 고구려를 어떻게 생각하겠소? 동맹이 지나 짐이 혼례식을 크게 차려주겠으니 고기가 물을 만난것과 같은 정을 한껏 즐기소서.》

을파소는 간절한 어조로 말했다.

《대왕마마, 이 늙은게 젊은 녀인을 맞아들이는걸 알면 남들이 웃소이다. 제발 조용히 하도록 윤허해주소이다.》

을파소의 간청에 임금은 생각을 달리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럼 그렇게 하오.》

얼마쯤 갔는데 임금이 불쑥 말을 멈춰세웠다.

을파소도 말을 멈춰세우고 앞을 둘러보았다.

임금이 길옆에 앉아 우는 사람을 가리켰다.

《저 사람이 우는게 아니요?》

《옳소이다.》

말에서 내린 을파소는 누덕누덕 기운 헌털뱅이를 걸친 젊은이에게

다가가 물었다.

《사내가 왜 우느냐?》

결에 어떤 로인이 와 서있음을 알아본 《헌털뱅이》가 주먹으로 눈굽을 닦으며 대답했다.

《속이 타서 그만… 세상은 넓은데 입에 풀칠할데를 찾을 길이 없소이다. 집에서는 늙은 어머니가 굶고계시는데 빈손으로 돌아가자니… 이런 불효자가 어데 있겠소이까.》

말에서 내린 임금이 물었다.

《넌 젊었는데 어찌하여 모친 하나 봉양하지 못한단 말이냐?》

임금도 보통사람으로 여긴 《헌털뱅이》가 하소연하듯 말하였다.

《가진게 없는데 젊었으면 뭘 하오이까. 아버지는 내가 강보에 싸여있을 때 전장에 나가 돌아오지 못하고… 어머니가 삯일을 하며 이놈을 키웠소이다. 나를 키운 어머니 하나 벌어먹일수 없으니… 땅도 없고… 품을 팔자고 나서니 품을 사주는 사람도 없소이다. 죽고싶어도 어머니때문에 죽을수도 없으니… 아!…》

할 말이 없게 된 임금은 쓴입을 다시였다.

어려서 산골에 숨어 산 임금인지라 배고픔이 얼마나 어려운것인지 알고있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굶주리는 사람들을 돕고싶다만 나라의 형편이 그렇지 못하였다.

난색을 짓는 임금을 보는 을파소에게 한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제 설음에 울고있는 《헌털뱅이》에게서 몇걸음 물러서 을파소는 임금에게 조용히 아뢰였다.

《대왕마마, 저 젊은이처럼 너무 가난하여 제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과 부모없는 아이들, 병든 늙은이들, 홀아비와 과부들을 관가에서 돌봐주라는 어지를 내린다면 민심을 크게 모을것 같소이다.》

《그게 정말 그렇게 될가?》

을파소는 간절히 말했다.

《백성은 아이와 같아서 때로는 어루만져야 더 잘 따르오이다.》

임금은 의문어린 눈길로 을파소를 바라보았다.

백성을 얼려야 한다는 그 말이 옳다 해도 어지를 내린다고 해서 그게 떡먹듯 실행되겠는가. 어지를 내렸다가 빈말로 끝난다면 도리여 비웃음이나 살것이다.

《관가에서 돌봐주게 한다는게 어디 쉽소?》

《일이란 어렵게 생각하면 잘되는 일이 별로 없소이다. 관가들에서 약간의 조세를 따로 모아두고 살아가기 정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면 될것이오이다.》

고개를 기웃거리며 임금은 인차 결심을 내리지 못하였다.

예로부터 어렵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소소한 구석을 관심해준 군주가 어데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은들 민심을 잃겠는가.

아니, 그것도 아니야. 자고로 정사란 백성을 얼리는 묘술이라 했거늘 국상도 바로 그 점을 노리고 그런 의견을 내놓았을것이다.

그래, 황소는 코를 꿰야 부릴수 있고 백성은 마음을 틀어쥐여야 부릴수 있는게다.

안색이 밝아진 임금이 을파소의 팔을 부여잡았다.

《그럼 국상의 뜻을 생각해보겠소.》

임금은 울고있는 《헌털뱅이》에게 물건을 주도록 하였다.

이날 경치좋은 곳에서 을파소와 즐기고 돌아온 임금은 홀아비와 과부, 고아, 병든 로인 그리고 너무도 가난하여 당장 끼식을 끓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관가에서 돌봐주라는 어지를 내리였다.

을파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로 임금은 손쉽게 민심을 모을수 있었다.

(11)

이해의 섣달그믐날이였다.

소담한 함박눈이 고요히 내리고있었다.

장마철구름인양 끝없이 밀려드는 국사때문에 하루하루 혼례식을 미루어온 을파소는 이제 더는 그 일을 넘길수 없었다.

그래서 을파소는 새해를 하루 앞두고 큰상을 받기로 하였다.

처음 을파소는 큰상을 받지 않을 생각이였었다.

늙은 홀아비의 재취에 큰상을 받는것이 부끄러웠던것이다.

허나 신방에 든 일 없는 중실부인을 생각하여 큰상을 받기로 하였다.

이미 혼례식을 소문없이 하겠다고 임금의 허락을 받은지라 을파소는 사람을 별로 청하지 않았다. 고향마을에서는 맏아들이 륙손이랑 데리고 올라오게 하였고 중실부인켠에서는 그를 길러준 외삼촌내외만을 청했다. 손님으로는 임금의 동생 연우와 안류 그리고 마침 변방일대를 순시하고 돌아온 고우루뿐이였다.

을파소가 주례를 맡은 안류가 이끄는대로 중실부인을 맞아들이는 례식을 차리고 큰상앞으로 나서는데 여러명의 짐군을 거느린 궁중구실아치가 나타났다.

큰상앞에 나선 을파소에게 절을 한 궁중구실아치가 말했다.

《국상어른께 아뢰오이다. 대왕마마께서 오자술을 어주로 보내시였나이다.》

을파소도 중실부인도 끓어엎드렸다.

이윽고 을파소를 일으킨 궁중구실아치는 큰상앞에 가져다놓은 술항아리들을 가리켰다. 모두 다섯개였다.

《오자술은 궁중의 비방으로 빚었는데 로인들에게 젊음을 주는 약술이오이다.》

오자술이란 말을 듣느니 처음인 을파소는 의문이 가득한 눈길을 얼굴이 해말쑥한 궁중구실아치에게서 떼지 못하였다.

술항아리의 술을 은술잔에 가득 부은 궁중구실아치는 을파소에게 내밀었다.

《대왕마마께서는 신에게 오자술을 국상어른께 부어올리라고 하셨소이다.》

대궐을 향해 큰절을 올린 을파소는 오자술을 받아 단번에 쭉 마시였다.

오미자향내가 나는 오자술은 별맛이였다.

궁중구실아치가 또 한잔 오자술을 부어놓으며 말했다.

《오자술은 주정이 센 술로 복분자, 오미자, 사상자, 구기자, 토사자를 우려 빚었다 하오이다. 다섯가지 약재가 모두 〈자〉로 끝나기때문에 오자술이라 하는것이오이다.

산딸기라고도 하는 복분자를 장복하면 로인들에게도 힘이 나게 하는바 오줌발이 어찌나 세차지는지 오강을 뒤엎게 하오이다. 그래서 복분자라고 하는것이오이다.

다섯가지 맛을 내는 오미자는 오장륙부를 보하며 뱀이 누워자는 형상이라 하여 사상자라고 하는 약재는 로인들에게 신기를 돋구어주오이다. 구기자도 원기를 되살려주는 약이고 새삼씨라고 하는 토사자는 눈을 밝게 해주는 신기한 약이라 오자술은 국상어른에게 맞는 보약술이라고 할수 있소이다.》

궁중구실아치는 칠보단장을 한 중실부인에게 술잔을 내밀었다.

《대왕마마께서는 국상 부인에게도 술을 드리라고 하시였소이다. 그리고 신체는 만사지본이라 국상어른을 잘 보살피라는 어명을 전하라 하셨소이다.》

을파소의 부부는 대궐을 향해 다시한번 큰절을 올리였다.

이어 궁중구실아치가 돌아가고 방에는 큰상을 가운데 놓고 을파소와 손님들이 둘러앉았다.

을파소는 중실부인이 부어놓은 어주잔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 술을 드시오.》

손님들은 웃으며 어주잔을 집어들었다.

술을 마시고났는데 밖에서 《국상어른.》 하고 조심히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을파소는 목소리의 임자가 자기 휘하에서 문서를 다루는 명림어수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명림어수는 을파소를 따라 구려경당을 떠나온 그해에 정식 그의 관원이 되여 국상의 문서를 다루는 일을 하고있었다.

을파소는 시급히 제기되는 문서는 그 즉시 자신에게 전하게 하는 법을 세워놓고있었다.

그러니 오늘도 례외가 아닌것이였다.

을파소가 방문을 열고 문서를 안은 명림어수를 불러들이니 손님들이 그에게 눈을 흘기였다.

그들의 곱지 않은 눈길에서 명림어수는 대바람 주눅이 들고말았다.

이런 날에까지 이 집의 좋은 분위기를 깨치였으니 쥐구멍이라도 찾고싶었다.

명림어수를 제곁에 불러앉힌 을파소는 문서를 집어들었다. 두개였다.

첫번째 문서는 후한에서 간자들이 보낸 정보였다.

후한의 조조가 직접 대군을 거느리고 흉노를 쳐이겼다는 정보였다.

흉노는 후한의 북쪽에 사는데 예로부터 중원과 패권을 다투는 강한 종족이였다.

흉노가 얼마나 강했던지 옛적에 한나라를 세운 류방이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그들을 쳤다가 도리여 흉노군에게 얻어맞고 죽을번 하였다.

구사일생으로 도망쳐간 류방은 자기 딸을 흉노추장에게 시집도 보내고 많은 보물을 바치고서야 그들과 화친할수 있었다.

오늘도 흉노는 강했다.

그런데 조조가 흉노를 쳐이겼다니 예상치 못한 소식이였다.

력대로 중원은 주변의 종족들과 싸워 이기면 반드시 고구려로 쳐

들어오군 하였다.

문서를 내려놓은 을파소는 고우루를 바라보았다.

지금 을파소는 오로지 국사에 대한 생각뿐이였다.

《성들의 개축을 언제면 끝낼수 있나?》

아래형편을 모르는바 아니였지만 직접 현지를 밟아본 고우루의 말을 듣고싶었던것이다.

《예견했던것보다 빨리 끝낼것 같소이다. 어데를 가나 나라에서 백성을 살리려 진대법과 같은 좋은 법을 내렸으니 그 덕을 지게 될수 있겠다고 좋아들 하니 어찌 일자리가 푹푹 나지 않겠소이까.》

《명년 겨울까지라…》 하고 속으로 뇌이던 을파소는 고개를 저었다.

외적과의 싸움이 박두해오는데 한해가 뭔가. 설이나 쇠고는 졸본성의 개축공사도 시작해야 한다.

대실근은 그 일을 해낼게다. 진대법을 위해 곡식을 제일 많이 저축한 그가 아닌가. …

그 다음 을파소는 내부에서 보낸 두번째 문서를 집어들었다.

글줄을 더듬던 을파소는 치미는 분노로 가쁜숨을 몰아쉬였다.

등잔불밑이 어둡다고 국상밑에서 못되게 구는 놈이 있다니?…

숨을 몰아쉬는 을파소를 바라보며 연우가 물었다.

《국상어른, 무슨 일이 생겼소이까?》

을파소는 숨기지 않았다.

《어제 저녁 과루부의 대가들이 고치선의 집에 모여들어 모의끝에 상평창을 내오자고 대왕마마께 상주하기로 했다는것이오이다.》

고치선은 임금의 먼 친척되는 왕족으로서 과루부의 평자를 십년째 맡아하는 대가였다.

진대법의 실시로 백성들이 마음을 놓고있는 이때에 왕청같이 상평창을 내오자고 쑥덕공론을 하는자들이 있으니 이 무슨 변괴인가.

격한 침묵속에 안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거야말로 진대법을 짓밟지 못해 하는짓이 아니오이까. 옛적에

한나라에서 나온 상평창을 우리가 뭣 하러 받아들인단 말이오이까.

나라에서 곡식이 흔할 때 시전가격보다 비싸게 쌀을 사들여다가 곡식이 귀할 때 백성들에게 시전가격보다 눅게 팔아준다는 명목으로 내온 상평창은 우리의 형편에는 맞지 않소이다.》

고우루도 성이 나서 말했다.

《예로부터 큰 벌을 낀 중원에서는 큰 장사군들이 가을철에 곡식을 마구 사들였다가 곡식이 귀할 때 비싸게 팔아서 큰 리득을 얻군 하였소이다. 이걸 막기 위해서 한나라조정이 내온것이 상평창이오이다.

그러나 사실말이지 우리 나라에서는 농군들이 가을에 조세를 바치고나면 장에 내다 팔 쌀이 남기는커녕 봄이 되기도 전에 농량이 떨어지고마오이다. 이런 형편에서 상평창을 내오면 어찌되겠소이까?

고을마다 시장에서 쌀값이 다른데 바로 이때라고 탐오한 관리들이 리득을 바라고 가을에는 쌀을 억지로 눅게 팔게 하고 또 봄에는 강다짐으로 비싸게 사도록 할것이 아니겠소이까.

그것도 그것이지만 상평이란게 가을에는 곡식을 돈을 받고 나라에 팔고 봄에는 나라에다 돈을 내고 사먹게 하는것인데 가난한 농군들이 봄에 돈이 어데 있어서 쌀을 사먹을수 있겠소이까. 그러니 돈이 없는 농군들은 굶어죽을수밖에 없고 결국은 부자를 찾아가 리자가 5할이나 되는 곡식을 꾸어먹을수밖에 없소이다.

그러나 진대법은 조세로 바친 곡식을 그냥 타먹을수 있기에 돈없는 가난뱅이들도 구제할수 있는것이오이다. 국상어른, 고치선이 그따위걸 상주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되오이다.》

고치선이 어떤 사람인줄 잘 아는 연우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고치선은 발기의 심복으로서 을파소가 다른 부의 평자를 모두 갈아치울 때 유독 그만이 발기의 도움으로 자기 자리에 붙어있을수 있었다.

됨됨이 탐욕스럽고 미욱한 고치선이 그 둔한 머리로 상평창을 내

올 생각은 못했을것이였다.

이것은 국상을 미워하는 발기가 뒤에서 그런 밀의를 꾸미도록 떠밀었을것이였다.

이런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을파소를 돕자니 동생으로서 형을 해치는것 같고 모르는척 하자니 국상을 해치는것 같았다. …

이런 때는 나라의 리익을 자로 삼아야 한다. 진대법을 지키는것은 나라의 리익을 지키는것이다.

이윽고 연우가 입을 열었다.

《국상어른, 잡초를 결단코 뽑아치우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오이다.》

그 말에 을파소는 껄껄 웃었다.

호탕하게 웃고난 을파소는 연우의 손을 꽉 부여잡았다.

《난 전하가 그렇게 나오리라고 믿었소이다. 내 벼슬길에서 깨달은것이 있다면 그것은 국익을 해치는자들은 설사 제 집안사람이든 주저하지 말고 벌을 주어야 하고 반역을 꾀하는 놈은 그가 임금의 식솔이라 해도 서슴없이 목을 쳐야 한다는것이오이다. 그럴 용단이 없으면 임금을 받들수 없소이다.》

연우는 소나무와도 같이 꿋꿋한 을파소의 모습에 감동되였다.

며칠후 고치선은 파직되고 발기의 음모는 수포로 돌아가고말았다.

을파소의 천거로 전례를 뛰여넘어 연우가 파루부의 평자로 임명되였다.

(12)

이튿날은 새해 을해년(195년) 정월초하루였다. 이날도 국사에 대한 근심이 떠나지 않은 을파소는 아침일찍 임금께 세배를 드리고는 관가로 향했다.

관가에 들어선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후한과 접경하고있는 변방의

진들을 훑어보았다.

공격과 방어에도 능한 백전로장 우거가 무적의 철기군을 포함한 수만대군을 거느리고 진을 친 변방을 지도에서 굽어볼 때면 언제나 배심이 든든하였다.

그러나 외적은 나라의 대문을 지켜선 군사만으로 쳐물리치는것이 아니였다. 온 나라가 한사람같이 일떠설 때 그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는것이다.

대문을 든든히 지키고 많은 성을 쌓았어도 백성의 마음을 틀어쥐지 못하면 화를 당하는 법이다.

백성의 마음을 틀어쥐는데서 진대법의 실시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국사중의 국사이다.

진대법의 실시를 그림의 떡으로 되게 한다면 나라에 막대한 손해를 주는 길로 이어질것이였다.

진대법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한 을파소는 자신이 직접 고을들을 돌면서 그를 바로 실시하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결심했다.

도성에나 앉아있어가지고서는 도저히 마음을 놓을수 없었다.

고을들을 돌아보면서 진대법이 바로 실시되도록 떠밀어도 주고 겸사해서 토호들의 악행을 다스려 민심도 바로잡는다면 일거량득일것이다.

물론 나라의 고을들을 다 돌아보자면 시일이 오래 걸릴수 있을것이다.

오래동안 아래에 내려가있어도 조정의 정사를 크게 념려할게 없었다.

국상이 아래에 내려가있을 때 국상을 대리하는 안류가 있고 대바르고 착한 연우가 과루부를 맡고있으니 설사 어느 못된 놈이 들고일어나도 맥을 추지 못할것이였다.

그리고 번거롭기는 해도 수종군을 부족되지 않게 데리고 다니면 그시그시 도성과 공문서를 주고받을수 있었다.

어느 고을부터 돌아볼것인가. 먼저 졸본에 가서 졸본성개축을 시

작하게 하고 서쪽의 변방고을들부터 돌아보는것이 좋을것이다.

며칠후 임금을 하직한 을파소는 도성을 나섰다.

그가 탄 호화로운 수레를 백여명의 말탄 군사들이 호위하고 그뒤로 역시 말탄 수종군이 수십명 따랐다.

수레의 마부석을 인우가 차지하였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명림어수는 을파소의 곁에 앉아있었다.

다음날 졸본성에 당도한 을파소는 대실근을 앞세우고 진대미의 저축량을 료해하였다.

곡식무지의 진대미는 조정에 보고한 수량과 차이가 없었다.

대실근이 마련해놓은 진대미는 졸본의 백성들에게 넉넉히 대여해주고도 남을 량이였다.

진대미는 3월부터 7월까지 농가와 식솔수를 헤아려 대여해주는것이기에 고을의 농가수와 백성의 수를 알면 보관해야 할 진대미를 타산할수 있었다.

만족한 을파소는 졸본성의 개축공사를 시작하라는 령을 내리고 서쪽길로 나섰다.

이제 찾아가야 할 곳은 현도군과 마주한 신성고을이였다.

신성은 쳐들어오는 후한군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고구려의 요충지였다.

그때문에 을파소는 이 고을 태수를 심중하게 임명하였다.

네해전 아는것도 많고 손탁도 센 사람을 내려보냈으니 믿음도 컸다.

을파소의 생각을 알리 없는 명림어수가 말을 건넸다.

《국상어른은 어떻게 되여 가난뱅이들을 동정하게 되였소이까?》

생각밖의 질문에 을파소의 사색은 깨지고말았다.

어찌하여 가난뱅이를 동정하게 되였는가고?!…

사연이 있지, 벌써 그때가 옛날이로구나.

을파소는 어린시절을 돌이켜보았다.

어렸을 때 을파소는 외가집을 무척 좋아하였다. 좌물촌에서 수십리 떨어진 마을의 외가는 땅마지기나 있어 밥술을 놓지 않고있었다.

어린 을파소가 외가에 가기를 좋아한것은 이 마을사람들이 신동이라 그를 떠받들었기때문이였다.

외가마을은 산골이여서인지 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다섯살부터 글을 배운 을파소가 외가마을사람들앞에서 책도 읽고 글을 썼더니 그들은 신기하게 여기였다.

한번은 마실방에서 한 로인이 수수께끼를 내였는데 누구도 풀지 못하였다.

우스운것은 수수께끼를 낸 로인도 답을 모르는것이였다.

사실인즉 로인이 나들이를 갔다가 듣고 온 수수께끼였다.

그릇을 세개씩 세면 두개가 남고 다섯개씩 세면 세개가 남으며 일곱개씩 세면 두개가 남은 경우 그릇이 모두 몇개인가 하는 수수께끼에 마실방은 웅성거리기만 할뿐이였다.

종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마실방에서는 외가에 와있는 어린 을파소를 초청했다.

마실방에 불리워간 을파소는 인차 수수께끼의 답이 스물세개의 그릇임을 풀어내였다.

이때문에 을파소를 신동이라 떠받들었던것이였다.

신동이라 칭찬받는 을파소에게는 가깝게 사귄 소녀가 있었다.

매일같이 그애와 소꿉놀이도 하고 어떤 날에는 불을 놓고 땅을 일구는 그 집 부모의 일손도 돕군 하였다.

어느날 그날도 소녀애와 함께 땅을 일구는 그 집 부모들을 도와 풀뿌리를 추어내고있는데 웬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남의 산을 벌거벗겼다고 욕설을 퍼붓더니 소녀의 아버지에게 매를 안기였다.

처음으로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것을 목격하는 을파소는 너무도 무서워 엉엉 울었다.

그러나 울기만 한 을파소가 아니였다. 인차 을파소는 나무뿌리를 집어들고 소녀의 아버지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었다.

을파소가 그자들의 발길질에 채워 쓰러졌을 때 마을사람들이 달

려와 그자들을 쫓아내였다.

알고보니 소녀의 아버지를 때린자들은 마을의 땅을 거머쥔 부자집 심복부하들이였다.

새땅을 탐낸 부자놈이 그 땅을 빼앗으려고 부하들을 내몬것이였다.

끝내 새땅은 부자집의것으로 되였고 소녀의 아버지는 남의 산을 발가벗긴 죄에 걸려 어린 딸을 그 집의 종으로 보내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이 어린 을파소에게 아물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혀놓았다.

그때부터 을파소는 부자들을 미워했고 그들의 수모를 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였다.

며칠후 큰 기대를 안고 신성고을의 쌀창고를 돌아보던 을파소는 기가 막혀 치를 떨었다.

크게 믿고 이 고을로 내려보낸 신성태수가 이다지도 진대법을 걸써 대할줄은 몰랐다.

국상이 변방의 고을에까지 나와볼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신성태수 리문간은 성난 을파소앞에서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다.

이제는 아무런 둔갑술을 부려도 때가 늦었다.

똑똑하기는 해도 게으르고 손탁은 세도 욕심사납고 말을 리치에 맞게 할줄 알아도 실속이 없는 리문간이 나라일을 바로할리 없었다.

그가 고을에 필요한 진대미를 전량 장만했노라 조정에 보고하였으나 실재한 량은 반에 반도 안되였다.

즉시 리문간을 옥에 가둔 을파소는 고을의 형편을 파고들었다.

파고드니 고을의 형편이 말이 아니였다. 관가의 폐행이 연나부때와 차이도 없고 리문간이 부임되여 한 일이란 주색잡기뿐이였다. 기막힌것은 조세로 받아놓은 진대미를 정분이 난 계집들에게 나누어도 주고 장사치들에게도 팔고… 그러니 관가의 고간이 비여있는것이였다.

그런데도 성을 남먼저 개축할수 있은것은 이 고장에 진을 치고있는 연인장군의 덕이였다.

적군의 침입을 막고있는 연인은 요충지로서의 신성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하기에 그는 자신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신성을 고쳐쌓은 것이였다.

을파소는 연인에게 신성의 태수를 겸직시키고 졸본태수 대실근에게서 모자라는 진대미를 받아오게 하는 조치를 취해주었다.

그리고 진대법을 말아먹은 리문간의 죄행을 모든 고을들에 알리도록 하였다.

사태를 수습한 을파소는 신성을 떠나기 앞서 리문간을 불렀다.

며칠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된 리문간은 머리를 조아리며 애걸했다.

《한번만 용서해주면 고을정사를 잘해서 죄를 씻겠소이다.》

을파소의 생각이 깊어졌다.

리문간은 안류가 천거한 제나부사람이였다.

구려경당도 나오고 연나부때 조정에 대한 불평죄에 걸려 정배살이를 했다는 점과 또한 그의 류창한 다변술에 마음이 끌려 크게 써준것이였다.

사람됨을 옳게 가려보는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을파소는 꾸짖었다.

《예로부터 사람의 신세를 망치는짓이 한두가지가 아니나 색을 즐기는자는 반드시 망하는 법이다. 네가 주색에 빠져가지고 재물을 탕진하면서 요설과 요술로 조정을 업어넘길수는 있었어도 당초에 나라를 제 몸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은즉 너 같은 사람을 어데다 쓰겠느냐. 그런데도 너를 중히 써주었으니 내 눈이 멀었댔다. 그래, 너에게 어떤 벌을 주어야 마땅하겠느냐?》

더는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알아차린 리문간은 머리를 싸쥐고 울었다.

권세를 쥐였을 때는 하늘끝에 올라선듯 우쭐대더니 관모를 벗기우자 비루먹은 강아지꼴 같은게 구역질이 났다.

죄를 생각하면 목을 치고싶다만…

덕에 치우치면 기강이 물러지고 형벌에 치우치면 인심이 야박해질

것이라 덕과 법을 적절하게 섞어써야 했다.

《너를 서민으로 내치겠으니 이곳에 남아 군역을 져라. 군졸살이를 게을리하면 그땐 목숨을 보전치 못하리라.》

이어 을파소는 신성에서 있은 일을 글로 써서 임금에게 보냈다.

(13)

초생달이 사라진 음산한 밤이였다. 대궐같이 요란한 발기의 집 후문이 찌쿵 열리고 이어 말을 끌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두명이였다.

후문밖으로 나선 그들은 한무릎을 꿇고 앉아 뒤따라나온 덩치큰 사람에게 절을 하며 부르짖었다.

《어르신님, 원한풀이를 하고 돌아오겠소이다.》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겠소이다.》

그들을 손잡아 일으킨 발기가 웅글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아무렴, 사내대장부답게 큰일을 치르고 오게.》

인차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을 점도록 바라보며 발기는 이를 갈았다.

《을파소, 이 늙다리야, 네 목숨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고 이를 갈며 부르짖는 발기의 두눈에서 살기가 이글거렸다.

요즘 발기는 밸이 나서 미칠 지경이였다.

남몰래 손때묻혀 과루부의 평자로 내세웠던 고치선이 하루아침에 파직을 당하고 그와 동시에 품들여 고안해낸 상평창의 도입이 진대법과 맞서보지도 못하고 부서지고말았으니 복통이 터질노릇이였다.

그가 상평창을 내오려 한것은 진대법을 짓뭉개놓음으로써 을파소의 기를 꺾기 위해서였다.

보다 복통이 터질노릇은 동생 연우가 과루부의 주인으로 된것이였다. 비록 을파소의 천거로 되였다고는 하지만 임금의 동생이 관직을

가지지 않게 된 전례를 무시하고 임금이 윤허를 하였다니 불길한 징조가 아닐수 없었던것이다.

이러다 연우가 나를 제끼고 임금의 뒤를 잇게 되는것은 아닐가?!…

을파소가 있는 한 룡상을 차지하는데서 장애로 된다고 생각한 발기는 마지막수로서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마침 을파소가 아래에 내려가있으니 손을 쓰기에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수 있었다.

그래서 이밤 두명의 자객을 보낸것이였다.

을파소가 군사들의 호위속에 고을들을 돌아보고있지만 다년간 검술을 익힌 자객의 손에서 빠져나가기 힘들것이였다.

더우기 밤을 도와 그의 처소에 새여들어가면야 목에 철띠를 둘렀다 해도 을파소가 살아남을수 있을것인가. …

《흐흐흐—》

자객들의 칼에 맞아 죽어가는 을파소를 그려보며 발기는 괴상하게 웃어댔다.

…

벌써 춘궁기가 한창이였다.

날카로운 비수를 품은 자객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있는줄을 꿈에도 알리 없는 을파소는 여전히 고을들을 돌아보고있었다.

오늘도 을파소는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수레에 앉아가고있었다.

신성고을의 못된 정사를 바로잡은 후 또다시 고을순시에 오른 을파소는 선비족과 이웃한 서북의 변방고을들과 후한과 대치한 서쪽 고을들을 차례로 돌아보고 지금은 압록강을 향해 남쪽길로 가고있었다.

오늘 을파소의 복색은 국상차림이 아닌 평민의 옷차림이였다. 어떤 날에는 관복을, 또 어떤 날에는 평민복을 차리는데 그것은 활동상편리에 따르는것이였다.

관가가 아니라 백성들을 만나려 할 때에는 이처럼 관복이 아닌 평민복을 차려입는것이다.

열려진 창문으로 흰 명주띠를 펼쳐놓은듯싶은 압록강에 눈길을 둔 명림어수가 흥분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국상어른, 저 강을 강물이 오리대가리처럼 푸르게 보인다고 하여 압록강이라 한다는게 사실이오이까?》

이제 찾아볼 고을의 형편이 어떨가 하는 생각에 묻혀있던 을파소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어느 지명유래이든 여러가지 설이 있기마련이다.

예로부터 저 강을 가리켜 아리나리라고 불러왔는데 우리 고구려의 도읍에서 보면 앞쪽에 놓이는 강이기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도 하고 또 긴 강이라고도 하여 그렇게 부른다고도 하는데 내 생각에는 긴 강이기때문에 아리나리라고 부르는게 옳을것 같다. 왜냐하면 아리라는 말이 길다는 뜻이기때문이다. 그리고 아리나리를 글로 적자면 압록강이라고밖에 달리 쓸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겼을게다.

압록강은 조종의 산 개마산(백두산)에서 흘러내리는것으로 하여 우리 겨레가 제일로 사랑하는 강이란다.》

을파소는 등받이에 기대며 눈을 내리감았다.

아직 정오가 되려면 멀었으니 정오까지는 넉근히 압록강의 나루에 가닿을것이였다.

점심은 나루에서 먹어야겠군.

명림어수가 또 질문했다.

《국상어른, 이웃나라들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는게 사실이오이까?》

을파소는 고개를 끄덕이는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후한에서 간자들이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몇해째 중원의 방방곡곡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있다는것이였다.

그게 사실이라면 후한임금이 감히 이웃나라들과 싸우자고는 못할것이 틀림없는것이다.

《국상어른은 사람이 어진 마음과 악한 마음중에서 어느것을 가

지고 나온다고 보오이까?》

을파소는 눈을 떴다.

종잡을수 없는 질문을 한다는것은 그 사람의 사색의 폭과 깊이가 그만큼 큰것이 아니겠는가.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을파소의 반문에 명림어수는 턱을 어루만지였다.

이에 대해 생각해온 그로서는 주장이 없을리 만무했다.

《구려경당에 다닐 때 하루는 경당에 쌀이 떨어져 전 돈을 모아가지고 싸전에 나간적 있소이다.

싸전에서 전 큰 장사군이 아닌 사람들의 쌀을 사주었소이다. 돈을 다 쓰고나서 쌀을 보니 두말의 쌀이 모자라는것이 아니겠소이까.

글쎄 덤비며 쌀을 사다보니 한사람한테서 쌀을 두말 받고 그 값으로 돈을 두번 준것이였소이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그 사람은 달아났는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소이다. 하는수없이 나는 잃은 돈을 변상하지 않을수 없었소이다.》

명림어수는 성난 어조로 말했다.

《전 그날 마음보가 나쁜 사람은 큰 장사군이 아닌 사람들속에도 있으며 나쁜 마음은 배속에서 타고난다고 생각하였소이다.》

을파소는 빙그레 웃었다.

《그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단정하는건 경솔한게다.》

《왜 그 하나이겠소이까. 신성고을의 태수를 보소이다. 리문간 그놈이 어미배속에서 나쁜 마음을 타고나오지 않았다면 저를 중히 써준 나라의 은혜를 그렇게 저버릴수 있겠소이까.

그래서 전 나라와 겨레에게 해를 주는자들은 가차없이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오이다.》

을파소는 명림어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무 외곬으로 생각하는군. 사람은 어머니의 배속에서 나쁜 마음이나 좋은 마음을 골라가지고 나오는게 아니다. 무형무색이라고 갓난애기에게는 그 어떤 마음도 없는거란다. 자식이 나쁘고 착하고

하는것은 대개 부모에게 달려있다.

부모가 고약하면 자식도 고약해지고 부모가 착하면 자식도 착해진다.

너는 나라를 해친자는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옳지 않다. 물론 나라를 저버린자, 사람을 죽인자는 죽어야 한다.

하지만 나라를 저버리려 하는자는 먼저 벌을 주어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매를 치고 옥에 가두고 정배를 보내는것도 다 그런걸 막기 위한 수단이다.》

명림어수는 고집스레 고개를 저었다.

《전 잘 모르겠소이다. 고치선이나 리문간 같은자들이 벌을 받았다고 해서 나라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장담할수 있소이까?》

을파소도 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저 압록강의 물이 예나 지금이나 맑은 물만이 변함없이 흐르는것은 조종의 산에서부터 한없이 정가로운 물이 흘러내리기때문이다. …》

여전히 의혹에 잠긴 명림어수의 안색을 보며 을파소는 하루이틀에 그의 생각을 바로잡을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 일없어.)

나루에 당도하여 꾸려가지고 온 음식으로 점심요기를 한 을파소는 호위군사를 통솔하는 대모달 례복구를 불렀다.

고구려에서는 대체로 만명정도의 군사로 이루어진 부대를 당이라고 하고 당을 통솔하는 장수를 대모달이라고 하였다.

경군의 대모달인 례복구는 무술에 뛰여나고 매사에 빈틈이 없는 장점이 있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점을 헤아려 국상의 신변호위를 맡긴것이였다.

례복구는 갑옷차림이였다.

임금의 령을 받고 나선 장수이니 응당 그래야 할것이였다.

《난 몇사람과 먼저 나루를 건너가겠으니 자네는 좀 있다 따라오게.》

을파소의 분부에 례복구는 공손하나 완강한 어조로 말했다.

《국상어른의 신변을 지키는것은 소인이 대왕마마에게서 직접 받은 어명이오이다. 정 먼저 가셔야 할 일이라면 군사 몇을 데리고 가시오이다.》

웃음을 지은 을파소의 목소리는 저으기 엄했다.

《자넨 고집이 지내 센게 탈이야. 조용히 백성들을 만나서 민심도 고을형편도 알아보자는건데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니면 좀 거치장스러운가. 내가 백성차림을 했을 때 내 하고싶은대로 하도록 눈을 감게나.》

례복구는 물러서지 않을수 없었다.

(14)

압록강의 나루는 나라에서 제일 큰 나루중의 하나로서 항시 수십척의 배들이 량켠의 선창에서 길손들을 기다리고있었다.

나루배로 강을 건너 룡만(의주일대에 있던 고구려의 고을)의 지경에 들어선 을파소의 일행은 고을입구에 거목으로 서있는 정자나무아래에서 쉬여가기로 하였다.

모양새도 좋고 고을이 잘 보이는 저런 나무에서 쉬여가지 않으면 어떤 곳에서 쉬여간단 말인가. 저런데서 쉬여가면 피곤이 쭉 풀릴것이였다.

정자나무아래에 이른 을파소는 명림어수에게 말했다.

《아직은 점심때이고 행인들도 별로 없으니 여기서 좀 쉬여가자.》

땅우로 드러나있는 나무뿌리에 걸터앉은 을파소는 인차 몸이 노그라들면서 졸음을 느끼였다.

(이런데서 잠들면 안되겠는데…)

졸음을 쫓아야 한다고 생각한 을파소는 곁에 앉은 명림어수에게 말했다.

《아무 이야기라도 좋으니 들려주게.》

을파소를 바라보며 명림어수는 한숨을 지었다.

(국상어른을 좀 쉬게 하였으면…)

피곤이 실린 을파소의 수척해진 얼굴을 존경의 눈길로 바라보며 명림어수는 곧 한가지 이야기를 생각해냈다.

《언제인가 국상어른께서는 예로부터 이웃나라사람들이 우리 겨레가 사는 땅을 가리켜 해동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려주시지 않았소이까?》

을파소는 두눈을 크게 떴다.

《그랬지, 헌데 왜?》

빙그레 웃음을 머금은 명림어수가 대꾸했다.

《제 셋째전하어른의 댁에 책이 많다고 하기에 찾아갔더니 정말 많았소이다. 커다란 한방에 책이 가득했소이다. 거기서 옛책 한권을 빌려보았소이다.》

《그래서?》

을파소의 질문에 명림어수는 대꾸했다.

《그 책에 국상어른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그대로 적혀있었소이다. 박달겨레가 사는 서해의 동쪽강토를 해동이라고 부른다고…》

좀 있어 을파소의 일행은 고을거리로 들어섰다.

을파소가 관가의 쌀창고가 있을만 한데를 찾아 사방을 둘러보는데 명림어수가 웃으며 말했다.

《저길 보소이다, 저 아이를…》

명림어수가 가리키는 길가에 아이가 서있는데 줄에 꿴 돼지코가 목에 매여있었다. 가만 자세히 보니 나무로 만든 돼지코였다.

침을 잘 흘리는 아이에게 향나무로 깎아 만든 돼지코를 목에 매달아주면 침을 흘리지 않게 된다면서 그렇게 하는것이였다.

《됐다, 어서 가자.》

얼마쯤 가니 짐을 이고 진 사람들이 줄레줄레 마주 오고있었다.

한 늙은이가 자루를 내려놓고 그안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지었다.

그에게로 다가가 자루안을 굽어보던 을파소에게는 의혹이 갈마들었다.

자루속의 보리는 퉁퉁 불어있었다.

그것이 이상하여 로인에게 물었다.

《무슨 보리인데 물에 불구었소이까?》

늙은이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꾸했다.

《관가에서 농량으로 꿔주는 보리이지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 보리를 한웅큼 쥐여든 을파소의 눈에서 불이 일었다.

《보리가 왜 이 모양이오이까?》

로인이 맥빠진 어조로 대답한다.

《이나마도 다행이우다. 부자들한테 쌀을 꿔다 먹으면 인차 큰 빚을 지게 되우다.

관가에서는 로적가리에 비가 새들어 이렇게 되였다고 하는데 어디 알겠소이까.》

을파소는 이를 사려물었다.

혹시 진대미를 뜯어먹자고 일부러 이렇게 만든건 아닐가?!…

분을 삭이지 못한 을파소가 숨을 몰아쉬는데 다른 사람들의 쌀자루를 들여다본 명림어수가 그의 귀에 대고 아뢰였다.

《자루마다 퉁퉁 불어난 보리가 들어있소이다. 이건 고의로 한짓이 틀림없소이다.》

을파소는 치를 떨었다.

그래, 고의로 한짓이 틀림없어. 예로부터 남의 쌀을 빼앗아먹은자에게는 매를 안기고 사람이 먹는 곡식을 못쓰게 만드는자는 죽이라고 하였다. 관가가 있으면서 진대미를 비맞게 하였다는건 말도 되지 않는다.

그 내막을 기어코 드러내고말테다. …

을파소는 수종군들에게 일렀다.

《너희들은 관가에 들어가 국상의 행차를 알리고 이 고을 루초를

쌀창고로 데려오라.》

루초는 고구려에서 현급고을의 우두머리관리를 가리키는 벼슬이다.

《그리고 한사람은 여기에 남아서 뒤따라오는 대모달을 쌀창고로 안내하라.》

이렇게 분부한 을파소는 명림어수에게 자기를 따르라는 눈짓을 하였다.

명림어수를 뒤에 단 을파소는 쌀짐을 지고 오는 사람들을 보고 관가의 쌀창고를 어렵지 않게 찾을수 있었다.

쌀창고에 이른 을파소는 당장 관속들을 두들겨패고싶었으나 분노를 누르고 둘러보았다.

창고옆으로 있는 고래등같은 기와집의 대문앞에 창을 꼬나든 파수군이 오락가락하는걸 보아 고을의 관가일것이였다.

벼짚이영을 씌운 창고는 려염집의 서너채만 한데 넓은 마당에 로적가리가 있었다.

바로 그것을 허물어 농군들에게 보리를 나누어주고있었다.

로적가리의 터를 보아 상당히 크게 무지를 만들었던것 같았다.

을파소는 쌀을 타러 온 농군들 틈에 끼여들었다.

농군들을 비집고 앞으로 나가니 말로 보리를 되여주느라 사람들이 비지땀을 흘리고있었다. 관가에 매인 관노일것이였다.

보리를 퍼담는 관노들의 곁에서 장부를 뒤적이는자들은 이 고을 아전일것이였다.

아전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이름을 부르면 농군들이 자루를 들고 나오고 그러면 관노들이 쌀섬에서 한말, 두말 보리를 되여 자루에 담아주었다.

유심히 살펴보니 섬거적도 젖어있다.

을파소의 주먹이 부르르 떨리였다.

로적가리에 거적을 씌우지 않았어도 그속에까지 비가 먹어들리 없었다.

올해에는 봄비가 거의나 내리지 않았다.

을파소는 바쁜 속에서도 농사군시절처럼 계절별로 내리는 비에 관심이 컸었다.

이번에도 고을별로 내린 봄비를 알아보았는데 여기 룡만고을에도 비가 얼마 오지 않았었다.

그러니 저 더미속에까지 젖을리 없었다.

짐작이 팔십리라고 관가것들이 제 배를 채우려고 쌀섬에 물을 퍼넣은게 틀림없었다.

이 정도로 보리를 불구었으면 부피가 2할정도는 불어났을것이니 그만한 량의 낟알을 뜯어먹게 되는것이다.

이 고을의 진대미를 줄잡아도 수천섬은 될것이라 수백섬의 엄청난 곡식이 관가것들의 배속에서 녹아날것이다. 이게 소거간군이 소의 몸집을 크게 해보이려고 소의 입에 억지로 물을 부어넣어 비싸게 팔아먹는 그짓에 대비나 되는가.

지금껏 돌아본 고을들에서는 이런짓이 없었다. 기껏 쌀을 되는 말을 좀 작게 만들어 쓰거나 곡식에 검불 같은것을 섞어넣어 리속을 챙기는 좀스러운짓을 보았을뿐이다.

그런짓을 한 놈들도 곤장을 안기고 관가에서 쫓아냈는데 이놈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누구인가 팔을 건드리는 느낌에 돌아보니 명림어수였다.

그가 귀속말로 여쭈었다.

《대모달도 오고 이 고을 루초도 데려왔소이다.》

농군들속에서 나온 을파소는 수레앞에 렬을 지어 선 군사들에게 다가갔다.

그때 덩지큰 사람이 털썩 무릎을 꿇는것이였다. 관복을 입고 절풍을 쓴 사람이였다.

《국상어른께 문안드리오이다. 소인이 이 고을 루초임을 아뢰오이다.》

두볼이 늘어지고 빈대코인 루초를 을파소는 모르지 않았다.

이따금 도성에 불려오는 처려근지나 루초를 한사람도 빼놓지 않고 만나보는 을파소였다.

나라를 잘 받들어야 한다고 일러도 주고 자주 공문서를 보내여 국법을 지키라고 당부하였는데…

을파소는 루초를 손가락질하며 군사들에게 분부했다.

《이놈을 묶어라.》

말도 붙여볼새없이 군사들이 달려들어 오라를 지우니 루초는 와들와들 떨뿐이였다.

인차 쌀을 나누어주던 관속들도 오라를 지고 끌려왔다.

형구를 차려놓게 한 을파소는 겁에 질려 떠는 관속들에게 호령했다.

《죄는 지은데로 가고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고 하였다. 너희들이 지은 죄는 너희들이 더 잘 알것이다. 지은 죄를 솔직하게 자복하는자는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은자는 사등뼈가 부러져도 원망치 말라. 자, 시작하라.》

쌀을 나누어주던 마당은 곧 매질을 안기는 형장으로 변하였다.

가차없이 날아드는 매질에 힘꼴이나 씀직한 아전이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 애걸하니 관속들은 저마다 지은 죄를 토설했다.

《처음 곡식더미에 이영을 잘못 씌워 비가 샌것은 사실이오이다. 그것이 소인들의 욕심에 부채질을 해주었소이다. 리자가 아주 낮게 쌀을 꾸어주는 이때 이왕이면 쌀을 물에 불구어주면 큰 리득이 날게 아니겠소이까. 그래서 밤이면 곡식더미에 물을 길어다 부었소이다.》

《이건 다 루초어른의 허락을 받고 했소이다. 물을 길어다 부은 량만큼 가을에 곡식을 더 받아가지고 나누어 먹자고 했소이다.》

죄과가 낱낱이 드러나고보니 루초는 너무도 무서워 넋을 잃고말았다.

루초를 쏘아보며 을파소가 말했다.

《너야말로 어리석고나. 신성고을 태수에 대한 죄행을 알리는 공문서를 받아보았겠는데 이런짓을 저질렀으니 죽는다 서러워말라.》

을파소는 례복구에게 일렀다.

《저자를 함거에 실어 도성으로 압송하게.》

을파소의 생각은 복잡하였다.

이 고을을 누구에게 맡긴다?!… 도성에 올라가 보내주면 너무 늦겠고… 떼놓기는 아쉬워도 명림어수에게 맡기자. 아직은 젊었어도 학식도 견문도 있고 대도 바르니 나이가 무슨 대수인가.

그날 저녁 룡만고을의 관청에 거처를 정한 을파소는 이전 루초의 죄행과 명림어수에게 이 고을을 맡기였다는 상주문을 썼다.

도성에 있을 때 그시그시 제기되는 관리등용을 미리 빠짐없이 임금의 윤허를 받아한것처럼 지방에 내려와서도 그렇게 하고싶었던것이다.

(15)

열흘나마 룡만고을에 머무르면서 명림어수가 정사를 내밀수 있도록 터를 닦아준 을파소는 이밤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들수 없었다.

사람이 늙어지면 흔히 잠이 적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늙어질수록 근심걱정이 많아지기때문인것이다.

가지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한집안의 가장에게도 근심이 많은데 국사에 시달리는 나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래일은 명림어수를 두고 가야 하니 섭섭하구나. …

이밤 을파소의 마음을 괴롭히는것은 복잡한 일이 제기되였기때문이다.

지혜나 힘으로 해결할수 있는 일감이라면 이다지도 머리를 앓겠는가.

이건 함부로 손댈수 없는 불덩어리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되돌아서서 모른다고 할수도 없는 일이였다.

오늘 을파소는 사인 극실기가 보낸 공문서를 받았다. 요즘 보다더 극성스레 세력을 모으는 발기에 대한 자료였다.

그가 그러리라고 예견은 하였지만 어느새 그의 세력이 그처럼 크게 불어났는지 깜짝 놀랄 일이였다.

하나같이 심술꼭지가 바르지 않은자들이 발기의 심복이 되여있었다.

파루부의 평자에서 파직당한 고치선이며 병기장의 감이였던 어친가와 같이 새 조정에서 밥통을 떼운자들이 발기의 세력을 이루었고 지어는 국구 우소까지도 그와 손을 잡고있다는것이였다.

이는 결코 헛된 자료는 아닐것이였다.

극실기가 어떤 사람인가.

명림답부시절 그의 아버지도 국상의 밑에서 중임을 맡아하였다고 한다. 불의를 용납치 않는 그의 아버지가 두려워 그때 불충한자들이 머리를 쳐들지 못하였다. 그래서 어비류나 좌가려까지도 꼼짝 못하였었다.

명림답부가 세상을 떠나자 그것들이 달라붙어 제일먼저 제거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인것이였다.

아버지처럼 불의를 미워하고 불의한자들을 날카롭게 가려보는 극실기의 장점을 헤아려 사인으로 등용한 을파소였다.

그런 부하가 품들여 알아낸것인지라 의심할 여지가 없는것이였다.

발기 이자를 어쩐다?!…

발기가 세력을 모았다고 해서 다칠수는 없다. 임금의 뒤를 이을 동생으로 내세우지는 못했어도 임금의 동생인것으로 하여 언제인가는 이 나라의 룡상을 가져야 할 사람이였다.

발기가 임금이 된다면?!… 나라의 정사가 어느 길로 갈것인지는 불보듯 뻔하였다.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좀처럼 풀 길 없는 수수께끼를 붙안고 궁싯거리는데 문득 인기척이 느껴졌다.

(?!…)

신경이 곤두선 을파소는 숨죽인채 인기척이 난 문가를 노려보았다.

며칠전에도 한밤중에 잠자리에 뛰여들어 칼부림을 하는 괴한들의

기습을 당한바 있는 을파소로서는 신경이 곤두설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에도 잠들지 않았던 을파소가 살며시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자들을 제때에 발견하고 칼을 휘둘렀기에망정이지 어떤 봉변을 당했을는지 모른다.

좀 있어 또다시 걸음을 옮기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 달빛어린 문가에 사람의 형체가 얼른거렸다.

베개밑에 깔아두었던 장검을 뽑아든 을파소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례복구를 바라보았다.

도읍을 떠난 그날부터 국상의 신변을 걱정하여 밤이면 한잠자리에 드는 그였다. 무술이 뛰여난 그가 있기에 을파소는 괴한들의 기습을 어렵지 않게 물리칠수 있었다.

물론 을파소도 늙었지만 무술이 남 못지 않았다. 경당시절 무술을 애써 배운바도 있고 또 전장에서 외적들과 싸우면서 보다 세련시키였으며 농사를 지으면서도 검술이 무디여질세라 련마시키였던것이다.

몸을 굴려 대모달에게서 한보쯤 멀어진 을파소는 이제 방문을 열고 기여들 괴한을 될수록이면 가까이 접근시켜놓고 답새길 생각이였다.

솨ㅡ 하는 바람소리가 나자 방문이 열리였다.

을파소의 가슴은 터져나갈듯 높뛰였다.

도대체 어떤 놈일가. 군사들이 파수를 서는 그속을 뚫고 들어오는걸 보면 물건을 노리는 도적은 아니다. 혹시 진대미사건으로 관가에서 내쫓긴자들이?!…

드디여 복면을 쓰고 칼을 거머쥔 괴한이 문턱을 넘어 한걸음 들어섰다.

(좀더 가까이로…)

두눈을 부릅뜬 을파소가 깊은 잠에 든듯 코를 고는데 또 한놈이 들어섰다.

먼저 들어선 놈은 벽에 붙어섰고 다른 놈은 문턱에 앉아 두리번거렸다.

아마도 누워자는 두사람중에서 국상을 찾는 모양이였다.

이윽고 누가 국상인지 가려보았는지 벽에 기대인 놈이 을파소를 향해 한발 내디디려는 순간 《이놈아!—》 하는 천둥같은 고함을 지르며 례복구가 나는듯이 뛰쳐일어섰다.

례복구도 코를 골뿐 자지 않고있었던것이다.

을파소도 뒤질세라 뛰쳐일어나 칼을 휘둘렀다.

불꽃을 튕기며 칼들이 맞부딪치고 허공을 베이는 검싸움에 방안은 수라장이였다.

괴한들이 어찌도 칼질을 능사로 하는지 검술이 뛰여난 례복구도 을파소도 그것들을 베일수 없었다.

파수병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나서야 괴한들이 달아나는데 빠르기란 도적고양이 한가지였다.

놈들이 뛰쳐나간 방으로 초롱불을 든 명림어수와 인우가 숨을 헐썩이며 들어섰다.

《국상어른!》

두사람이 다 눈물이 글썽해서 을파소를 쳐다보았다.

을파소는 그들을 안심시키느라고 웃었다.

《상한데는 없으니 마음들 놓게.》

을파소의 손을 어루만지며 명림어수가 말했다.

《혹시 그놈들이 후한것들이 아니오이까?》

일리가 있는 의심이였지만 을파소는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칼쓰는 솜씨가 그것들과 달랐네.》

례복구도 자신있는 어조로 말했다.

《옳소이다. 저도 전장에서 그것들과 겨루어보아서 후한군사들의 검술을 모르지 않소이다. 자객들은 우리의 검술과 꼭같았소이다.》

명림어수가 부르짖었다.

《그럼 우리 내부에 적이 있다는게 아니오이까?》

을파소의 가슴도 활랑거렸다.

그래, 자객은 틀림없이 내부의 적이 보냈을것이다. 국법을 어긴 죄

로 밥줄이 떨어져나간자들, 발기와 그의 세력으로 된자들이 보냈을 것이다. 이건 아직 추측에 불과하다. 이제부터는 보다 조심하여 발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

을파소는 명림어수의 등을 떠밀었다.

《쥐가 날뛴다고 떠들지 말고 돌아가게, 마음놓으라니까. …》

이튿날 을파소는 명림어수의 바래움속에 룡만고을을 나섰다.

십여리길을 가니 마음이 허전하였다.

비로소 을파소는 말벗이 되여주던 명림어수에게 깊은 정이 들었으며 떼여놓을수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였다.

《사람의 정이란 참…》

허전한 마음을 달랠 생각으로 수레에서 내린 을파소는 붉은 준마에 올라탔다. 연우가 부여에서 가져온 준마였다.

을파소는 선두에서 일행을 이끄는 례복구에게 말했다.

《이보게 대모달, 나와 한바탕 말을 달려보는게 어떤가?》

례복구도 을파소의 허전해하는 마음을 모르지 않았다.

《좋소이다.》

그 두사람은 일행을 앞서 달리였다.

이제 가야 할 곳은 장리고을(곽산일대에 있던 고구려의 고을)이다.

얼마쯤 달리느라니 등에는 동개를 지고 허리에 장검을 차고 또 창까지 손에 든 사람이 앞에서 홀로 말을 타고 가고있었다.

길손과 동행하면서 이 고장 형편을 알고싶었던 을파소가 말에 박차를 가하며 말했다.

《대모달, 저 사람을 따라잡읍세.》

인차 그를 따라잡은 을파소는 기뻐했다.

나이가 지숙한 사람이니 젊은이들보다 아는것이 많을것이였다.

《난 장리고을에 가는 사람인데 우리 말벗을 하면서 가는게 어떠하오?》

갑옷차림의 례복구를 경계하던 길손은 평민차림의 늙은 을파소를 보고는 웃음을 지었다.

《거 마침이오이다. 그 고을에 제 집이 있소이다. 난 다섯해동안 수자리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오이다.》

《다섯해나?》

놀라와하는 을파소를 바라보며 길손이 벙글 웃었다.

《집에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면 다섯해가 아니라 평생을 수자리로 산다 해도 마다하지 않겠소. 집에 있을 때에는 관가단련에 살이 슬슬 내렸는데 변방에 가서 군졸살이를 하니 사람대접을 받는게 참 좋았소이다.

허ㅡ 나중엔 군졸노릇을 잘했다고 이 좋은 말을 상으로 받았소이다.》

을파소는 듣던중 기분좋은 소리라 얼굴이 환해졌다.

《그게 정말이요?》

길손은 소담한 말갈기를 쓰다듬으며 자랑조로 말했다.

《난 사실 다섯해동안 수자리를 살았다고 하지만 군사들에게 끼식을 끓여주는 일밖에 한게 없소이다. 그런데도 우거장군은 여러해동안 수걱수걱 화식병노릇을 잘했다면서 이 암말까지 주었소이다.》

을파소는 너무 기뻐 길손의 등을 두드렸다.

《자네 인복을 타고났구만. 웃사람복이 있다니.》

《아, 그러문요. 난 우거장군이 준 이 말을 잘 먹여서 해마다 망아지를 받아내겠소이다. 그렇게 해서 군사로 나가는 자손들에게 주겠소이다.》

그 말이 을파소를 또 한번 기쁘게 하였다.

우거장군도 좋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 역시 좋은 사람이로구나. …

례복구가 물었다.

《집에 자식이 있겠는데 어이하여 나이든 사람이 수자리로 나갔댔소?》

길손의 안색이 흐려졌다.

《나에게 외아들이 있소이다. 그애는 나보다 한해 먼저 군사로 나갔소이다. 그런데도 관가에서 나를 또 수자리로 나가라는것이 아니

겠소이까. 부자집자식들은 쏙쏙 빼놓으면서 우리같이 가난한 집에다는 아비이고 아들이고 징발령을 내리니 원 참, 그러니 어찌겠소이까. 자고로 나라를 지켜온 사람들은 태평시절에 뚱땅거리며 잘 먹고 잘 입고 지낸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뱅이들이 아니오이까.》

그 말에 을파소는 얼굴을 찡그렸다.

나라를 지켜오는 사람은 부자가 아닌 가난뱅이라?!… 일리는 있다만…

집이 무너지면 그 집사람들모두가 한지에 나앉기마련이다.

나라도 마찬가지이니 외적에게 먹히우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망국노가 되고만다.

하기에 나라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을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법, 가난뱅이이든 부자이든 제 사는 강토를 아껴야 하는것이다.

을파소는 길손을 마주보며 말했다.

《이보라구, 나라가 위태로울 때 저만 살겠다고 뺑소니치는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재산이 많고적음에 따르기보다는 마음에 달려있는 법일세. 안 그런가?》

그제서야 을파소가 범상치 않은 늙은이임을 가려본 길손이 공손히 대꾸했다.

《어쩜 우거장군과 꼭같은 말씀을 하오이까. 관가에도 우거장군과 같이 나라를 귀히 여기는 어른들이 있다면 제 어찌 그런 말을 하겠소이까. 관가엔 그런 사람이 없고 맨 나쁜 놈들뿐이오이다.》

그 말을 들으며 을파소는 모든 고을들에서 나라법대로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꼭같이 군역을 지게 하는 공문서도 띄우고 그에 대한 통제도 바로하리라 결심했다.

(16)

을파소가 삼복더위를 무릅쓰고 고을들을 돌아보고있을 때 도성에서는 발기가 그의 목숨을 빼앗지 못해 악을 쓰고있었다.

성이 날대로 나서 리성을 잃고만 그는 밤새껏 일어났다누웠다 하면서 잠을 설치고 아침에는 또 밥상을 발로 차서 뒤엎었다.

그리고는 시에미역정에 개배때기 차는 격으로 죄없는 부엌데기들에게 한바탕 욕설을 퍼붓고 고방에 가두었던 두 젊은이를 후원으로 끌어냈다.

피발진 두눈을 부릅뜨고 후원에 버티고 선 발기는 악이 나서 이새로 침을 찍 내뱉았다.

화만 나면 정을 주던 계집도 머리태를 끄집어내치는 발기의 조폭한 기질을 아는 이 집사람들은 이런 때 그의 앞에 나서는것을 호랑이앞에 나서는것만큼이나 두려워하였다.

《전하!—》

두 젊은이가 무릎걸음으로 그를 향해 기여오며 애걸했다.

《살려주사이다.》

잔뜩 오만상을 찡그린 발기가 벼락같이 뛰쳐나가 말채찍을 휘둘렀다.

《이 시라소니같은 놈들아, 죽어라, 죽어!》

채—액, 채—액…

아츠러운 소리와 함께 허공을 물어뜯으며 채찍이 두 젊은이의 잔등으로 연방 날아들었다.

삽시에 시뻘건 왕지렁이들이 잔등에서 꿈틀거렸다.

《아이쿠—》

살점이 떨어져나가는듯싶은 모진 아픔에 두 젊은이는 태질했다.

채—액, 채—액…

사정없는 채찍질에 두 젊은이는 이리 굴고 저리 굴며 울부짖었다.

《한번만 용서해주사이다.》

《제발 살려주사이다.》

미친듯 날뛰는 발기에게는 그들의 울부짖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죽어봐라, 이 새끼들아—》

게거품을 한입 문 발기는 숨을 헐썩이면서도 채찍질만은 멈추지 않았다.

이윽고 맥이 빠진 발기가 채찍을 내던지며 소리쳤다.

《네놈들 이름이 뭐지?》

얼굴에도 잔등에도 온통 피멍이 진 두 젊은이는 땅바닥에 머리를 구겨박고 우는소리를 질렀다.

《아이구, 보은이라 하오이다.》

《보답이라 하오이다, 아이구.》

발기가 발을 탕 굴렀다.

《이놈들아, 대가리를 쳐들어라. 보은이 이놈, 네 본명이 뭐야?》

눈물과 땀으로 얼굴이 얼룩진 두 젊은이는 고개를 쳐들었다.

얼굴이 해사하게 생긴 녀석이 입을 열었다.

《소인 본명은 희… 희…》

《어서 말해!》

《희동이오이다.》

희동의 잔등에 한발을 올려놓은 발기가 여전히 성이 나서 소리쳤다.

《애비가 누구지, 엉?》

희동은 기여드는 목소리로 대꾸를 하였다.

《좌가려인줄 아오이다.》

희동의 엉치를 걷어찬 발기는 이발가는 소리를 내며 그를 노려보았다.

희동이 이 젊은이는 한때 썩은 조정을 이끌던 좌가려의 서자이고 그결의 젊은이는 어비류의 손자였다.

이미 죽은 역적들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놈들이 살아있다니 어인 일인가.

좌가려의 패당이 일으킨 반란을 무섭게 짓부시며 연나부로 선참 쳐들어간 사람이 발기였다. 좌가려의 재산을 탐내여 그 집에 뛰여든 발기는 군사들을 내몰아 그의 족속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비가 숨겨둔 보물도 바치고 죽을 때까지 종노릇을 하겠으니 살려만 달라고 애걸하는 희동이와 그의 짝패인 어비류의 손자를 남몰래 빼돌렸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에게 몸과 마음을 다 합쳐 살려준 은혜에 갚아야 한다는 뜻에서 보은이니 보답이니 하는 이름을 붙여준 발기는 장차 앞일을 내다보고 검술을 배워주었던것이다.

《이 밥버러지 같은것들아, 목숨을 살려준 은혜에 빈손을 내미니 네놈들은 죽어야 한다. 자, 받아라.》

발기는 검을 희동이앞에 내던졌다.

《그 칼로 네 목을 찔러라.》

와뜰 놀란 두 녀석은 발기의 다리를 하나씩 부여안았다.

《전하, 국상의 목을 따오지 못한것은 소인들의 검술이 부족한때문이지 충정이 부족한탓이 아니였소이다.》

《그 늙다리가 어찌나도 검을 귀신처럼 쓰는지 소인들의 재간으로는 어림도 없었소이다.》

희동은 더 힘껏 발기의 다리를 껴안으며 애걸했다.

《늙다리의 모가지는 가져오지 못했어도 칼을 쓰지 않고 해치울 계책을 알고 왔으니 한번만 기회를 주소이다.》

귀가 벌쭉해진 발기가 희동이의 멱살을 부여잡았다.

《그게 참말이야?》

다른 녀석이 부르짖었다.

《어르신님, 낮말은 새가 듣는다 하였소이다.》

듣고보니 그럴법한 소리인지라 그제서야 리성을 되찾은 발기가 부

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진작 그 말부터 했어야지. 자,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

반년이 넘도록 고을들을 빠짐없이 돌아보고 도성에 올라온 을파소는 곧장 대궐부터 찾았다.

그동안의 일들을 임금에게 아뢰이고 관가로 돌아온 을파소는 조정대신들을 불러들였다.

모임에서 을파소는 진대법과 더불어 고을들의 형편을 통보하고 대신들부터가 바른 정사에 보다 힘쓸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진대미로 사복을 채우려 했던 룡만현의 이전 루초를 북쪽의 변방으로 정배를 보내였다.

며칠간 발등에 떨어진 국사를 처리하고보니 겹쌓인 피로에 견딜수가 없었다.

하여간 당장은 목이 메는 일들을 대책하였으니 하루쯤 쉬여야겠다고 생각한 을파소는 관가를 나섰다.

집대문앞에 이른 을파소는 마음이 허전하였다.

명림어수도 멀리에 두고 왔는데 륙손이까지 집에 없었던것이다.

을파소는 자신의 혼례식때문에 올라왔던 륙손이를 이해 정초에 구려경당에 보낸것이였다.

견마잡이 인우가 나직이 아뢰였다.

《날이 저무는데 안으로 드셔야겠소이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언제나 화려한 비단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중실부인이 버선발로 달려나왔다.

중실부인에게 이끌려 방에 들어선 을파소는 만반진수라 할만치 요란한 음식상앞에 가슴이 뭉클하였다.

오늘도 대왕님께서 진지상을 내려보내시였나보구나.

요즈음 임금님께서 국상의 몸이 쇠약해졌다면서 날마다 자신의 진지상을 허물어 을파소에게 보내주고있었다.

을파소의 겉옷을 받아 정히 개여놓은 중실부인이 활활 부채질을

해주었다.

《어ㅡ 시원하다.》

가슴을 쭉 펴고 음식상에 나앉은 을파소는 얼굴이 흐려있는 중실부인을 보고 의아해하였다.

방금 웃던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나?》

중실부인은 랭랭한 눈길로 음식상을 가리켰다.

《이건 임금님의 셋째동생분이 국상어른께 보낸 음식이오이다.》

임금님의 셋째동생이라는 말에 을파소는 환히 웃었다.

하건만 중실부인은 격해서 다음 말을 잇는것이였다.

《국상어른, 음식을 잘 보시오이다.》

《?…》

아무리 음식상을 보고 또 보아야 을파소로서는 중실부인의 성내는 까닭을 알수 없었다.

눈살이 꼿꼿해진 중실부인이 버섯볶음을 가리켰다.

《국상어른은 이 버섯볶음을 좋아하시오이까?》

먹음직스러운 버섯볶음앞에 을파소는 군침을 삼키였다.

《난 아이때부터 버섯이라면 고기붙이를 내놓고 먹었네. 세상에 버섯볶음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있을라구.》

중실부인은 음식상우의 술항아리를 가리켰다.

《이안의 술은 록용주라 하나이다.》

을파소는 혀를 찼다.

《록용주까지…》

중실부인은 버섯볶음을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이걸 무슨 버섯으로 만들었는지 아시오이까?》

을파소는 버섯볶음을 좋아했지만 버섯의 종류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고있었다.

《글쎄?…》

《지금 진지를 드신다면 버섯볶음을 빼놓지 않겠소이다?》

《여부가 있을라구. 술도 좋겠다, 안주로 버섯 한접시로는 어림도 없지.》

《이 버섯은 먹물버섯이라는것이온데 술안주로 먹는 경우 사람이 잘못될수도 있소이다.》

을파소는 뜨아한 눈길로 격해있는 중실부인을 바라보았다.

《그럼 이게 독버섯이라는건가?》

《아니, 그런건 아니고 술과 함께 먹어야만 독을 쓰게 되여있나이다.》

을파소는 고개를 기웃거렸다.

《대관절 어찌된 일인가?》

중실부인의 목소리가 떨리였다.

《국상어른께서 셋째전하를 얼마나 사랑하오이까. 또 셋째전하께서는 국상어른을 스승처럼, 아버지처럼 공경하고…

그런데 셋째전하께서 보내는 음식이라며 이걸 가져온 사람들은 확실히 불상놈같아 보였소이다. 어느 골목에서 싸움질을 했는지 얼굴이 멍들고 몸가짐도 거칠고…

례의를 중히 여기는 셋째전하께서 국상어른댁에 막돼먹은 사람을 보낼리가 없지 않소이까. 그래 의심이 나서 어의어른을 청해왔소이다.》

《의신이를?》

《예, 음식상을 살펴본 어의어른이 이르시기를 먹물버섯과 술을 함께 먹으면 반드시 독이 생기기때문에 사람이 죽을수 있다고 하셨소이다.》

을파소는 놀라서 입을 벌리였다.

세상에 음식으로 사람을 죽일수 있다니…

이윽고 을파소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셋째전하는 그럴 사람이 아닐세.》

중실부인도 고개를 저었다.

《그건 옳소이다. 그래서 셋째전하댁에 알아보니 음식을 보낸 일

이 없다는것이오이다.》

을파소는 짐작되는바가 있었다.

이건 틀림없이 나를 죽이고 그 죄를 연우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한 음모이다.

나와 연우를 미워하는자, 바로 나와 연우가 없어야 활개를 칠수 있는자가 이런 음모를 꾸몄을것이다. 그가 누군가, 틀림없는 발기일것이다.

허나 아직은 발기가 이런짓을 꾸몄다는 건덕지를 꼭 그러쥐지 못했으니 내 잠시 참을뿐이다.

을파소는 남편에 대한 걱정으로 눈물이 가랑가랑해진 중실부인의 손을 꼭 감싸주었다.

《내 걱정은 말게. 아무러면 고구려의 국상이 좀스러운자들에게 물려죽을가. 이젠 마음을 놓고 밥이나 먹읍세.》

버섯볶음을 방바닥에 내려놓은 을파소는 대범하게 술을 한잔 부어마셨다.

그리고 술잔에 술을 부어 중실부인에게 내밀었다.

《잔근심을 씻어버리는데는 이 술이상이 없다네.》

안해의 격한 마음을 진정시키느라 대범스레 말을 하였지만 그날 밤 을파소는 잠들수 없었다.

곁에 누운 중실부인도 잠들었는지 그의 숨소리가 고르롭게 들리는 고요한 밤이였다.

을파소는 중실부인이 깰세라 까딱않고 누운채로 발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우악스럽고 조폭하고 탐욕스러운 발기를 그려보느라니 숨소리마저 거칠어졌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그를 잡아 족치고싶었다.

그동안 사인 극실기가 알아본데 의하면 밤이면 발기의 집으로 드나드는자들이 이전보다 썩 늘어났다고 하였다.

이것은 발기의 음모가 마감고비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역모가 터지기를 기다려 잡아족치는것보다는 사전에 짓뭉개버리는 것이 더 유익한줄 내 모르는바가 아니다.

그러나 아직 발기를 내버려두는것은 임금의 신상이 시원치 않기 때문이다.

임금이 중병을 앓고있는데 그 동생을 잡아죽인다면 어찌되겠는가.

하여간 발기를 손바닥우에 올려놓고있는셈이니 두려울것은 없다. …

이어 을파소는 우소를 그려보았다.

우소 역시 사인을 통해서 을파소의 시야에 들어있었다.

우소가 요즘은 발기와 상종을 않는다니 그에게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였다.

을파소는 여러차례나 우소에게 연우를 보내여 조정에 엇서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눌러놓았었다.

특별한 재주도 없고 그렇다고 나라를 위해 자기를 바치려 하는 마음도 부족한 그런 사람과 마주앉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싶지 않기에 연우를 보낸것이였다.

우소가 발기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이상 반역을 하지 않을것은 뻔한 일이였다.

그래, 지금은 발기밖에 조정에 반기를 들려 하는자는 없을것이다.

아니, 없다.

비로소 마음이 놓이였다.

(17)

을파소를 남몰래 해치려 했던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자 발기는 마지막수를 쓰리라 마음먹었다.

그동안 서뿌른 수법으로 을파소를 죽이려 했다가 도리여 그의 신변호위만 째이게 해놓았었다.

출로는 오직 하나 이 발기가 임금의 동생이라는것을 잊지 않도록

임금에게 알리는 그뿐이였다.

우소가 국상의 《허물》을 입에 올렸다가 임금의 총애를 잃었다니 그런 전철을 다시야 밟겠는가.

여러날 집에 꾹 박혀있으면서 임금의 심금을 울릴 계책을 꾸민 발기는 부왕의 제사날에 대궐을 찾아갔다.

선왕의 제를 드린 임금은 단 둘이 만나고싶어하는 발기의 청을 기꺼이 들어주었다.

침전에서 발기와 마주앉은 임금이 다정하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일부러 눈물을 머금은 발기가 울먹이며 말하였다.

《이 동생은 자나깨나 대왕마마 걱정뿐이오이다. 이놈은 혈기왕성하건만 대왕마마를 조금도 돕지 못하고있으니 실로 분하기 그지없소이다.》

그의 말이 어찌나 간곡하였던지 임금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고맙다. 짐에게는 든든한 동생들이 있으니 더 바랄게 없다.》

발기는 더욱 간절한 어조로 말했다.

《옛글에 덕에 의거하는 군주는 나라를 흥하게 하고 힘에 의거하는 군주는 나라를 기울게 한다고 하였소이다. 이 동생은 덕을 베풀어 정직한 사람을 국상으로 등용한 대왕마마께서 얼마나 옳았는가를 통절하게 깨치였나이다.》

임금은 놀라는 눈길로 발기를 바라보았다.

때로는 하루사이에도 전혀 딴 사람으로 된다더니… 이 경우를 가리켜 룡이 되였다고 하지 않겠는가.

감동된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네가 그사이 책을 많이 읽었구나. 벌써 그랬어야지. 옳다, 한집에서도 가장이 혈육의 정으로 식솔을 다스리면 능히 화목을 이룰 수 있지만 례의를 잃고 도리와 담을 쌓으면 흥하던 집도 망하기마련이니라.

그걸 깨우친 동생을 보니 실로 기쁘기 그지없구나.》

진정으로 기뻐하는 임금앞에 오로지 제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생각뿐인 발기는 속에 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대왕마마께서 기쁘시다니 동생으로서 뭘 꺼리겠소이까. 이 동생은 뒤늦게야 아는것이 없으면 나라를 다스리는 대왕마마를 도울수 없다는걸 깨닫고 책을 붙잡았소이다.

읽은 책중에 이런 글도 있었소이다. 충의를 간직하면 결코 보답되지 않는 일 없고 신의를 잃지 않으면 믿음을 잃지 않는다라는 글이였소이다.

그러나 따져보니 이 글이 리치에 맞지 않는것 같소이다.

자고로 나라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신하일지라도 죽은 후 남들이 헐뜯으니 군주의 버림을 받아 간신으로 몰린 사람이 어디 한둘이였소이까.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하오이까?》

이 질문이 발기가 말하고저 하는 골자였다.

임금은 다시금 놀라는 눈길로 발기를 바라보았다.

동생이 무엇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것일가?!…

말과 행동이자 그 사람의 마음이라 하였는데…

임금은 발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국상과 궁중의 신하들을 통해서 아래를 장악하고있는 임금인지라 발기의 일거일동을 모를리 없었다.

을파소때문에 밥줄이 떨어진자들과 심술이 바르지 않은자들이 남의 눈을 피해가며 발기의 집에 드나들고 발기가 또 그들을 심복으로 삼는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였던것이다.

몸에 골병이 들지 않았더라면 임금은 그런짓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을것이였다.

병에 견디는 장수가 없다고 이미 골병에 든 몸이라 불쑥 쓰러질수도 있고 그 경우 발기가 당연히 나라를 맡아야 하기에 내버려둔 것이였다.

그렇다고 숨이 넘어가기 전에는 발기에게 대를 물리고싶지는 않았다.

천성이 모질고 탐욕스러운 발기인데 나라를 망치려고 그에게 물려

준단 말인가.

자기의 대를 물려주기에는 대바르고 덕있는 연우가 적임자인데 발기를 제쳐놓고 그를 내세운다면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날수도 있는것이다.

그래서 후세에 우유부단한 임금이라는 시비를 듣는다 해도 지금 당장은 자기의 뒤를 이을 동생을 정하지 않는것이였다.

아직까지 후임을 정하지 않은것도, 발기를 내버려두는것도 실은 만사에 환하고 주도세밀한 국상이 있기때문이였다.

아직은 뒤일을 가지고 국상과 의논한바는 없지만 그도 이것을 생각해두었을것이고 또 때가 오면 국상이 태묘사직을 무사히 이어지도록 할터인데 무얼 근심하겠는가. 난 국상을 나자신처럼 믿는다.

그러니 내 살아생전에 형제간의 우애를 잃지 않으면 될것이다. …

언짢아진 기분을 스스로 삭인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동생, 충신일지라도 남들이 헐뜯으면 군주의 버림을 받는다는 동생의 말에도 일리가 있네. 하지만… 짐의 손을 보라구.》

임금은 잠시 펼치였던 오른손을 꽉 움켜쥐였다.

《보다싶이 이 다섯손가락은 안으로만 굽어들게 생기였네. 그리고 이 다섯손가락을 다 그러모아야 주먹이 센 힘을 가질수가 있는거네.

이 다섯손가락중에서 어느 하나만 없어도 그 손은 제구실을 원만히 할수도 없고 주먹도 옹근 주먹만큼 세지 못한다네.

하듯이 우린 군신간이지만 한부모에게서 태여난 한형제이라 형제간의 정과 의리만 있으면 남들이 헐뜯는다고 하여 짐이 어찌 동생을 버릴수 있겠나. 사실말이지 나라를 다스린다는게 헐치는 않아.

오죽했으면 어떤 나라를 세운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기가 그렇게 힘든 일이였음을 미리 알았더라면 당초에 룡상을 가지지 않았을거라고 한탄했다고 했겠나.》

임금은 지금 진심을 털어놓고있었다.

《더우기 우리 고구려가 어떤 나라인가 말이네. 우리 겨레의 모든 강토를 넘보는 외적도 도맡아 물리쳐야 하고 또 동족의 나라를

모두 하나로 이어놓아야 하고… 그래서 고구려의 군주는 더 힘들고 더 바쁜것이라네.》

자기의 질문에 대한 임금의 대답여하에 따라 앞일을 결정짓기로 작정한 발기는 온 신경을 도사리고 그의 말에 귀를 강구었다.

《짐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것은 동생이 충정을 가다듬고 나라에 리로운 일을 찾아하라는거네.》

그만에야 발기는 마음이 가벼워졌다.

만일 임금인 형이 의심하는 태도를 취했더라면 지체없이 반란을 일으킬 작정이였다.

임금이 앓고있을 때 불의에 을파소를 쳐죽인다면 나라의 다음번 주인자리는 먹어놓은 떡일것이였다.

그러나 그게 위험한 일이라 지금은 그 수를 쓰지 않아도 될것 같았다.

지금은 임금을 공손히 받드는척 하고있다가 형이 돌아가는 그날 왕궁을 차지하는것이 상수일것이였다.

《대왕마마의 분부를 명심하겠소이다.》

머리를 조아리는 발기의 공손한 몸가짐에 임금은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하여간 지금은 발기가 죄되는짓을 할수 없도록 눌러놓는것이 급선무라 할것이였다.

제 6 장

(1)

진대법이 실시되여 세번째의 년륜을 아로새기는 정축년(197년)의 새해가 왔다.

사람이 머리를 싸매고 달라붙으면 한가지 큰일을 성취할수 있다더니만 부국강병의 뜻을 지닌 을파소의 노력에 의해 고구려는 날로 강해지고있었다.

뭐니뭐니해도 인재들을 널리 찾아내여 고을과 군진에서까지 등용하여 쓰고있기에 조정의 정사가 아래에까지 미치고있는것이였다.

그리고 진대법으로 나라의 쌀창고도 채우고 성들도 개축하고 군사도 늘이고 토호들의 전횡도 막고… 뿐더러 농사가 잘되니 고구려는 먹을것이 넉넉한 나라이라고 세상에 소문이 나게 되였다.

정축년 벽두에 을파소는 또 하나의 큰 일거리를 맡지 않을수 없었다.

고구려에서 진대법의 혜택으로 풍작을 이루어 먹을것이 남아돌아간다는 소문이 후한에도 전해져 벽두부터 가난에 시달리던 료동의 백성들이 살길을 찾아왔던것이다.

삼삼오오 때로는 수백명이 무리를 지어 찾아오는 그들에게 삶의 터를 마련해주는것은 결코 헐한 일이 아니였다.

료동땅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다수는 고조선시기부터 그곳에 뿌리를 박은 동족들이였다.

그 땅을 아직도 남에게 빼앗기고있는것도 통분한 일인데 그 땅에서 쫓겨오는 동족을 받아주지 않는다는것은 겨레의 강토를 하나로 이어놓으려는 고구려의 체모에 맞지 않을것이였다.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어전회의를 열고 살길을 찾아오는 동족을 차별없이 받아들이되 인구가 적거나 개간할 땅이 많은 고을들에 보내는 조치를 취하였다.

을파소가 직접 이 일도 맡아하였다.

그런 속에서도 을파소는 여전히 후한의 정세를 살피고있었다.

간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미 료동에 십만대군이 있다는것이였다. 물론 그 대부분이 료동태수 공손도가 긁어모은 군사라는것이였다.

보다 위험한것은 료동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유주(베이징일대)에도 대군이 주둔하고있다는 그것이였다.

유주에 대군이 있다는 점은 후한조정이 고구려와의 싸움준비를 내밀고있음을 보여주고있는것이였다.

후한보다도 골치거리는 발기였다.

임금의 동생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때 나라를 받들 생각은 않고 룡상이나 넘보며 세력을 늘이는 일에 몰두하고있으니 이게 야단중에 큰 야단이였다.

사인 극실기가 연우의 시종이라며 음식을 가져온 그자들을 잡아들이지는 못하였지만 그대신 연나부의 평자 연량리까지도 발기의 심복이라는것을 들추어냈다. 바로 깊은 밤중에만 홀로 발기의 집에 드나드는 연량리를 알아낸것이였다.

그러니 연량리를 연나부의 평자로 추천할 때 벌써 발기는 그자를 자기의 심복으로 두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였다.

이로써 발기와 그의 세력을 한그물속에 몰아넣은셈이였다.

어느 사이에 만산에 신록이 물드는 5월이 왔다.

국내성을 나선 호화마차 한대가 동쪽길을 달리고있었다. 을파소가 탄 수레였다.

지금 을파소는 국동대혈이라고 부르는 곳을 찾아가고있었다.

국동대혈은 도성에서 동북으로 40리가량 떨어져있는 큰 굴이였다. 그 굴에 동명성왕과 그의 어머니 류화를 형상한 신들이 모셔져있었다.

을파소는 지성을 다해 꾸리지 못한 굴에다 아무런 치장도 없이

시조의 신을 별로 품들이지 않고 모셔두는것이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다른 신도 아니고 시조의 신을 자연적으로 생긴 굴에 그대로 모셔두는것이 무슨 성의란 말인가. 굴안도 더 잘 꾸리고 굴밖도 손색없이 손질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숭엄한 마음이 우러나오게 해야 하는것이다. …

수레에는 또 한사람 름름한 젊은이로 성장한 명림어수가 타고있었다.

노란색바탕에 검은 무늬를 수놓은 바지 그리고 붉은 바탕에 흰 무늬의 덧옷을 입고 머리에 책을 쓴 명림어수는 당당한 벼슬아치의 모습이였다.

올초에 을파소는 룡만현에 내려가있던 명림어수를 제결으로 소환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보내였다.

수레를 끄는 다섯필의 준마들은 소나무가 우거진 산을 끼고 펼쳐진 넓은 길로 호호탕탕 달리고있었다.

열려진 창문으로 언뜻언뜻 지나치는 산발을 바라보며 을파소가 입을 열었다.

《네가 고을에 내려가 고생을 했는데 그중 인상에 남은게 뭐냐?》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을파소의 습관을 아는 명림어수는 흥미거리가 될만 한 일화를 생각해냈다.

《룡만관가에는 세그루의 배나무가 있소이다. 국상어른이 소인에게 룡만을 맡기고 떠나간 그해 가을 관가의 뒤뜨락에 있는 세그루의 배나무에 주먹같은 배가 주렁주렁 달렸소이다. 배맛을 보니 한그루는 꿀맛같고 다른 두그루는 시고 떫었소이다.

전 세그루의 배를 한꺼번에 따서 관속들에게 나누어주었소이다. 했더니 다들 얼마나 좋아하던지…

이전 루초는 그 배마저 혼자 독차지했다나 보오이다.

이듬해 초봄 한 늙은이가 저를 찾아와 하는 말이 루초어른이 준 배를 손자애들이 잘 먹었다고 하면서 맛이 좋지 못한 두그루의 배나

무를 맛좋은 배가 달리도록 만들겠다는것이 아니겠소이까.

그래서 전 승낙했소이다.

그날 늙은이는 톱으로 맛이 없는 두그루의 배나무를 베버리더니 맛좋은 배가 달리는 나무의 아지를 잘라다 그 두그루의 그루터기에 붙이였소이다. 어떻게 붙이였는가 하면 먼저 그루터기에 작은 도끼로 내리찍고 그렇게 생긴 틈에다 아지를 꽂고 그 다음 물에 이긴 흙을 붙이고 천으로 꽁꽁 싸맸소이다. 그때 난 그게 리해되지 않았소이다. 사실 전 과일나무에 대해서는 깜깜이였소이다.

놀라운 일은 나무그루터기에 접한 아지에서 움이 트고 잎이 피여나고 하얀 꽃까지 피는것이였소이다.

그해 여름 한길이나 자란 아지에 잎도 무성하고 몇알이였지만 배까지 달려 크고있었소이다. 늦가을에 배를 따서 맛보니 기이하게도 꿀맛이였소이다. 아마 올해에는 많은 꿀배가 달릴것이오이다.》

을파소도 감탄해마지 않았다. 그의 고향집 과일나무들에는 맛좋은 열매만 달리였다.

그것은 애초에 맛좋은 열매가 달리는 과일나무들에서 씨를 받아심었기때문이였다.

을파소는 열매가 달리는 큰 과일나무를 베여버리고 그 그루터기에다 아지를 접하는 방법을 처음 들었다.

세상에 기이한 재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수레는 국동대혈앞에서 멈춰섰다.

국동대혈을 돌아보는 을파소는 느끼는바가 새삼스러웠다.

천정높이가 서너길 되는 굴은 가로폭이 무려 열보를 넘었다. 이런 거대한 굴이 천지의 조화로 생겨났다니 신비스럽기 그지없었다.

태고적에 벌써 하늘이 고구려를 위해 이 굴을 마련해준듯싶었다.

이런 신기함이 있기에 천기를 헤아렸다는 류리명왕이 국내성으로 천도를 한것이고 여기에 시조의 신을 모시게 했을것이였다. 이 굴에 을파소 자기의 조상의 자취도 어려있을것이라고 생각하니 더 잘 꾸려야겠다는 마음이 굳어졌다.

국동대혈을 꾸리는데 소모되는 석재며 보물이며 로력을 타산하고 밖으로 나오니 갑옷차림의 중리도독 락도상이 깍듯이 절을 하는것이였다.

을파소는 대뜸 가슴이 후두둑 높뛰였다.

왕궁의 호위를 맡은 사람으로서 잠시도 임금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 여기까지 찾아온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것이 아닌가.

(2)

부하들을 손짓으로 물러가게 한 을파소가 락도상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 생겼소?》

두눈에 눈물이 고인 락도상이 울먹이며 말했다.

《국상어른, 대왕님의 병세가 갑자기 대단히 심해졌소이다.》

《뭐라구?》

소스라치게 놀라는 을파소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였다.

임금님의 병세가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

이틀전에도 을파소는 국동대혈을 일신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임금을 만났었다.

그날도 임금의 혈색이 그리 나쁘지 않았었다.

《대왕께서는 국상어른을 급히 모셔오라고 했소이다.》

병든 임금의 수명은 좀 늘일수 있어도 병을 고칠수 없고 어느때건 병세가 악화되면 천하명의일지라도 어쩔수 없다던 의신의 말이 생각난 을파소는 숨이 꺽 막히였다.

(그럼 오늘이?!…)

《어서 가시오이다.》

락도상의 재촉에 을파소는 다급히 수레에 올라탔다.

인우가 채찍을 휘둘렀다.

쏜살같이 달리는 수레의 뒤로 락도상이 말에 박차를 가하며 따랐다.

대궐앞에 이르니 길높은 궁성의 성벽을 빙 돌아가며 창을 꼬나든 왕궁호위군사들이 진을 치고있었다.

대궐문에서 을파소를 기다리던 궁인들이 그를 안내했다.

궁인들을 따라 침전에 들어서니 임금이 침상에 누워있었다.

임금의 머리맡에 울상이 된 우왕후가 서있고 의신은 임금앞에 무릎을 꿇고있었다.

황황히 다가간 을파소는 임금의 손을 덥석 부여잡았다. 손에서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하는 동시에 눈물이 솟구쳤다.

제발 불행이 없어주었으면…

속으로 빌며 의신을 바라보니 그는 말없이 고개를 젓는것이였다.

더는 가망이 없다는 그 뜻에 을파소는 가슴이 터질것만 같았다.

지금은 울고있을 때가 아님을 속으로 뇌인 을파소가 눈굽을 닦으며 조심히 입을 열었다.

《대왕마마, 신 을파소 어명을 기다리오이다.》

창백한 얼굴에 한가닥 미소를 지은 임금이 힘겹게 말을 떼였다.

《국상과 왕후만 남고 다들 나가오.》

락도상과 의신이 나가서야 임금이 다시 입을 열었다.

《짐은 국상을 더없이 믿소. 국상이 아니였다면 짐이 어찌 정사를 바로잡을수 있었겠소.》

그 말에 을파소는 격정이 솟구쳤다.

어찌 그런 과찬을… 지금껏 언제 한번 의심이나 불신을 가진적 없이 자기를 내세워주고 믿어준 임금이 아니였던가. 그 임금이 지켜주고 떠밀어주는데야 누구인들 국상의 직분을 감당할수 없겠는가.

《아니오이다. 정사를 바로잡은것은 다 대왕마마께서 덕이 있기때문이오이다.》

《고맙소. 나에게는 인복이 있었소. 늦긴 했어도 국상을 만났기

에 뜻대로 나라일을 바로잡을수 있은거요. 나와 국상사이에는 충신의 사이라기보다 부자지간의 정이 흘렀다고 해야 옳을게요. 난 그렇게 생각하오. 후ㅡ 아마 오늘이 국상과 마지막인것 같소. 간밤에도 졸도를 했는데… 어의의 말이 한번만 더 졸도를 하면 그땐…》

임금의 손을 꼭 잡고있는 을파소의 얼굴에서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어쩜 나라의 복이 이다지도 짧단 말인가. 옳바른 임금이 먼저 가려 하다니… 늙마에 조정에 나와가지고 젊은 임금을 앞세우는 불충한 신하가 되였구나.

《국상, 울지 마오. 난 아버지와도 같이 친근한 그대를 국상으로 둔것을 큰 복으로 여기오. 국상이 아니였다면 난 벌써 잘못되였을것이고… 나라도 오늘과 같이 강해지지 못했을거요.》

《대왕마마. …》

《국상은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었으면 하오?》

을파소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 국상으로서 나라의 흥망이 결정되는 이 귀중한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내려지게 한다면 두고두고 온 나라의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누구에게 대를 물려주어야 하는가고?…

이런 때 국상으로서 똑똑한 주견을 내놓아야 한다. 임금에게 덕이 있고없는가에 따라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국운이 기울기도 한다.

을파소는 동시에 임금의 동생들인 발기와 연우, 계수를 그려보았다.

그 세명의 동생들가운데서 을파소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연우였다.

순서를 따지면 마땅히 발기에게 대를 물려주어야 하지만 심술사나운 그가 나라를 가진다면 나라를 망쳐놓을것이였다.

안된다, 안돼!

《대왕마마, 신은 셋째전하만이 대왕님의 뜻을 옳바로 받들어나갈수 있다고 생각하오이다.》

임금의 얼굴에 홍조가 어리였다.

《국상의 생각이 천만번 지당하오. 짐은 그전에 만일 내가 정말 쓰러진다면 발기에게 뒤를 물려주자고 생각했댔소. 몸도 든든하고 무술에도 뛰여났기에 말이요. 그러나 지내보니… 아니더란 말이요.》

꺼져가는 생을 간신히 부여잡고 임금은 온몸의 힘을 모아 말을 이었다.

《내가 연우에게 뒤를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였다고 해도 사나운 발기가 반드시 가만있지 않을거요. 하지만 국상이 있으니 마음이 놓이오.

국상, 어련하겠지만 연우를 받들어 고구려를 보다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주오.》

자기의 몸을 깡그리 태워서라도 이 길에서 물러서지 않을 을파소는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임금의 눈길이 다치면 오열을 터칠듯싶은 우왕후에게로 옮겨졌다.

한동안 그를 바라보던 임금의 눈길이 을파소에게 되돌아왔다.

《국상, 왕후를 잘 돌봐주오.》

《알겠소이다.》

미소를 지은 임금이 말했다.

《국상, 날 좀 일으켜주오.》

을파소는 눈물을 씹어삼키며 임금을 안아 일으켰다.

을파소의 품에 안긴 임금은 마지막힘을 모아 입을 열었다.

《나의 장례를 간소하게 하오. 그리고 부디… 나를 잊지 말아주오.》

《대왕마마!》

을파소의 눈물이 임금의 얼굴에 떨어졌다.

이어 잠든듯 눈을 감은 임금에게서는 가는 숨결만이 느껴졌다.

(3)

고구려 제14대임금인 고남무는 그날 저녁 운명하였다. 그의 왕호는 고국천왕이였다.

고국천왕의 머리맡을 지키던 을파소는 쏟아지는 눈물속에 고개를 들었다.

귀가에는 나라가 국상에게 달려있으니 부디 새 임금을 잘 받들라던 고국천왕의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그렇다. 지금 내가 해야 할바는 두가지, 임금의 장례를 치르는것과 함께 시급히 새 임금을 세우는것이다.

장례를 간소하게 하라는 임금의 유언을 어길수 없으니 대궐에 빈소를 만들고 시신을 안치한 다음 3년이 지난 길한 날에 릉을 쓰면 될것이다.

나라에는 잠시도 룡상을 비워두어서는 안되는 법, 더우기 발기가 란동을 부리기 전에 셋째전하를 데려다 등극시켜야 한다.

고구려의 태묘사직이 자신의 한몸에 실려있다는 자각이 을파소로 하여금 임금을 잃은 상실의 아픔을 분발심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아직은 임금이 세상을 떠났다는것을 누구도 알아서는 안되였다.

현재까지 임금이 잘못되였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을파소와 우왕후뿐이였다.

을파소는 고국천왕의 시신을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는 우왕후에게 일렀다.

《왕후마마, 셋째전하를 등극시키기 전에 대왕마마께서 잘못되셨다는것이 대궐밖으로 새여나가서는 안되오이다.》

침전을 나선 을파소가 락도상에게 분부했다.

《궁성밖에 나가 진을 치고있는 군사들을 안으로 불러들여 지키되 개미새끼 한마리 기여나가거나 기여들지 못하게 하라.》

달빛에 락도상의 얼굴이 밝아지는것을 볼수 있었다.

《그럼 대왕마마께서 좀 쾌차하였소이까?》

을파소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 참, 고우루와 극실기를 불러주게.》

《알겠소이다.》

인차 침전으로 들어온 을파소는 차마 곡은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우왕후를 지켜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새 임금을 말썽없이 등극시킬수 있을가?!…

임금의 유언이라고 해도 절대로 굽어들 발기가 아니고보면 미리 군사를 보내여 잡아가둘가?! 아니, 그것도 아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연우가 반란을 일으켜 룡상을 빼앗아가졌다고 할것이다. 발기도 꼼짝 못하게 눌러놓고 사람들의 오해도 없도록 할 묘안은?!… 일각이 삼년맞잡이로 귀중한 이때 어서 좋은 궁냥이 떠올라야겠는데…

마음이 조급해서인지 머리속은 온통 잡념들로 뒤죽박죽이고 등골에서는 진땀이 흘렀다.

어떻게 해야 할가?… 을파소는 너무도 안타까와 옷깃을 헤치였다.

가만, 덤벼서는 안된다.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늦추고…

만일 발기의 무리가 역모를 단행하려 한다면 난 결단코 그것들을 파리잡듯 할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도 있고 그것이 곧 하늘의 뜻인줄도 안다.

크게 숨을 들이키니 조급하던 마음도 가라앉고 달아올랐던 얼굴도 식어지는것 같았다.

이윽고 을파소는 신통한 수를 생각해냈다.

《왕후마마, 대왕마마의 유언을 지키는것은 왕후마마에게도 달려있소이다.》

우왕후가 눈물이 흐르는 얼굴을 들었다.

《신에게 한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대로 할수 있겠소이까?》

《대왕마마께서 태묘사직을 국상어른께 부탁하시였는데 제 어찌

국상어른의 생각을 따르지 않겠소. 어서 분부하시오.》

《그럼 이렇게 하시오이다.》

…

을파소의 계책을 들은 우왕후는 어쩌면 자기의 생각과 꼭같은지 신기할 정도였다.

두사람의 생각이 일치하다는것은 그 실현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수 있다는것이 아니겠는가?!…

돌아간 임금의 뜻대로 사직을 바로 이으리라 비장한 마음을 먹은 우왕후는 먼저 발기의 집을 찾아갔다.

저녁시간에 뜻밖에 찾아온 우왕후인지라 발기는 어리둥절하였다.

손님방에서 발기와 마주앉은 우왕후는 평온한 안색을 짓고 입을 열었다.

《댁에 백년 묵은 산삼이 있다기에 해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왔소. 어의의 말이 대왕마마께 드릴 약에 백년 묵은 산삼이 꼭 들어가야 한다기에 어찌 다른 사람을 보낼수 있겠소.》

아닌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한다더니 생각지도 않던 우왕후가 나타나 있지도 않는 백년 묵은 산삼을 내라고 하니 요즘 그를 미워하던 발기로서는 성을 낼수밖에 없었다.

열흘전 우왕후는 본가를 찾은적이 있었다.

그날 우소는 우왕후에게 발기가 통이 크고 무술이 뛰여난 인재이니 임금에게 아뢰여서 임금을 이을 동생으로 봉하자고 졸라댔다.

허나 발기를 좋지 않게 여기는 우왕후는 즉석에서 아버지의 청을 거절하였었다.

이 사실을 안 발기는 어느때건 우왕후와 그의 집안을 멸족시키리라 독을 품고있었다.

(요즘 임금의 병이 심상치 않다더니 이년이 나의 거동을 살피러 왔구나. 을파소, 그놈이 시켰을테지, 죽일 년놈들.)

고국천왕이 잘못되였음을 꿈에도 알리 없는 발기는 을파소가 예견했던바대로 우왕후에게 성을 내며 말했다.

《원 참, 우리 집에 백년 묵은 산삼이 있으면 내가 벌써 임금님께 가져다 올렸을것이오이다. 도대체 그런 허튼소리를 누가 하오이까?》

우왕후는 락심한듯 한숨을 쉬고나서 말했다.

《대왕마마의 병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태자마저 없으니 저의 죄가 크오. 아무래도 전하가 대왕님의 뒤를 이어야 할것 같소.》

이렇게 말하는 우왕후의 가슴은 세차게 울렁이였다.

발기가 내 말을 덥석 받아물면 좋지 않은데…

하지만 일없어, 나에겐 또 다른 계책이 있으니까 하면서도 가슴은 그냥 울렁거렸다.

우왕후가 속이 한줌만해서 있을 때 발기는 코웃음을 쳤다.

(흥! 이 계집이 나를 어린아이로 아는가보지? 내 입에 낚시를 물려보자구, 어림도 없다.)

발기는 사인 극실기가 자기를 감시하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이것들이 내가 들고일어날가봐 눈들에 쌍심지를 켰군.)

왕위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다는듯 발기는 떠들어댔다.

《난 그런데 흥미가 없소이다. 사람의 운수는 하늘이 정하는 법인데 그런걸 경솔하게 론해서야 쓰겠소이까.

더우기 왕후마마가 밤중에 대궐을 나와 그런걸 론하는게 례법에 맞느냐 말이오이다.》

우왕후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몰아쉬였다.

어쩌면 국상의 예견대로 되였는지…

이제는 제가 그런 말을 내뱉았으니 룡상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대들 명분이 없게 된 발기였다.

을파소는 우왕후를 미워하는 발기의 이 점을 노려 그런 계책을 꾸민것이였다.

고개를 수그리고 일어선 우왕후는 《내가 생각이 짧았나보오.》라는 말을 남겨놓고 발기의 집을 나섰다.

발기는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우왕후의 수레를 쏘아보며 껄껄 웃었다.

《너희들의 얕은수에 빠질 내가 아니다.》

한편 연우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든 우왕후앞에 너무도 반가와 눈물이 글썽해졌다.

우왕후를 단지 형수만이 아닌 어머니로 여기는 그였던것이다.

우왕후의 팔을 잡은 연우는 절절하게 말했다.

《왕후께서 대왕님의 병구완을 하느라 끼식인들 제대로 드셨겠소이까. 모처럼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내 손으로 음식을 대접하겠으니 잠간만 기다리시오이다.》

발기와는 너무도 상반되는 연우의 대우에 우왕후는 눈물이 솟구쳤다.

우왕후에게 다문 한끼라도 반드시 제손으로 음식을 지어 대접할 마음인 연우는 시녀들도 찾지 않았다.

제가 직접 부엌에 들어가 쌀을 일어 솥에 안치는 연우의 태도에 우왕후는 가슴이 뜨거웠다.

솥에 쌀을 안친 연우는 자기를 지켜보는 우왕후에게 말했다.

《마침 사슴고기가 생겼소이다. 제가 얼마나 고기국을 맛있게 끓이는지 그 솜씨를 보여주겠소이다.》

연우는 사슴 뒤다리에서 큼직하게 살을 저며냈다.

그리고 고기를 써는데 그 솜씨가 여간 서툴지 않았다.

하긴 지금껏 끼식을 끓여보지 못한 그였으니 그럴수밖에 없는것이다.

그것이 우왕후를 감동시키기에는 충분하였다.

형수를 부모처럼 여기며 제손으로 음식대접을 하려 하는 저런 고운 마음을 지닌 사람이 임금이 되여야 왕실도 우씨집안도 모두 편안할것이 아닌가.

감동속에 연우를 지켜보던 우왕후는 몸을 흠칫 떨었다.

고기를 썰던 연우가 손을 베였기때문이였다.

자기의 손을 벤듯 한 느낌에 몸을 떤 우왕후는 치마자락을 찢었다.

《어서 상처를…》

우왕후는 연우의 손을 잡고 베인 손가락을 싸매였다.

그에 감동된 연우가 목메여 말했다.

《형수님도 참, 내 무슨 실언을… 아, 요쯤한걸 보고… 내 인차 고기국을…》

연우의 팔을 잡은 우왕후가 목메여 부르짖었다.

《방금 대왕마마께서 돌아가셨소.》

연우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게… 그게 참말이오이까?》

《뒤를 이을 사람을 딱히 정해놓지 않았으니 발기전하가 뒤를 이어야겠지만… 포악무도하기에 대왕께서는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셨소.

국상이 기다리고있으니 어서 가시오. 시간이 없소. 자, 어서!》

연우가 우왕후에게 등을 떠밀려 수레에 오르기 바쁘게 수레는 쏜살같이 대궐을 향해 질주했다.

을파소는 그동안 대궐로 불려온 고우루에게는 경군을 거느리고 국내성을 에워싸고 지키며 사인 극실기에게는 발기를 잠시도 시야에서 놓치지 말것을 분부한터였다.

대궐뜨락에서 연우를 맞이한 을파소는 고국천왕의 시신을 옮겨놓은 별궁으로 그를 이끌었다.

고인을 붙안고 통곡하는 연우를 남겨놓고 별궁밖으로 나온 을파소는 그때에야 락도상에게 임금이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려주었다.

《아침까지는 이 일이 밖으로 새여나가서는 안되네. 이제 곧 중외대부와 례복구, 명림어수를 불러들이게.》

락도상과 헤여진 을파소가 별궁으로 돌아오니 아직도 연우는 땅을 치며 울고있었다.

연우의 팔을 잡으며 을파소가 말했다.

《급히 의논할 일이 있사오니 잠시 여길 뜨셔야겠소이다.》

궁인들이 다가와 연우를 부축하고 을파소는 본전으로 그를 이끌었다.

여러가지 등불이 본전안을 환히 밝히고있었다.

룡상에 연우를 앉힌 을파소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선왕께서는 왕위를 셋째전하께 물려주라고 유언하셨소이다.》

연우가 룡상에서 일어섰다.

《아무리 선왕의 유언이라고 해도 형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내가 감히?!…》

을파소에게는 확실히 예상치 못한 일이였다. 그러나 동요하지 않았다.

임금이 미처 후임을 정해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대도 발기를 눌러놓고 연우를 나라의 주인으로 받들 결심이였는데 무엇을 주저한단 말인가.

국상으로서 고구려를 위할수만 있다면 남들의 오해를 받는다 해도 물러서지 않을테다. …

그때 조심히 다가온 궁인이 을파소의 귀에 대고 아뢰였다.

《대왕마마의 령전에서 중외대부어른이 기절하여 쓰러졌소이다.》

소스라치게 놀란 을파소는 안류에게 달려가고싶었다.

그러나 보다 급한 국사를 생각하여 자신을 다잡아야 했다.

《내 곧 가겠으니 먼저 어의를 불러다 보이게.》

궁인을 돌려보낸 을파소는 저력있게 입을 열었다.

《난 전하께서 이다지도 졸장부인지 몰랐소이다. 모두가 발기전하가 나라를 가지면 차대왕처럼 나라를 망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전하께서 고구려의 전도를 외면할수 있소이까. 지금 후한이 변방에 대군을 끌어다놓고 우리를 넘보는 이때 왕위를 사양하려든다면 이건 죄악인줄 아오이다. 이미 하늘의 뜻에 따라 룡상의 주인이 결정되였으니 어서 보위에 오르시오이다.》

을파소의 완강한 태도에 감동된 연우가 그의 손을 굳게 부여잡았다.

우왕후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다가와 연우에게 오채로 단장된 임금의 관복을 넘겨주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을 바로잡은 을파소가 밖으로 나오니 명림어수와 례복구가 기다리고있었다.

을파소는 먼저 명림어수에게 일렀다.

《자네는 날이 밝는 즉시 모든 조정대신들을 불러들이게.》

이어 례복구의 손에 자신이 직접 작성한 공문서를 들려주었다.

《난 자네가 의로운 장수임을 아네. 그래서 믿지. 대왕마마께서 돌아가신 이때 자네에게 제일 힘든 일을 맡기네. 이안에는 자네를 신성고을의 태수로 봉하는 직첩도 있고 자네가 신성고을에 내려가 해야 할 일이 씌여져있네.

지금껏 연인장군에게 신성고을의 태수를 겸임시켰는데 오늘에야 진짜주인을 보내네. 어려운 때 신성을 맡기네.》

을파소는 또 다른 공문서를 례복구에게 주었다.

《이 공첩들은 우거장군과 연인장군에게 보내는것들이네.》

두개의 공문서에는 외적이 쳐들어오는 경우 군사를 어떻게 쓰라는 계책이 씌여있었다.

례복구의 등을 어루만지며 을파소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사태가 긴박하니 이밤으로 떠나게.》

례복구를 바래워준 을파소는 크게 숨을 들이켰다.

《아직은 마음을 놓을수 없어.》

(4)

아침일찍 대궐에 불려나갔다가 정오전에 집에 돌아온 발기는 너무도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였다. 머리털이 나서 지금처럼 사람을 마구 죽이고싶도록 화가 난적은 없었다.

칼을 뽑아들고 뜨락에 버티고 선 발기는 당장 대궐로 쳐들어가 살아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을 쳐죽이고싶었다.

발기는 이를 갈며 대궐에서 겪은 일을 돌이켜보았다.

아침에 입궐하라는 전갈을 받고 무사태평한 생각으로 대궐에 들어갔더니 본전에 백관이 가득 모여있었다.

좀 있어 임금이 룡상에 나와 앉는데 천만뜻밖에도 동생 연우였다.

도무지 있을번 한 일이 아니여서 보고 또다시 보았지만 갈데 없는 연우였다.

그래도 눈이 잘못되였나 해서 눈을 올리뜨고 내리뜨는데 우왕후가 나타나 어제 저녁 오랜 병으로 임금이 세상을 떠났으며 선왕께서 남기신 유언도 있고 또 발기전하가 왕위를 거절한 연고로 셋째인 연우가 왕위를 잇게 되였다는것을 만장에 알리는것이였다.

이 역시 있을번 한 일이 아니여서 귀까지 잘못되였나 하여 귀박죽을 만지는데 새 임금이랍시고 연우가 하는 말이 선왕의 시신을 별궁에 안치하였다가 3년이 지나면 릉을 쓰겠다는것이였다.

그제서야 발기는 간밤에 돌이킬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것을 깨달았다.

입이 열둘이라도 간밤에 우왕후앞에서 뱉아놓은 말을 진심이 아니였다고 변명할수도 없거니와 왕위를 양보할수 없다고 항변을 해도 모두가 을파소의 세력이라 수치감과 복수심으로 이를 갈뿐이였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으며 자기가 어떻게 대궐을 나서 집에 돌아왔는지 생각나지 않았다.

이가 갈려 씨근벌떡이던 발기는 뜨락 한켠에 높이 자란 버드나무의 한가지를 칼로 쳤다.

팔뚝같은 나무가지가 단칼에 나떨어졌다.

《진작 임금이 죽었다는것을 알았으면 룡상을 떼우지 않는건데…》

궁중에 박아넣은 심복졸개들이 밉살스럽기 짝이 없었다.

《찢어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들…》

발기의 심복졸개들은 사실 상전을 위해 몸을 뺄수 없었다.

을파소가 궁인들은 누구도 대궐을 나갈수 없도록 엄한 조치를 취해놓았기때문에 새나 쥐가 아니고서는 용빼는 수가 없었던것이다.

선불맞은 맹수마냥 독이 나서 오락가락하던 발기는 말을 끌어내였다.

그는 연나부를 향해 질풍같이 말을 내몰았다.

한시바삐 연량리를 만나 대궐로 쳐들어갈 생각이였다.

그동안 긁어모은 부하들이 수천명은 될것이고 또 연우가 룡상을 훔쳐가지였다고 방을 내돌리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나설것이였다.

…

그날 오후 수천명의 군사를 거느린 발기는 국내성의 남문을 향해 기세등등해서 짓쳐나갔다.

기고만장해서 남문을 가까이하니 성우에 관군이 진을 치고있었다.

발기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극실기의 급보를 받은 을파소가 남문우에서 고우루와 함께 반란무리를 굽어보고있었다.

전군을 통솔하는 지내외병마사가 지내외병마부사를 대동하고 나왔으니 관군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을파소를 알아본 발기는 너무도 성이 나서 고함을 질렀다.

《이 늙은 도적놈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감히 임금의 유언이라고 꾸며내여 코흘리개아이를 룡상에 앉히였으니 너 같은 도적놈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제라도 성문을 열고 나와 지은 죄를 빈다면 용서해줄것이나 그냥 맞서려 한다면 네 일족을 씨도 없이 멸하고말테다.》

성이 난 고우루가 발기를 겨누어 활을 쏘려 하자 을파소가 그를 제지시켰다.

《이 사람, 아직은 안되네. 저것들을 힘으로 다스리려 해서는 안되네. 선왕의 시신이 아직 식지 않았네.》

을파소는 발기를 굽어보며 소리쳤다.

《발기, 듣거라. 자고로 나라는 덕있는 어른이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네가 오늘 그런 처지에 빠진것은 다 악한 너의탓이니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이미 나라에 덕망이 높고 현명한 주인이 나섰거늘 지나간 일은 묻어두고 앞길을 생각하라.

세상에서 제일 큰 천륜은 부모께 효도하고 임금께 충정을 다하는 것이다. 이를 어기는자 어찌 목을 건질수 있단 말이냐.

역모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우리 군사들이 가만있지 않을것이다. 모조리 릉지처참을 할것이란 말이다.》

이어 을파소는 발기곁에서 독을 쓰는 연량리를 손가락으로 겨누어들었다.

《이얘 연량리야, 그전에 백성들이 너에게 량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데 너 그 훌륭한 이름에 먹칠을 하려는거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발기를 타일러 역적질을 그만두게 하거라. 그러면 량리라는 그 훌륭한 이름이 후세에 남을것이니 더는 기회를 잃지 말어라.》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발기를 섬겨오며 딴마음을 먹은 연가가 그 한마디에 흉심을 고쳐먹을리 없었다.

《닥쳐라, 이 늙다리야!》

도리여 악에 받쳐 대드는 연량리를 측은한 눈길로 굽어보며 을파소가 탄식해마지 않았다.

《아, 모든 사람들의 됨됨을 속속이 안다고 자처해온 내가 어리석었구나. 저놈이 해묵은 역적인줄도 몰랐으니…》

이어 을파소는 겁에 질린 반란무리를 꾸짖었다.

《너희들은 무엇에 탐이 나서 반역의 길에 나선거냐. 그래 너희들의 좀스러운 힘으로 강대한 나라를 뒤집을상싶으냐?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지는 못할망정 개죽음을 당하지 말고 부모처자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라.》

반란의 무리는 술렁거렸다.

대부분이 발기의 심복졸개들이 끌고 나온 종이며 작인이였다.

궁성으로 쳐들어가 발기를 임금으로 세운 다음 속량은 물론 재물도 듬뿍 안겨주고 벼슬도 주겠다는 회유와 이를 거역하면 죽이겠다는 위협에 못이겨 끌려나온 그들이였다.

그러니 을파소의 꾸중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수 없었다.

을파소는 고우루에게 분부했다.

《이제는 활을 쏘아 저것들을 쫓아버리게.》

고우루가 손을 들어 앞을 가리키자 군사들이 일제히 화살을 날리였다.

우박치듯 쏟아지는 화살에 당황망조한 발기는 퇴군령을 내렸다.

남문에서 멀찍이 물러선 발기가 앞길이 막막하여 하늘을 쳐다보는데 곁에서 연량리가 반색하여 소리쳤다.

《막내전하가… 막내전하가 오고있소이다.》

발기의 얼굴이 삽시에 환해졌다.

곧 백마를 탄 계수가 몇사람을 뒤에 달고 다가왔다.

키꼴에 뼈대도 굵고 사내싸게 잘난 계수였다.

발기는 한손을 내밀어 계수의 손을 부여잡았다.

《그래도 네가 날 알아주는구나. 고맙다.》

발기에게 한손을 맡긴 계수는 눈짓으로 좌우의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입을 열었다.

《난 국상을 당한 이때 형님을 건지자고 왔소이다. 형님, 나도 형님을 제쳐놓고 연우형이 나라를 가진것을 보고 생각이 많소이다.

그러나 형님은 어이하여 돌아가신 임금께서 순서를 뛰여넘어 연우형에게 왕위를 물려주도록 하였는지 그걸 알아야 하오이다.》

자기를 도우러 왔다고 좋아하던 발기가 왈칵 성을 내였다.

《그럼 넌 내가 연우만 못하다는거냐?》

계수의 두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형님도 일찌기 〈착한 마음을 가지면 죽을고비에서 하늘이 도와준다.〉고 하신 부왕마마의 유언을 잊어선 안되오이다. 부왕마마께서 어지셨기에 나쁜 임금이 그렇게 죽이려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숨겨주고 먹여주었소이다. 형님이 진작 부왕마마의 유언을 명심하였더라면 어찌 오늘에 이르렀겠소이까.》

얼굴을 이그러뜨린 발기가 소리를 질렀다.

《듣기 싫다. 너 막내라고 어자어자해주었더니 아래웃턱도 모르는

구나. 그따위 잡소리나 줴치려거든 썩 사라져라.》

계수는 말머리를 돌리는 발기를 막으며 말했다.

《형님, 동기간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으시오이다.》

발기는 와락 팔을 내저었다.

《비켜라, 어서 비키라는데—》

계수로서는 상사말 뛰듯 하는 발기를 진정시킬수 없었다.

계수와 헤여진 발기는 연나부로 물러섰다.

이날 역적들은 궁여지책으로 후한에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밤 고국천왕의 령전에서 쓰러진 안류는 끝내 피여나지 못하고 숨지고말았다.

(5)

고구려에서 고국천왕이 죽고 새 임금이 즉위하였다는 소식은 주변 나라들에 전해졌다.

고구려를 호시탐탐 넘보며 신경을 곤두세우고있던 후한의 조정은 누구보다도 이 소식을 더 빨리 알아내였다.

후한의 간자들이 결코 공밥을 먹지 않고있었던것이다.

동생이 임금이 된것을 형이 시기하는 이 기회에 고구려를 쳐이길수 있겠다고 타산한 후한의 조정에서는 대신들이 모여앉았다.

물론 주역은 조조가 맡아했다.

대신들의 천거로 임금에게 불려온 조조는 타고난 권모술수로써 조정의 권력을 독차지하니 그의 한마디는 곧 법으로 통하는 판이였다.

조조의 손탁에서 꼭두각시로 놀아나고있는 임금이였지만 이 어전회의에서만은 아주 극성이였다.

큼직한 룡상에 제법 위엄을 차리고 앉은 후한임금은 제가 직접 백만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로 쳐들어가는 기분이였다.

그가 어벌이 크게도 고구려를 먹으려 하는것은 천하에 명성을 떨치고싶기때문이였다.

한나라의 력사에 이름난 임금으로는 두사람이였다. 한나라를 세운 류방과 신나라를 세운 왕망이 망한 다음 후한왕조를 복귀한 광무제 류수였다.

후한이 생긴이래 동방의 강대국으로서 어깨를 견주는 고구려를 기어이 어째보려고 끈덕지게 싸움을 해오고있지만 언제 한번 이기지 못하였었다.

이때문에 후한은 천하무적의 강대국으로 될수 없었다.

사춘기에는 헛된 꿈이 많다고 16살의 후한임금은 고구려를 타고앉은 황제가 되여 류방보다도 더 큰 명성을 떨치고싶어했다.

이렇듯 제정신이 아니다보니 앞으로 조조의 아들 조비에 의해 룡상에서 쫓겨나는 후한의 마지막임금으로서의 오명을 남기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는 후한임금은 허세를 부리며 입을 열었다.

《짐은 고구려를 치자고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한 늙은 대신이 한걸음 나섰다.

《물론 고구려를 쳐야 하는것은 마땅한 일이오만 지금은 그들과 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오이다.

지금 당장 고구려와 싸워서는 안되는 세가지 리유가 있소이다. 첫째로는 아직도 도처에서 반란의 무리가 날뛰고있다는 그것이오이다. 동북에서는 원소와 그의 아들 원상이 그리고 장강남쪽에서는 손책, 손권의 형제를 비롯해서 도처에서 황위를 노리는자들이 반기를 들고있는데 이런 때 고구려와 싸운다면 그것들이 더 크게 들고일어날 수 있소이다.

둘째로는 여러해째 지속되는 기근으로 민심이 말이 아니오이다. 반대로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풍작이 들어 료동의 백성들이 살길을 찾아 고구려로 가고있는 형편이오이다.

옛글에 이르기를 내가 약하고 적이 실하면 싸우지 말라 했소이다.

셋째로, 우리 군사는 오랜 내란으로 지쳤소이다.

반대로 고구려군사는 잘 먹고 잘 휴식되여있소이다. 그리고 고구려 사람들은 예로부터 무예를 숭상하여 전장에서도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우는 무서운 족속인지라 성상께서는 부디 이 점을 헤아려주사이다. 황송하오이다.》

백관의 맨 앞자리에 선 조조는 울화가 치밀어오르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도움을 받을가 해서 여러 왕대째 섬겨오는 늙은 대신을 몇사람 남겨놓았더니 이런 때 입방아질로 말썽을 부리는것이였다.

조조가 모든 국사를 마음대로 처리할수 있었지만 굳이 어전회의에서 고구려와의 싸움을 거론시킨것은 타산이 있어서였다.

아무리 권신일지라도 황제는 아닌것만큼 그의 어명을 빌어야 강대한 고구려와의 싸움에 더 많은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시킬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조조가 기어이 고구려를 먹으려 하는것은 그도 황제 못지 않게 과대망상증에 걸려있었기때문이였다.

고구려와 싸워이긴 공으로 민심을 끌어당겨 후한왕조를 제끼고 조씨의 나라를 세우자는것이 그의 꿈이였다.

그런데 그 꿈에 찬물을 끼얹는자가 있으니 조조로서는 임금에게만 어전회의를 맡길수 없게 되였다.

겉과 속이 다른 처신을 능사로 하는 조조인지라 늙은 대신을 한칼에 베여죽이고싶은 속심과는 다르게 부드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 세가지 약점이 있소이다. 허나 세가지 약점이 오히려 고구려를 이길수 있는 우점으로 되고있다는것은 보통사람들로서는 알수가 없소이다.

이제 고구려와 싸운다면 전시인지라 자고로 전시에 반란을 꾀하는 무리는 민심을 잃기마련이고 온 나라가 미워하는 까닭에 감히 그것들이 들고일어나지 못할것이오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근이 들었는데 고구려를 치고 쌀을 가져다 구제하겠다고 하면, 또 고구려의 땅과 사람을 나누어주겠다고 하면 어

찌 힘을 내여 싸우지 않겠소이까?》

후한임금이 무릎을 치며 좋아했다.

《바로 그렇단 말이요. 이번 싸움은 벌써 이긴거나 같소.》

조조는 아직도 자기의 말을 따르려 하지 않는 늙은 대신들을 위압적인 눈길로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 중원사람들에게는 천하의 그 어떤 강적과도 싸워 이길수 있는 으뜸가는 병법이 있소이다. 강태공의 <륙도>는 더 말할것도 없고 손자, 오자병법도 있는데 무엇때문에 고구려라고 해서 두려워하겠소이까. 손자병법에는 비록 작은것일지라도 적의 약점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제때에 써먹음으로써 적을 이겨야 한다는 순수견양의 계책도 있사옵니다.

고구려에서 차례를 뛰여넘어 동생이 임금이 되였는데 이게 어찌 작은 약점이라 하겠소이까. 임금이 된 동생에게 그 형이 반기를 듦으로써 결국 조정이 분렬되였으니 이것이 바로 하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한 천재일우의 기회오이다.

우리가 천륜을 어기고 형이 가져야 할 룡상을 빼앗은 고구려왕을 징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고 크게 소리를 내면 어찌되겠소이까? 우리의 군사도, 우리의 백성도 다 천륜을 지키려 하는 폐하의 뜻을 받들것인즉 그리고 반대로 고구려사람들은 천륜을 어지럽힌 제 임금에게 반기를 들것이오이다. 그러니 어찌 고구려를 이길수 없겠소이까.

뿐더러 우리에게는 또 한가지 고구려를 이길수 있는 보물이 있는데 그 보배가 바로 동생때문에 고구려의 임금으로 되지 못한 발기오이다. 이제 우리가 군사를 일으킨다면 그는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것이오이다.》

조조가 이런 장담을 하는데는 까닭이 있었다.

고구려에서 연우가 임금이 되였다는 간자들의 급보를 받은 조조는 즉시 발기를 끌어당기라는 령을 내렸었다.

지금껏 조조가 싸우는대로 다 이길수 있은것은 남달리 꾀를 잘 쓰기때문인데 그중에서도 리간술은 그의 특기로 되고있었다.

이번에도 그는 어떻게 하나 룡상을 빼앗아내려 하는 발기를 리용하여 더 큰 내란을 일으키고 그를 기화로 손쉽게 싸워이기려 하는것이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조조는 지금 고구려와 싸움을 일으켜 일석이조의 리득을 챙기려고 하는것이였다.

그는 료동에서 감히 임금이 될 꿈을 꾸며 세력을 늘이는 공손도를 쏘는 이발처럼 여기고있었다.

공손도를 그냥 내버려둔다면 원가며 손가네 패당들이 더 기고만장해서 자기와 맞서려 할것이기에 고구려와의 싸움을 일으키고 그를 칼받이로 써먹으려 하는것이였다. 설사 공손도가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패한다고 해도 조조로서는 손해볼것이 없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반기를 들수 있는 공손도가 더는 위험한 적수로 될수 없기때문이다.

이런 본심을 아직은 깊이 묻어두고있는 조조는 저의 임금에게 아뢰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료동태수 공손도에게 10만대군을 모으도록 하였고 유주에도 대군을 주둔시키였소이다. 사실로 말해서 우리에게 공손도의 군사만큼 정예한 군사도 없을것이오이다. 그들은 다 고구려며 선비족과의 싸움을 겪어보았소이다. 그런 군사가 무려 10만이나 되는데 어찌 고구려를 이길수 없겠소이까?》

이렇게 뇌까리는 조조의 기세는 아주 푸르딩딩하였다.

조조가 이처럼 기세등등하는것은 이제는 을파소를 우습게 여기기때문이였다.

그동안 조조는 을파소를 천하의 제일가는 적수로 여기여왔었다.

그러나 이제는 을파소가 더 늙고 몸도 쇠약해져 자주 앓아눕는다고 하니 병든 소같은 늙은이가 더는 상대로 될수 없다고 단정한것이였다.

곁따라 기세등등해진 후한임금이 조조에게 물었다.

《맹덕도 고구려에 가시려오?》

조조는 공손한 투로 대꾸했다.

《폐하, 공손도에게 어지를 내려 고구려를 치도록 하옵소서.》

그 말에 후한임금은 어정쩡해졌다.

조조가 그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가는 공손도에게 그런 중임을 맡기자고 하다니?!…

한편 동탁을 업고 료동태수가 된 후 공손도는 동탁의 세력을 쳐부시고 후한의 조정을 거머쥔 조조를 곱게 볼리 없었다.

그가 얼마나 조조를 미워하였던지 조정에서 후작이라는 작위를 하사했을 때 《내가 왕인데 후작이 다 무엇이냐. 이따위건 조조나 가지라고 하라.》고 하면서 직첩장을 병기고에 처넣도록 하였었다.

이 사실을 안 조조는 그날로 공손도를 살생명부에 써넣었다.

고구려를 먹는 날이자 공손도를 죽이는 날로 될것이였다.

그때까지 공손도를 살려두려 하는것은 그자만큼 고구려를 잘 아는 사람이 없고 그 역시 고구려를 먹으려 하기때문이였다.

미운 놈일지라도 써먹을 가치가 있다면 끝까지 써먹고 없애치우는것이 또한 조조의 기질이라 그래서 고구려를 먹는 날까지 공손도를 살려두자는것이였다.

조조의 이런 속심을 알리 없는 후한임금은 제법 위엄을 돋구어 소리쳤다.

《경들은 듣거라. 공손도에게 고구려를 치라는 어지를 내리노라. 맹덕은 공손도가 속히 고구려를 칠수 있도록 조처할지어다.》

그날 조조는 지체없이 공손도에게 고구려를 치라는 공문서를 보내였다.

이어 고구려를 어떻게 쳐야 이길수 있다는 계책을 적은 죽책을 심복장수에게 주어 급히 양평으로 떠나보내였다.

후한군의 이러한 움직임은 곧 고구려로 전해졌다.

(6)

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일수록 중요관직을 비워두어서는 안되는 법이다.

이를 잘 아는 을파소는 나라의 정사를 도맡아하는 그 바쁜 속에서도 인재등용을 놓치지 않았다. 명림어수를 연나부의 평자로, 그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비워있는 중요관직들에 등용하였다.

그와 동시에 발기에게 무조건항복하라는 방을 내다붙이고 극실기에게 반란자들을 모조리 체포하도록 하였다.

급해맞은 발기는 연량리 등 몇명의 심복들과 도망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체포되여 옥에 갇히웠다.

을파소는 발기가 어데로 도망쳤겠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나라를 저버린 역적들이 갈 곳이란 제 나라를 원쑤로 여기는 적의 소굴로 찾아가는 길뿐이 아닌가.

발기가 그런 대역죄를 저지를수 있음을 내다보았던 을파소는 곧 두번째 조치를 취했다.

외적이 쳐들어오는 경우 어데서 어떻게 전멸시킬것인가 하는 을파소의 구상을 잘 아는 고우루가 국상의 비밀령을 받고 도성을 떠나갔다.

그가 어데로 가서 어떤 일을 맡아하겠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새 임금과 을파소뿐이였다.

을파소는 또한 대실근에게 졸본의 군사를 통솔하여 엄중경계를 펴라는 군령장을 띄웠다.

이미 졸본산성을 고쳐쌓았으니 그곳에 의지하면 수만대군이 진을 칠수 있었다.

물론 을파소는 졸본에 화전군도 급파했다.

이제 그곳에서 아직은 천하가 모르는 고구려의 비밀무기가 첫 위

력을 과시하게 될것이였다.

후한군의 있을수 있는 침입에 대처하여 관가로 침식을 옮긴지도 어느덧 보름이 지났다.

그때 을파소는 자기가 나라방비에 몰두하던 나머지 한가지 실책을 범하고있음을 깨달았다. 안류를 찾아가보지 못한 그것이였다.

며칠전 을파소는 관가에 안치했던 안류의 시신을 그의 집으로 옮기게 하였다.

3년후 선왕의 무덤을 쓴 다음 그 가까이에 안류의 묘를 만들 생각으로 그의 집에다 빈소를 두게 한것이였다.

이제라도 안류의 빈소를 찾아보는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에 을파소는 부하들과 함께 안류의 집을 찾았다.

안류의 빈소를 찾은 을파소는 비통한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국상의 후임으로 정해놓은 사람이 먼저 가다니, 세상을 버리는데서는 나이구별이 없다더니만…

사심없이 나라를 받들던 안류의 시신을 굽어보는 을파소의 눈에서 눈물이 걷잡을수 없이 쏟아졌다.

이윽고 을파소는 안류의 명복을 빌며 제를 드리였다.

제를 마친 을파소는 빈소를 지키는 상제를 한사람, 한사람 눈여겨보았다.

안류에게는 끌끌한 아들이 여럿인데 그 아들들이 다 구려경당을 나오고 경군의 무관으로 있었다.

지금껏 을파소는 안류의 자식들이 무관이라는것만 알고있었지 그들을 관심한바 없었다.

안류가 살아있을 때 그의 자식들을 돌봐주지 못한것이 후회되였다.

이제라도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를 본받도록 하는것이 고인에 대한 의리로 될것이였다.

을파소의 눈길이 안류의 둘째아들에게서 멈춰섰다.

순서로는 맏아들을 먼저 써주어야겠으나 아버지의 빈소를 지켜야

하니 둘째를 먼저 데리고 갈수밖에 없었다.

마침 명림어수가 연나부의 평자로 가고 그 자리가 비여있으니 그를 곁에 두면 될것이였다.

관가로 돌아온 을파소는 안류의 둘째아들을 등용하였다.

며칠후 을파소는 양평의 정우와 바호가 보내온 적정을 받았다.

그에 의하면 고구려에서 도망쳐간 발기가 료동의 후한군에 와있다는것이였다.

놀라운것은 후한의 조정이 발기에게 검은 손길을 뻗치였다는것이였다.

간자들을 시켜 발기가 후한으로 도망쳐올수 있도록 도왔을뿐아니라 고구려를 치려는 후한군의 길잡이로 나서도록 하였다니 개탄할 일이였다.

이것은 을파소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였다.

후한것들이 생각했던것보다 더 음흉한 적수임을 안 을파소는 이제 닥쳐올 전란이 보다 힘겨운 싸움임을 절감하였다.

며칠후에는 후한의 도성에서도 소식이 왔다.

후한에서 료동태수 공손도에게 고구려를 치라는 령을 내렸다는것과 함께 조조가 무슨 계략을 적은 죽책을 공손도에게 보내주었다는 소식이였다.

을파소는 한순간 가슴이 떨리였다.

고구려의 병력이 수십만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동서남북의 수천리 변방에 배치되여있었다.

후한과 대치한 변방과 졸본, 국내성의 군사는 도합 10여만명 되나마나하였다.

그러니 후한군과 병력상차이가 심했다.

적의 진공로를 안다 해도 그곳으로 주력을 다 들이밀수 없었다.

싸움에서는 예측할수 없는 곳에서 불의에 타격을 받아 구멍이 열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구멍으로 속전속결을 노리는 적군이 질풍같이 쳐들어오면 만회할수 없는 후과가 빚어질수 있는것이다.

그때문에 부득이 적지 않은 병력을 여러곳에 나누어두어야 하는것이고 그래서 선제공격을 하는 적이 보다 유리한 형세를 차지하기 마련인것이다.

이제라도 싸움법을 달리해야 하지 않을가.

이제 곧 무서운 전란이 터진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마음이 흔들렸던 을파소는 지금껏 무르익혀온 계책에 따라 병력을 배치해놓은 작전안을 흔들 생각까지 하였다.

그러나 강대국 고구려의 국상이라는 자각지심이 흔들렸던 그의 마음을 다잡아준것이였다.

당초에 을파소는 수만명정도가 아닌 수십만대적을 노리고 작전을 무르익힌것이였다.

강대한 고구려는 수십만, 아니 수백만명의 적군도 얼마든지 상대하여 싸워 이길수 있다.

천하의 그 어떤 대적도 쳐부실수 있는 펄펄 나는 정예군이 수십만명이나 있고 또 일단 령을 내리면 온 나라가 그대로 군사가 되여 싸울 수백만 백성을 가지였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이튿날에는 양평에 둥지를 튼 적의 대군이 움직이려 한다는 급보가 날아들었다.

그날 밤 을파소의 처소에서는 밤이 깊도록 불이 꺼질줄 몰랐다.

문무백관모두가 을파소의 방앞에 모여들어 국상의 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다.

커다란 지도를 펼쳐놓은 방에서 홀로 오락가락하는 을파소는 신심에 넘쳐있었다.

조조가 공손도에게 무슨 계략을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수를 쓰려고 하는것일가.

이미 을파소는 조조가 책략을 꾸민다면 이일대로, 암도진창, 욕금고종, 순수견양의 이 네가지 계책에서 어느 한가지를 쓸거라고 타산했었다.

그중에서도 열에 아홉은 욕금고종을 쓸거라고 보았는데 이번에 조

조는 우리 임금이 왕위에 오르자 이를 천륜을 어긴 불의로 여기고 바로 그 계책을 쓰려 할것이다.

뿐더러 간특한 그자는 료동으로 도망쳐간 발기를 리용하여 순수견양의 계책도 쓰려 할것이다.

하지만 어리석다. 이미 내 너의 간계를 내다보고있으며 네가 중원의 모든 계책을 써먹는다고 해도 난 우리의 계책으로 너희들을 이길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너희들에게 없는 견고한 산성이 무수하다. 일단 외란이 일어나면 우리는 쌀 한알 남기지 않고 견고한 산성에 들어갈것이다.

이런 조상대대로의 지략으로 우리는 너희들의 모든 계책을 짓부셔버릴것이다.

이번에 나는 우리의 강토에 기여드는 너희 무리를 잠시 내버려둘테다. 그 다음 몽둥이로 너희 무리의 꼬리부터 내리치고 이어 선두진을 요정낼것이다.

그러면 조조, 네가 아무리 잔꾀의 능수일지라도 호박쓰고 돼지우리에 기여든 신세를 면치 못할것이다.

《허나…》

하고 입속으로 중얼거린 을파소는 고개를 기웃거렸다.

조조와 공손도가 불과 물의 사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공손도는 조조가 아무리 신통한 계략을 내려보냈다고 해도 그대로 받아물려 하지 않을것이다. 용맹과 의지는 있으나 우직하고 욕심사나운 공손도이고 간특한 조조와 달리 쫓기우는 메돼지처럼 무작정 골받이를 하려 할것이니 오히려 그런 놈과 싸우기는 헐한 법이다. 하여간 조조의 꾀든 공손도의 수든 무서울게 없으니 앞일이 어떻게 되겠는지 너희들 두고보아라…

드디여 날이 밝아왔다.

온밤 적을 무찌를 구상을 무르익힌 을파소는 자신의 계책을 상주문으로 올리였다. 이어 우거, 연인, 례복구에게 적군이 국경을 범하

는 경우 이미 작정한대로만 움직이라는 군령장을 띄웠다. 동시에 졸본태수 대실근에게도 전시로 넘어가라는 군령장을 보냈다.

그리고 조정대신들에게도 일일이 일감을 주고 간단히 아침요기를 하였다.

인차 붉은 준마를 타고 처소를 나서는 을파소를 백여명의 말탄 군사들이 호위하였다.

지금 을파소는 위나암성을 찾아가고있었다. 바로 거기에 새 임금이 있기때문이였다.

선왕의 시신을 위나암성으로 옮겨놓은 새 임금은 상제로서 빈소를 지키고있었다.

을파소를 위나암성의 남문을 지키던 중리도독 락도상이 맞아들이였다.

락도상이 을파소를 이끌어간 곳은 뜻밖에도 련못가였다.

련못가에서 량손에 장검을 든 새 임금 연우가 쌍검무를 추고있었다.

어렸을 때 우거에게서 검술을 배운 연우도 로장군처럼 날마다 쌍검무를 추는 습관을 가지고있었다.

가까이 다가갔건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쌍검무에 빠져있는 임금을 보느라니 을파소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방비에 얼마나 전심했으면 저렇게 검을 쥐였단 말인가.

락도상이 인기척을 내서야 을파소가 와있음을 안 임금이 검을 내려놓았다.

후날 왕호를 산상왕이라 불리운 젊은 임금 연우는 갑옷차림의 을파소를 보고 출전인사를 하러왔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임금은 출전을 결심한 을파소의 격동된 마음을 늦구어줄 생각으로 푸른 물이 늠실거리는 잉어못을 가리켰다.

《옛적에 이 못에서 건져낸 잉어를 적장에게 보낸 을두지도 국상가문의 선조가 아니시오?》

두손을 마주잡은 을파소가 공손하게 여쭈었다.

《을두지어른은 신의 가문과 먼 옛적에 조상을 같이하였을뿐 촌수는 좀 머오이다.》

을파소는 갑자기 을두지를 화제에 올린 임금의 의도가 무엇일가 하고 생각해보았다.

을두지는 고구려 8대임금 대무신왕때의 유명한 재상이였다.

그때 좌보였던 을두지는 위나암성에 기여든 후한의 대군을 통쾌하게 쳐부신 명장이기도 하였다.

을두지는 청야수성전술로 위나암성을 포위한 적군을 극도로 굶주리게 한 다음 여기 잉어못에서 건진 큼직한 잉어를 좋은 술까지 곁들어 적장인 료동태수에게 보내주었었다.

이로써 성안에 물도 쌀도 넉넉하다는것을 안 적장은 제풀에 맥이 빠져 퇴군령을 내리였고 바로 그때를 노린 고구려군은 도망치는 적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었다.

을파소는 곧 임금의 뜻이 무엇인지 알수 있었다.

아무리 수십만대적이 달려들어도 다시는 그것들을 도성에 들여놓지 않으려는것이 임금의 뜻일진대 내 어서 출전하여 그 뜻을 받들리라.

대왕이 되였어도 변함없이 을파소를 스승으로, 아버지처럼 여기는 임금은 공손하게 잉어못에 풀을 던지고있는 궁인을 가리켰다.

《국상은 저 사람이 무슨 풀을 뿌려주고있는지 아시오?》

물고기를 기르는 일에 별로 관심하지 않은 을파소는 어줍게 웃었다.

《신은 그런 일에는 어둡소이다.》

미소를 지은 임금이 궁인이 안고있는 광주리에서 풀잎을 한줌 집어들었다. 담쟁이덩굴의 잎이였다.

《이 담쟁이잎을 가끔 못에 뿌려주면 물고기가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하오.》

을파소의 손을 잡은 임금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였다.

《이건 객담이고… 국상은 중외대부를 너무 오래 비워두고있는것 같소. 중외대부는 국상의 오른팔과도 같은데 그 자리를 비워두고있

으니 고생이 많을수밖에 없소.》

그 말이 옳았다.

안류가 있을 때 날마다 큰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중외대부의 일까지 맡아야 하니 과로가 겹쌓일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안류가 살아있는것 같아 그 자리만은 메꿀 엄두를 내지 못했다.

《대왕마마, 외적이나 쳐몰아내고 우거장군에게 중외대부를 맡겼으면 하오이다. 사실 그전에는 그에게 경군을 맡길 생각이였는데…》

임금은 찬성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였다.

《오래동안 변방에 나가 고생많은 로장군이니 그렇게 하는것이 좋을것이요.》 하더니 임금은 을파소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는 그의 눈길에 절절한 눈빛이 어려있었다.

《국상이 갑옷차림을 한 그 마음을 다 아오. 하지만 출전은 내가 하겠으니 국상은 여기를 지켜주시오.》

을파소는 임금의 령을 따를수 없었다.

《대왕마마께서는 여기를 떠나서는 안되오이다. 바깥일은 념려마시고 부디 룡체를 아껴주소이다.》

임금의 안색이 근엄해졌다.

《국상은 백살이 넘는 몸으로 출전했던 선대국상의 전례를 따르려는것 같은데… 이번엔 그때와 사정이 다르오니 형이 불러들인 재앙거리를 동생이 쳐몰아내지 않는다면 선왕께서 눈을 감지 못하오. 왕가에서 지은 죄는 왕가에서 씻어야 하기에 난 동생과 함께 출전하려 하오. 그러니 군주가 우려할 때 신하는 그 우려를 풀기 위해 힘쓰며 군주가 모욕을 받으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는 옛말을 거들어 짐을 막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오.》

을파소는 할 말이 없었다.

고구려의 젊은 임금이 몸소 출전하여 외적의 대군을 전멸시킨다면 천하에 이보다 더 큰 자랑은 없을것이였다.

(7)

드디여 후한의 대군이 이른새벽 국경을 넘어 고구려의 신성으로 달려들었다.

정황은 을파소가 예견한 그대로였다.

을파소가 례복구를 신성고을 태수로 파견하면서 임지에서 뜯어보라는 공문서를 준바 있었다.

일단 적이 국경을 넘어 달려들면 성문을 열고 나가 맞받아 싸우지는 말고 오로지 굳게 지키되 적군이 퇴각하는 경우 날래게 큰길들에 마름쇠를 깔아놓고 적을 답새기라는 령이 씌여져있었다.

신성을 포위한 적장은 성우에서 쏟아지는 고구려군의 화살에 저희 군사가 무리로 쓰러지자 성을 포기하고 국내성으로 이어진 큰길을 따라 대군을 들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큰길을 타고 쳐들어가는 적들이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그것이였다.

이것도 을파소의 책략에 따른것이였다.

례복구를 통해서 우거, 연인은 을파소가 보낸 공문서를 받았었다.

공문서들에는 적이 달려들면 싸우지 말고 적의 선두진이 큰길을 따라 기여들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되 적어도 수만명의 병력이 기여들었을 때 지체말고 국경을 봉쇄하라는 명령이 들어있었다.

사실 을파소는 공손도의 소굴인 양평을 답새기고싶었다.

양평을 때리는것은 고구려군에 있어서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였다.

잠시 한왕조가 무너지고 신나라가 섰을 때에도 고구려군은 변방을 소란케 구는 외적을 견제하기 위하여 양평을 답새긴바 있었다.

그후 태조대왕때에도 고구려군은 침입한 후한군을 내몰기 위해 주요거점인 양평을 함락시키였었다.

더구나 전술적으로 만리장성을 넘어가 태원까지 원정했던 고구려

군에게 있어서 양평이나 때리는것쯤은 어려운 일도, 힘에 부치는 일도 아니였다.

허나 이 란리의 불씨가 발기의 역모때문인것으로 하여 그 불미스러움을 시급히 털어버리려는 생각이였기에 을파소는 싸움이 보다 크게 번져지는것을 원치 않았다.

앞으로 반드시 조상의 땅을 수복해야 하는것만큼 그때 가서 양평이 아니라 태원원정과 같은 큰 싸움을 벌리면 될것이다.

국경을 봉쇄하라는 을파소의 령에 따라 우거와 연인은 재빨리 대군을 풀어 신성의 남쪽에 진을 쳤다.

국경을 봉쇄한 고구려의 철기군이 쳐들어올것 같다는 급보에 공손도는 기절초풍하였다.

고구려군에서도 제일로 정예한 철기군이 친 진은 철통과도 같아서 그 진을 허문다는것은 맨발로 바위차기인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이미 고구려땅으로 깊숙이 기여들어간 수만대군은 자루속에 든 쥐신세였으니 그들이 살아돌아올 가망은 없는것이였다.

그제서야 비로소 공손도는 을파소가 이미 싸움준비를 면밀히 갖추고있었을뿐아니라 오히려 제놈의 목을 조여죽이는 수를 꾸미였음을 알아차렸다.

만일 고구려의 철기군이 그대로 쳐들어온다면 양평은 홍수앞의 흙담마냥 무너지고말것이였다.

어찌나도 급해맞았던지 고구려의 국경을 넘어간 저희 군사를 죽은 송장으로 치부해버린 공손도는 그 다음번 공격령을 기다리는 2진, 3진의 군장들에게 양평을 지켜낼수 있는 방어진을 펴라는 불호령을 내렸다.

을파소의 계략에 말려든 공손도가 방어에 급급하고있을 때 례복구가 거느린 군사들은 고구려에 기여든 적의 선두진이 도망칠수 없도록 퇴로를 끊고 매복진을 쳤다.

한편 고구려에 깊숙이 기여든 적의 선두진은 고구려임금을 사로잡아 항복을 받아내겠노라 허세를 부리며 큰길을 따라 내달렸다.

수만명이나 되는 큰 무리이니 기세가 자못 험악하였다.

살아돌아갈수 없는 무서운 함정이 기다리고있는줄 알리 없는 적군은 국경을 넘은지 며칠만에는 졸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까지 이르렀다.

그동안 적군은 고구려군에게서 아무런 저항도 받지 못하였다.

그들의 전진속도를 최대로 높여주어 보다 깊숙한 곳으로 끌어들여 단매에 전멸시키자는것이 을파소의 구상이였다.

임금을 대신하여 선왕의 빈소를 지키는 을파소는 전장의 형편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있었다.

적의 선두진을 뜻대로 끌어들였다는 소식에 접한 그는 가슴이 울렁거렸다. 이제는 그것들을 함정에 몰아넣어야 했다.

아마도 지금쯤 거꾸로 뒤집힌 전장의 형편에 대한 소식이 공손도와 조조에게 가닿았을것이다.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나올것인가?…

그것들은 도리여 우리가 들이칠가봐 총력을 기울여 방어진을 칠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놓고 쳐놓은 그물을 들어올려도 될것이다.

졸본성에 나와있는 임금도 을파소의 의도를 잘 알고있었다.

졸본을 뒤에 지고 진을 친 졸본태수 대실근이 거느린 군사들속에는 화전군도 있었다. 이제 적군을 함정으로 몰아가라는 임금의 령이 내려지면 모든 군사들이 산사태처럼 적에게 달려들것이였다.

저희들이 들이닥칠 때마다 《황급히 퇴각》하는 고구려군만을 보아온 적장은 유인전술에 빠진줄은 알지도 못하고 하루밤 푹 자고 래일은 졸본을 타고앉자고 희떱게 고아댔다.

이에 따라 적군은 군막을 친다, 저녁끼식을 지어먹는다 하며 떠들어댔다.

마침내 임금은 화전군의 군장을 불러 적장의 본진을 기습하라는 어명을 내리였다.

그날 밤 뉴기가 거느린 화전군은 은밀히 적장의 군영과 천보쯤 되는 거리에까지 다가갔다.

적장의 본진은 경계가 삼엄하였다.

군막들에 파수도 세워놓았고 그사이로 순찰군이 오고가고 그것도 안심치 않아 본진앞에서 창을 꼬나든 수많은 적들이 눈을 밝히고있었다.

반달이 구름속으로 사라진 그때 캄캄한 밤하늘로 시뻘건 불줄기들이 꼬리를 물고 날아들었다.

화전군이 쏘는 불화살이였다.

적들도 그것을 보았으나 그게 무엇인지 알수 없으니 멍청히 지켜볼뿐이였다.

꼬리를 문 불화살들이 멋진 포물선을 그으며 적들의 군영에로 내리꽂히였다.

시뻘건 불줄기를 그으며 연방 날아드는 불소나기에 적진은 삽시에 불길에 휩싸이고 사납게 번져지는 무서운 불길에 말려든 적들은 아우성을 질렀다.

그야말로 불가에서 이르는 뜨거운 열로 가장 무서운 고통을 준다는 그 여덟개의 지옥을 펼쳐놓은듯싶었다.

그것을 신호로 산마다에서 고구려군사들이 산사태처럼 밀려내려왔다.

와ㅡ

천지가 요동쳤다.

땅이 주저앉고 하늘이 무너져내린듯싶은 고구려군의 공격에 적들은 기절초풍하였다.

고구려군의 공격에 적들은 정신없이 줄행랑을 놓았다.

오로지 료동을 바라고 도망치던 적들은 하루만에 졸본에서 이백리가량 되는 좌원땅에 들어섰다.

좌원땅이 을파소가 파놓은 함정인줄 꿈에도 알리 없는 적들이 이젠 살았다고 한숨을 돌릴 때 돌연 북소리들이 울리고 사방에서 고구려군이 달려들었다.

운신조차 할수없이 지칠대로 지친 적들은 무리로 쓰러졌다.

간신히 살아남은 수천명의 적군이 황급히 말을 내달려 어느 한

골짜기에 다달았는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땅이 그대로 바다속으로 말려들었는지 아니면 바다가 떠옮겨왔는지 갑자기 온 골안을 메우며 큰물사태가 달려들지 않는가.

폭풍으로 광란하는 바다인양 무섭게 사품치는 큰물은 그야말로 악몽이였다.

비밀리에 좌원에 내려와있던 고우루가 이 골짜기에서 수공전을 개시한것이였다.

이미 을파소는 이 땅에 기여든 외적을 수장시킬 결심으로 이태전 여기 골짜기에 사람들을 동원하여 거대한 물동을 막아놓았었다.

그리고 수공전의 지휘를 고우루에게 위임한것이였다.

이리하여 고우루는 적의 선두진이 국경을 넘어서자 비밀리에 이곳에 내려와 적군이 함정에 기여들기를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고우루의 령에 따라 커다란 물동의 수문들을 일제히 열어놓았으니 거대한 홍수가 골안을 삼키며 노호하는것이였다.

사정없이 덮쳐드는 큰물에 수장된 적군의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

큰물이 지나간 뒤 전멸된 적군의 주검이 산을 이루었다.

(8)

한편 후한의 국경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잡은 배천이라는 개울을 등에 지고 수백명의 군사들이 동쪽을 향해 진을 치고있었다.

며칠전 계수는 임금으로부터 쫓겨가는 역적들을 추격하는 동시에 미리 적군 모르게 우회하여 그의 배후인 배천가에 진을 치고있다가 후한으로 도망쳐가는 발기를 반드시 놓치지 말라는 령을 받았다.

적군과 달리 고구려의 지리에 밝은 발기인것으로 하여 감쪽같이 들이댈 좌원공격전투와 산골짜기에서의 수공전에서도 빠져나갈수 있다고 타산한 임금이였다.

임금의 예견은 빗나가지 않았다.

적의 선두진과 함께 고국에 기여든 발기는 비록 룡상에 환장이 되여있고 또한 을파소를 기어이 잡아죽이고싶었어도 두려움으로 하여 기를 펴지 못하였다.

태를 묻은 조상의 땅에 기여든 외적의 길잡이를 하고있는 제놈이 눈에 뜨이기만 하면 고구려사람들이 가만있지 않을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였기때문이였다.

언제 어디서 비수나 화살이 날아들지 모르니 갑옷과 투구로 몸을 잔뜩 가리운 발기는 해만 지면 적진의 맨뒤에 숨어있군 하였다.

그것이 고구려군의 반격전에서 발기를 살려주었다.

날래게 말까지 타고 꽁무니를 사린 발기는 조심한 덕에 좌원땅에서도 무사할수 있었고 추격하는 계수를 뒤에 달고 고구려군사들이 진을 펴고있는 이곳까지 도망쳐올수 있었다.

동산마루로 둥근해가 솟구쳐오를 때 말을 탄 패잔의 무리가 배천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오고있었다.

얼마 되지 않는 발기와 그의 심복들이였다.

다급히 말을 때려몰던 발기는 문득 앞을 가로막고있는 고구려군을 보고 놀란 나머지 비명을 질렀다.

《아이쿠ㅡ》

보고 또 보아도 틀림없는 고구려군이였다.

바람에 나붓기는 기치만 보아도 그것은 적군의것과 다른 백호기가 뚜렷이 보이였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내가 이 길로 가리라는것을 어떻게 알고?!… 가만, 이게 꿈은 아닐가?!…

말을 멈춰세운 발기는 다시한번 앞을 둘러보았다.

《아이쿠, 정말이로구나.》

발기는 몸서리를 치며 입을 딱 벌리였다.

보다 놀라운것은 《계수》라는 글발이 두드러지게 씌여진 군장기였다.

《그럼 계수가 앞에서도?!…》

계수가 둔갑술까지 쓰는게 아니야. 분명 내뒤로 쫓던게 계수인데 그사이 앞을 가로막다니. 하늘로 날아왔나, 땅속으로 기여왔나…

앞뒤로 길이 끊겨버렸으니 그럼 이젠 끝장이란 말인가.

절망감에 사로잡힌 발기가 가슴을 쥐여뜯을 때 그를 거의 따라잡은 계수도 말을 멈춰세웠다.

너무도 놀란 나머지 발기는 말우에서 떨어질번 하였다.

계수도 첫눈에 발기를 알아보았다.

초췌해진 발기를 보느라니 끓어오르는 격분이 사라지고 동정심이 가득차올랐다.

그만큼 말렸건만 제 죽을줄 모르는 반역을 하다못해 외적의 품에 기여들었단 말인가. 가련하고 어리석구나. …

부하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는 령을 내린 계수는 날래게 말을 몰아 자기 군장기를 들고있는 군사들에게 달려갔다.

이윽고 발기와 수십보사이를 두고 마주선 계수가 그를 꾸짖었다.

《둘째형님, 이게 무슨 꼴이요? 어쩌면 형님은 우리 고구려를 그렇게도 모르오, 강대한 제 나라를 말이요? 우리 땅에 기여들었던 적들은 한놈도 살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소.》

그제서야 신성을 지나쳐올 때 인차 뒤따라오게 된 후한군의 2진, 3진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던 까닭을 안 발기는 머리를 싸쥐였다.

그럼 이게 다 을파소의 계략이였단 말인가?!

그래도 고국땅에 발을 들여놓을 때에는 후한군의 뒤받침속에 임금의 자리를 빼앗아가질수 있을거라고 확신했었다.

사실 반란에서 패한 발기는 후한에 도움을 청할 때 자존심이 허락치 않았었다.

조상대대로 이 땅을 삼키려 끝없는 전란을 일으킨 적국, 그때마다 우리에게 참패만을 당한 적국에게 허리를 굽히고 도움을 청한다는것은 아무리 권세욕에 환장된 발기라도 고구려의 남아로서 수치가 아닐수 없었던것이다.

허나 룡상에 대한 탐욕때문에 수치와 굴욕을 목구멍으로 삼키며 적국에 손을 내민것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손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그 많던 대군이 쫄딱 녹아났으니 룡상은 고사하고 한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렵게 되였다.

이제는 오로지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욕망만이 배속에서 꿈틀거렸다.

싸움에서도 패하고 룡상도 잃었지만 보물이 있는데야 어데 가선들 잘살수 없겠는가.

며칠전 발기는 집에 감추어둔 보물때문에 남몰래 희동이를 국내성으로 들여보냈다. 집뜨락에 묻어둔 막대한 보물이 마음에 놓이지 않기때문이였다.

아무리 후한군이 은인일지라도 보물의 행처가 드러난다면 그것을 내주지 않고 견디여내지 못할것이였다.

그래서 희동이를 보물의 행처를 알고있는 시녀들을 없애치우려 보낸것이였다.

목숨만 건져내면 보물을 빼내오는것쯤은 식은 죽 먹기였다.

보물로 하여 생에 대한 애착이 보다 강렬해진 발기는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막내야, 너와 단 둘이서 할 말이 있다.》

발기가 먼저 말에서 내려섰다.

두사람은 곧 몇보를 사이에 두고 마주섰다.

발기가 먼저 입을 뗐다.

《막내야, 내가 누구보다도 널 끔찍이 위해준게 생각나느냐? 업어도 주고 팽이도 연도 만들어주고 또 씨름도 주먹쓰기도 활쏘기도 배워주었지.》

머리를 끄덕이는 계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였다.

그걸 어찌 잊을수 있단 말인가.

계수는 여러 형들중에서 발기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왔다. 맏형

은 태자로서 부왕과 늘 동행하다보니 발기가 자연 맏형구실을 한것이였다.

《막내야, 보다싶이 난 모든걸 잃었다. 남은것이란 목숨뿐이로구나.》

계수의 얼굴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형은 나라도 부모도 형제도 집도 다 잃었어. 그게 뉘탓이요?)

《막내야, 날 조용히 놓아다우. 내가 이제 바라는것이 있다면 단하나 나를 따른 저 사람들과 함께 먼곳에 가서 조용히 살자는게다. 다시야 고국에 죄되는짓을 하겠느냐?》

계수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한숨을 내뿜었다.

어쩌면 형에게서 고구려사람의 기질, 고구려사람의 성격을 조금도 엿볼수 없을가?

언제인가 국상도 이렇게 말했지, 천하의 그 누구에게도 허리를 굽히지 않는것이 고구려사람의 성격이라고…

꺾이면 꺾일지언정 적앞에 허리를 굽히고 굽신댈줄 모르는 더없이 강의한 사람이 고구려사람일진대 어쩌면 형이 구차한 목숨이나 부지해보려고 비굴하게도 적국을 찾아가 살 곳을 구걸하려 한단 말인가?…

계수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다.

《형님은 두번다시 치욕을 당하지 말아야 하며 죄도 덧쌓지 말아야 하오이다. 형님도 우리의 법을 모르지 않을것이오이다.》

그 말에 놀란 발기가 한걸음 물러섰다.

발기도 나라의 법을 알고있었다.

고구려에서는 임금을 배반한자를 큰 거리에 내다놓고 홰불로 몸뚱이를 지지고 태운 후 머리를 베며 가산을 몰수하고 그자의 식솔을 종으로 만들며 성을 지키다가 적에게 항복한자, 전장에서 도망쳐온 자는 참형에 처하게 되여있었다.

그 법에 비추어보면 발기는 목칼을 쓰고 발목에 쇠고랑을 차는

항쇄족쇄를 당하고 도성의 한복판에 끌려가 불로 살을 지지여 살이 익어 터진 다음 머리를 베는 극형을 당해야 하는것이였다.

절망에 사로잡힌 발기는 비명을 질렀다.

《그럼 나… 나를 죽이겠다는거냐?》

계수는 무겁게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렇다, 열두번 죽음을 당할 죄를 저질렀건만 형은 변함없는 나의 형이다. 그 형의 시신을 제땅에 묻히도록 하는것이 진정 동생으로서 도리가 아니겠는가. 부모님들도 그걸 원할것이다.

계수의 완강한 태도에 풀이 죽은 발기는 앞을 막고있는 관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도 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완강한 의지가 어려있었다.

그러니 정녕 끝장이란 말인가.

절망에 사로잡힌 발기는 몸을 떨며 부하들쪽으로 돌아섰다.

여러해동안 자기를 따라다닌 부하들이 지금은 몇명뿐인가.

국상을 꿈꾸었던 연량리, 중외대부를 바랐던 고치선, 조정대신이 되고싶어했던 어친가를 바라보던 발기는 제 설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정말 죽어야 한단 말인가. …

죽음이라는 공포에 못이겨 몸부림을 치는 발기앞에 역적들의 상판이 새까맣게 질리였다.

굵은 눈물을 뚝뚝 떨구는 발기에게 비수를 던져준 계수는 군사들에게 돌아와 말에 올라앉았다.

그와 동시에 군사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들었다.

이윽고 비수를 집어든 발기는 한동안 비수를 들여다보다가 악ㅡ 소리를 질렀다.

그의 손에 든 비수가 제 목을 찌른것이였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군사들이 말을 짓쳐나가며 칼을 휘둘렀다.

역적들의 모가지가 땅바닥에 나딩굴었다.

임금의 자리를 넘보며 그 광기에 분별을 잃고 나라를 저버린 발기는 이렇게 응당한 죽음을 당하고말았다. …

좌원에서 후한군을 친 고구려군의 주력이 승전고속에 신성고을앞의 국경에 진을 친 우거와 연우의 군사들과 합세하였다.

뒤늦게야 뒤집힌 사태를 안 조조는 성이 머리꼭대기까지 올라 공손도를 칼탕을 쳐 죽일놈이라고 고아댔다. 그만큼 자기의 계략대로만 하면 이길수 있다고 부하까지 내려보내 설복했는데…

조조는 을파소가 쓸수 있는 여러 수를 타산하여 발기를 길잡이로 하는 선두진과 간격을 두지 말고 련이어 2진, 3진을 투입하는 계책을 꾸미였다.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분산시키면 그 힘이 약해지고 병력이 작아도 한데 모았으면 적에게 드센 타격을 들이댈수 있기에 고구려의 주력인 철기군을 싸워 이기자면 반드시 그런 수를 써야만 하였다.

10만대군이 주변의 성곽들에 발목을 묶이우지 말고 큰길을 따라 밀집대형을 이루면서 곧추 쳐들어가면 얼마든지 국내성을 무너뜨릴수 있는것이고 고구려임금까지 사로잡아 무릎을 꿇게 할수 있을것이였다.

그러나 미련한 공손도가 을파소의 수에 말려들어 선두진을 함정속에 처넣고 2진, 3진의 방대한 병력을 양평에 붙잡아두었으니 참패를 면할수 없는것이다.

허나 공손도를 제쳐놓고 자기가 직접 양평에 나가 싸움을 벌렸어도 을파소를 꼭 이길수는 없었을것이라는 생각에 이른 조조는 지금은 고구려와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는것이 깨달아졌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후과는 만회할수 없었다.

이것도 을파소가 타산했던바였다.

후한군은 철벽과도 같은 고구려군에 부딪쳐 막대한 손실을 내였을뿐 한치의 땅도 빼앗지 못하였다.

생각밖에도 엄청나게 심대한 타격을 받은 후한의 조정은 손을 들고말았다.

결과 공손도의 세력이 약화되는 동시에 조조의 무능이 드러나게 되고 도처의 할거세력이 더욱 활개를 칠수 있게 함으로써 국운이 기울어진 후한은 그후 세개의 나라로 분렬되고말았다.

(9)

승전에는 가슴아픈 희생도 있기마련이였다.

천하무적이라 뽐내던 적의 선두진을 도성은커녕 졸본에도 들여놓지 않고 전멸시켰을뿐아니라 적군의 소굴을 일대 공포로 벌벌 떨게 한 승전은 고구려사람들에게 기쁨과 존엄을 백배해주었다.

하지만 이 싸움을 처음부터 주도해온 을파소에게 가슴을 허비는 큰 손실이 있었으니 그것은 우거의 희생이였다.

적군을 자루속에 몰아넣는 싸움을 선두에서 이끌던 백전로장이 그만 적의 화살에 맞아 쓰러진것이였다.

눈을 감기에 앞서 우거장군은 싸움이 벌어졌던 전장이 보이는 높은 산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였다.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고 선조의 땅을 되찾는 보루로 남아있겠다는 백전로장의 유언을 전해받았을 때 을파소는 너무도 가슴이 아파 정신을 잃기까지 하였다.

어이하여 로장군의 신변을 지켜주지 못했던가. 미리 로장군의 신변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도록 그의 부하들에게 당부를 하였더라면 이런 큰 손실은 없었을것이였다.

을파소는 우거장군의 유언대로 무덤을 그가 있던 군영의 뒤산에 크게 써주도록 하였다.

승전과 더불어 나라에서는 비여있던 관직들에 관리를 임명하였다.

중외대부로는 고우루가, 그가 맡았던 관직에 연인장군이 임명되였다.

우거장군이 섰던 자리에는 아들 우릉걸이, 연인장군의 자리에는 례복구가, 변방철기군의 군장으로는 마영, 신성고을 태수로는 서압록고

을의 처려근지였던 덕문이 등용되였다.

그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동되였다.

이제는 을파소에게 파악한 사람이 많아 인재선발에 지장이 없었다.

이어 승전에 기여한 관리들에게는 벼슬을 높여주고 군사들과 백성들에게는 상을 내리였다.

특별히 사인들인 극실기와 왕지길 그리고 졸본태수 대실근에게는 두 품계를 뛰여넘는 높은 벼슬이 하사되였다.

모두가 전승의 기쁨으로 즐길 때 을파소는 여전히 국사로 바삐 돌아갔다.

나라방비, 진대법 등 수많은 국사를 변함없이 밀고나가는 속에서 졸본과 평양을 천자국의 큰 도회로 일신시키는 일을 어느 한시도 잊지 않고있었다.

을파소는 졸본산성에 행궁을 짓는 공사를 자신이 직접 내려가 맡아하기로 마음먹었다.

후한의 조정을 꾹 눌러놓았으니 마음놓고 아래에 내려가있어도 될것이였다.

가벼운 마음으로 졸본성에 내려온 을파소는 대궐의 설계를 직접 검토하고 부역을 크게 일으켰다.

각지에서 재주가 뛰여난 목공들과 석공들을 불러오고 부역군들로는 졸본과 국내성의 백성들을 동원시키였다.

부역군들을 독려하여 행궁공사를 추진하는 속에 한해도 저물고 새해 무인년(198년)이 왔다.

새해에도 을파소는 여전히 바빴다.

비록 졸본산성에 내려와있어도 국상으로서 모든 국사를 주관해야 하니 편안한 날이 없었다.

오늘도 을파소는 안류의 둘째아들과 함께 공사장을 돌아보았다.

벌써 거대한 웅자를 드러낸 아스라하게 높고 산처럼 큰 행궁공사는 마감에 이르고있었다.

서까래를 걸고 기와를 얹으면 외부공사는 끝나게 될것이였다.

동시에 내부공사를 다그치면 춘삼월에는 임금을 모실수 있었다.

공사장을 돌아보는 을파소의 머리속에는 해야 할 일들이 그물마냥 가로세로 끝없이 엮어져있었다.

3월에는 또 무술인재를 고르는 사냥경기를 해야 하고 4월에는 평양에 가서 행궁을 지을 성자리를 잡고 성쌓기공사를 벌려야 했다.

이런 생각에 묻혀 장대에 오른 을파소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산성의 안팎을 둘러보았다.

뭐니뭐니해도 산성에서 이 장대가 마음에 드는것은 이 자리에서 졸본성의 모양새를 한눈에 볼수 있기때문이였다.

비류수의 맑은 물을 굽어보는 웅장한 산에 쌓은 산성은 천험의 요새였다.

바로 이런 묘한 곳에다 오로지 고구려에서만 보는 특이한 산성을 쌓은 선조들의 안목에 을파소는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어쩌면 선조들은 이처럼 기묘하게 성을 쌓았는지…

을파소가 감탄해마지 않는 이 졸본산성은 네 면이 높고 가운데가 낮은 지형 즉 이 부근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를 중심으로 여러개의 낮은 봉우리를 얼싸안고 성을 쌓음으로써 성안에는 반드시 골짜기가 있었다.

골짜기가 있으면 물이 흐르는 개울이 있기마련이다.

고구려에서는 그전부터 이런 모양의 산성을 쌓고있었다.

이런 산성은 규모가 비교적 크고 특히는 먹는물원천이 풍부한것으로 하여 고구려의 우월한 청야수성전으로 성을 지켜싸우는데 가장 부합되는것이였다.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이런 산성은 세상에서 유일한 고구려의것으로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볼수가 없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이런 산성이 주류를 이루는것이였다.

을파소의 눈길은 성벽을 더듬고있었다.

성의 서쪽과 북쪽은 깎아지른 절벽이고 군데군데 절벽사이의 밋밋한 경사지에 커다란 바위돌을 끌어올려 성벽을 쌓았다.

산경사가 완만한 동쪽에는 산허리를 따라가며 바위돌로 계단모양의 굽도리를 만들고 그우에 몇길 높은 성벽을 쌓았다.

그리고 남쪽에는 칼벼랑우에까지 성벽을 쌓았으니 날개가 없이는 성을 넘어들어올수 없었다.

성문은 지세와 어울리도록 동쪽과 서쪽, 남쪽에만 내였다.

산발을 둘러보는 을파소는 흡족하여 환한 웃음을 지었다.

혼자서도 적을 열놈, 백놈도 물리칠수 있는 이런 곳에 행궁을 일떠세우니 얼마나 잘한 일인가.

을파소는 만족한 눈길로 못의 한가운데 두둥실 떠있는 정자를 바라보았다.

꽃배모양으로 만든 정자는 웅장한 행궁에 잘 어울리였다.

이윽고 을파소는 뒤에 선 안류의 아들에게로 눈길을 옮겼다.

갸름하고 흰 얼굴에 쌍까풀진 반달눈, 오똑한 코, 얇은 입술로 하여 담대한 사나이가 아니라 아녀자처럼 보이기만 하는 그였다.

그것은 아마도 제 어머니를 닮았기때문일것이였다.

그와 함께 지내보니 무엇이든 묻기 좋아하는 명림어수와 딴판이였다.

먼저 말을 건네지 않으면 하루종일이라도 입을 다물고있으니 과묵하기란 이루 말할수 없었다.

《자네 지금 무엇을 생각하나?》

이번에도 을파소가 먼저 말을 건네서야 그가 꾹 다물고있던 입을 뗐다.

《저… 옛적에 국내성으로 천도한것이 하늘제사에 쓸 돼지때문이였다는게 사실이오이까?》

을파소는 빙그레 웃었다.

그에 대한 해명은 자못 흥미있는 일이라고 할수 있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류리명왕때 도성이던 졸본에서 하늘제사에 쓰려 했던 돼지가 우리에서 도망쳤다고 한다.

나라의 제사에 쓸 짐승을 기르는 일을 맡고있던 설지라는 관리는

다급히 부하들을 데리고 돼지를 찾아나섰다.

돼지의 자취를 따라가보니 국내의 위나암에서 그 고장 사람들이 돼지를 붙잡아 우리속에 가두어넣고있었다.

돼지를 찾은 설지는 국내의 지세가 졸본보다 좋은것이 마음에 들었다.

졸본으로 돌아온 설지는 류리명왕에게 국내는 산도 크고 험하며 들도 넓고 비옥해서 곡식이 잘되고 산짐승과 물고기가 흔한 고장으로서 임금이 웅거할만 한 명당자리같다고 아뢰였다.

그 말을 들은 류리명왕이 직접 국내를 돌아보고 마음에 들어 천도를 했다는것이다.

을파소는 수염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 국내성은 압록강을 가까이에 끼고있기에 도처의 물산을 실어들이기에 유리하고 변방에서도 좀더 멀리에 떨어져있으니 방위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국내성은 시조임금님이 부여를 떠나 구려국으로 왔을 때 처음으로 터를 잡았던 고장이다.

그래서 천도를 했다고 보아야 더 옳을것이다.

그때 벌써 류리명왕께서는 천자국으로서 행궁을 가진 여러개의 큰 고을을 두려 한것 같다.

우리 나라는 천자국으로서 여러개의 큰 도회를 가져야 한다. 졸본에도 평양에도…》

이 말은 을파소자신에게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그만큼 을파소는 그 일에 온 정신이 쏠려있었다.

을파소는 정찬 눈길로 안류의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벼슬길에서 시종 놓치지 않은것은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것이다. 국상에게는 만인을 용의주도하게 다스리는 드센 손탁과 함께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줄도 아는 기질이 있어야 한다.

《그건 그렇고… 네 보건대 이 성에 무엇이 부족한것 같으냐?》

그는 별로 생각을 더듬지 않고 대꾸했다.

《제 보기에는 옹청구뎅이가 좀 적은것 같소이다.》

《옹청이라…》

옹청구뎅이란 땅에 세길정도 깊이의 구뎅이를 파고 그안에 독을 들여놓은것을 말한다.

적정을 눈으로 볼수 없는 밤이나 흐린 날에 옹청구뎅이속의 독에다 귀를 대여보면 말발굽소리는 말할것도 없고 사람의 발걸음소리까지 가려들을수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옹청이라고 한다.

《음… 하긴 그래, 몇개쯤 더 파면 좋을게다. 또 뭐가 미흡하냐?》

그는 어줍게 웃었다.

《국상어른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련하겠소이까. 이제 임금님께서 이곳으로 오시여 정사를 보시면 졸본은 흥하는 도회로 될것이오이다.》

《흥하는 도회라…》 하고 뇌이며 졸본의 거리를 내다보는 을파소에게 한가지 생각이 이어졌다.

이 거대한 도회를 에워싼 산봉우리들을 빙 돌아가면서 하나로 이어지도록 성을 쌓고 사면팔방으로 성문을 내면 천하에 으뜸가는 성으로 될것이였다.

을파소는 몇해전부터 이 생각을 해오고있었다.

그는 다시한번 이 생각을 굳히고싶어 산봉우리들을 가리켰다.

《내 생각에는 말이다, 앞으로 너희들의 대에 가서 저 산들마다 봉우리를 잇는 성을 쌓았으면 한다.》

을파소의 이 구상은 후날 거대한 평양성을 일떠세우는데로 이어졌으니 이처럼 자나깨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사람은 겨레앞에 반드시 훌륭한 자욱을 남기는 법이다.

주전자를 든 시중군이 조심히 다가와 을파소에게 아뢰였다.

《국상어른, 물을 가져왔소이다.》

그러지 않아도 목이 말라하던 참이라 을파소는 벌씬 웃었다.

《물론 쇠뜨기달인 물이겠다?》

《그렇소이다.》

시중군이 부어주는 쇠뜨기달인 물을 한보시기 마신 을파소는 능청스러운 눈길로 안류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자넨 길가에 흔한 쇠뜨기를 뜯어 달인걸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지?》

그가 《저의 부친께서도 쇠뜨기달인 물이 좋다 하였는데 왜 마다하겠소이까?》 하더니 거퍼 두보시기나 마시는것이였다.

을파소는 껄껄 웃으며 그의 등을 두드렸다.

《괜찮아. 자, 또 돌아봅세.》

을파소가 장대를 내려서는데 사인 왕지길이 컴컴한 얼굴로 나타났다.

여느때와 달리 그가 직접 나타났고 또 초상을 당한 기색이니 을파소는 가슴이 활랑거렸다.

무슨 일이 생겼는가?!…

《국상어른…》

왕지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을파소는 정녕 아주 불길한 일이 생겼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적국에 나가있는 우리 사람들이?!…

아니나다를가 왕지길의 입에서 제일 바라지 않는 말이 흘러나왔다.

《후한의 도성에서… 다 잡혀죽고 한사람만이 빠져나왔소이다.》

너무도 가슴아픈 소식에 을파소는 손을 내저었다.

들어보나마나 조조의 작간일것이였다. 병법에 밝노라 으시대던 그자가 패전후 저희 소굴에 우리의 간자들이 박혀있다는것을 알아차렸을것이였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들을 살려낼수 있다면 만금인들 마다하겠는가.

을파소는 왕지길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나라를 지킬수 없어. 돈은 얼마든지 대주겠으니 다시 시작해보게.》

마침 발기의 집뜨락에서 파낸 막대한 보물이 있었다.

극실기가 발기의 시녀한테서 보물의 행처를 알아낸것이였다.

《이 사람, 자네들이 하는 일은 목숨을 아끼면 못하는 일일세. 열번 죽어도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닌가. 새 사람들을 들여보내게.》

《알겠소이다.》

을파소가 눈굽을 닦으며 떠나가는 왕지길을 바래우는데 안류의 아들이 아뢰이는것이였다.

《국상어른, 소인에게 그 일을 맡겨줄수 없소이까?》

《?!…》

묻는 질문에나 대답하던 안류의 아들에게서 절절한 말이 거침없이 흘러나왔다.

《한순간에 큰 리치를 깨달을수 있다는 말이 있소이다. 소인은 국상어른의 말씀을 들으며 적국의 실정을 알아내는것이 누구든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고 또 그 일은 사내대장부들이 해야 하는 해볼만 한 일임을 알았소이다.

소인은 한어도 알고 후한사람들의 풍습도 알고있으니 적임자라고 할수 있소이다.》

총명하기로 소문난 그는 구려경당에서 한어를 배운것이였다.

그가 남달리 한어를 열심히 배운것은 앞으로 장수가 되여 공을 세우자고 하여도 이웃나라들의 말을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때문이였다.

(이애를 곁에 두고 키워서 제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하자고 했는데…)

(10)

졸본산성의 행궁공사는 2월에 완공되고 이곳으로 임금이 행차하여 성대한 락성식을 하였다.

3월 졸본에서 사냥경기가 진행되였다. 전국각지에서 모여온 수많은 젊은이들이 들짐승잡이로 승벽을 벌렸다.

이번 사냥경기에서는 범과 곰을 잡은 사람까지 있었다.

을파소를 놀래운것은 범을 잡은 젊은이가 개국공신 부분노장군의 후손이라는 그것이였다. 그의 이름은 비흘이였다.

을파소의 기쁨은 이만저만 아니였다.

부분노장군이 어떤 사람인가.

남달리 무술에도 뛰여나고 병법에도 밝을뿐아니라 용병술에도 능하여 싸우면 싸우는대로 다 이긴 명장이다.

그런 명장이 있어 고구려는 건국의 그때 벌써 강토를 넓히였고 흉노나 선비족 같은 만만치 않은 종족들을 휘여잡아 강대국으로서의 위엄을 떨친것이다.

그런 장군의 후손이 불쑥 나타나 범까지 잡아가지고 왔으니 이보다 기이한 일이 어데 있겠는가.

명장의 집안에서 장수가 나온다더니…

곰을 잡아온 젊은이는 달문이라는 농사군이였다.

범을 잡은 비흘이도, 곰을 잡은 달문이도 장원으로 선포되였다.

이날 을파소는 키가 크고 잘 생긴 비흘을 만나 집안형편을 알아보았다.

비흘의 말에 의하면 변방장수이던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전장에서 잘못되고 할머니는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본가로 갔다는것이였다.

할머니의 본가는 깊은 산골마을에 있었다. 그때부터 부분노장군의 후손들은 산골사람이 되였으며 가세도 기울어 벼슬길에 나설 엄

두를 내지 못하였다.

뒤늦게나마 이름난 장군의 가문에서 비흘과 같은 무술인재가 나타났으니 나라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을파소는 언제나 그러했듯 임금에게 상주하여 부하들을 적재적소로 소환했다.

먼저 비흘을 우릉걸휘하의 철기군장으로, 달문이도 평양에 주둔한 철기군의 부군장으로 천거하였다.

그리고 마영을 중리도독으로 소환하였다.

비록 나이가 어려도 남다른 재주와 일욕심이 있으면 크게 써주는것이 을파소의 변함없는 일본새였다.

을파소는 중리도독이였던 락도상에게 벼슬품계를 더해주고 연나부의 평자로 돌려앉히였다.

연나부의 평자이던 명림어수를 평양태수로 옮겨놓은것은 을파소의 다음번 큰 일감, 평양을 나라에서 세손가락에 꼽히는 큰 고을로 일신시켜야 하기때문이였다.

을파소는 졸본산성의 행궁의 락성식을 경축하여 2죄이하의 죄인들을 용서해주자는 상주문을 임금에게 올리였다.

고구려에는 죄인들에게 지은 죄의 크기에 따라 사형, 류형, 도형, 장형, 태형의 다섯가지 형벌을 가하는 법이 있었다.

죽을죄를 진자들에게는 사형 즉 목을 버이는 참형과 목을 매다는 교형을 가했는데 이 두가지 형벌을 가리켜 《2죄》라고 하였다.

을파소의 제의에 따라 임금은 2죄이하의 죄인을 모두 용서하여 옥에서 내보내는 대사령을 실시하였다.

또 한가지 일을 처리한 을파소는 부임되여가는 명림어수와 함께 평양에 갈 결심이였다.

자신이 직접 평양땅을 구석구석까지 밟아보면서 대궐자리도 잡아주고 거기에 쌓을 성의 모양새도 일러주고싶어서였다.

도읍을 떠나기에 앞서 을파소는 후한의 도성으로 가야 할 안류의 둘째아들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 신변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라

는 당부를 하였다.

뿐더러 왕지길에게 양평에도 사람을 보내 조정에서 바호와 정우의 신변때문에 근심하고있다는것을 전하게 하였다.

그 다음 고우루와 연인에게는 조정을 잘 이끌라는 당부를 하였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을파소는 중실부인에게 한달쯤 평양행을 하려 하니 길떠날 차비를 해달라는 분부를 하였다.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을파소의 팔을 잡아 평상에 앉힌 중실부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간청했다.

《국상어른, 첩이 국사에 참여하는것은 실례되는 일이오만 제발 제말 좀 들어주사이다. 수하에 쟁쟁한 젊은 부하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국상어른이 백사만사를 다 그러안고 직접 실행하려 하나이까. 지금껏 국상어른이 집에 계신 날보다 나가계신 날이 더 많소이다. 제발이지 그런 일은 부하들에게 맡기시오이다.》

눈물이 글썽해서 쳐다보는 중실부인을 지켜보는 을파소로서는 단마디로 그의 청을 거절할수 없었다.

남정네를 자기보다 더 아끼고 더 믿고 오로지 잘되기만을 바라는 이런 안해의 청을 선자리에서 눌러 덮어치우는것은 무례한 일인것이다.

내 오늘까지 거뜬한 마음을 안고 건강한 몸으로 임금님을 받들어올수 있은것은 이 녀인의 덕을 떼여놓고 론할수 없지 않는가.

을파소는 중실부인의 손을 꼭 감싸쥐였다.

그의 목소리는 안해에 대한 사랑으로 부드럽게 울렸다.

《임자 마음을 아네. 알기때문에 힘들지 않은거네. 그러나 생각좀 해보라구. 내 나이가 얼마인가? 내 십년만 젊었어도 임자가 바라는대로 하겠네. 나에게 요즘의 하루하루는 한해맞잡이일세. 그래서 큰일, 작은 일을 가리지 않는거네.》

중실부인의 두눈에서 눈물이 넘쳐났다.

《아니, 국상어른은 짧게 생각하고있나이다. 국상어른이 첩이 바라는대로 몸을 돌보신다면 십년 아니, 명림답부어른처럼 오래 살수

있다는것을 왜 생각하지 않소이까. 국상어른이 오래 사셔야 임금님에게도 나라에도 유익한 일을 더 많이 할수 있소이다. 그래서 첩은 국상어른을 보낼수 없나이다.》

을파소는 중실부인의 손을 어루만지며 두눈을 슴벅였다.

돌이켜보니 젊은 안해에게 너무한것 같았다.

안해를 즐겁게 해주기는커녕 옷 한벌 지어입도록 이 손으로 좋은 천도 구해다준적 없고 늘 나가살다보니 독수공방하는 날이 더 많게 하였다.

안해를 돌보지 않는 사내가 바깥일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는가.

《알겠네. 내 이번만 갔다와서 임자가 바라는대로 하겠네. 저녁에도 일찍 들어오고… 내 말을 믿지, 응?》

이번에는 반대로 을파소가 간청하니 현숙한 중실부인으로서는 물러서지 않을수 없었다.

《국상어른, 제 생각에는 님과 다진 언약을 저버린 녀인은 바른 행실을 잃지만 녀인과의 약속을 저버린 사내는 소인이 된다고 볼수 있소이다.》

을파소는 환하게 웃었다.

《아무렴, 고견일세. 임자의 고견을 잊지 않겠네. 아, 날 믿으라는데…》

중실부인도 환하게 웃었다.

이튿날 남쪽길에 오른 을파소가 탄 수레를 기마군이 호위하여 나갔다.

수레에 몸을 실은 을파소의 생각은 후한에 가있었다.

양평에서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후한에서 또다시 할거세력들이 들고일어났기에 그를 진압하려 조조가 직접 대군을 거느리고 도성을 떠났다고 한다.

이제 조조가 할거세력들을 평정하고 소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면 또다시 고구려와 싸우자고 할것이다.

강토가 크고 인구가 많은것을 뽐내며 남을 얕보는데 버릇된 그네

들이니 우리에게 된매를 맞은 지난날을 잊을수도 있을것이다.

어느때 그 어느 대적이 달려들어도 단매에 쳐물리치자면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을파소의 근심은 커만 가는데 그와 함께 있게 된 명림어수는 너무 좋아 싱글벙글하였다.

이번에도 명림어수는 제 버릇대로 질문을 꺼내들었다.

《국상어른께 하나 묻고싶소이다. 현명한 임금이라 이름난 류리명왕이 해명태자를 자결하게 한 일을 어떻게 리해해야 하오이까?》

깊은 생각에서 깨여난 을파소는 웃지 않을수 없었다.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차이나는것일가. 반드시 먼저 말을 건네야만 입을 여는 안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먼저 입을 열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명림어수와 같은 사람이 있으니…

《해명태자라…》

해명태자를 생각할 때면 마음이 슬퍼지고 그의 죽음이 과연 옳은것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는 을파소였다.

해명태자의 죽음이 가문의 조상인 을소때 일이기에 더 잊을수 없었다.

어이하여 바른 정사에 힘썼다는 그 어른이 해명태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을것인가.

그때로 말하면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방금 천도를 해온 시기라 하지만 고구려는 보다 더 국토통일을 제일가는 국사로 내밀고있었다.

한나라의 침입을 쳐물리치고 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고구려에게 남쪽으로 린접한 황룡국이나 안평국 같은 동족의 나라들이 귀속되여오는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였다.

해명태자는 졸본을 지키라는 어명을 받고 옛 도성에 남아있었다.

장차 고구려의 주인이 될 해명태자가 천하없이 무술에 뛰여났다는 소문을 들은 황룡국왕은 그의 마음을 떠볼 속심으로 대단히 센 강궁을 선물로 졸본에 보내였다.

한창 혈기의 해명태자는 어서빨리 하나로 모여살고싶어하는 겨레

의 소원을 외면한 황룡국왕을 미워하던 나머지 그의 사신들앞에서 강궁의 시위줄을 힘껏 끄당겨 꺾어버리였다.

보통사람들은 강궁을 만궁이 되도록 시위줄을 끄당겨낼 엄두도 내지 못하는것이였지만 힘장사로 알려진 해명태자가 황룡국왕을 미워하여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버렸으니 사신들은 어쩔바를 몰라 벌벌 떨기만 하였다.

이 사실을 안 류리명왕은 급히 황룡국에 사신을 보내여 태자가 자식으로서 이웃들과 의좋게 지내려 하는 나라의 뜻을 거역하였으니 불충불효자라고, 불충불효자를 불러다 처형해도 좋다는 밀서를 전하였다.

그래서 황룡국왕은 해명태자를 청해놓고 죽이려 하였으나 씩씩하고 름름한 그가 생각과는 달리 도량도 크고 웅심도 깊은 사람임을 알고 도리여 많은 례물까지 주어 보냈다.

하지만 류리명왕은 비록 한번일지라도 일단 나라의 뜻을 거역한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하는 길뿐이라는 어지를 졸본에 내려보냈다.

이리하여 해명태자는 21살의 애젊은 나이에 목숨을 끊은것이였다.

죽지 않았으면 분명 고구려를 위해 큰일을 하였을 해명태자를 그려보는 을파소의 두눈에 눈물이 고여올랐다.

《참으로 나라일이란 갈래가 많고 사사로운 인정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으이. 아직은 강토도 크지 못하고 군사도 수십만명이 못되는 그때 류리명왕으로서는 그렇게 할수밖에 없었네. 밖에서는 대국이라 으시대는 한나라가 기어코 먹으려고 칼을 갈고있기에 고구려로서는 피를 흘리지 않고 동족의 강토를 합쳐야만 했거던. 활을 꺾어버린 해명태자는 힘이 아니라 리치와 정으로 동족의 나라들을 포섭하려는 부왕의 뜻을 순간이나마 잊었던 자신을 뉘우쳤기에 서슴없이 목숨을 끊었던거네.》

눈굽을 닦는 을파소의 목소리는 축축히 젖어있었다.

《해명태자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네. 피를 흘리지 않고 겨레의 강토를 이으려 하는 고구려임금의 뜻과 위엄앞에 무릎을 꿇은 황룡국

왕도 안평국왕도 인차 귀순해왔거던. 난 자네가 죽음으로 동족의 화합에 기여한 해명태자를 잊지 말고 평양의 주인으로서 할바를 찾아하리라고 믿네.》

그 말에 명림어수는 깨달아지는것이 있었다.

고구려의 남쪽관문으로서 평양은 동족의 나라들과 지경을 가까이 하고있었다.

패수건너에는 락랑국과 대방국이 있으며 그 나라들의 남쪽에 신라와 이웃한 백제가 있다.

평양을 큰 도회로 일떠세우는것은 그 고장이 박달임금이 세운 조선의 옛 도읍이기도 하고 또한 동족의 강토를 이어놓는 본거지로 되기때문이였다.

그러니 태수로서 할바는 평양을 일떠세우는것과 함께 정예한 대군을 주둔시켰다가 겨레의 강토를 하나로 이을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것이였다.

《민심을 얻는데서 무엇이 선차이오이까?》

명림어수의 질문에 을파소는 심중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뭐니뭐니해도 국법을 어기고 남의 재산을 빼앗는 악한자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상을 공정하게 내리며 례의에 어긋나는짓을 내버려두지 말아야 하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것은 자식이 없는 늙은이와 부모없는 아이들을 돌봐주며 너무도 가난하여 혼기를 놓친 처녀, 총각들의 짝을 무어주는것일세. 그러면 얼마든지 민심을 모을수가 있네.》

《명심하겠소이다.》

존경의 눈길로 을파소를 쳐다보던 명림어수는 얼굴을 흐리였다.

을파소의 얼굴에 지난해보다 주름살이 많아진것이 뚜렷했기때문이였다.

아, 늙지 말아야 할 사람이 늙어가는구나. 나라에 더없이 귀중한 국상어른을 오래오래 살수 있게 하는 비방은 없는지… 그런 비방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을파소와 명림어수가 국사를 론하며 가고있을 때 먼발치에서 그의 일행을 따르는 희동은 이를 갈고있었다.

《국상, 이놈! 네가 나를 망하게 만들고도 무사할줄 알았느냐?》

을파소의 수레를 쏘아보는 희동의 세모진 두눈에서 살기가 무섭게 번쩍거렸다.

제 집뜨락에 묻어둔 보물의 행처를 아는 시녀들을 감쪽같이 없애치우라는 발기의 령을 받고 국내성에 기여든 희동에게는 불행한 소식이 기다리고있었다.

발기의 일거일동을 살펴온 극실기가 그 시녀들을 통해 알아낸 보물을 몽땅 파내여 국고에 넣었다는 소식이였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 깊은 밤 경당으로 만든 발기의 집에 기여들어 보물을 묻었던 자리를 쑤셔보니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 희동이로서는 악이 날만도 하였다.

발기가 숨겨둔 보물로 말하면 실은 좌가려의것으로서 고스란히 희동이 자기의것이기도 하였다.

반란을 일으킬 때 같아서는 단숨에 룡상을 빼앗아낼듯 허세를 부렸던 발기가 아무런 맥도 추지 못하고 후한으로 도망치는 꼴을 본 희동은 더는 그를 따라다녀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비로소 희동은 조정과 맞서는것이 맨발로 바위차는 격임을 깨달은것이였다.

그래서 후한의 대군이 고구려에 기여들었을 때에도 절대로 이길수 없다고 생각했다.

조정의 권세를 쥔 아비가 나라를 심히 어지럽혔을 때에조차 고구려를 어쩌지 못한 후한이 민심을 모아 보다 강대해진 오늘의 고구려를 절대로 당할수 없음은 뻔한것이였다.

그것을 알면서도 발기를 따라 후한군과 동행한것은 국내성에 숨겨놓은 아비의 보물때문이였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보물을 남몰래 빼내가지고 어데로든 도망쳐가면 더는 치사스럽게 남의 손발노릇도, 동냥바가지를 들고다니는

신세도 면할수 있을것 같았다.

천신만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늘처럼 믿던 보물을 찾아왔는데 그게 다 뜬 구름처럼 사라져버렸으니 희동은 을파소를 원망하여 한을 품게 되였다.

누구나 한을 품었다고 해서 쉽게 사람을 죽이지는 못한다.

그러나 희동은 한을 품은 을파소를 죽이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었다.

반란을 일으켰던 아비가 처형된 후 숨어살아오는 나날 희동이 스스로 깨달은것은 을파소와는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다는 그것이였다.

을파소만 아니였다면 이 희동이의 신세가 오늘처럼 가긍하지 않았을게 아닌가.

5부의 대가들을 둘러보면 아비와 같은 사람은 풀대처럼 무수한 반면에 을파소와 같은 사람은 흰범만큼이나 보기 드물거던. …

그러니 을파소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비가 죽음을 당했어도 그와 같은 대가들이 조정을 차지했을것이고 그렇게 되였다면 발기가 임금으로 될수 있었을게 아닌가.

발기가 나라를 가지였다면 설사 보물이 고스란히 그의 차지로 되였어도 그 대가로 이 희동이는 권세를 부리는 큰 벼슬을 받았을것이다.

권세야말로 금도 재물도, 부릴 사람도 다 나오게 하는 재주방망이인데…

그 재주방망이만 가지였다면 아비처럼 얼마든지 큰 부자로 될수가 있었을게다. …

을파소가 탄 수레를 쏘아볼수록 희동은 악이 나서 견딜수 없었다.

국상, 저놈이 살아있는 한 역적명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이 희동이 절대로 마음편히 살수 없어. 당장 쳐죽였으면 좋겠는데… 내가 저 국상을 없애치우면 세상이 어찌될가.

을파소만 거꾸러지면 5부에 무수한 아비와 같은 대가들이 또다시

권세를 쥐게 될것이고 바로 그들이 자기네 세상을 찾아준 이 희동이를 공신으로 내세워줄것이다.

그러하기에 나는 기어코 을파소를 없애야 한다.

지금껏 발기의 령을 받고 너를 죽이려 했다가 운수가 불길하여 랑패를 보았다만 이번에는 실수가 없을것이다.

그림자마냥 소리없이 네뒤를 따르다가 으슥진 곳에 이르면 비수로가 아니라 활로써 단방에 쏘아눕힐테다.

을파소가 없어야만 내가 잘살수 있으니 하늘도 명을 다 산 늙은이가 아니라 앞길이 구만리같은 희동이 나를 도울것이다.

《아무렴, 네놈은 끝장이야.》

때로는 향방없이 굴러오던 돌이 수레를 치워 뒤집어놓고 갈잖은 놈이 더없이 귀중한 사람을 해치울수 있다고 이자가 을파소의 신상에 어떤 화를 들씌우겠는지는 아직 누구도 알수 없었다.

(11)

을파소가 평양을 도읍에 못지 않는 큰 도회로 일신시킬 작정을 하고 그곳을 찾아갔다는 말을 전해들은 우소는 대문밖에 나와 멀리 남쪽하늘을 바라보고있었다.

지금 우소는 구슬프고 답답했다.

그 까닭이 무엇때문에서인지 우소는 잘 알고있었다.

이제는 국상이 되려 했던 꿈을 영영 버려야 하고 나라의 정사에도 전혀 참여할수 없었다.

그러니 이게 무슨 삶이란 말인가.

내가 무엇때문에 국상이 되려 했던가.

그 리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름도 날리고 직접 막강한 권세를 다루고싶었기때문이였다.

물론 국구라는 지위만으로도 얼마든지 부귀도 극진하게 누릴수 있

고 측근들을 시켜 하고싶은 일을 해낼수 있다.

그러나 국상이 되여야 천하에 이 우소의 존재를 당당하게 알릴수도 있고 만인을 쥐락펴락할수 있기에 그것을 꿈꾼것이다.

헌데 을파소가 나타나는 바람에 그 꿈이 헛꿈으로 되고말았다.

《참 인생이란…》

그렇다고 이전과 달리 을파소에 대한 질투심은 없었다.

내가 국상이 되였더라면 나라가 어찌되였겠는가.

확신하건대 이 나라 고구려는 발기의것이 되였을것이다. 이 나라가 악독한 발기의것이 되였더라면 임금의 동생들부터가 무사치 못했을것이고 이 우소도 우왕후도 다른 사람들도 목숨을 잃었을것이다.

그로 하여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고 나라의 기강은 땅바닥에 떨어졌을것이다.

그것을 막아낸 사람이 다름아닌 저 을파소이다.

내가 국상이였다면 을파소처럼 조정도 쇄신하고 외적의 대군도 물리쳤을가?…

우소는 고개를 떨구었다.

스스로 인정하기에는 얼굴이 뜨겁지만 내가 국상으로 되였다면 조정은 나라의 조정이 아닌 제나부의 조정이 되였을것이고 인재등용은 생각지도 못했을것이다.

그로 하여 국력은 좌가려네때와 다를바없고 강포한 외적의 침노에 나라가 진통을 겪었을것이다.

결국 고구려에는 내가 아니라 을파소가 필요한것이 아닌가.

시골뜨기라고 깔본 저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까지 강해지다니…

을파소의 덕망은 또 어떠한가.

내가 국상이 되였다면 나를 헐뜯고 미워하던 사람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았을것이다.

그런데 을파소는 나를 용서해주었다. 아니, 구원해주었다.

그가 발기와 인연을 끊도록 해주었기에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도 역모에 말려들어 목없는 귀신이 되고말았을것이다.

그 덕에 나는 여전히 국구의 지위를 잃지 않고있다.

그러니 을파소는 나의 귀인이고 은인이다.

이런 사람을 다소나마 도울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에게는 나 같은 사람이 소용치 않다. 마음을 고쳐먹은 오늘 내 그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국상이 부디 오래 살기를 룡신에게 비는것뿐이다.

우소의 이런 마음을 알리 없는 을파소는 며칠만에 천여리길을 축내고 평양에 들어섰다.

그 다음날로 평양의 문무관리들을 불러들인 을파소는 어명을 받들어 명림어수가 평양태수로 부임되였음을 알리였다.

이어 한걸음 먼저 평양에 온 철기군장 달문이와 함께 군진들을 돌아보면서 방비실정을 료해도 하고 부족되는 군량은 평양관가에서, 말갑옷과 마면갑은 국내성의 병기장에서 보내주게 하는 대책을 취했다.

그와 동시에 진대법의 집행정형을 알아보고 진대미를 엄하게 다루도록 하였다.

얼른잠간사이에 열흘이 흘렀다.

이날도 하루종일 명림어수가 바른 정사를 내밀수 있도록 도와준 을파소는 저녁상을 물리기 바쁘게 잠자리를 찾았다.

너무 피곤도 하고 래일부터는 임금을 모실 행궁터자리를 잡아야 하니 일찍 쉬고싶었던것이다.

관사는 그만하면 깨끗하였다.

자리에 누웠는데 곁에 앉은 명림어수가 입을 열었다.

《한가지 물어봐도 일없겠소이까?》

명림어수를 돕고싶은 마음인 을파소는 피곤을 무릅쓰고 일어나 앉았다.

《말하게, 어서…》

《저… 국상어른께서 인재를 쓰시는데서 법도로 삼는 그 무슨 비결 같은것에 대해 알고싶소이다.》

한동안 말없이 명림어수를 바라보던 을파소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벼슬길에서 깨달은바가 있는데 그것은 인재를 옳게 천거해 쓰자면 그에 앞서 사람의 자질을 옳게 가려볼줄 알아야 한다는거네.》

비로소 을파소가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고있었던바를 알려준다는것을 알아차린 명림어수는 숨을 죽이였다.

《내 체험에 의하면 부하들의 언행을 살피는것만을 중시하는 사람은 열명을 거느릴수 있으며 아침일찍부터 저녁늦게까지 애써 일하는 장점만을 가진 사람은 백명을 거느릴수 있네. 그리고 강직하고 사려깊으며 정사에 능한 사람은 천명을 거느릴만 하다네.

씩씩하고 열정도 있고 남의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만명을 맡길수 있다네.

사람을 재주에 따라 쓸줄 알고 사람들사이에 불화를 없애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낼줄 아는 사람은 능히 십만명의 부하를 거느릴수 있지. 십만명의 부하를 거느릴만 한 사람이라야 임금을 받들어 국력을 떨칠수 있는거네.

난 자네가 십만명의 부하를 거느릴수 있는 자질을 키우기 위해 분발하리라고 믿네.》

가슴이 뭉클해진 명림어수의 두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였다.

《이젠 자자구.》 하고 말한 을파소가 두눈을 감는데 문득 웬 젊은이의 글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런데서 글읽는 소리를 듣게 되리라고 생각지 못했던 을파소는 저절로 귀가 강구어졌다.

무슨 책을 읽는 소리일가?…

좀 있어 을파소는 고구려의 력사와 지리를 서술한 책을 읽고있다는것을 가려들었다.

글을 배운 사람치고, 바른 정사를 바라는 사람치고 제 나라의 력사와 풍토를 관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웬 젊은이가 밤에도 책을 읽는것일가?…

만나보고싶었다.

또다시 피곤을 무릅쓰고 자리에서 일어선 을파소는 글읽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관사의 후문을 나서니 키낮은 울담을 두른 초당에서 한 젊은이가 등불아래 책을 읽고있었다.

기름한 얼굴에 반달모양의 눈이며 날이 선 코… 어느모로 보나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젊은이였다.

을파소는 대개 이런 생김의 젊은이들이 총명하고 민첩하다고 여기는터였다.

그 젊은이의 모습우에 젊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덧그리며 인기척을 낸 을파소는 나직이 물었다.

《젊은이는 어이하여 밤에도 책을 읽느뇨?》

젊은이는 책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대꾸하는것이였다.

《아는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지 않소이까.》

더욱 마음이 끌린 을파소에게는 생면부지의 젊은이가 남같지 않았다.

《아는것이 힘이라지만 아는자를 써주지 않으면 초야에 묻히고마네. 그렇지 않은가?》

그 말에 젊은이가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를 들으니 로인님 같은데 버릇없이 군다고 나무람마소이다. 물론 인재일지라도 써주지 않으면 빛을 낼수 없소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전과 다르오이다. 지금은 국상이 임금님을 받들어 인재를 찾아내여 써주고있소이다. 그러니 이런 때 애써 문무를 다지면 반드시 빛을 낼수 있소이다.

그래서 전 나라의 인재가 되기 위해 낮에는 무술을 닦고 밤에는 이렇게 책을 읽는것이오이다.》

그 말이 을파소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었다.

나라의 인재가 되겠단 말이지.

을파소는 젊은이의 됨됨과 그의 학식이 어떠한지 알고싶었다.

《한밤중에 책읽기를 방해해서 안됐네. 하나 물어도 될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것이 무엇이고 진실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것 같은가?》

젊은이의 대답이 즉시 뒤따랐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것은 뜻을 같이하는 벗이기에 재물을 잃는것은 작은것을 잃는것이고 벗을 잃는것은 큰것을 잃는것이라 할수 있소이다.

사람의 마음을 진실로 움직이려면 덕으로 덕을 가꾸는것이오이다.》

마치도 그런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렸던것처럼 류창한 대답에 을파소는 탄복했다.

이 정도이면 인재로 키울수 있을것 같았다.

을파소가 치하를 하려는데 젊은이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큰절을 하는것이였다.

《소인이 미처 국상어른을 몰라보았소이다.》

을파소는 놀라왔다.

지금은 평민복색을 하였고 또 국상의 차림새일지라도 어둠속에 누구인지 알아볼수 없을것이였다.

《내가 국상인지 어떻게 아느냐?》

《관사에 국상어른이 와계신다는 말을 들었소이다. 지금껏 밤새 책을 읽어도 찾아온이 없었는데 밤중에 로인님이 찾아오셨으니 뒤늦게야 국상어른일것임을 짐작했소이다.》

을파소는 젊은이의 보는 눈에 또 한번 탄복했다.

《알겠다. 그런데 자넨 누구뇨?》

《소인의 이름은 음우라 하고 스무살이며 고향은 평양이고 본적지는 비류부인줄 아오이다.

소인의 아버지는 이곳에서 처려근지로 있다가 십여년전에 병사하셨소이다.》

음우를 알게 된 을파소는 만족스러웠다.

이 젊은이에게 관가의 문서를 맡기면 어떨가?…

뜻하지 않게 안류의 둘째아들을 이역만리로 보낸 후 아직 그 후임을 고르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다음해 구려경당을 마치는 륙손이를 쓰려 했는데 출신도 좋고 똑

똑한 음우를 만났으니 이것도 복인것 같았다.

《내곁에서 일하고싶어 그런것 같은데 써주면 나를 따라다니겠느냐?》

《그게 참말이오이까?》

놀라와하던 음우는 옷깃을 여미고 아뢰였다.

《정말 고맙소이다.》

을파소는 음우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좋아, 자네 이 고장에 태를 묻었을테니 마침일세. 래일부터 이 고장을 구석구석까지 돌아보려고 하는데 길잡이를 해야겠다.》

《알겠소이다.》

이튿날 을파소는 행궁자리를 잡는 일에 나섰다.

함께 동행하겠다는 명림어수를 고을정사에 전심하도록 훈시하여 보내고 호위군사들도 달고 다니면 여러모로 번거롭다며 떼여놓은 을파소는 백성차림으로 거처지를 나섰다.

일행으로는 음우 한사람뿐이였다.

하루종일 말을 타고 다녀도 끝이 없는 넓은 평양은 돌아볼수록 천하제일강산이라 일컬을만큼 아름다왔다.

더없이 훌륭한 명당자리이기에 박달임금이 바로 이곳에 도읍지를 정했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갔다.

박달임금의 대궐이 있었다던 왕검성터도, 그 시절 하늘임금인 천제에게 제를 지낸 제단터도, 썰물에는 드러나고 밀물에는 잠기는 패수복판의 조천석도, 평양이 굽어보이는 구룡산도 돌아보고 이어 박달곶촌을 찾았다.

박달임금이 태여난 곳이라고 하여 박달곶촌이라 불리우는 고장에 박달임금의 무덤이 있었다.

무덤에 제를 드리고 어린시절 박달임금이 무술을 닦았다는 아달산에 올라서니 천하가 발밑에 누워있는듯싶었다.

북쪽으로는 개마산너머의 아득히 먼 광활한 북방의 강토가 보이는듯싶고 남으로는 좌도(쯔시마)와 우도(탐라)가 떠있는 남해의 푸른

물에 두발을 잠그고싶은 심정이였다.

그게 다 선조의 강토였으니 어찌 그런 충동이 나지 않겠는가.

겨레의 이 모든 강토가 하나로 이어진듯 한 무아경에 취해있던 을파소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넌 지금 우리 나라가 얼마만큼 강하다고 생각하느냐?》

음우는 흥분해서 대답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강국일것이라고 자랑하고싶소이다. 땅덩어리가 크다고 작은 나라들을 우습게 여기던 외적을 우리 고구려가 통쾌하게 쳐물리치지 않았소이까.》

제자로 삼은 사람이라면 언제나 그러했듯 을파소는 련속 질문을 들이댔다.

《우리 나라가 무엇때문에 강한것 같으냐?》

음우의 대답도 거침없었다.

《군사의 힘이자 나라의 힘이고 군력은 군심과 민심에 따른다 했소이다. 조정에서 그전과 달리 진대법 같은 바른 정사로 민심을 모으니 해마다 풍년이 들고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고 어찌 백성이 나라를 받들지 않겠소이까. 백성들이 가난해도 내 나라 강토에 기여든 외적을 가만두지 않았는데 지금에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이까.》

을파소는 만족한 눈길로 음우를 바라보았다.

영채도는 두눈에 자신심이 넘쳐있는것은 아는것도 많고 나라를 위하려는 일욕심이 가득하기때문이다.

(이녀석도 명림어수만 못하지 않겠는걸…)

눈부리 아득한 산발들을 굽어보며 을파소가 말했다.

《민심과 군심에 군력이 좌우된다는 그 말도 옳다. 그러나 그보다 잊지 말아야 할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고구려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그것이다.》

부하들에게 그 어떤 강적일지라도 절대로 굽히지 않는 강의한 기질을 지닌 사람이 바로 고구려사람이라고 입버릇처럼 일러준 을파소는 음우에게도 그 말을 해주고싶었다.

《우리 고구려사람들에게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마는 남다른 기질이 없었다면 아무리 쌀독에서 쌀이 넘쳐나도 세상에서 제노라는 강적들과 싸워 이길수 없을게다.》

을파소는 음우에게 자기 손을 내보였다.

《이 손을 보아라. 이 손에서 손가락들을 다 펴고 그 개개의 손가락으로 적을 찌르면 끄덕도 하지 않을게다. 그러나 이 다섯손가락을 다 모아가지고 뭉쳐진 주먹을 만들고 그 뭉쳐진 주먹으로 적의 면상을 답새기면 어떻게 될것 같으냐.

겨레도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조상을 둔 우리 박달겨레모두가 하나의 강토를 이어놓는다면 그 힘을 당할자 세상에 없게 된다.

우리 강토를 하나로 잇는 일에서는 빈부귀천이 따로 없고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 따로 없다는걸 사람들모두의 마음속에 심어주어야 한다.

바로 그러하기에 난 우리 임금님이 이 고장에 나와 그런 국사를 펼칠수 있도록 행궁을 일떠세우자는게다.》

음우는 두손을 마주잡고 다짐하듯 말했다.

《소인이 어떻게 하나 국상어른의 마음에 드는 행궁자리를 찾아내겠소이다.》

《고맙다.》

아달산을 내리는 그들을 먼발치에서 남몰래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

국내성에서부터 검질기게 꼬리를 물고있는 희동이였다.

(12)

보름나마 행궁자리를 찾아 평양의 곳곳을 돌아보는 을파소는 이 아침 음우를 앞세우고 패수(대동강)의 청암산에 올랐다.

푸른 바위가 있어 청암산이라 불리우는 산마루에 올라선 을파소는 한동안 강물이 굽이치는 절벽을 끼고있는 골안을 굽어보았다.

이 산에 오르는지도 세번째였다.

늦어 열흘안에 행궁자리를 선정하리라 생각했었는데 아직도 헛물을 켜고있으니 등이 달아올랐다.

을파소가 아직도 앉아뭉개는것은 마음에 드는 자리가 없어서보다 너무 많기때문이였다.

여기도 마음에 들고 저기에도 마음이 끌리니 그래서 결심을 내리기가 힘들었던것이다.

함박메(모란봉)를 가리키며 을파소가 입을 열었다.

《이 고장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박달임금님을 모셨던 구제궁이 저 산중턱에 있었다고 하는데… 딱히 그 말이 옳은지는 모르겠다만 정말로 그렇다면… 그 말이 사실일가?》

벌써 여러번이나 함박메를 돌아보고서도 그에 대해서 또 물으니 음우로서는 어안이 벙벙할수밖에 없었다.

을파소도 어처구니가 없어 웃고말았다.

을파소에게는 구제궁자리(함박메)가 그중 마음에 들었다.

허나 박달임금의 후손으로서 시조임금의 대궐자리에다 감히 후대임금의 행궁을 차려놓을수 없기에 돌아서고말았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박달임금의 궁궐은 강기슭으로부터 9개의 돌층계를 거쳐야 오를수 있다는것이다.

그래서 후세의 사람들이 구제궁이라 불렀는데 온통 푸른빛이 찬란한 옥돌로 지은 아름다운 궁전은 천하에 그 하나뿐이였다는것이였다.

마침 썰물이라 강복판에 드러난 너럭바위뒤 조천석에로 눈길을 옮긴 을파소에게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이 골안에 있는 옛성터도 단군조선의 성자리라는데 그렇다면 구제궁이 마주 바라보이는 이런 곳에 행궁을 앉힐만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바로 이거다. 모든것은 생각하기탓이라고 구제궁가까이의 이 자리는 과시 명당자리라고 할만 하다.

마침내 이 골안의 옛성터에다 행궁을 짓기로 결심한 을파소는 그

제야 만족함을 느끼였다.

행궁을 짓고 또 성벽의 자리를 따라가며 성벽을 다시 일떠세우면 위나암성이나 졸본산성에 못하지 않을것이였다.

(아니, 그것들보다도 우월해.)

패수의 덕택으로 성이 물우에 떠있는듯싶은 이런 형국은 다른데서는 찾아보기 힘들것이였다.

기분이 뜬 을파소는 바위우에 걸터앉으며 음우에게 제곁에 와앉으라는 손짓을 하였다.

《이번에 네가 큰일을 했다.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면 상을 내리게 되여있으니 어떤 상을 준다?》

을파소의 곁에 와앉은 음우가 웃으며 대꾸했다.

《이렇게 국상어른의 곁에 와앉았으니 큰 상을 받은것이 아니겠소이까. 그리고 소인은 모르는걸 가르쳐주는 상을 제일 좋아하오이다.

아직 정오가 되려면 시간이 있사온데 그동안 무엇이든 배워주사이다.》

을파소는 환하게 웃었다.

《좋아, 그래 어떤걸 알고싶으냐?》

음우는 남쪽을 가리켰다.

《제 알기에는 백제와 신라 그리고 가야는 진국의 강토였다는데 그들도 동족의 나라라 볼수 있나이까?》

음우의 손을 잡은 을파소는 길게 숨을 내쉬였다.

《진국이라… 하긴 네 나이에 아직은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으니 그럴수 있지.

똑똑히 알아두거라. 백제와 신라, 가야가 차지한 강토가 진국의 강토이기 전에 그 땅은 박달임금께서 세우신 단군조선의 강토였다는거다. 물론 사람들도 한피줄을 이은 한겨레였지. 박달임금의 단군조선에서는 남쪽에 진국이라는 후국을 두었는데 오랜 세월의 변천과 더불어 진국이 떨어져나간게다.

세월이 흐르니 진국이 쇠락해지고 그 땅에서 대신 백제도 신라도

가야도 생겨났다.

게다가 백제는 동명성왕의 왕자인 온조를 시조로 여기고있지. 옛적에 온조는 나라를 세울 뜻을 품고 부아악으로 가서 십제라는 소국을 세웠었지. 그 십제가 오늘의 백제로 되였단다.》

을파소는 자기의 말을 귀담아듣는 음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신라도 마찬가지야. 처음 그 땅에다 사로국이라는 소국을 세운 사람을 박혁거세라 하는데 그도 본시 단군조선에서 백성들을 거느리고 남하해간 북쪽사람이란다. 피줄이 하나이면 동족이 아니겠느냐.

박달겨레의 강토를 하루빨리 하나로 이어놓으려면 평양을 크게 일떠세우고 평양에 의거해서 동족의 나라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정오를 가리키는 해를 본 을파소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니 어서 가서 한잔씩 하자꾸나.》

껄껄 웃는 을파소를 향해 숲속에서 희동이 활을 겨누고있었다.

음우를 앞세우고 산을 내리는 을파소를 향해 희동이 시위를 놓자 핑!— 소리와 함께 화살이 튕겨나갔다.

허나 천만다행으로 희동이가 쏜 화살은 을파소의 어깨부위를 스치고 지나가고말았다.

평양성을 크게 일떠세우리라는 흥분된 마음을 안고 산을 내리던 을파소는 난데없이 날아드는 화살에 놀라 몸을 비틀거렸다. 몸중심을 잃고 가려던 방향과는 반대쪽의 벼랑으로 넘어지는 을파소는 그만 그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젊은이도 아니고 두벌, 세벌자식들을 거느린 늙은이의 몸이 그 험한 벼랑에서 떨어지는 충격에 어찌 견디랴.

이에 당황한 음우가 황급히 벼랑에로 미끄러져내려 을파소를 부둥켜안았을 때 그는 가쁜숨을 몰아쉬고있었다.

모진 아픔속에서 이게 마지막이 아닐가 하고 생각하니 을파소에게는 몹시 슬퍼할 중실부인의 모습이 보이는듯싶었다.

그의 두눈에서 눈물이 솟구쳐올랐다.

마감이야기

세월은 흘러 산상왕7년(203년) 8월, 고구려국상 을파소는 병이 악화되여 자리에 눕게 되였다.

여러날째 병상에 누워있는 을파소는 자신의 병세가 대단히 심하고 도저히 회복될수 없다는것을 알았다.

머리가 지끈지끈 쑤시고 온몸이 땅으로 잦아드는것 같고 툭툭 뛰던 맥이 한동안씩 끊어지는것은 로환에 흔한것이지만 잠들면 죽은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꿈이 찾아드는것이 바로 그것을 예고해주는것이 아닌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꿈이 잦은 늙은 병자들속에서 회복된 사람은 없다던데…

사실 을파소가 살아날수 있은것은 의술에 뛰여난 의신의 덕이였다.

을파소가 평양의 관사에 누워있다는 소식에 의신이 빠른 말을 타고 와서 손을 써준것이였다.

명이 진했음을 안 을파소는 서운하기 그지없었다.

좀더 오래 살아 세운 뜻을 이루자 했는데…

《아, 평양만이라도 일신시키였다면 이다지도 마음이 아프지 않겠는데…》

평양을 고구려의 세번째 가는 큰 도회로 일떠세우지 못한것은 을파소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였다.

평양을 천자국의 큰 도회로 만들자면 졸본이나 국내성에 견줄만큼 꾸려야 했다.

대궐도 짓고 성도 쌓고 만호장안이라 소리칠만 하도록 거리와 마을을 수많이 일떠세워야 했다.

뿐더러 도회밖의 백리일판에 산성을 많이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전국각지의 고을들과 마음대로 통하는 큰길도 내야 했다.

그동안 을파소는 평양을 적지 않게 일신시키였다. 이미 행궁을 졸본의것 못지 않게 완공하였고 거리를 좀더 내오고 큰길공사를 끝내면 고구려의 큰 도회라 소리칠수 있을것이였다.

한숨짓던 을파소는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 마음먹었던 일을 다하고 죽는이 없고 세운 뜻 다 이루고 가는이도 없는 법이다.

이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부끄럽게 살았다고는 할수 없다.

내 너무도 늦게 조정에 나와 무엇을 이루어놓았던가. …

을파소는 10여년의 벼슬길을 돌이켜보았다.

임금을 받들어 대대손손 힘을 겨루어오는 중원과 맞서 그네들의 침노를 쳐물리치고 바른 정사로 민심을 모은것은 다른 사람들도 할수 있는것이다.

정녕 이 을파소가 자부할수 있는 공이 무엇이냐?…

을파소는 곧 그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었다.

《조정을 인물가난에서 구제한것이 바로 나의 공이라고 할수 있어.》

고국천왕의 부름을 받고 조정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던 때를 생각하던 을파소는 뱀을 본듯 몸서리를 쳤다.

《그때는 정말 조정에 나쁜 사람들이 많았어.》

그때는 나라와 백성의 재물을 마구 앗아들여 제살궁리나 하는자들이 살판침으로써 국력이 기울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안류나 우거와 같이 충의로운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월은 옛말로 되였다.

을파소는 동량지신이라 당당하게 말할수 있는 사람들을 한명한명 그려보았다.

제일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중외대부 고우루였다.

이어 로환으로 잘못된 연인장군을 대신하여 지내외병마부사가 된 명림어수가, 그 다음 졸본태수 대실근, 평양태수 달문, 변방장수들인 우릉걸과 례복구, 비흘, 중리도독 마영, 사인들인 극실기와 왕지

길, 연나부 평자 락도상, 병기장을 맡은 뉴기, 양쇠루, 신성태수 덕문, 좌원고을의 처려근지 음우 그리고 지금도 목숨을 내대고 적국에 가있는 안류의 둘째아들, 바호, 정우, 비천한 출신으로 변방의 진의 진장이 된 구시, 늘 곁에서 시중을 들어주는 인우를 그려보았다.

해마다 구려경당을 비롯하여 각지의 경당들에서 인재를 추천하게 하고 해마다 성황리에 열리는 사냥경기에서 장수감들을 찾아내고 모든 조정대신들이 강직하고 청렴한 인물을 천거하는 법도도 굳어졌으니 이로써 나라에 인물풍년이 들어 국운은 날로 흥할수밖에 없을것이다.

한창 국운을 떨치는 나라는 감히 외적이 넘보지 못하며 설사 대적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두려울게 없는것이다.

지금 적지 않은 후한의 할거세력을 평정하며 조조가 천하를 호령하려든다고는 하지만 먼산 보듯 할것이다. 그가 아무리 고구려의 강토에 탐을 내여도 지금의 형편으로 우리를 건드렸다가는 만회할수 없는 패전을 당할것이오니 그 패전이 더 큰 반란으로 번져질것임을 모르지 않으니 감히 전란을 몰아오지 못할것이다. 그래 이것이 싸우지도 않고 적을 이기는 승전이 아니란 말인가.

이외 무엇을 론하랴. 그러니 나는 가도 고구려는 보다 강대해질것이다.

늘 조이고 살던 마음을 탁 풀어놓아서인지 온몸이 나른해지고 매미가 우는듯 귀울이가 심해졌다.

가만, 사람은 눈을 감을 때까지 산 사람들을 위해 이바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내 아직은 국상이니 할바가 있다.

이런 생각에 을파소는 병시중을 드는 중실부인에게 종이와 필묵을 가져오게 하였다.

중실부인에게 일렀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받아써주오.》

충신은 죽는 순간에까지 나라를 위해서 임금에게 바른말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니 나도 마땅히 임금께 마지막당부를 남겨야 할것이다.

그럼 어떤 당부를?!…

고국천왕이 무엇때문에 나라를 망칠번 했던가…

집을 지을 때 큰 재목으로는 들보와 기둥을 쓰고 작은것으로는 서까래를 쓰며 굽은것과 바른것을 가려서 알맞게 써야 집이 온전해지고 든든해진다.

집을 짓는것이나 나라를 다스리는것이나 그 리치는 같은것이다.

큰 재주를 가진 사람일수록 높은 자리에 앉혀야 하고 재주가 작은자일수록 낮은 자리를 맡겨야 한다.

그래야 국법이 통하고 부당한짓을 미리막아낼수가 있는것이다.

그런데 고국천왕은 인정에 사로잡히고 낯에 끌려서 서까래감으로도 쓰지 못할 외척것들을 하늘꼭대기에 두었으니 그래서 정사가 썩게 되였고 나중에는 임금의 자리마저 잃을번 하였던것이다.

설사 작은 재주를 가진자가 분수에 넘치게도 높은 자리에 올라 반역까지는 꾀하지 않을지라도 그런자는 나라라는 큰 짐을 지여나르기에 인차 골병이 들것이며 결국 골병을 면하자니 게으름을 부릴수밖에 없는것이다.

대신이 게으름을 부리면 정사는 어지러워지는 법이다.

군주가 재주를 자로 하여 인재등용을 제 눈을 아끼듯 한다면 어이 만년대계를 근심하리오.

이것이 임금에게 남기고싶은 마지막당부여야 한다고 을파소는 생각하였다.

그 다음 새로 국상이 될 후임에게 무엇을 당부할것인가?!…

국상은 누구보다도 탐욕을 미워해야 한다. 탐욕은 국사를 망치게 하는 근본이거늘 국상이 되는자는 이것부터 명심해야 할것이다.

나는 청렴을 자로 해서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셔야 하는 사람일수록 청렴한 인재를 쓰게 하였다.

국상은 청렴을 보검으로 백관속에 뢰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국록이상을 범하지 않게 하며 선과 악을 가르고 악을 벌하

며 천하고천하지 않은것을 가려 인재를 천거하는 일이 없도록 할것이다.

국상의 제일 큰 일감은 자기의 뒤를 이어갈 앞날의 국상을 키워내는것이다.

나는 후임으로 이미 고우루를 점찍고있다.

젊은 명림어수도 그렇고 음우도 탐욕을 미워하고 박식하며 궁냥도 트인데다 일욕심 또한 많으며 통도 크니 장차 조정을 이끌만 하다.

우릉걸, 비흘, 마영, 달문은 용맹하고 병법에도 밝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대군을 맡길만 하고 더불어 졸본, 평양과 같은 곳을 지키게 할수 있다.

안류의 아들들은 아주 신중하고 공명을 탐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큰 고을의 태수를 맡길만 하다.

대대손손 놓치지 말아야 할 국책이 무엇인가.

철기군을 기둥으로 수십만대군을 언제나 길러야 하고 성을 늘 보수하고 천하의 비밀무기인 화전을 더 잘 보전해야 한다.

화전의 위력을 일신시키자면 뭐니뭐니해도 염초를 더 많이 구워내야 한다. 염초장에 사람도 더 많이 넣어주고 걸린것도 더 잘 풀어도 주고…

그리고 화전의 위력을 높여야 한다. 그를 위해 재간이 좋은 사람도 찾아내고 조정에서 관심도 높이고…

동시에 염초의 비방이 남에게 새여나가지 못하게 단속도 하고…

을파소는 이 조치가 은을 낼것임을 믿어마지 않았다.

을파소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다.

후날 고구려에서는 보다 강력한 화약과 함께 지어는 그 무게가 무려 18톤에 달하는 천균노라는 화약무기를 만들어내여가지고 외적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을파소의 생각은 또다시 깊어졌다.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

옳지, 진대법을 바로 실시하고 권세를 부리는자들이 국법을 어기

지 못하게 해야 한다.

밖으로 동족의 나라들과 화친을 중시하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어야 한다.

이외 무슨 부탁을 더하겠는가.

지금껏 생각해두었던바를 중실부인에게 글로 받아쓰게 한 을파소는 그의 손을 꼭 감싸쥐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참말이지 미안하네. 늙은것이 젊은 임자에게 욕심을 부렸네.》

안해의 따스한 손이 을파소의 손을 어루만졌다.

《소녀는 복있는 녀인이오이다. 참사람을 모시였는데 그런 말씀 마시오이다.》

《고마우이.》

을파소는 륙손이를 불러들이고싶었지만 그만두고말았다.

을파소는 장가든 륙손이와 함께 살고있었다.

을파소는 륙손이에게 장차 국내성의 경당에서 후진을 키우는 일을 맡기자고 생각했었다.

(아무렴, 내가 죽어도 부인이 살아있으니 륙손이의 앞일도 잘될거야. …)

이제는 죽은 사람들의 곁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곧 혼미해졌다.

을파소가 정신을 잃었다는 소식은 즉시 임금에게 전해졌다.

을파소를 스승으로, 부모로 여기는 임금이 급히 찾아왔다.

뒤따라 조정대신들이 들어섰다.

의신이 있는 재주를 다해 침을 놓아 을파소가 정신을 차리게 하였다.

겨우 정신을 차린 을파소는 말도 할수 없었고 두눈에 정기도 없었다.

눈물을 머금은 의신이 임금에게 아뢰였다.

《대왕마마, 국상어른은 마지막숨을 쉬고있사옵니다.》

을파소의 두손을 움켜잡은 임금도 눈물을 흘리였다.

그렇다면 천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단 말인가.

오늘 아침 천관이 이르기를 간밤에 동녘하늘에서 밝은 별이 떨어진걸 보아 나라의 큰 인물이 잘못될것 같다고 하였었다.

그 말에 설마 앓고있는 국상이 잘못되기야 하랴 하고 믿지 않은 임금이였다.

오늘이 국상과의 마지막이란 말인가.

자식을 낳기보다 기르는것이 더 어려우며 가르치는것이 더 어렵다고 하였다.

이 몸에 어려있는 국상의 손길과 정을 어찌 다하겠는가.

걸출한 인물은 훨훨 나는 새와 같아서 얻기 어렵다 했다.

국상이 아니였다면 내 어찌 임금의 지위에 오를수 있었으며 태묘와 사직을 능히 보전해갈수 있었겠는가.

《국상!—》

임금이 목메여 부르는 소리에 을파소는 자기의 손을 움켜잡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국상! 나를… 나를 알아보겠소?》

애타게 부르짖는 임금의 목소리에 을파소의 두눈에 생기가 어리였다.

의신이 임금에게 귀띔했다.

《국상어른이 상감마마를 알아보셨소이다.》

눈물을 애써 참으며 중실부인이 종이 한장을 임금에게 내밀었다.

《이것은 어제 국상어른이 대왕님께 올리려고 써두었던것이오이다.》

임금이 들여다보니 종이에는 불과 한문장의 글이 씌여져있었다.

《따르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을 주는 사람에게 정을 주면 나라가 굳건해지오이다.》

입속으로 글을 읽은 임금이 목메여 부르짖었다.

《국상의 당부를 잊지 않겠소.》

지금 임금에게는 대단히 급한 국사가 제기되고있었다. 을파소의 후임으로 누구를 쓰겠는가 하는 그것이였다.

물론 그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것은 아니였지만 누구보다 뛰여난 을파소의 조언을 따르는것이 백번 지당할것이였다.

임금이 애타게 부르짖었다.

《누가… 누가 국상의 뒤를 이을만 하오?》

임금의 애타는 목소리에 간신히 정신을 다잡은 을파소는 중실부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뜻을 알아차린 중실부인이 얼른 을파소를 안아일으켜 앉히였다.

을파소의 손이 힘겹게 움직이더니 울음을 참느라 입을 싸쥔 고우루를 가리켰다.

어쩌면 자신의 생각과 꼭같은 을파소의 생각에 탄복한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임금이 바라는것은 그뿐이 아니였다.

임금은 다시금 애타게 물었다.

《그 다음은 누가… 누가 새 국상의 뒤를 이을만 하오?》

을파소의 눈길이 울고있는 명림어수에게 가있었다.

지금껏 부모의 정으로 키운 제자였다

명림어수를 바라보던 을파소의 몸이 굳어졌다.

숨진 을파소를 굽어보는 임금의 두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 더없이 훌륭하고 더없이 귀중한 사람이 죽다니…

나이는 많았어도 젊은이처럼 씩씩하고 오랜 장수처럼 전군을 통솔하여 외적을 쳐부시였고 타고난 재상인듯 옳은 주견으로 적합한 법을 제정하여 국력을 일신시킨 국상이다.

유순한 성미이나 불의한자들은 성난 범처럼 드세게 다스리고 조정을 쇄신함으로써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은이가 바로 이 사람이다.

위태로왔던 태묘사직을 지켜낸 이 사람의 공적을 어찌 개국공신만 못하다고 하겠는가.

지금 이 사람에게는 값나가는 재물이 별로 없다.

이로써 국상은 충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사람들이 알수 있게 하였다.

천하없이 강대한 나라도 골병에 들면 무너지기 쉬워도 병든 조정을 쇄신함으로써 또다시 강해지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허나 이 사람은 골병든 조정을 그러안고 우리 고구려를 남들이 삼킬수 없는 강대한 나라로 일떠세웠다.

나라의 재부중의 재부는 충의지사라고 하였다.

이 사람이 키워놓은 충의지사가 가득하기에 앞으로도 고구려는 강대할것이 아닌가.

사람은 많아도 훌륭한 결말을 짓는 사람은 보기 드물다 하였다.

세상에 이 사람만큼 좋은 결말을 크게 지은 사람이 몇몇이나 되겠는가.

이런 사람이 정녕 나라에 없어서는 안되는 제일가는 신하, 주석지신인것이다.

후손들은 마땅히 이 사람의 공적을 깊이 아로새기고 길이길이 본받아야 하리.

아, 선견지명의 뛰여난 재주를 지닌 이 사람을 살려낼수는 없는지…

세상에 진실로 죽은 사람을 도로 살려내게 한다는 신선세상의 환생꽃이 있다면 나는 이 사람을 위해 단숨에 달려갈것이다.

원통하구나!…

임금은 숨진 을파소를 와락 부둥켜안았다.

《국상!—》

임금도 울고 신하들도 울었다.

을파소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에 온 나라가 울었다. 을파소의 장례식은 그의 유언뜻대로 간소하게 진행되였다. 무덤도 평민처럼 크지 않게 만들어졌다.

을씨가문의 좌우명을 지켜 빈손으로 돌아간 을파소였다.

몸은 비록 빈손으로 돌아갔어도 강대한 고구려의 국상, 명재상이라는 큰 이름을 후세에 남긴 을파소였다.

강대한 고구려의 국상으로서 천하의 대국들도 만만하게 굽어보며 고구려사람의 기상을 떨친 을파소!

부국강병을 위해 자신을 바쳐 애쓰면 막혔던 길도 반드시 열린다는 진리를 실천으로 보여준 그것이 동방의 강대국으로서 그후 고구려가 수백만대적의 침략도 통쾌하게 쳐물리치는 장거로 이어졌으니 바로 여기에 을파소가 남긴 업적이 있는것이다.

하기에 박달겨레의 유구한 력사에는 을파소의 자랑찬 업적도 한페지를 아로새기며 세세년년 전해져가고있는것이다.

《산상왕7년 가을 8월에 을파소가 죽으니 온 나라 사람들이 매우 섧게 울었다.》(《삼국사기》 권 제45 렬전 제5)

장편사화 국상 을파소(증보판)

저 자	전 철 호
편 집	성 문 호
장 정	김수남, 류명구
교 정	리 명 찬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양인쇄공장
인 쇄	주체108(2019)년 5월 26일
발 행	주체108(2019)년 5월 31일

ㄱ-1432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31-118-0